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2494-10

© 2022-70 | 2022. 12. |

2022년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사업 보고서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협동연구기관
서울대학교



농림축산식품부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2022년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사업」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연구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책임자: 이계임 책임연구원
연구 참여자: 이용선 연구원
박기환 연구원
김상효 연구원
홍연아 연구원
최윤영 연구원
심환희 연구보조원
주준형 연구보조원
정소영 연구보조원

협동연구기관: 서울대학교
연구 책임자: 김관수 책임연구원
연구 참여자: 임정빈 연구원
김채리 연구보조원
박지용 연구보조원
임창식 연구보조원
최현동 연구보조원

I. 서론

제1장 사업 배경 및 내용

1. 사업 배경	3
2. 사업 목적	6
3. 사업 범위와 구성	7
4. 2022년 과제별 사업 내용	14

제2장 연구 방법 및 추진 체계

1. 연구 방법	22
2. 추진 체계	42
3. 연구진 구성 및 역할 분담	44

II.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 및 전망, 식품산업 이슈 분석

제1장 식품산업 동향

1. 식품제조업의 규모와 위상	49
2. 2021~2022년 식품제조업 출하 및 물가 동향	57
3. 2021~2022년 식품제조업 고용 동향	77
4. 식품 수출입 동향	79
5. 경영실적, 비용구조, 경기 동향 및 전망	84

제2장 2022년 식품산업 이슈

1. 식품산업 이슈 관련 설문 조사 개요	91
2. 2022년 상반기 식품산업 동향 및 경영실적	92
3. 식품산업 여건 관련 이슈	98

제3장 국제원재료 가격 상승의 가공식품 물가 파급영향

1. 식품 물가와 원재료 가격 동향	103
2. 원재료 가격 동향 및 전망	106
3. 국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가공식품 물가 파급영향	110
4. 원재료별 가격상승률과 원가 상승 요인	111
5.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물가 파급영향계수와 파급영향	113
6. 산업계 요구와 정부 대응	115
7. 시사점	117

제4장 세계 식품시장 동향

1. 세계 식품시장 동향	119
---------------------	-----

Ⅲ. 식품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및 연계구조 분석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5
2. 연구내용	126

제2장 식품산업

1. 식품산업의 정의	127
2. 산업연관표의 식품산업 분류	129
3. 식품산업 현황	135

제3장 식품산업 연계구조 분석

1. 산업연관분석	139
-----------------	-----

2. 생산유발계수	142
3.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	148
4. 부가가치유발계수	151
5. 취업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	154

제4장 2020년 식품산업 투입산출구조 분석

1. 분석 개요	158
2. 전체 식품산업 공급과 수요 흐름	160
3. 국내산 농림수산물 공급 흐름	170

제5장 코로나19로 인한 식품산업 영향과 전체산업 파급효과

1. 코로나19로 인한 식품산업 변화	172
2. 코로나19 이후 식품산업의 수요 변화	175
3. 분석 과정	177
4.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181

IV. 가공식품 소비 지출 분석

제1장 가구의 식품비 지출 분석

1. 가구의 식품비 지출 추이	189
2.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액 추이	198

제2장 가구의 가공식품 품목별 지출구조 분석

1. 가공식품 상위 품목별 지출 추이	205
2. 주요 육류 가공품 지출 추이	213

3. 주요 유제품 지출 추이	221
4. 주요 주류 지출 추이	231

제3장 가구의 가공식품 지출 결정요인 분석

1. 개요	239
2. 총 식품비 및 식품 소비 유형별 지출액 결정요인 분석	242
3.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액 결정요인 분석	247
4. 주요 가공식품 품목별 지출액 결정요인 분석	258

제4장 2022년 가구의 가공식품 지출 동향 및 2023년 지출 전망

1. 2022년 가구의 가공식품 지출 동향	267
2. 가구의 2022년 3/4분기~2023년 4/4분기 식품비 지출 전망	278

V. 식품산업 구조 및 변화 분석

제1장 개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95
2. 주요 연구 내용	296

제2장 추진 실적

1. 식품산업 개요	300
2.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구조변화	305
3. 식품산업 구조 변화요인 분석	330
4. 요약 및 결론	353

참고문헌	359
------------	-----

I. 서론

제1장 사업 배경 및 내용

〈표 1-1〉 사업 구성 및 업무 분담	11
〈표 1-2〉 사업분야 내 주요업무별 발간 보고서 형태	12
〈표 1-3〉 과업별 예산사용 실적	13
〈표 1-4〉 2021~2023년 분석대상 주요 품목	17

제2장 연구 방법 및 추진 체계

〈표 2-1〉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 및 전망·식품산업 이슈 분석 관련 설문 조사 및 위탁연구 ..	24
〈표 2-2〉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 및 전망·식품산업 이슈 분석 관련 회의 및 출장	24
〈표 2-3〉 국내외 식품기업들의 ESG 추진 실태와 시사점 관련 위탁연구	25
〈표 2-4〉 국내외 식품기업들의 ESG 추진 실태와 시사점 관련 회의 및 출장	26
〈표 2-5〉 식품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및 연계구조 분석 관련 회의 및 출장	27
〈표 2-6〉 식품산업의 구조 및 변화 분석 관련 회의 및 출장	28
〈표 2-7〉 가공식품 소비지출 분석 관련 회의 및 출장	29
〈표 2-8〉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위탁·표본설계 위탁	32
〈표 2-9〉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관련 회의 및 출장	32
〈표 2-10〉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심층분석 위탁·표본설계 위탁	34
〈표 2-11〉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심층분석 관련 회의 및 출장	34
〈표 2-12〉 국내외 외식산업 동향과 이슈 분석 관련 회의 및 출장	35
〈표 2-13〉 외식업 경영실태 및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 위탁·표본설계 위탁 ..	38
〈표 2-14〉 외식업 경영실태 및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 관련 회의 및 출장	38
〈표 2-15〉 외식업 경영실태 및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 심층분석 관련 회의 및 출장	39
〈표 2-16〉 웹진 계획 및 현재(2023년 2월 기준) 발간 현황	40
〈표 2-17〉 식품산업 정보포럼 주제 및 일정	41

〈표 2-18〉 식품정보분석 포럼위원 구성	42
〈표 2-19〉 연구진 역할 분담	45

II.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 및 전망, 식품산업 이슈 분석

제1장 식품산업 동향

〈표 1-1〉 식품제조업 사업체 수 동향	55
〈표 1-2〉 식품제조업 종사자 수 동향	56
〈표 1-3〉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생산자물가지수 비교(2015=100)	62
〈표 1-4〉 2022년 1~3분기 업종별 출하지표 전년대비 증감률	64
〈표 1-5〉 품목군별 국내판매액 변동현황	67
〈표 1-6〉 식품제조업 업종별 생산액 변화 추이	68
〈표 1-7〉 품목군별 판매 변동 추이	70
〈표 1-8〉 농림축산식품 수출 실적	80
〈표 1-9〉 연도별 농림수산물 수출 상위 20개 품목	80
〈표 1-10〉 연도별 수출 상위 5개 국가	81
〈표 1-10〉 식품제조업 성장성 지표 분기별 추이	84
〈표 1-11〉 식품제조업 수익성 지표 분기별 추이	84
〈표 1-12〉 식품제조업 안정성 지표 분기별 추이	85
〈표 1-13〉 식품제조업 업종별 영업이익률 추이	86

제2장 2022년 식품산업 이슈

〈표 2-1〉 설문 조사 대상 기관 및 규모별 비중	91
〈표 2-2〉 기업규모별 2022년 상반기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변화	93
〈표 2-3〉 2022년 상반기(2021년 전체기간 대비) 경영상 어려운 정도에 대한 업체 규모별 평가	93

〈표 2-4〉 식품기업 규모별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 평가	94
〈표 2-5〉 해외 수출 활동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 평가	95
〈표 2-6〉 식품기업 규모별 2021년 동기 대비 해외 수출의 변화 평가	96
〈표 2-7〉 기업 규모별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및 발굴 노력 여부	97
〈표 2-8〉 기업규모별 기존 수출 시장에서의 판매 촉진을 위한 노력 여부	98
〈표 2-9〉 향후 1-2년 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식품산업(분류)	100

제3장 국제원재료 가격 상승의 가공식품 물가 파급영향

〈표 3-1〉 식품산업 업종별 원재료비의 제조원가 대비 비중(2021년 기준)	110
〈표 3-2〉 가공식품 품목별 주요 원재료와 구성비	111
〈표 3-3〉 2022년 4분기 가공식품의 전년 동기 대비 원재료별 가격상승률	112
〈표 3-4〉 2022년 4분기 가공식품의 전년 동기 대비 품목별 원가상승요인 추정	112
〈표 3-5〉 국제 원재료 가격 10% 변동에 따른 식품물가 파급영향계수	113
〈표 3-6〉 2019~2022년의 각 4분기 기준 국제 원재료 가격 상승의 누적 식품물가 파급영향(1분기 비교)	115

제4장 세계 식품시장 동향

〈표 4-1〉 전세계 식품시장 규모(시장구분별)	120
〈표 4-2〉 전세계 식품시장 규모(대륙별)	120
〈표 4-3〉 식품산업 원료별 구입액 비중과 생산자물가 상승률(2015=100)	121

Ⅲ. 식품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및 연계구조 분석

제2장 식품산업

〈표 2-1〉 2015년 산업연관표의 농림수산업 분류	130
-------------------------------------	-----

〈표 2-2〉 2015년 산업연관표의 음식료품제조업 분류	131
〈표 2-3〉 2015년 산업연관표의 외식업 분류	132
〈표 2-4〉 연도별 농림수산업 분류(기본부문 기준)	133
〈표 2-5〉 연도별 음식료품제조업 분류(기본부문 기준)	133
〈표 2-6〉 연도별 외식업 분류(기본부문 기준)	135
〈표 2-7〉 식품산업의 규모 변화 추이	136

제3장 식품산업 연계구조 분석

〈표 3-1〉 연도별 생산유발계수	145
〈표 3-2〉 연도별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	150
〈표 3-3〉 연도별 부가가치유발계수	153
〈표 3-4〉 연도별 취업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	155
〈표 3-5〉 연도별 취업계수 및 고용계수	156

제4장 2020년 식품산업 투입산출구조 분석

〈표 4-1〉 농림수산업과 음식료품제조업 일부 품목에 대한 조정방법 설명	159
〈표 4-2〉 농림수산업의 투입산출구조	162
〈표 4-3〉 음식료품제조업의 투입산출구조	166
〈표 4-4〉 외식업의 투입산출구조	169
〈표 4-5〉 국내산 농림수산품의 공급흐름(2011-2020)	171

제5장 코로나19로 인한 식품산업 영향과 전체산업 파급효과

〈표 5-1〉 분기별 입국외국인 수	173
〈표 5-2〉 농식품산업의 가구당 연간소비 및 수출액	176
〈표 5-3〉 5년간 평균 증감률을 반영한 2019년 대비 2020년 및 2021년의 식품산업 부문 영향	177

〈표 5-4〉 2021년의 시나리오 3 및 실측치 비교	178
〈표 5-5〉 5년간 평균 증감률을 반영한 2019년 대비 2022년 식품산업 부문 영향 (시나리오)	179
〈표 5-6〉 2019년 대비 2020~2022년 식품 지출 및 수출액 변화	180
〈표 5-7〉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산업별 파급효과	181
〈표 5-8〉 2022년 코로나19로 인한 산업별 파급효과	182
〈표 5-9〉 2019년 대비 2020~2022년 식품 수요 변화로 인한 전체산업 파급효과	185

IV. 가공식품 소비지출 분석

제1장 가구의 식품비 지출 분석

〈표 1-1〉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액 변화	199
〈표 1-2〉 가구원수별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액 비중(2021)	202

제2장 가구의 가공식품 품목별 지출구조 분석

〈표 2-1〉 연도별 지출액 상위 품목 변화	207
〈표 2-2〉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지출액 상위 품목(2021)	210
〈표 2-3〉 가구주 연령대별 지출액 상위 품목(2021)	211
〈표 2-4〉 가구의 소득분위별 지출액 상위 품목(2021)	212

제3장 가구의 가공식품 지출 결정요인 분석

〈표 3-1〉 Tobit 모형 추정 결과: 총식품비	242
〈표 3-2〉 Multivariate Tobit 모형 추정 결과: 식료품비와 외식비	244
〈표 3-3〉 Multivariate Tobit 모형 추정 결과: 신선식품비와 가공식품비	246
〈표 3-4〉 Tobit 모형 추정 결과: 곡물가공품, 빵 및 떡류, 육류가공품, 수산가공품	249

〈표 3-5〉 Tobit 모형 추정 결과: 유제품, 유지류, 과일가공품, 채소가공품	252
〈표 3-6〉 Tobit 모형 추정 결과: 당류 및 과자류, 조미식품, 기타식품, 커피 및 차	255
〈표 3-7〉 Tobit 모형 추정 결과: 주스 및 기타음료, 주류	257
〈표 3-8〉 Tobit 모형 추정 결과: 육류가공품(소시지, 햄 및 베이컨, 기타육류가공품)	259
〈표 3-9〉 육류가공품 지출 한계효과	261
〈표 3-10〉 Tobit 모형 추정 결과: 유제품(우유, 요거트, 치즈, 분유, 두유)	262
〈표 3-11〉 유제품 지출 한계효과	263
〈표 3-12〉 Tobit 모형 추정 결과: 주류(소주, 와인 및 과일주, 맥주, 막걸리, 양주)	264
〈표 3-13〉 주류 지출 한계효과	266

제4장 2022년 가구의 가공식품 지출 동향 및 2023년 지출 전망

〈표 4-1〉 소득분위별 월평균 식료품비 지출액 및 변화율	272
〈표 4-2〉 가구주 연령대별 월평균 식료품비 지출액 및 변화율	273
〈표 4-3〉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액 변화	275
〈표 4-4〉 지출액 상위 품목 지출액 변화	277
〈표 4-5〉 가구의 총식품비 및 식품소비 유형별(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 지출액 추정결과	281
〈표 4-6〉 가구의 총 식품비 및 식품소비 유형별 월평균 지출액 전망(가정 1)	283
〈표 4-7〉 가구의 식품소비 유형별 월평균 지출액 구성 전망(가정 1)	284
〈표 4-8〉 가구의 총 식품비 및 식품소비 유형별 월평균 지출액 전망(가정 2)	287
〈표 4-9〉 가구의 식품소비 유형별 월평균 지출액 구성 전망(가정 2)	288
〈표 4-10〉 가구의 가공식품 부류별 월평균 지출액 구성 전망(가정 1)	290
〈표 4-11〉 가구의 가공식품 부류별 월평균 지출액 구성 전망(가정 2)	291

V. 식품산업 구조 및 변화 분석

제1장 개요

〈표 1-1〉 식품산업 구조변화 실증분석 요약	298
---------------------------------	-----

제2장 추진 실적

〈표 2-1〉 표준산업분류상 식품산업의 구성	301
〈표 2-2〉 식품제조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2006~2020)	303
〈표 2-3〉 식품제조업 매출액(2015~2020)	304
〈표 2-4〉 국내총생산 및 식품제조업 부가가치 비중(2000~2020)	306
〈표 2-5〉 경제활동인구 및 식품제조업 종사자 비중(2000~2020)	308
〈표 2-6〉 식품제조업 생산액, 주요 생산비 및 원재료비(2000~2020)	311
〈표 2-7〉 고용형태별 식품제조업 급여액(2000~2020)	313
〈표 2-8〉 식품제조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비중(2020)	315
〈표 2-9〉 식품제조업 종사자 규모별 고용(종사자 수) 비중(2020)	317
〈표 2-10〉 식품제조업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비중(2020)	318
〈표 2-11〉 식품제조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당 매출액(2020)	319
〈표 2-12〉 식품제조업 상위 30개 업종 출하액(2016~2020)	321
〈표 2-13〉 식품제조업 내 출하액 증가·감소 주요 업종(2016~2020)	324
〈표 2-14〉 2019년 기준 식품제조업 상위 30위 생산 품목 출하액 변화 (2016~2020)	326
〈표 2-15〉 식품제조업 내 출하액 증가·감소 주요 품목(2016~2020)	327
〈표 2-16〉 식품산업 구조변화 검정 지표	331
〈표 2-17〉 구조변화 분석 활용 변수	335
〈표 2-18〉 산업구조 변화 관련 선행연구	336
〈표 2-19〉 Bai-Perron 검정 및 구조적 변화시점의 추정 결과	337

〈표 2-20〉 구조변화 요인 분석 예상 부호	343
〈표 2-21〉 변수별 패널 단위근 검정 결과 (Levin-Lin-Chu test)	343
〈표 2-22〉 식품제조업 ‘생산’ 구조변화 요인분석 결과(고정효과(FE) 패널): ln(부가가치)	348
〈표 2-23〉 식품제조업 ‘고용’ 구조변화 요인분석 결과(고정효과(FE) 패널): ln(종사자수)	352
〈표 2-24〉 생산 및 고용 구조변화 요인 분석 결과 요약	355

I. 서론

제1장 사업 배경 및 내용

〈그림 1-1〉 사업전략의 법률상 과업 범위 8

제2장 연구 방법 및 추진 체계

〈그림 2-1〉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사업 홈페이지 메인 42
 〈그림 2-2〉 연구추진 체계도 43
 〈그림 2-3〉 연구진 구성 및 역할 분담 44

II.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 및 전망, 식품산업 이슈 분석

제1장 식품산업 동향

〈그림 1-1〉 국내 식품산업 매출액 및 GDP 연간 추이 50
 〈그림 1-2〉 식품/외식산업 GDP의 연도별 추이 51
 〈그림 1-3〉 식품제조업의 분기별 실질 GDP 추이 51
 〈그림 1-4〉 식품제조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추이 52
 〈그림 1-5〉 식품제조업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제조업 대비 비중 53
 〈그림 1-6〉 2015년, 2019년 식품산업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비중 비교 54
 〈그림 1-7〉 연도별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출하지수 추이(2015=100) 57
 〈그림 1-8〉 분기별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출하지수 58
 〈그림 1-9〉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출하지수 월별 추이(2015=100) 59
 〈그림 1-10〉 식품제조업 출하액 추이 60
 〈그림 1-11〉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생산자물가지수 연도별 추이(2015=100) 61

<그림 1-12>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생산자물가지수 분기별 추이(2015=100)	62
<그림 1-13>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생산자물가지수 월별 추이(2015=100)	63
<그림 1-14> '21년의 업종별 출하·가격 전년대비 변화율	65
<그림 1-15> '22년 1~3분기 업종별 출하·가격의 전년대비 변화율	65
<그림 1-16> 2021년 식품 품목군별 전년(2020년)대비 판매액 증감률	66
<그림 1-17> 온라인 식품서비스 거래액	72
<그림 1-18> 온라인 식품 판매액과 소매판매액 대비 비중 추이	73
<그림 1-19> 온라인 거래 음식료품 중 운영형태별 비중	74
<그림 1-20> 식품 및 외식 실질 지출액 분기별 추이	75
<그림 1-21> 지출 목적별 실질 식품비 지출액 추이	75
<그림 1-22> 식료품제조업 분기별 재고율과 재고순환지수	76
<그림 1-23>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취업자수 추이	77
<그림 1-24> 식품제조업 최근 3년간 월별 취업자 수 추이	78
<그림 1-25> 식품제조업 취업자 중 상용직근로자 비율	79
<그림 1-26> 농림수산물식품 수출금액 추이	80
<그림 1-27> 가공식품 월별 수출액 추이	82
<그림 1-28> 2022년 상반기 주요 수출 품목군별 수출액과 증가율	83
<그림 1-29> 가공식품 월별 수입액 추이	83
<그림 1-30> 식품제조업 평균 비용구조	87
<그림 1-31> 2022~2023년 식품산업 매출액 전망	88
<그림 1-32> 식품산업 업종별 2022년 3분기 경기현황 및 4분기 경기 전망	89
<그림 1-33> 식품산업 규모별 2022년 3분기 경기현황	90
<그림 1-34> 식품산업 규모별 2022년 4분기 경기전망	90

제2장 2022년 식품산업 이슈

<그림 2-1> 2022년 상반기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변화	92
---	----

〈그림 2-2〉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	94
〈그림 2-3〉 해외 수출 활동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 평가	95
〈그림 2-4〉 2021년 동기 대비 현재 해외 수출의 변화	96
〈그림 2-5〉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및 발굴 노력 중인 주요 국가	97
〈그림 2-6〉 식품산업 여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 비중	99
〈그림 2-7〉 식품제조업체 내 주요 이슈 관련 대응 현황	100
〈그림 2-8〉 향후 1-2년 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식품	101
〈그림 2-9〉 향후 5년간(2023-2027) 식품산업 정책과제로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	102

제3장 국제원재료 가격 상승의 가공식품 물가 파급영향

〈그림 3-1〉 농식품 및 가공식품 물가지수 추이	104
〈그림 3-2〉 최근 가공식품 물가 추이	105
〈그림 3-3〉 2022년도 식음료품 부류별 물가 상승률	106
〈그림 3-4〉 국제곡물 가격 추이	107
〈그림 3-5〉 2022년 4분기 식품 원재료 수입 가격상승률	108
〈그림 3-6〉 국제곡물 가격 및 관련 국내 물가 추이	109
〈그림 3-7〉 국제곡물 평균수입가격 동향과 전망(2015=100)	109
〈그림 3-8〉 식품산업 여건 중 가장 중요한 이슈 1순위	116

III. 식품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및 연계구조 분석

제2장 식품산업

〈그림 2-1〉 농림수산업의 총공급	137
〈그림 2-2〉 음식료품제조업의 총공급	137
〈그림 2-3〉 외식업의 총공급	138

제3장 식품산업 연계구조 분석

〈그림 3-1〉 산업연관표의 구조	141
〈그림 3-2〉 연도별 생산유발계수 비교 그래프	146
〈그림 3-3〉 연도별 영향력계수 비교 그래프	150
〈그림 3-4〉 연도별 감응도계수 비교 그래프	151
〈그림 3-5〉 연도별 부가가치유발계수 비교 그래프	153
〈그림 3-6〉 연도별 취업유발계수 비교 그래프	155
〈그림 3-7〉 연도별 고용유발계수 비교 그래프	156

제4장 2020년 식품산업 투입산출구조 분석

〈그림 4-1〉 농림수산업의 산출구조	160
〈그림 4-2〉 농림수산업의 투입구조	162
〈그림 4-3〉 음식료품제조업의 산출구조	164
〈그림 4-4〉 음식료품제조업의 투입구조	165
〈그림 4-5〉 외식업의 산출구조	167
〈그림 4-6〉 외식업의 투입구조	168

제5장 코로나19로 인한 식품산업 영향과 전체산업 파급효과

〈그림 5-1〉 연도별 식품의 가구당 연간소비 및 수출액	176
〈그림 5-2〉 코로나19로 인한 식품산업별 소비 변화	180

IV. 가공식품 소비지출 분석

제1장 가구의 식품비 지출 분석

〈그림 1-1〉 가구의 소비지출, 식품비 지출 추이	190
------------------------------------	-----

<그림 1-2> 엔젤계수 변화 추이	191
<그림 1-3> 연도별 가구당 식료품비 지출액 중,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비 추이 ...	192
<그림 1-4> 가구원 수별 식료품비 지출액 중,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비 추이	194
<그림 1-5> 1인 가구 연령대별 식료품비 지출액 중,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비 추이 ...	195
<그림 1-6> 가구주 연령대별 식료품비 지출액 중,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비 변화 ...	196
<그림 1-7> 소득분위별 식료품비 지출액 중,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비 변화	197
<그림 1-8> 2021년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 비중 및 2010년 대비 지출액 증감률	200
<그림 1-9>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액 비중(2021)	201
<그림 1-10> 가구주 연령대별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액 비중(2021)	203
<그림 1-11> 소득분위별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액 변화(2021)	204

제2장 가구의 식품비 지출 분석

<그림 2-1> 가구의 육류가공품 품목별 지출 비중 변화	213
<그림 2-2> 가구의 월평균 육류가공품 지출 변화	214
<그림 2-3> 가구의 월평균 육류가공품 지출 추이	215
<그림 2-4> 가구원 수별 월평균 육류가공품 지출 비교: 2011년 vs 2021년	216
<그림 2-5> 가구원 수별 월평균 육류가공품 지출 추이	217
<그림 2-6> 가구주 연령대별 월평균 육류가공품 지출 비교 : 2011년 vs 2021년	218
<그림 2-7> 가구주 연령대별 월평균 육류가공품 지출 추이	219
<그림 2-8> 가구 소득분위별 월평균 육류가공품 지출 비교: 2011년 vs 2021년	220
<그림 2-9> 가구 소득분위별 월평균 육류가공품 지출 추이	221
<그림 2-10> 가구의 유제품 품목별 지출 비중 변화	222
<그림 2-11> 가구의 월평균 유제품 지출 변화	223
<그림 2-12> 가구의 월평균 유제품 품목별 지출 추이	223
<그림 2-13> 가구원 수별 월평균 유제품 지출 비교: 2011년 vs 2021년	224
<그림 2-14> 가구원 수별 월평균 유제품 지출 추이	225

<그림 2-15> 가구주 연령별 월평균 유제품 지출 비교: 2011년 vs 2021년	227
<그림 2-16> 가구주 연령별 월평균 유제품 지출 추이	228
<그림 2-17> 가구 소득분위별 월평균 유제품 지출 비교: 2011년 vs 2021년	229
<그림 2-18> 가구 소득분위별 월평균 유제품 지출 추이	230
<그림 2-19> 가구의 주류 품목별 지출 비중 변화	231
<그림 2-20> 가구의 월평균 주류 지출 변화	232
<그림 2-21> 가구의 월평균 주류 품목별 지출 추이	232
<그림 2-22> 가구원 수별 월평균 주류 지출 비교: 2011년 vs 2021년	233
<그림 2-23> 가구원 수별 월평균 주류 지출 추이	234
<그림 2-24> 가구주 연령별 월평균 주류 지출 비교: 2011년 vs 2021년	235
<그림 2-25> 가구주 연령별 월평균 주류 지출 추이	236
<그림 2-26> 가구 소득분위별 월평균 주류 지출 비교: 2011년 vs 2021년	237
<그림 2-27> 가구 소득분위별 월평균 주류 지출 추이	238

제4장 2022년 가구의 가공식품 지출 동향 및 2023년 지출 전망

<그림 4-1> 평균소비성향과 식품소비성향 변화	268
<그림 4-2> 분기별 가구당 월평균 식품비 지출액 추이	269
<그림 4-3> 식료품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270
<그림 4-4> 지출목적별 실질 식품비 지출액 변화	271
<그림 4-5> 가구의 총 식품비 및 식품소비 유형별 월평균 지출액 전망(가정 1)	282
<그림 4-6> 가구의 식품소비 유형별 월평균 지출액 구성 전망(가정 1)	284
<그림 4-7> 가구의 식품소비 유형별 월평균 지출액 전망(가정 2)	286
<그림 4-8> 가구의 식품소비 유형별 월평균 지출액 구성 전망(가정 2)	288
<그림 4-9> 가구의 가공식품 부류별 월평균 지출액 구성 전망(가정 1)	289
<그림 4-10> 가구의 가공식품 부류별 월평균 지출액 구성 전망(가정 2)	291

V. 식품산업 구조 및 변화 분석

제2장 추진 실적

〈그림 2-1〉 식품산업의 범위	301
〈그림 2-2〉 식품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추이(2000~2020)	307
〈그림 2-3〉 식품제조업의 고용 비중 추이	309
〈그림 2-4〉 식품제조업 생산액 대비 원재료비 및 급여액 비중 추이	314
〈그림 2-5〉 식품제조업 세부 산업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비중(2020)	316
〈그림 2-6〉 식품제조업 및 전체제조업 생산(부가가치) 추이(2002~2020)	340
〈그림 2-7〉 식품제조업 고용의 구조변화(2002~2020)	342

I

서 론

1

사업 배경 및 내용

1. 사업 배경

○ 식품산업은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국내 식품제조업의 매출액(국내 판매액 + 수출액)은 약 123.0조 원, 식품외식업은 137.4조 원 규모로 전체 식품산업 규모는 약 260.3조 원에 달해 의류 제조업의 약 10.9배, 전기 장비 제조업의 약 2.2배에 달함.
- 식품제조업 성장률은 2010년 이후 2021년까지 연평균 2.8%로 전체 제조업 성장률인 2.8%와 유사한 수준이며,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5%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임.¹⁾ 동기간 외식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0.5%로 식품제조업보다 크게 낮은 수준임.²⁾
- 식품산업은 전후방연관산업의 파급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높아 국가 경제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식품제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019년 기준 2.199로 전체 산업 평균인 1.791보다 높은 수준임.

1) 한국은행, 국민계정

2) 본 수치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 해당함.

- 식품산업은 후방산업인 농림수산업과 전방산업인 식품유통업, 외식업 및 숙박업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국내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 식품산업은 대다수 기업이 영세하고, 타 산업에 비해 일자리 증가율이 높으며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큰 산업으로 포용성장 관점에서 중요성이 높음.

- 식품제조업 종사자 수는 2010~2020년간 연평균 3.0% 증가하여 같은 기간 전체 제조업 종사자 수 증가율인 1.5%에 비해 높은 수준임. 외식산업 종사자 수는 동기간 연평균 1.5% 증가하여 전체 제조업과 유사함.
- 식품제조업은 5인 미만 사업체 비중이 81.1%로 전체 제조업의 영세 사업체 비중(63.1%)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식품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은 제조업 평균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여 식품산업 성장에 기여도가 높게 평가됨.
- 중소기업의 출하액 증가율은 2010~2020년간 연평균 6.6%로, 중견/대기업의 4.7%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임.³⁾

○ 식품 총수요 감소가 전망되고,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경제·사회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며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임. 식품산업은 환경변화에 따른 식품 소비 변화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총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식품 총수요가 2021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식품소비구조가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20년 15.7%에서 2025년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임.
- 1인 가구 비중도 2020년 30.3%에서 2025년 32.3%로 지속 상승 전망됨.

○ 식품산업은 국민 먹거리 산업으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속적 성

3) 식료품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에 해당함.

장을 위해 여건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식품산업 관련 정보에 대한 다양한 분석 수행 및 분석 결과의 효율적 공급이 요구됨.

- 식품산업의 성장에 따라 다양화되는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고 식품산업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식품산업통계정보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식품산업 정보 분석 및 분석결과의 공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체계적인 분석기반을 갖추고 정보의 심층 분석을 연속적으로 수행하여, 다양한 정보 및 분석결과를 수요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식품산업 정보 서비스는 식품제조 및 외식분야의 기본통계조사 결과 및 DB 제공 위주로 제한적이며,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식품산업 정보 수요자의 니즈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식품 정보분석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 또한 낮은 수준이어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정보 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식품 정보분석의 활용이 시급함. 따라서 구축된 정보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정보 이용자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심층 분석된 정보의 생산 및 제공이 요구됨.

○ (법령근거) 식품산업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은 『식품산업진흥법』 제9조의 2에 근거함.

-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식품산업 정보·통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식품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산업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주요 업무는 1. 식품산업진흥 및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 정보분석, 2. 국내외 식품산업 및 식품 소비 현황 관련 제도 등에 관한 정보분석, 3. 전통식품 관련 문헌 등 정보분석,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 등임.

2. 사업 목적

- 국내외 식품산업 관련 정보의 체계적 구축 및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함.
 - 식품산업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가공함으로써 식품 정보의 활용을 다각화하고, 식품산업 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 정보로 제공하고자 함.
 - (농식품부 승인통계) 식품산업 관련 통계의 대표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 항목 조정, 조사과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 조사결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실시함.
 - (타기관 승인통계) 타 기관 관련 통계자료를 시의적절하게 활용하여 식품산업과 식품정책 관계자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 (판매데이터, 조사자료 등) 국내외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식품산업 동향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함.
 - 코로나19, 이상기후 등의 변화와 신규 정책 개발 등 특정 식품산업 관련 이슈 발생 시 소비자 및 업계 동향에 대한 파급영향을 조사·분석하여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함.
 - 정부와 식품산업 업체 및 소비자의 정보 수요를 반영하여 중·장기적으로 식품산업관련통계를 정비·개선하고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식품산업통계시스템을 운영함.
- 식품산업 정보의 심층분석을 통해서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시의적절한 식품산업 정책 방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함.
 - 식품산업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시장을 전망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정교한 계량 분석 모형을 적용하고 다양한 통계를 응용하는 등 식품산업정보의 심층분석을 실시함.
 - 식품산업의 국내외 정보 및 동향 분석,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분석 등을 통하여 국내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
- 국내외 식품산업과 관련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시의적절하게 수요자에게 제공함.

- 식품산업 정보 수요자를 확충하여 식품산업 정보에 대한 DB를 구축함.
- 식품산업 정보포럼 운영, 웹진 발행 등 식품정보에 대한 홍보 및 정보 이용을 활성화함.
- 산·학·연 식품산업 정보 교류를 통해 식품산업 정보 환류(feedback) 시스템을 구축함.
- 현재 운영 중인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FIS)과 연계한 식품산업통계정보의 효율적 분산 체계를 운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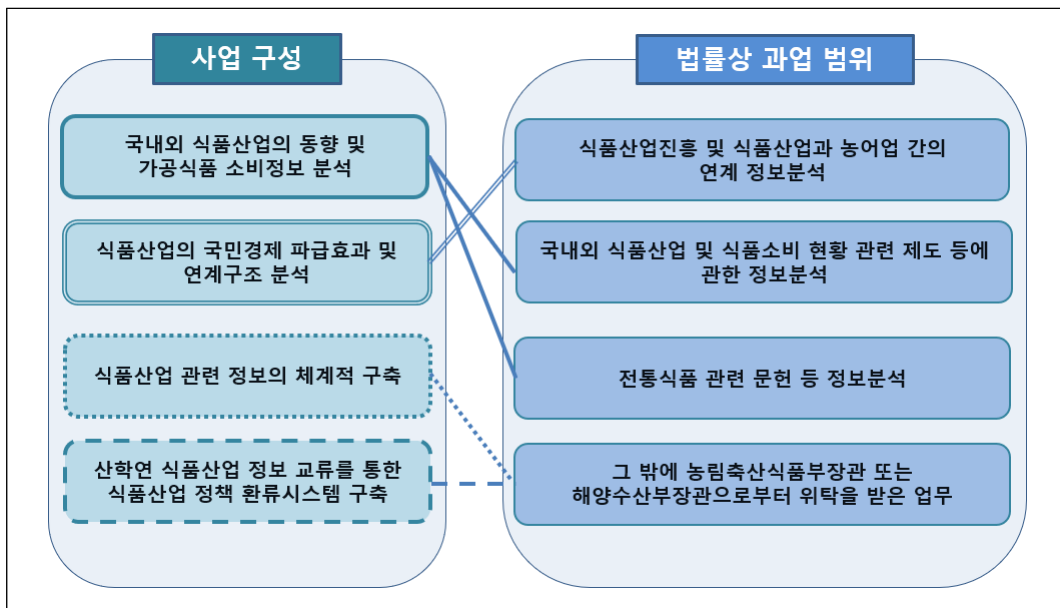
3. 사업 범위와 구성

3.1. 사업 범위

- 식품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및 연계구조 분석은 법률상 식품산업진흥 및 식품산업과 농업업 간의 연계 정보분석 범위에 포함되며, 국내외 식품산업 및 식품소비 동향과 트렌드 정보는 국내외 식품산업 및 식품소비 현황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정보분석에 포함됨. 식품산업 관련 정보의 체계적 구축과 산학연 식품산업 정보교류를 통한 식품산업 정책 환류시스템 구축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에 해당함.
- ‘식품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및 연계구조 분석’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농업과 음식료품 제조업 및 외식산업 간의 상호간 연계구조 파악 및 각 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식품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국내외 환경 변화가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
- ‘국내외 식품산업 및 식품소비 동향과 트렌드 정보분석’에서는 국내외 식품산업 및 식품소비 현황, 관련 제도 등에 대한 파악을 통하여 식품산업 트렌드를 분석하고 식품산업계 및 연구 분야, 정책담당자에게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

- ‘식품산업 관련 정보의 체계적 구축’을 위해 구축적된 식품산업 관련 조사자료, DB 자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국내의 식품산업 관련 자료를 수집, 가공 및 분석하여 최종수요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산·학·연 식품산업 정보 교류를 통한 식품산업 정책 환류 시스템 구축’에서는 산·학·연 식품산업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식품산업정보 포럼을 분야별로 운영함으로써 식품산업 관련 정보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공유 및 평가하고, 식품산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그림 1-1〉 사업전략의 법률상 과업 범위



3.2. 사업 구성 및 업무 분담

- ‘국내의 식품산업의 동향 및 가공식품 소비정보 분석’은 ‘국내의 식품산업 동향·이슈 분석과 중장기 전망’, ‘식품산업의 구조 및 변화 분석’, ‘국내의 식품기업들의 ESG 추진실태와 시사점’, ‘가공식품 소비 트렌드 분석’, ‘외식산업 동향·이슈 분석’으로 수행됨.

-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이슈 분석과 증장기 전망: ① 국내 식품산업 동향 분석과 전망, ② 해외 식품산업 동향분석, ③ 식품산업 이슈 분석
- 식품산업 구조 및 변화 분석: ①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구조변화 분석, ② 식품산업 구조 변화요인 분석
- 국내외 식품기업들의 ESG 추진실태와 시사점: ① ESG 경영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② 국내외 ESG 사례 분석과 시사점, ③ 국내 식품제조업체의 ESG 관련 실태 분석
- 가공식품 소비 트렌드 분석: ① 가구의 가공식품 지출 변화 분석, ② 가구 특성별 가공식품 소비행태 분석, ③ 주요 품목별 가공식품 소비구조 분석, ④ 가공식품 소비 전망
- 외식산업 동향·이슈 분석: ① 국내 외식산업 현황 분석, ② 일본, 미국, 중국의 외식업 주요 지표를 통해 해외 외식산업의 동향 파악

○ 법률상 과업으로 설정된 '전통식품 관련 정보분석'은 김치, 전통식품 관련 통계자료를 심층분석하여 식품산업 동향 분석 부분에 포함하며 웹진 형태로 발간함.

○ '식품산업의 파급효과 및 연계구조 분석'은 '산업연관분석'으로 수행되며, 주요 업무는 ① 식품산업의 국민경제 연계구조 및 파급효과 분석, ② 식품산업과 농림수산업의 투입구조 및 국내산 이용현황 분석, ③ 기타 식품산업 주요 이슈 관련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임.

○ '식품산업 관련 정보의 체계적 구축'은 통계조사 및 관련 심층분석 분야로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및 심층분석'과 '외식산업 정보분석'으로 수행됨.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와 '외식산업 경영실태 조사'는 통계청 승인통계로서 조사 문항, 조사·분석, 검증 과정을 단계별로 엄격히 관리함.

-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식품 구매 및 소비행태 일반, 가공식품의 품목별 구입 현황, 식품 소비의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자 인식, 가구 특성 등 7개 구분으로 가구조사 실시
-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심층분석: 소비자 특성별 구입행태와 가공식품 소비 결정요인, 가공식품 구입 유형 선택, 가계부 조사와 소비자태도조사 연계분석 실시

- 외식산업 경영실태 조사: 업소명, 응답자 정보와 같은 사업자 정보(8개 항목), 사업자 상권분류와 같은 사업장 정보(22개 항목), 그리고 매출액이나 영업비용으로 대표되는 사업장 영업정보(7개 항목)에 대한 조사의 실시
 - 외식산업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 품목류별 구입처, 해당 구입처의 이용 이유와 같이 식재료 구입 및 구입처 관련 항목 14개, 식재료 거래(결제) 방법(3개 항목), 식재료 정보(3개 항목)에 대한 조사 실시
 - 외식산업 심층분석: 외식업체 경영 및 생산성 지표 추정을 통한 외식업체의 경영현황 분석, 외식업체 특성별 식재료 구매패턴 분석, COVID-19의 외식업 영향 분석, '외식업 경영실태 및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 조사항목 개편안 제시
- '산·학·연 식품산업 정보 교류를 통한 식품산업 정책 환류시스템 구축'은 '식품산업 정보포럼 운영'과 '웹진 발간', '식품산업 정보분석 홈페이지 운영'으로 수행됨.
- 식품산업 정보포럼 운영: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야별 식품산업정보포럼 운영을 통해 식품산업 정보분석 결과를 식품산업계 및 외식산업계 정보 수요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파
 - 웹진 발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수요자들에게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하며, 식품산업의 동향, 심층분석 결과를 식품 제조업체 및 외식업체, 연구분야 전문가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배포해 수요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
 - 식품산업 정보분석 홈페이지 운영: KREI 홈페이지 및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FIS) 등에 게시를 통해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사업 홍보

〈표 1-1〉 사업 구성 및 업무 분담

사업 구성	사업 분야	주요 업무	담당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 및 가공식품 소비 분석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 및 전망, 식품산업 이슈 분석	국내 식품산업 동향 분석	KREI	
		식품산업 여건 변화와 전망		
		식품 수출입 및 해외 식품시장 동향 분석		
		식품산업 이슈 조사(설문 조사, 2회)		
		[현안분석] 국내외 식품기업들의 ESG 추진 실태와 시사점		
	식품산업 구조 및 변화 분석	우리나라 식품산업 구조 분석	서울대	
		식품산업의 구조 변화 요인 분석		
	가공식품 소비지출 분석	가공식품 소비지출 분석	가구의 가공식품 지출 변화 분석	KREI
			가구 특성별 가공식품 소비 행태 분석	
			주요 품목별 가공식품 소비 구조 분석	
가공식품 소비 전망				
외식산업 동향 분석	국내·외 외식산업 동향 및 이슈 분석	KREI		
식품산업의 파급 효과 및 연계구조 분석	산업연관분석	식품산업의 국민경제 연계구조 및 파급효과 분석	KREI (중앙대)	
		식품산업의 투입구조 및 국내산 이용현황 분석		
		식품산업 주요 이슈 관련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		
식품산업 관련 정보의 체계적 구축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심층분석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KREI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심층분석	KREI	
	외식산업 정보분석	외식업 경영실태조사	KREI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		
		외식산업 심층분석	서울대	
산·학·연 식품 산업 정보교류/ 환류시스템구축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	식품산업 정보포럼 운영	KREI	
		웹진 발간		
		식품산업 정보분석 홈페이지 운영, 관련 행사 발표 등을 통한 확산업무		

3.3. 보고서 구성

○ 2022년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사업은 총 9종의 보고서로 구성됨.

- 식품산업 동향이슈 분석의 경우, 2022년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사업 보고서에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이슈 분석과 전망, 식품산업 구조 및 변화 분석, 식품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및 연계구조 분석, 가공식품 소비 지출 분석을 수록함.
-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및 심층분석은 2022년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통계보고서, 심층분석 보고서의 형태로 발간함.

- 외식업 경영실태 및 식재료 구매현황조사의 경우, 2022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보고서, 통계보고서, 식재료 구매현황 보고서로 발간하며, 국내 외식산업 동향분석과 서울대학교 연구진의 외식산업 심층분석 내용은 외식산업 경영형태 및 식재료 구매현황 심층분석보고서로 발간함.
-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은 식품산업정보포럼 운영 및 웹진 실적 보고서의 형태로 발간함.

〈표 1-2〉 사업분야 내 주요업무별 발간 보고서 형태

사업분야	주요업무	보고서 형태
식품산업 동향·이슈 분석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이슈 분석과 전망	2022년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사업 보고서
	식품산업 구조 및 변화 분석	
	식품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및 연계구조 분석	
	(현안분석) 국내외 식품기업들의 ESG 추진실태와 시사점	별도 발간
가공식품 소비지출 분석 및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가공식품 소비 지출 분석	2022년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사업 보고서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2022년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2022년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통계보고서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심층분석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심층분석 보고서	
외식산업 동향·이슈 분석	외식업체 경영실태 및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	2022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 보고서
		2022 외식업체 경영실태 통계 보고서
		2022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현황 보고서
	국내 외식산업 동향분석	외식산업 경영형태 및 식재료 구매현황 심층분석 보고서
	외식산업 심층분석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	식품산업 정보포럼 운영	식품산업정보포럼 운영 및 웹진 실적 보고서
	식품외식정보 웹진 발간	
	식품산업 정보분석 홈페이지 운영	

3.4. 예산사용 실적

〈표 1-3〉 과업별 예산사용 실적

주요 예산소요 내용	세부사업별 예산
1.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이슈 분석과 전망	65,500,000원(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식품산업 이슈조사(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 3,500,000원) • 업종별 전문가 위탁원고료 지급(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지현 박사, 4,800,000원) • KED 데이터 구입비용 지급(한국평가데이터, 5,500,000원) 	13,8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회의비 등 기타 비용(51,700,000원) 	51,700,000원
2. 중앙대학교 연구 위탁(식품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및 연계구조 분석)	15,000,000원(2.6%)
3. 가공식품 소비 지출 분석	38,000,000원(6.6%)
4. 가공식품 소비자태도 조사 및 심층분석	192,000,000원(3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조사 위탁((주)리서치랩, 138,500,000원) •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표본설계 위탁(부경대학교 박인호 교수) •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심층분석 위탁(고려대학교 이상현 교수, 강원대학교 이지용 교수) 	152,8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회의비 등 기타 비용(38,500,000원) 	38,500,000원
5. 외식산업 경영실태조사/식재료 구매현황 조사	180,000,000원(3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 및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 조사위탁(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 140,000,000원) • 2022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 및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 표본설계 위탁(University of Cincinnati 김항준 교수) 	149,8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회의비 등 기타 비용(30,200,000원) 	30,200,000원
6.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	27,000,000원(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산업정보포럼 운영비(1~5차 식품산업 정보포럼 운영비, 10,910,900원) 	10,910,9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회의비 등 기타 비용(16,089,100원) 	16,089,100원
7. 서울대학교 연구 위탁(식품·외식산업 심층분석)	57,500,000원(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산업의 구조 및 변화 분석(30,000,000원) • 외식업체 경영실태 및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 심층분석(27,500,000원) 	
합 계	575,000,000원

4. 2022년 과제별 사업 내용

4.1.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이슈 분석

4.1.1.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이슈 분석과 전망

○ 국내 식품산업 동향 분석

- 식품산업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부가가치(GDP) 등 기본 현황
- 식품산업의 출하, 물가, 출하액 등 출하 동향 분석
- 식품소매판매 동향 분석
- 식품 수출입 현황 및 세계 식품시장 트렌드 분석
- 식품산업 경기 및 고용 동향 분석
- 식품기업 경영성과 분석
- 식품기업 활동 분석

○ 식품산업 여건 변화와 전망

- 인구사회적 요인, 환율, 원자재, 국내외 경기 등 여건 변화와 전망
- 정책·제도적 여건 변화
- 식품산업 출하량(지수), 출하액 전망

○ 해외 식품시장 동향 분석

- 세계 식품시장 규모 추이

4.1.2. [현안분석] 국내외 식품기업들의 ESG 추진 실태와 시사점

○ ESG 관련 국제사회 동향과 추진 배경

- ESG 등장과 추진 배경
- ESG 관련 국제사회 동향과 시사점
- 국제기구(EU, OECD 등)에서의 ESG 연구 동향

○ 해외 식품기업들의 ESG 추진 현황과 양상, 사례 분석

- 해외 주요국 식품기업들의 ESG 추진 현황
- 우수기업 사례 분석

○ 국내 식품기업들의 ESG 추진 실태 및 한계

- 국내 식품기업들의 ESG 추진 현황 및 실태
- ESG 추진 관련 애로사항 및 정책 수요와 시사점

4.1.3. 식품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및 연계구조 분석

○ 식품산업의 규모 변화 추이 분석

- 2000년 이후 식품산업(농림수산업, 음식료품 제조업, 외식업) 규모 변화 분석

○ 식품산업 연계구조 분석(공급흐름) 분석

- 식품산업의 총 공급: 국내생산과 수입 및 수출 규모
- 식품산업의 공급흐름: 최종소비 및 수출, 음식료품제조업 중간투입, 외식산업 중간투입, 기타산업 중간투입

○ 2020년 식품산업 산출구조 분석

- 거시지표 및 2019년 산출구조 비율 등을 활용하여 2005년, 2010년, 2015년, 2019년, 2020년의 산출구조 파악

○ 2022년 코로나19의 식품산업 영향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2021년 소비 변화 규모 및 작년 연구의 시나리오 3개 결과를 비교하여 최적의 시나리오 선정 및 이를 통한 2022년 코로나19의 소비 및 사회 전체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
- 2020~2022년 연도별 파급효과 분석결과 비교 분석

4.1.4. 식품산업의 구조 및 변화 분석

○ 우리나라 식품산업 구조 분석

- 생산, 고용, 무역 측면에서 식품산업 구조를 분석하여 구조변화 대응 전략마련 목적
- 생산 측면: 식품산업(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성장률, 부가가치 증가율, 1인당 경제성장률 및 성장기여도 등
- 고용 측면: 고용률(상용, 일용 및 외국인), 세부 업종간 임금 격차 등
- 무역 측면: 농식품(특히, 가공식품) 수출입 구조와 교역량 변화, 무역집중도 등

○ 식품산업의 구조 변화 요인 분석

- 식품산업의 산업 구조 변화를 파악하고, 산업 구조변화 여부, 시점 및 요인 분석
-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식품산업의 구조변화 여부 및 시점 및 요인 분석, 세부 업종별로 구분 분석 검토

○ 경제성장, COVID-19 등 요인의 산업구조 영향 분석

4.2. 가공식품 소비 지출 분석 및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4.2.1. 가공식품 소비지출 분석

○ 가구의 가공식품 지출 변화 분석

- 가구의 식품비(가정식+외식+주류) 지출 동향 분석

- Engel계수 변화 추이
- 식품유형별(신선식품/가공식품/외식비) 지출액 및 비중 추이
- 가공식품 분류별 분석을 통해 가공식품 소비 변화 방향 파악
-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액 결정요인 분석 비교

○ 가구 특성별 가공식품 소비 행태 분석

- 가구원수별 가공식품 지출 비교 분석
- 가구주(식품주구입자) 연령별 가공식품 지출 비교 분석
- 소득수준별 가공식품 지출 비교 분석
- 기타 가구 특성별 가공식품 지출 비교 분석

○ 가공식품 품목별 지출구조 분석

- 가공식품 상위 품목별 지출 추이
- 가구특성별 상위 지출 품목 비교 분석
- 주요 품목별 지출 변화 분석
- 주요 품목별 가구 특성에 따른 소비행태 분석

〈표 1-4〉 2021~2023년 분석대상 주요 품목

구분	2021	2022	2023
곡물가공품	라면, 두부		
빵 및 떡류			떡, 빵
육류가공		소시지, 햄 및 베이컨, 기타육류가공품	
수산가공			
유제품		우유, 치즈, 요구르트, 두유, 기타우유가공품	
유지류			식물성/동물성유지
과일가공			
채소가공			
당류 및 과자			

(계속)

구분	2021	2022	2023
조미식품	간장, 된장, 고추장		
기타식품	반찬류, 즉석동결식품, 김치		
커피 및 차			커피, 차류
쥬스 및 기타음료			생수, 쥬스
주류		소주, 와인 및 과일주, 맥주, 막걸리, 양주, 기타주류	

○ 가구의 가공식품 지출 결정요인 분석

- 식품비 및 식품 유형별 지출 결정요인 분석
-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 결정요인 분석

○ 2022년 가구의 가공식품 지출 동향 및 2023년 지출 전망

- 2022년 가공식품 지출 동향
- 2023년 식품비 지출 전망
- 2023년 식품 유형별 지출 전망

4.2.2.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 통계조사

-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구입행태, 라이프스타일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 가구조사 조사문항은 식품 구매 및 소비행태 일반, 가공식품 품목별 구입현황, 간편식·건강기능식품·유기가공식품 구입현황, 식품 소비 라이프스타일 및 인식, 가구특성 등 7개 부문으로 구분
- 가계부 조사는 가구조사 대상자에 대해 지역별, 연령별 할당을 고려하여 500가구를 선정하여 4주간 운영
- 일반 소비자 조사는 가공식품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 환경 변화, 가공식품 소비 트렌드의 급격한 전환, 가공식품 소비정책 등 관련 이슈를 조사하여 업계와 정책당국에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

○ 심층분석

- 가공식품 구입변화 특징 및 소비 결정요인 분석
- 소비자 특성별 가공식품 구입행태 분석
- 가계부 조사와 소비자태도조사 연계분석
- 일반소비자 온라인조사를 활용한 다양한 이슈분석

4.3. 외식산업 동향·이슈 분석

4.3.1. 국내외 외식산업 현황과 최근 동향

○ 국내 외식산업 동향과 추이

- 국내 외식산업의 경영실적 분석
- 최근 국내 외식업 주요 동향 및 특징 분석

○ 일본의 외식산업 현황

- 일본 외식산업의 분류별 시장규모 현황 분석
- 일본 가계의 외식소비 분석

○ aT 'The 외식' 제공 정보(외식경기동향, 소비트렌드 등) 활용 분석

- 국내외 외식트렌드 분석
- 빅데이터 활용 외식업 경기 분석

4.3.2. 외식업체 경영실태 및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

○ 조사표 변경승인 조치 및 조사 관련 협의회 운영

- 최근 외식산업과 관련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사 진행을 위해 외식업체·연구자·학자·정책부서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외식산업 통계조사 전문가협의회” 운영
- 전문가 협의회 개최를 통해 수정된 조사표(안)과 2021년 서울대 심층분석팀에서 제기한 요청 사항에 대해 반영을 검토한 후 최종 조사표 확정

○ 위탁조사 관리·감독 강화

- 지역별 설문 조사자 사전교육 시 연구진에서 직접 참여하여 교육 실시
- 위탁조사 수행 업체와 연구진 간 수시업무협의회 개최 위탁조사 과정/결과 점검
- 조사 결과 분석 후 표본층별 회수율, 응답 결과 등 철저한 내검을 거쳐 필요시 재조사 진행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검토 및 보완

4.3.3. 외식업체 경영실태 및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 심층분석

○ 외식업체의 경영현황 및 식재료 구매패턴 분석

- 원시자료(raw data)를 가공하여 업체별 2차 통계지표를 도출
- 외식업 세부분류별로 집계하여 비교함으로써 외식업의 경영현황 및 식재료 구매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COVID-19의 외식업에 대한 영향 심층분석

- COVID-19가 유행한 2020~2021년도의 통계지표들이 기존 추세선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확인하여 COVID-19가 외식업체에 미친 영향을 확인
- 모형 설정을 통해 COVID-19에 의한 외식업 수요감소가 농업분야 및 타 산업에 미친 파급효과를 추정

4.4.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 방안

4.4.1. 식품산업 정보포럼 운영

-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식품산업정보포럼 운영을 통해 ① 식품산업 현안 이슈 발굴 및 의견 수렴, ② 식품산업 동향분석 및 심층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③ 정보 수요자들에게 식품산업 정보분석 결과를 효율적으로 전파
-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식품산업 정보포럼을 통해 산업정보 수요자들에 대한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사업의 홍보 및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4.4.2. 웹진 발간

- 식품산업 심층분석 결과, 포럼 개최 및 결과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시의성 있는 식품산업 정보분석 결과를 제공함.
- 식품제조업체, 외식업체, 소비자단체, 언론계, 정책담당자, 관련 연구자 등 다양한 수요계층의 식품산업 정보 수요자 인적 DB를 구축함.
- 식품산업 동향 및 심층분석의 주요 결과에 대해 이메일 등을 통해 전파하여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4.4.3. 식품산업 정보분석 홈페이지 운영

-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에 최신 보고서, 조사 원시자료(Excel 및 SPSS 형식), 웹진 등을 게시하여 수요자에 정보를 제공함.
- aT FIS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홈페이지 간 링크를 제공하고, 식품산업 관련 행사(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 등)를 통한 홍보를 확대함.
- 정보이용자 대상 만족도를 조사(12월경 실시)하여 환류체계를 구축함.

2

연구 방법 및 추진 체계

1. 연구 방법

1.1.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이슈 분석과 전망

1.1.1. 각종 국내외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가공·분석

○ 국내 공공 및 민간기관의 통계·(원시)자료 활용

- 통계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공공기관 작성 통계자료 활용
- 한국기업데이터 등의 민간기관 작성 통계자료 활용

○ 해외 공공 및 민간기관의 통계·자료 활용

- USDA, Globa Data 등 해외 공공 및 민간기관 작성 통계자료 활용

1.1.2. 업종(품목) 및 규모별 접근

- 업종 및 품목 구분 방식은 기본적으로 통계청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따르되, 소재형, 가공형 등으로 유형화하거나 분석 목적상 독자적 분류도 일부 수행
- 사업체 규모는 종사자 수나 매출액 규모에 따라 대·중·소 등으로 구분
- 업종(품목)과 규모를 동시에 분석하여 유형별 특징 도출
- 출하규모 및 성장 수준에 따른 매트릭스(matrix)에 의한 업종 유형화

1.1.3. 식품산업의 출하 전망을 위한 계량 분석

- 업종별 시장 경쟁 구조
 - 상위기업 시장점유율(market share) 계측 및 변화 추이 분석
 - 경제총조사 자료에 의한 허핀달 지수(Herfindahl index) 산출
- 출하 전망(각 연도)
 - 지표 전망은 산업 경기를 대표하는 출하지수와 물가지수를 사용하며, 분기 자료에 의한 '계절적 ARIMA(Seasonal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등 시계열계량모형 추정에 기초
 - 생산자출하지수가 분기별 자료인 관계로, 계절별 ARIMA(multiplicative Seasonal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SARIMA) 모형을 이용해 추정 (Hamilton 1994)
 - 이동평균(Moving Average, MA) 부분은 모형 내 예측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기준으로써 사용된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AIC), 그리고 가역성(Invertibility)을 토대로 차수(q)를 설정

1.1.4. 업계 및 전문가 대상 설문 및 자문에 의한 최근 동향 및 이슈 파악

- 식품업계 담당자 1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최근 업계 동향, 이슈와 전망에 대한 설문 조사 실시
- 전문가 협의체 운영
 -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주요 업종과 이슈에 대한 집중분석

1.1.5. 설문 조사 및 연구 위탁

- 식품업체 및 식품연구소 관리자급 150인 대상 2022년 식품산업 이슈에 대한 설문 조사 실시<표 2-1>

<표 2-1>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 및 전망·식품산업 이슈 분석 관련 설문 조사 및 위탁연구

위탁연구(조사)명	위탁 대상	기간	활용
2022년 식품산업 이슈 조사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	2022.08.29.~ 2022.09.03.	식품업계의 산업 동향전망 및 이슈 파악

1.1.6. 회의 및 출장

<표 2-2>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 및 전망·식품산업 이슈 분석 관련 회의 및 출장

구분	회의(출장)명	일시	장소	활용
1	식품산업 경기와 고용 간 관계 분석 연구 협의	2022.05.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26호 회의실	식품산업 경기와 고용 간 관계 분석 내 현안에 대한 논의 진행
2	식품산업 정보포럼(1차) 참석	2022.06.30.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	2022년 식품업계 당면이슈 관련 주제 발표
3	식품산업 정보포럼(2차) 참석	2022.09.30.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	2022년 식품업계 이슈 관련 포럼 진행(구조 및 변화 분석)
4	2022년 식품산업 정보분석 산업분야 진행상황 논의	2022.09.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26호 회의실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사업 중간보고 논의내용 반영 여부 논의

1.2. [현안분석] 국내외 식품기업들의 ESG 추진 실태와 시사점

1.2.1. 문헌 연구

- 국내외 정책연구 보고서 및 학술지 논문 등 선행연구 검토
- 국제기구 등 관련 보고서 검토

1.2.2. 설문 조사 및 기초통계분석

- 국내 식품기업들의 ESG 추진 현황 관련 조사(2차 이슈조사[n=150], 또는 3분기 식품산업 경기동향조사[n = 765 이상] 활용)
 - 3분기 식품산업 경기동향조사: 9월 중순 조사 시작
 - 2차 이슈조사: 10~11월 조사 시작(중기업 이상 중심)

1.2.3. 원고위탁

- ESG 관련 국제사회 동향과 국내외 식품기업들의 ESG 추진 사례(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지현 박사)

〈표 2-3〉 국내외 식품기업들의 ESG 추진 실태와 시사점 관련 위탁연구

위탁연구(조사)명	위탁 대상	기간	활용
국내외 식품제조기업들의 ESG 추진실적과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지현 박사	2022.11.22.~ 2022.12.05.	식품산업의 ESG 추진실적과 동향 파악

1.2.4. 회의 및 출장

〈표 2-4〉 국내외 식품기업들의 ESG 추진 실태와 시사점 관련 회의 및 출장

구분	회의(출장)명	일시	장소	활용
1	3차 식품산업 정보포럼	2022.09.30.	서울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	ESG 추진 현황과 시사점 관련 전문가 포럼 실시
2	2022년 식품산업 정보분석 산업분야 진행상황 논의	2022.11.23.	서울 아스테리움 회의실	원고위탁 최종보고회

1.3. 식품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및 연계구조 분석

1.3.1. 통계 및 모형 분석

- 본 연구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관표’를 분석한 것으로, 중앙대학교 진현정 교수팀에서 수행함.
- 산업연관표의 구조는 작성형식에 따라 공급사용표와 투입산출표로 구분되는데, 공급사용표는 각 산업별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내역에 대한 정보를 ‘상품×산업’(정방향 또는 장방향) 행렬로 나타낸 통계표로 경제구조분석에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상품×상품’(정방향) 행렬로 나타낸 투입산출표를 이용함.
- 산업연관표의 유형은 가격평가기준으로 구매자가격평가표, 생산자가격평가표, 기초가격평가표가 있으며, 수입거래 처리방식기준으로 경쟁수입형표, 비경쟁수입형표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생산자가격평가표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이 연관표는 거래가액에 대한 평가를 생산자의 출하가격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표를 의미함. 한국은행에서는 2005년 실측표에 기반한 이후년도 연장표들에서는 기본부문에 대해 생산자가격평가표만 제공하고 있음.
- 산업연관분석은 수입을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경쟁수입형모델 및 비경쟁수입형모델로 분류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식품산업의 변화가 국산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경쟁수입형 모델을 이용함.

-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를 통해 국민경제 파급 효과에 대한 시계열 통계를 생성하고, 감응도 계수 및 영향력계수를 이용하여 식품산업의 전후방 연쇄효과를 파악하고, 시계열 통계를 생성함.

1.3.2. 회의 및 출장

〈표 2-5〉 식품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및 연계구조 분석 관련 회의 및 출장

구분	회의(출장)명	일시	장소	활용
1	식품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및 연계구조 분석 중간보고회	2022.08.19.	용산 광주전남전북 비즈니스라운지 회의실	위탁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및 향후 연구 방향 논의
2	식품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및 연계구조 분석 최종보고회	2022.12.01.	서울 아스테리움 회의실	위탁연구 최종보고 실시 및 추가 보완사항 관련 논의 진행

1.4. 식품산업의 구조 및 변화 분석

1.4.1. 통계 및 모형 분석

- 본 연구는 협동연구기관인 서울대학교의 김관수 교수팀에서 수행함.
- 활용 자료는 「전국사업체조사」, 「경제총조사」등 KOSI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표와 더불어 aT의 「식품외식산업 주요통계」 및 「식품기업 정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와 같은 통계를 활용함.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는 전수조사로 산업구조 분석을 위한 사업체 기본 사항, 조직형태,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고용현황, 영업비용,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체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는 종사자 수, 임금, 생산액, 부가가치액, 연구개발비 등을 제공해 산업구조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산업구조 변화 여부와 시점 파악을 위해 Bai & Perron(2003)의 구조변화모형을 활용함. 해당 모형은 구조변화를 직접적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고용과 경제성장, 생산 등 다양한 설명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1.4.2. 회의 및 출장

〈표 2-6〉 식품산업의 구조 및 변화 분석 관련 회의 및 출장

구분	회의(출장)명	일시	장소	활용
1	제 2차 식품산업 정보포럼	2022.09.30.	서울 비엔디 파트너스 회의실	위탁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및 향후 연구 방향 논의
2	식품산업의 구조 및 변화 분석 최종보고회	2022.11.23.	서울 아스테리움 회의실	위탁연구 최종보고회 참석 및 차년도 연구 방향 논의

1.5. 가공식품 소비지출 분석

1.5.1. 통계 및 모형 분석

- 통계자료는 통계청/한국은행/식품의약품안전처/미래창조과학부 등의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며,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MDIS) 원격접근서비스를 이용하여 ‘가계동향조사’의 분기별 원시자료를 분석하고, 식품류별 지출액 추이를 분석함.⁴⁾ 2022년 분기별 원시자료 공개시점에서 시의성있는 소비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소비행태조사”에 포함된 가공식품 소비행태를 보완적으로 분석함.

4)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도시 근로자 가구(2인 이상 가구)는 1963년부터 조사되었으며, 전국 가구(2인 이상 비농어가 가구)는 2003년부터, 1인 가구는 2006년부터 조사가 시작되었다. 가계동향조사는 매월 소비자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부 기장방식으로 소득 및 지출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국 999개 조사구에서 적격가구 기준 9,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시행함. 분기별로 공표되고 있으며, 조사 기준 분기 익월말 원시자료를 공표함.

- 가공식품 지출 변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함. 가공식품 식품류 및 주요 품목별 지출함수 추정에 의한 경제·인구·사회 요인을 분해하고, 지출탄성치를 비교 분석함.
- 가구의 경제·인구·사회 변수 변화를 추정하여 가공식품 유형별 및 주요 품목별 가공식품 지출 전망치를 산출함.

1.5.2. 회의 및 출장

〈표 2-7〉 가공식품 소비지출 분석 관련 회의 및 출장

구분	회의(출장)명	일시	장소	활용
1	가공식품 소비지출 분석 1차 연구진 협의회	2022.04.2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26호	가공식품 소비지출 분석 연구방향 논의
2	가공식품 소비지출 분석 2차 연구진 협의회	2022.06.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26호	가공식품 소비지출 분석 중간 실적 관련 논의
3	가공식품 소비지출 분석 3차 연구진 협의회	2022.09.2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26호	가공식품 소비지출 3분기 기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논의

1.6.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1.6.1. 조사표 검토

- 가공업체, 소비자, 학계, 협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2021년 조사표에 대한 검토회의를 거쳐 조사 문항을 검토함.
- 202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2021년 조사문항을 변경하였으므로, 2022년에는 승인통계의 연속성 및 비교성을 고려하여 조사 효율성 및 조사 결과 활용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조사문항을 검토함.

○ 다만, 미승인통계인 일반소비자 온라인조사는 식품산업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조사로 활용하기 위해 최신 소비트렌드, 식품/외식 이슈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조사 문항을 설계함.

○ 수정 조사문항에 대해 통계청에 조사문항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밝음.

-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보고 등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승인 신청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

1.6.2. 모집단 및 표본설계

○ 표본모집단은 인구주택총조사조사구이며, 추출방법은 2단계 층화집락 확률비례 계통 추출법임.

- 1차 층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17개 시도별 조사구 내 가구수에 비례하여 조사구 추출
- 2차 층화: 주택 유형별 조사구 추출(아파트 조사구, 일반조사구)
- 총 250개 조사구 추출(1개 조사구당 8개 가구 추출)

○ 표본설계는 기본적으로 조사 운영 및 주요 분석 영역별로 안정적인 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고려함.

1.6.3. 설문 조사

○ 조사원 교육 참관 및 가이드라인 작성·배포,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주 단위 모니터링 실시, 조사 진행 상황 점검 회의 개최, 조사 검증 절차 진행 등을 통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함.

- 지역별 설문 조사자 사전교육 시 연구진에서 직접 참여하여 교육을 실시함.

- 위탁조사 수행 업체와 연구진 간 수시업무협의회 개최를 통해 위탁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수시 점검함.
- 조사 완료된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 분석을 실시하여 오류를 검증하고, 가중치 산출과 조정과정을 통해 대표성 있는 조사 결과를 도출함.
 - 1차 조사 결과 도출 후 전문가 자문회의 및 포럼을 개최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검토 및 보완함.

1.6.4. 품질관리 및 조사결과 분석

- 결과표(엑셀), 통계보고서(한글), 통계원시자료(엑셀, spss), 코딩북, 조사표 원본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 일체를 KREI 연구진이 직접 관리함.
-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여 공개하며,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FIS) 사이트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외식정보/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정보 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함. 결과표는 통계청 KOSIS DB를 통해 2018년부터 제공하고 있어 엑셀 다운로드가 가능함. 다만, 조사 결과 공표시점(매년 12월 31일 완료, 보도자료 및 데이터 공표는 다음 해 1월 중순경)과 KOSIS 제공 시점(다음해 2월경)이 차이가 있음.
 - KOSIS 제공 시점은 데이터 입력 완료 후 한국통계진흥원의 검증 단계를 거치므로 보도자료 시점보다 약 1개월 차이가 발생하는데, 보도자료 및 데이터 공표 시점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통계이용자의 편의성 및 시의성을 개선할 계획
-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조사 원시자료를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업계/정부/연구자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풍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료의 신뢰도를 제고함.
- 조사결과 및 분석 보고서는 이용자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홈페이지와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FIS)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음.

1.6.5. 통계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통계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통계 자체품질진단 및 정기품질진단에 대비하며 통계 품질 제고에 활용함.

1.6.6. 회의 및 출장

〈표 2-8〉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위탁·표본설계 위탁

구분	위탁연구(조사)명	위탁 대상	기간	활용
1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주)엠프레인퍼블릭	2022-05-25 ~ 2022-11-24	조사 수행
2	2022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표본설계 및 가중치 산출방법 연구	부경대학교 박인호 교수	2022-05-31 ~ 2022-10-30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표본설계

〈표 2-9〉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관련 회의 및 출장

구분	회의(출장)명	일시	장소	활용
1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조사표 검토 및 수정 관련 논의의 진행	2022.03.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26호 회의실	조사표 검토 및 수정
2	2022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조사표 자문(1, 2차)	2022.03.25.	서울 비앤디 파트너스 회의실	최종 조사표에 대한 자문회 실시

1.7.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심층분석

1.7.1. 모형 분석

○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의 가공식품 유형별 구입변화 및 주요 가공식품 소비 결정요인 분석을 수행함.

- 가공식품에 대한 구입 변화 특징 분석
- 주요 가공식품(육류가공품, 유제품, 주류) 소비 결정요인 분석

○ 가구의 가공식품 품목별 식품지출액이 식품 소비습관 형성의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함.

- 식품 품목군별 소비습관 형성 여부 및 습관지속정도 분석
- 코로나19 전후 지출변화 발생 식품별 습관형성 및 지속정도 분석
- 가구 사회경제학적 특성에 따른 식품소비 습관형성 차이 분석

○ 사회적 책임 이슈나 식품 정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살펴보고, 소비자의 구매의향 변화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함.

- 사회적 책임 이슈, 주요 식품 정책, 라이프스타일, 응답자의 인구사회경제적 변수가 소비자의 구매의향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제품구매에 대한 변수로 안전성 인증 제품 구입의사, 소비기한 찬성 여부, ESG 경영 기업 제품 구매의사, 갑질 이슈 기업제품 구매 축소 의사, 친환경포장재 제품 구매확대 의사, 탄소중립활동 제품 구입확대 의사 고려
- 소비자의 안전성 체감점수, 소비기한 및 ESG, 탄소 인지정도, 갑질 이미지 개선 정도, 포장 만족도, 소포장 및 전처리 식품 구입 여부에 따른 구매의향 변화 분석

○ 신성장 식품(고령친화식품, 기능성 식품, 대체식품)에 대한 인식, 이용 경험, 구입 의향 등 소비요인에 의한 소비실태 분석

- 신성장 식품에 대한 인식, 이용 경험, 구입 의향 등 소비실태 분석
- 신성장 식품의 인지도가 이용 경험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신성장 식품의 인지도와 이용 경험이 향후 구입 의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이항형·순위 로짓 모형 사용

1.7.2. 회의 및 출장

〈표 2-10〉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심층분석 위탁·표본설계 위탁

구분	위탁연구(조사)명	위탁 대상	기간	활용
1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이슈 및 심층분석	강원대학교 이지용 교수	2022-11-22 ~ 2022-12-05	심층분석 보고서 작성
2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이슈 및 심층분석	고려대학교 이상현 교수	2022-11-22 ~ 2022-12-05	심층분석 보고서 작성

〈표 2-11〉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심층분석 관련 회의 및 출장

구분	회의(출장)명	일시	장소	활용
1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심층분석 위탁연구 1차 회의	2022.09.16.	서울 아스테리움 회의실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심층분석 위탁연구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 연구방향 논의
2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심층분석 위탁연구 2차 회의	2022.11.18.	서울 아스테리움 회의실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심층분석 위탁연구 관련 최종보고회 실시

1.8. 국내외 외식산업 동향과 이슈 분석

1.8.1. 각종 국내외 외식산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가공·분석

- 국내 및 일본의 공공 및 민간 기관 통계·(원시)자료를 활용함.
- 일본 공공 및 민간 기관의 통계·자료를 활용함.

1.8.2. 외식산업 업종·운영형태, 판매매체별 분석

- 국내 외식산업의 업종별 성장성 및 수익성 통계에 대한 연도·분기별 분석을 실시함.
 - 업종별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 사업체당 평균 영업 비용을 2006년부터 2020년까지 분석
 - 외식산업의 업종별 사업체·종사자수 및 외식업체의 입직률 및 이직률, 인·허가, 폐업 업체 수 분석

- 외식업산업의 업종별 생산지수 연도·분기별 분석
- 외식산업의 비대면 방식 온라인 거래 동향 분석

1.8.3. 일본의 외식산업 현황 분석

- 일본 외식산업의 시장 규모에 대한 부문별 추이 및 일본 외식산업 내 급식·음료주체 부문 영업급식의 업종분류별 시장 규모 현황 분석을 실시함.
- 일본의 연간 가구당 지출액 및 외식비 지출 추이를 분석함.

〈표 2-12〉 국내외 외식산업 동향과 이슈 분석 관련 회의 및 출장

구분	회의(출장)명	일시	장소	활용
1	국내 외식산업 동향 및 이슈 분석 관련 1차 연구진 협의회	2022.05.2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26호 회의실	국내 식품산업 동향 관련 통계자료 현황 검토
2	국내 외식산업 동향 및 이슈 분석 관련 2차 연구진 협의회	2022.08.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26호 회의실	2분기 기준 국내 식품산업 동향 분석 및 검토
3	국내 외식산업 동향 및 이슈 분석 관련 최종 연구진 협의회	2022.11.2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26호 회의실	3분기 기준 국내 식품산업 동향 분석 및 일본 외식산업 시장 분석

1.9. 외식업체 경영실태 및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

1.9.1. 표본 추출 및 배정 방식

- 외식업종별 특성(한식, 중식, 일식 등)에 따라 업종별 종사자 규모별로 층화하고, 지역은 내재적 층화를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전체 업종이 골고루 조사되도록 배분함.
- 100인 이상의 종사자를 가진 사업체가 극소수여서 “50인 이상” 범주를 가장 큰 범주로 설정, 소규모 사업체들을 “1인”, “2인”, “3~4인” 범주로 세분화함.
 - 전체 사업체의 약 60%가 “1~4인” 범주에 해당

- 전체 목표 표본수는 3,000개로 설정하고, 강제 배정과 제공근비례 배정 방법을 단계적으로 사용함.
- 강제 배정: 각 층별 목표표본 수가 일정 숫자 이상이 되도록 관리함.
 - 일반유형주점업과 무도유형주점업은 표본 수를 점진적으로 줄여서 장기적으로 외식업 조사에서 제외
 - 유형주점을 제외한 종사자 규모 50인 미만인 사업체들 가운데, 층 내 총사업체 수가 500인 이하인 층은 강제로 10개의 표본을 배정하며, 종사자 규모 50인 이상인 사업체들의 경우 각 층당 강제로 20개의 표본을 배정
- 제공근 비례배정: 각 층별 표준오차를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층 내 사업체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수의 표본을 배정하고, 1단계에서 강제 배정이 되지 않은 층들을 대상으로 제공근 비례배정을 사용하여 층별 표본을 배정

$$\text{층 } h \text{의 목표표본수: } n_h = \frac{\sqrt{N_h}}{\sum_{k \in \Omega} \sqrt{N_k}} \left(3000 - \sum_{k \notin \Omega} n_k \right)$$

N_h : 층 h 의 총 사업체수, Ω : 1단계에서 강제배정되지 않은 층

- 외식업체 표본 추출은 2년 전 명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조사 수행 시 다수의 폐업업체로 인한 조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는 폐업업체들을 1차적으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작업이 필요함.
 -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는 매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어 상호 및 시군구 설정을 매칭하여 폐업이 확인된 업체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므로 목표표본 사업체 내 무응답률의 최소화가 가능

1.9.2. 설문 조사

- 전문 조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입찰 공고로 조사업체를 선정하고 조사를 수행함.

- 조사 방법: 대면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회수율을 제고시키고 코로나19 지속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자기기입식 조사 및 전화조사를 병행함.
- 조사 대상 업체별로 경영실태 및 식재료 구매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
 - 식재료의 경우는 조사표에 표시된 항목에 대해서만 조사
- 조사 진행은 자계식이며 조사 대상 업체의 대표자가 응답 대상자이지만 대표를 만날 수 없는 경우, 경영실태와 식재료 구매현황에 대한 응답이 가능한 다른 직원으로 대체하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함.
- 자료는 여러 검증 단계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처리되며, 오류 발생 시 1차 검증하여 재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재조사를 실시함.
-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며, 분석 결과는 포럼 운영을 통해 결과 검증 후 보고서를 통해 최종 결과를 제시함.

1.9.3. 외식업체 유형별 교차분석 및 조사 문항별 연관분석

- 권역별·업종별·상권별·서비스 유형별·영업형태별 외식업체의 매출액 및 영업비용 등 경영 관련 정보, 평균 객단가, 식재료별 구매 형태 및 유통 형태, 배달 형태 등에 대한 통계분석 및 교차분석을 수행함.
- 사업자 및 사업장 주요 정보와 외식업체 경영 관련 문항, 식재료 구매실태 문항 등 조사 문항별 연관분석을 수행함.

1.9.4. 연속성 있는 분석 결과 도출

- 전년도 조사 결과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외식업 경영실태 및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실태의 의미있는 변화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1.9.5. 조사 결과 보고서 발간·배포 및 홍보

- 조사 결과에 대한 연구진 협의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검토 의견을 반영한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 보고서」,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 보고서」 및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 통계보고서」를 발간함.
- 식품외식정보 웹진 발간, 식품산업 정보포럼 개최 및 운영을 통한 주요 조사 결과를 배포 및 홍보함.

1.9.6. 회의 및 출장

〈표 2-13〉 외식업 경영실태 및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 위탁·표본설계 위탁

구분	위탁연구(조사)명	위탁 대상	기간	활용 내역
1	2022 외식업 경영실태 및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	(주)코리아데이터 네트워크	2022. 05.18. ~ 2022. 11.28.	조사 수행
2	2022 외식업 경영실태 및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 모집단 분석 및 표본설계 연구	University of Cincinnati 김항준 교수	2022. 08. 18. ~ 2022. 11.17.	외식업 조사 분산추정 방법
3	2022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 및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 자료처리 및 분산추정방법 연구	University of Cincinnati 김항준 교수	2022. 11. 22. ~ 2022. 12. 05.	외식업 조사 모집단 분석 및 표본설계

〈표 2-14〉 외식업 경영실태 및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 관련 회의 및 출장

구분	회의(출장)명	일시	장소	활용
1	2022 외식업 경영실태조사 조사표 관련 전문가 간담회	2022.05.12.	서울 아스테리움 회의실	조사표 검토 및 수정
2	2022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변경승인 관련 연구 협의회	2022.06.0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26호 회의실	조사표 변경승인 관련 논의의 진행
3	2022년 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 표본설계 관련 연구진 회의 진행	2022.08.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26호 회의실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표본 설계 과정 및 추진 검토
4	외식업 경영실태조사 조사업체 최종보고회	2022.11.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26호 회의실	조사업체 최종보고회 참석 및 최종 작업 논의
5	2022 식품산업 정보분석 제 5차 식품산업 정보포럼	2022.12.23.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주요 결과 및 심층분석 결과 관련 포럼 실시

1.10. 외식업체 경영실태 및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 심층분석⁵⁾

1.10.1. 통계 및 모형 분석

- 본 연구는 협동연구기관인 서울대학교의 임정빈 교수팀에서 수행함.
- 기존 자료(매출액, 영업이익 등)를 활용하여 보다 직관적인 외식업 현황 파악에 사용할 수 있는 2차 통계지표를 도출함.
 - 영업이익률, 프라임코스트(Prime cost), 근로형태별 평균시급 등 통계자료상에서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유용한 지표들을 집계
- 단순 통계지표 분석을 통해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가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나, 숨겨진 변수(예: 무급가족노동의 잠재가격)를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량경제학 기법을 활용함.
- ‘외식업 경영실태 및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 및 관련 통계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량경제학적 기법(예: 선형회귀, discrete choice model (Probit, Cluster Analysis)을 사용할 수 있음.

1.10.2. 회의 및 출장

〈표 2-15〉 외식업 경영실태 및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 심층분석 관련 회의 및 출장

구분	회의(출장)명	일시	장소	활용
1	2022 식품외식산업 심층분석 연구협의회 개최	2022.05.20.	서울 아스테리움 회의실	외식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심층분석 진행 계획 수립
2	식품외식산업 심층분석 중간보고회 개최	2022.06.0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26호 회의실	2022년 식품외식산업 심층분석 보고서 내 경영지표 분석 추가 관련 논의 진행
3	2022 식품산업 정보분석 제 5차 식품산업 정보포럼	2022.12.23.	서울역 공향철도 회의실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주요 결과 및 심층분석 결과 관련 포럼 실시

5) 서울대학교 수행

1.11.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 방안

1.11.1. 식품외식정보 웹진 발간

○ 2022년 식품외식정보 웹진은 월 1회 이상 발간함.

〈표 2-16〉 웹진 계획 및 현재(2023년 3월 기준) 발간 현황

구분	웹진 주제	작성 기관	현 상황
1호	김치산업 현황과 최근 동향	KREI	배포완료(1월)
2호	농식품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및 연계구조	중앙대학교	배포완료(2월)
3호	2021년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주요 결과	KREI	배포완료(2월)
4호	2021 기준 외식업 경영실태 주요 조사 결과	KREI	배포완료(3월)
5호	2022 식품외식산업 7대 이슈	KREI	배포완료(3월)
6호	외식업체의 국산/수입산 식재료 이용 동향분석	KREI	배포완료(4월)
7호	2021년 가구의 가공식품 소비 지출 변화와 특징	KREI	배포완료(5월)
8호	2019~2021년 식품산업 경영성과분석	KREI	배포완료(5월)
9호	2021년 외식업 주요 동향 및 특징	KREI	배포완료(6월)
10호	소비자의 간편식 구입 행태 및 선호 분석	KREI	배포완료(6월)
11호	2022년 1분기 가구의 가공식품 지출 현황과 특징	KREI	배포완료(7월)
12호	외식업체 김치 조달 실태와 시사점	KREI	배포완료(9월)
13호	경제총조사 분석	KREI	배포완료(9월)
14호	가공식품 소비지출 동향과 전망	KREI	배포완료(10월)
15호	식품산업 구조 분석	서울대학교	배포완료(12월)
16호	장류 산업의 동향과 전망	KREI	배포완료 (2023년 2월)
17호	식품산업 산업연관관계 분석	중앙대학교	배포완료 (2023년 2월)
18호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주요 결과[보도자료]	KREI	배포 예정 (2023년 4월)
19호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주요 결과	KREI	배포 예정 (2023년 4월)

1.11.2. 보도자료 배포

○ 2022년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사업 관련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를 실시함.

- ‘가공식품 구입빈도 소폭 감소, 온라인 구매 비중 크게 증가’(1월 15일 배포 예정)

1.11.3. 식품산업 정보포럼

○ 2022년 식품산업 정보포럼은 5월부터 12월까지 총 5회 개최함.

〈표 2-17〉 식품산업 정보포럼 주제 및 일정

회차	포럼 주제	담당 기관	현황
1차	2022년 식품산업 동향 및 산업연관분석	KREI, 중앙대학교	5월 31일 개최
2차	2022년 상반기 식품산업 동향과 당면 이슈	KREI	7월 27일 개최
3차	식품산업 구조 변화 분석	KREI, 서울대학교	9월 30일 개최
4차	가공식품 소비 트렌드/가공식품 소비자 태도 조사결과 분석	KREI	11월 25일 개최
5차	외식산업 경영실태 및 식재료 이용현황과 시사점(조사/심층분석)	KREI, 서울대학교	12월 23일 개최

○ 개최 방식

- 오프라인 포럼형식 개최
- 주제발표 구성 ① 이슈별 정보분석 결과와 시사점(전문기관), ② 업계 및 관련 기관 발표(업계 현안 및 주요 이슈)
- 발표 및 토론자료의 웹진 배포, 보고서 발간

○ 식품산업 정보포럼은 식품소비 분과와 외식 분과로 구분하여 분과별로 산업계, 학계 및 연구 분야, 정책담당, 관련기관 등의 전문가 10명 이내로(총 20여 명) 구성하여 운영함.

〈표 2-18〉 식품정보분석 포럼위원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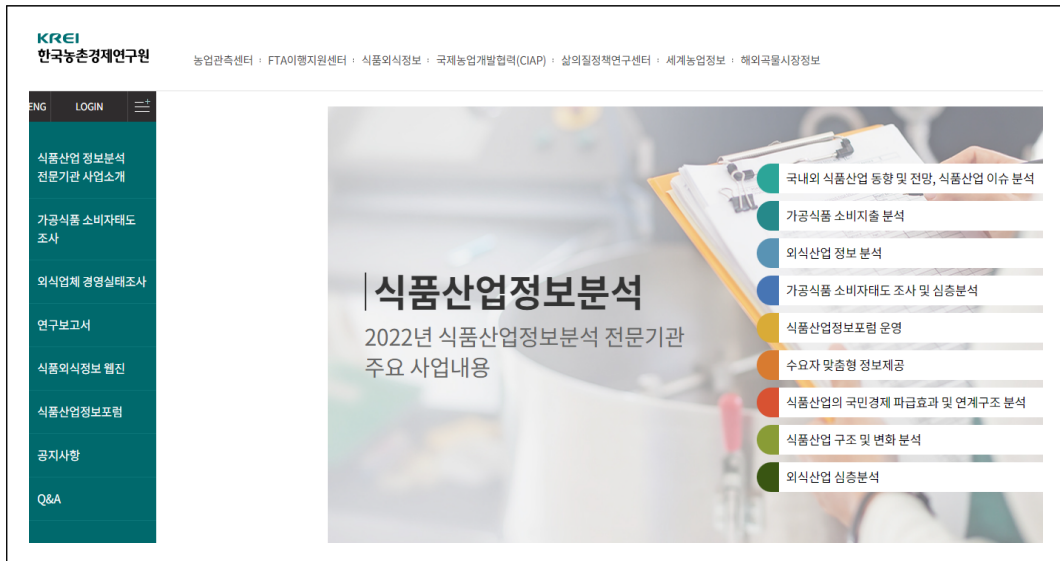
분야	산업계 및 관련기관	학계 및 연구분야	정책담당	계
식품산업	5	4	1	10
식품소비	5	4	1	10
외식	5	4	1	10
계	15	12	3	30

주: 포럼 분과 및 분과별 포럼위원은 향후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될 수 있음.

1.11.4. 홈페이지 운영

- 식품산업 정보분석 사업 관련 원시자료(Excel 및 SPSS 형식) 공개 및 보고서 게시, 관련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함.

〈그림 2-1〉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사업 홈페이지 메인



2. 추진 체계

○ 동향 분석

- 식품산업 분야: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분석, 식품산업 이슈 및 전망 분석 수행
- 가공식품소비 분야: 가구의 가공식품 지출 분석과 전망, 가구특성별 가공식품 소비행태 분석
- 외식분야: 외식업체 경영실태 및 식재료 구매현황 분석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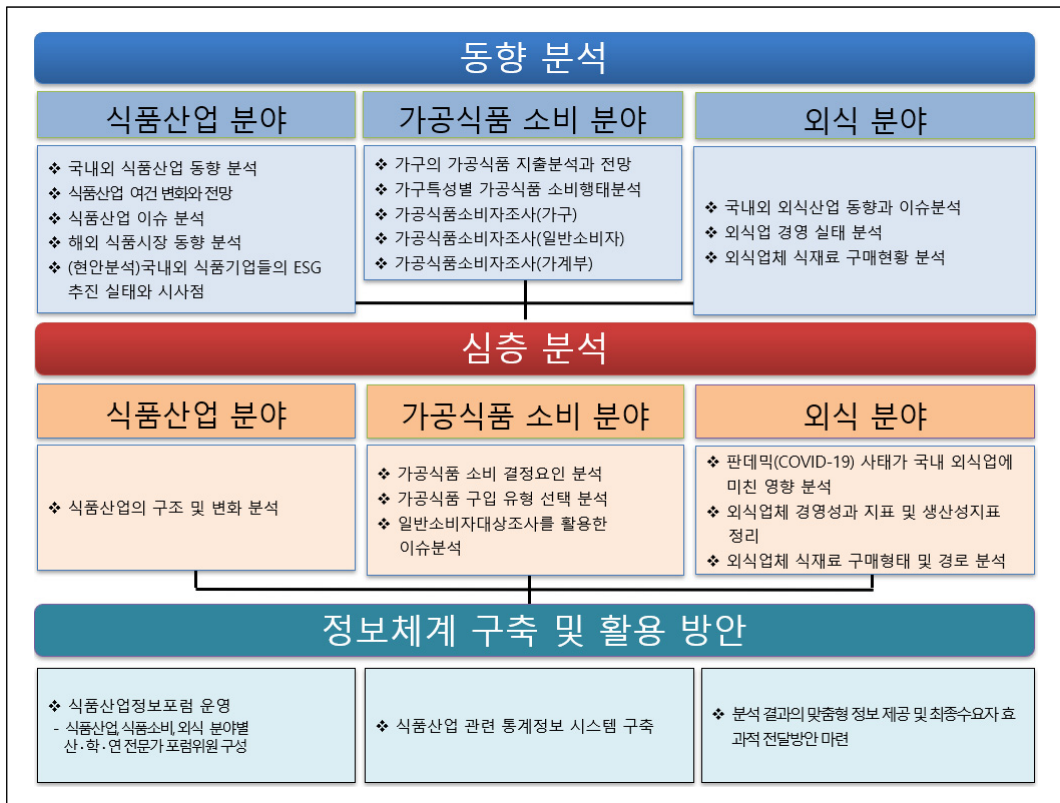
○ 심층 분석

- 식품산업 분야: 식품산업 파급효과 및 연계구조 분석, 국내외 식품기업들의 ESG 추진 실태와 시사점(현안분석), 식품산업의 구조 및 변화 분석 수행
- 가공식품 소비 분야: 가공식품 소비 결정요인 분석, 가공식품 구입 유형, 일반소비자 대상 조사를 활용한 이슈 분석 수행
- 외식분야: 팬데믹(코로나19) 사태가 국내 외식업에 미친 영향, 외식업체 경영성과 지표 및 생산성 지표, 그리고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형태 및 경로 분석 수행

○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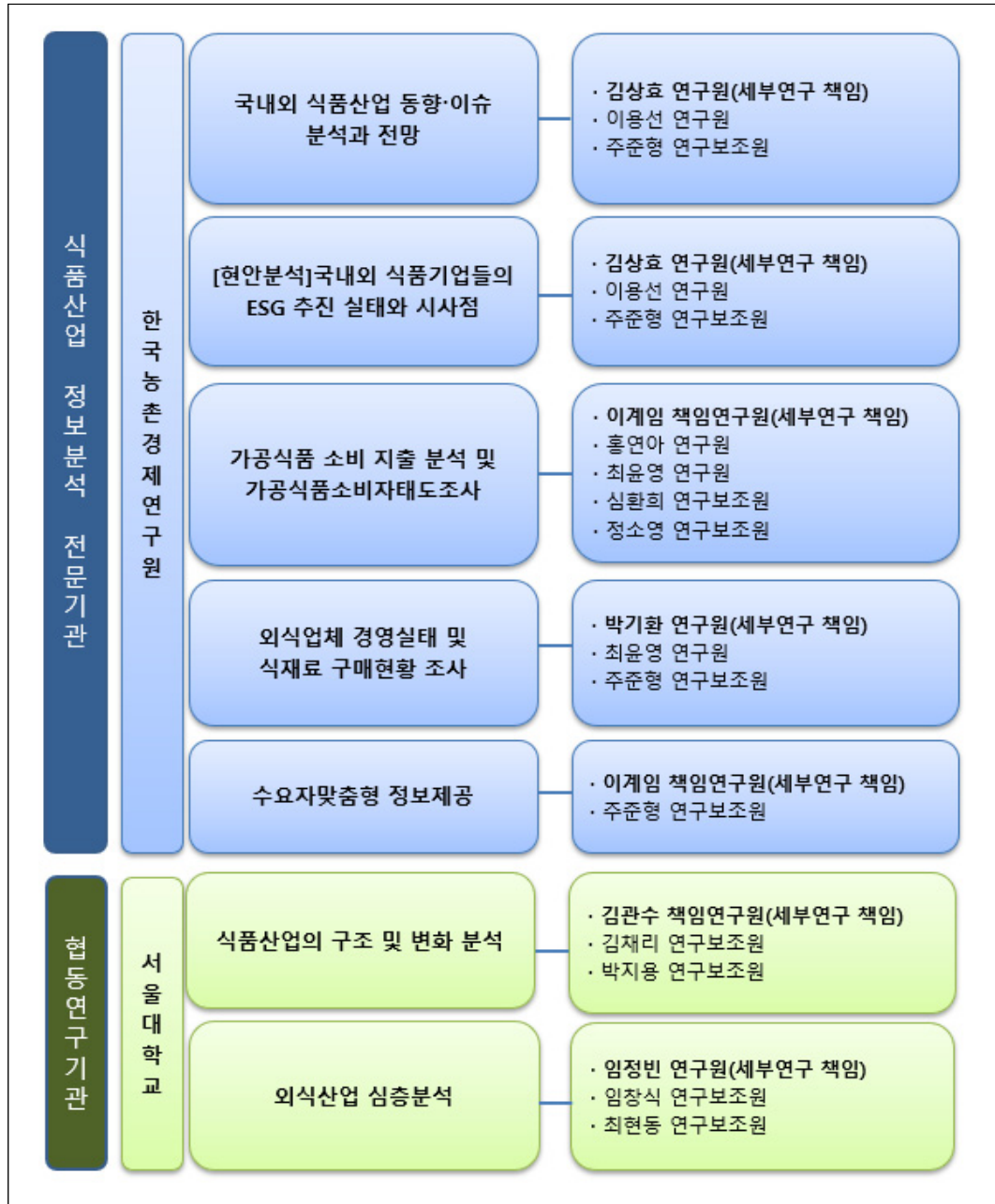
- 식품산업 정보포럼을 운영하고, 식품산업 관련 통계정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최종수요자에 대한 효과적 전달 방안 마련

〈그림 2-2〉 연구추진 체계도



3. 연구진 구성 및 역할 분담

〈그림 2-3〉 연구진 구성 및 역할 분담



〈표 2-19〉 연구진 역할 분담

구분	연번	직책	이름	직위	역할 및 담당업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선임연구위원	이계임	책임연구원	- 연구 총괄 책임 - 가공식품 소비지출 분석 및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책임) -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책임)
	2	명예선임연구위원	이용선	연구원	-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이슈 분석과 전망 - [현안분석]국내외 식품기업들의 ESG 추진 실태와 시사점
	3	선임연구위원	박기환	연구원	- 외식업체 경영실태 및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책임)
	4	연구위원	김상호	연구원	-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이슈 분석과 전망(책임) - [현안분석]국내외 식품기업들의 ESG 추진 실태와 시사점(책임)
	5	부연구위원	홍연아	연구원	- 가공식품 소비 지출 전망 -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심층분석
	6	부연구위원	최윤영	연구원	- 가공식품 소비 지출 분석 및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 외식업체 경영실태 및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
	7	연구원	심환희	연구보조원	- 가공식품 소비지출 분석 및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8	연구원	정소영	연구보조원	- 가공식품 소비지출 분석 및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9	연구원	주준형	연구보조원	-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이슈 분석과 전망 - [현안분석]국내외 식품기업들의 ESG 추진 실태와 시사점 - 외식업체 경영실태 및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 -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
서울대학교	1	교수	김관수	책임연구원	- 식품산업의 구조 및 변화 분석(책임)
	2	교수	임정빈	연구원	- 외식산업 심층분석(책임)
	3	박사과정	김채리	연구보조원	- 식품산업의 구조 및 변화 분석
	4	박사과정	박지용	연구보조원	- 식품산업의 구조 및 변화 분석
	5	박사과정	임창식	연구보조원	- 외식산업 심층분석
	6	박사과정	최현동	연구보조원	- 외식산업 심층분석

II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 및 전망,
식품산업 이슈 분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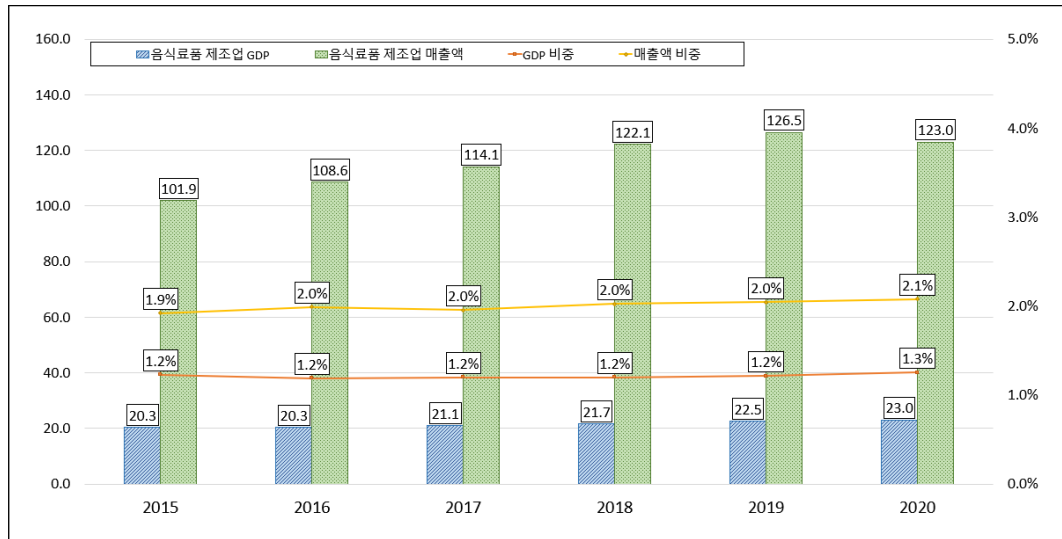
식품산업 동향

1. 식품제조업의 규모와 위상

- 식품제조업은 외형상 성장세 지속, 부가가치 관점에서는 정체
- 식품산업의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는 타 산업에 비해 정체된 상황임.
- 식품제조업 시장 규모는 2020년 매출액 기준 약 125.9조 원 수준이며 이는 2015년 101.9조 원보다 23.6% 성장한 수치임. 반면, GDP는 동기간 13.4% 증가한 23.1조 원 (2020년) 수준이며, 2021년 기준으로는 23.5조 원 수준임.
- 식품제조업이 전 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기준 1.7%에서 2020년 기준 2.0%로 상승함.
- 식품제조업 GDP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에 머물러 있는 상태임.

〈그림 1-1〉 국내 식품산업 매출액 및 GDP 연간 추이

단위: 조 원, %



주 1) 매출액 자료는 중간 투입된 금액이 포함된 식품산업 활동 결과를 나타내며, GDP 자료는 중간 투입된 금액이 제외된 부가가치 기준 식품산업 활동 결과를 나타냄.

2) 매출액은 전국사업체조사, 경제총조사 조사결과로 1인 이상 기준임.

3) GDP는 경제활동별 GDP 및 GNI(원계열, 실질)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각 연도), 국민계정: 통계청(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 경제총조사.

□ 2021년 식품제조업 및 외식업 실질 GDP는 전년 대비 증가

○ 2021년 식품제조업 및 외식업의 실질 GDP는 전년 대비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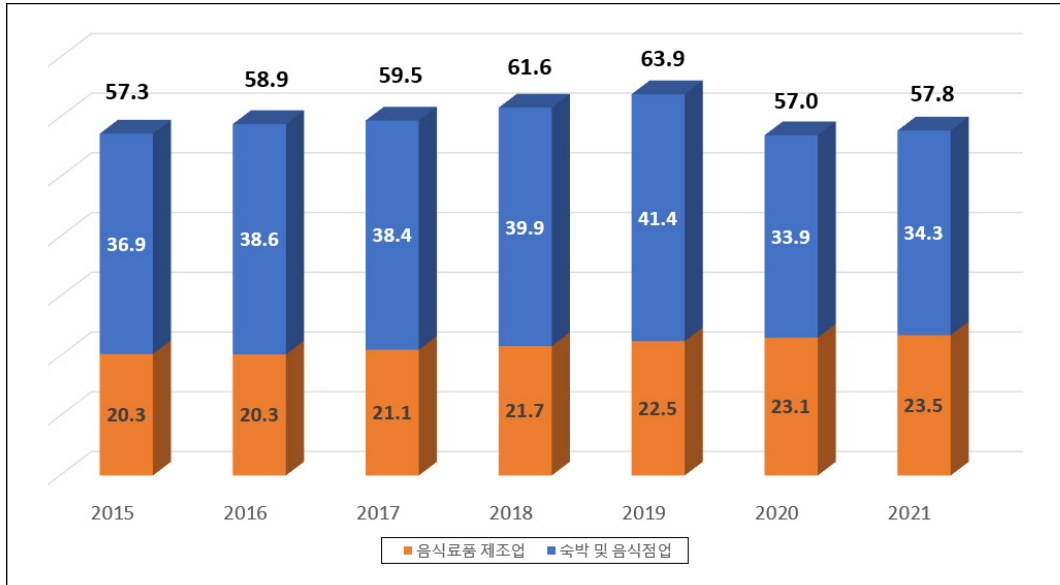
- 식품제조업의 경우 2020년 23.1조 원에서 2021년 23.5조 원으로 소폭 증가함.

-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2020년 33.9조 원에서 2021년 34.3조 원으로 증가함.

○ 2022년 상반기 식품제조업의 실질 GDP는 1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함.

〈그림 1-2〉 식품/외식산업 GDP의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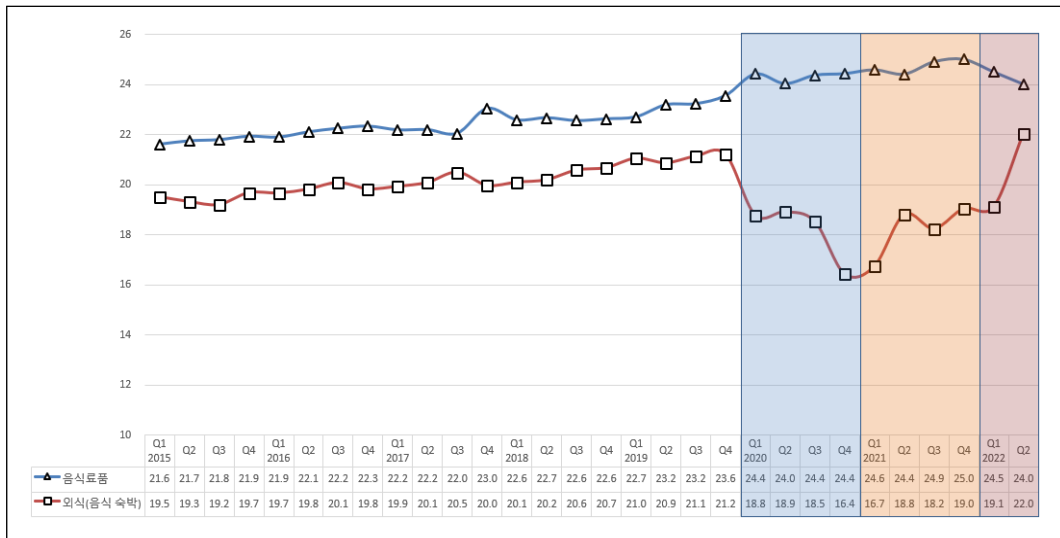
단위: 조 원



자료: 한국은행(각 연도). 국민계정.

〈그림 1-3〉 식품제조업의 분기별 실질 GDP 추이

단위: 십억 원



주: 분기별 실질 GDP는 계절조정자료를 이용함.

자료: 한국은행(각 연도). 국민계정.

□ 2020년 식품제조업 사업체 수는 역대 최대 수준,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

○ 2020년 기준 식품제조업 사업체 수는 64,365개로 전년보다 2,036개(3.3%) 증가함.

○ 2020년 식품제조업 종사자 수는 37만 2,126명으로, 전년보다 2,681명(-0.7%) 감소하였으며, 종사자 수 증가세는 2015~2019년 연평균 증가율 대비 낮은 수치임.

- 식품제조업 종사자 수 연평균 증감율(%) : ('15~'19) 2.9% → ('20)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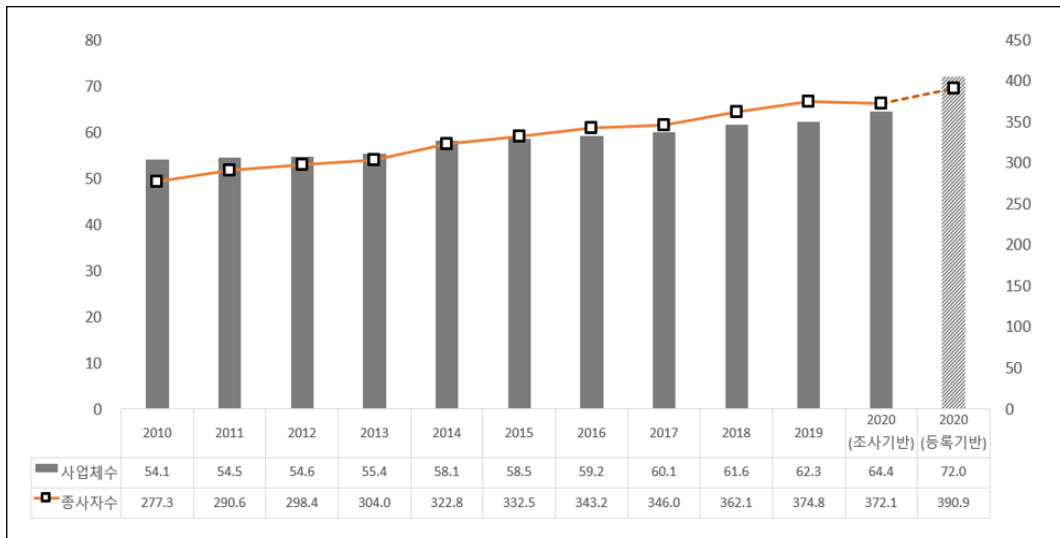
○ 2020년 식품제조업 사업체 수 증가율은 제조업의 사업체 수 증가율을 소폭 상회, 식품제조업의 종사자 수 증가율은 제조업의 종사자 수 감소율을 크게 하회함.

- 사업체 수 전년 대비 증가율(%) : 식품제조업 3.3%, 제조업 2.8%

- 종사자 수 전년 대비 증가율(%) : 식품제조업 -0.7%, 제조업 -3.4%

〈그림 1-4〉 식품제조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추이

단위: 천 개(사업체 수), 천 명(종사자 수)



자료: 통계청(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2020), 경제총조사.

□ 식품제조업 업체당 종사자 수는 2010년~2019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20년 처음으로 감소

○ 2010년~2019년까지 2020년 식품제조업 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0년에는 전년 대비 0.2명 감소함.

- 식품제조업 업체당 종사자 수(명): ('10) 5.1 → ('17) 5.8 → ('18) 5.9 → ('19) 6.0 → ('20)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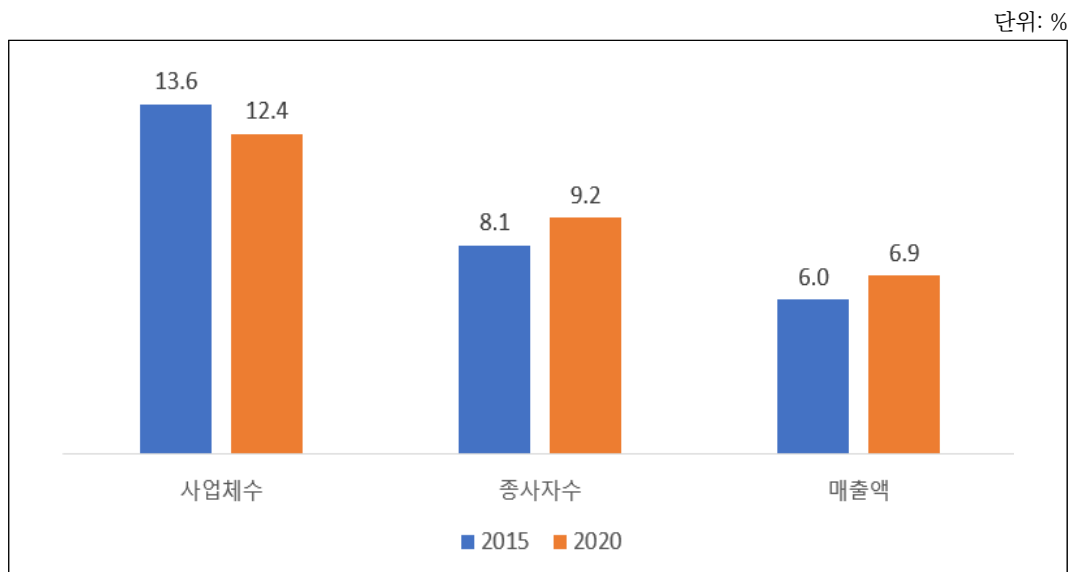
□ 식품제조업 종사자 수, 매출액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

○ 2020년 기준, 식품제조업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업체 수 기준 12.4%, 종사자 수 기준 9.2%, 매출액 기준 6.9%임. 종사자 수와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대비 모두 상승함.

- 전체 제조업에서 식품제조업 종사자 수 비중(%): ('15) 8.1 → ('20) 9.2

- 전체 제조업에서 식품제조업 매출액 비중(%): ('15) 6.0 → ('20) 6.9

〈그림 1-5〉 식품제조업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제조업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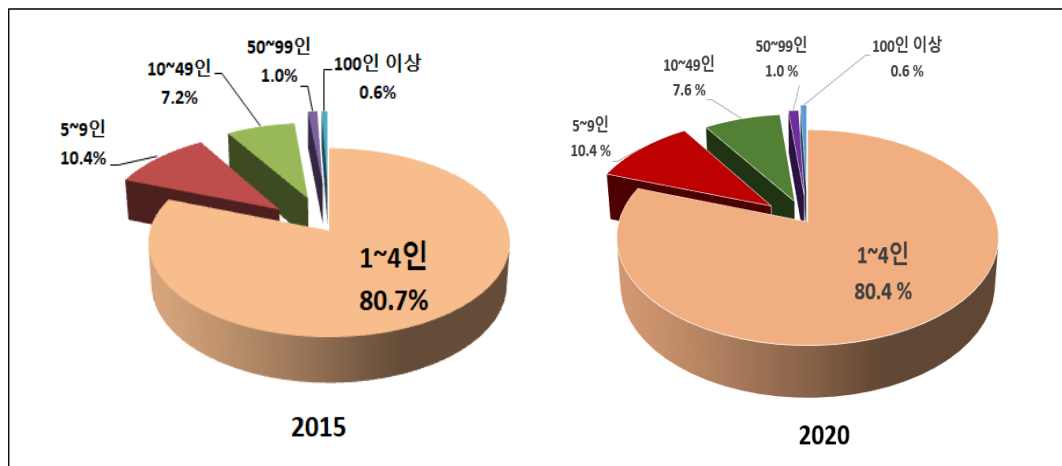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5, 2020), 전국사업체조사; 경제총조사.

□ 2019년 대비 2020년 식품제조업의 영세업체(5인 미만 사업체) 비중은 증가, 종사자 수 5~49인의 소기업 비중, 50인 이상 중견기업 이상 비중은 소폭 감소

○ 2020년 식품제조업 종사자 수 규모별 업체 수 비중은 2019년 대비 종사자 수 1~4인의 영세 규모 업체는 증가하였고, 종사자 수 5~49인의 소규모 업체 수는 감소함.

- 종사자 수 규모별 업체 수 비중: (1~4인) '19년 78.0% → '20년 80.4%, (5~9인) '19년 12.6 → '20년 10.4, (10~49인) '19년 7.7% → '20년 7.6%
- 종사자 50인 이상의 중·대형 규모 식품제조업체수 비중은 1.7%에서 1.6%로 소폭 하락

〈그림 1-6〉 2015년, 2019년 식품산업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비중 비교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표 1-1〉 식품제조업 사업체 수 동향

단위: 개, %

업종명	1995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2020	
									조사 기반	등록 기반
식료품 제조업	49,612 (100.0)	54,022 (100.0)	59,818 (100.0)	53,099 (100.0)	56,490 (100.0)	58,653 (100.0)	60,071 (100.0)	60,715 (100.0)	62,768 (100.0)	70,089 (100.0)
육류 가공업	612 (1.2)	892 (1.7)	1,335 (2.2)	1,438 (2.7)	2,243 (4.0)	2,417 (4.1)	2,722 (4.5)	3,029 (5.0)	3,397 (5.4)	3,883 (5.5)
수산물 가공업	3,497 (7.0)	3,179 (5.9)	3,104 (5.2)	2,935 (5.5)	3,612 (6.4)	3,715 (6.3)	3,906 (6.5)	4,109 (6.8)	4,182 (6.7)	4,860 (6.9)
과·채 가공업	1,164 (2.3)	1,463 (2.7)	1,673 (2.8)	1,954 (3.7)	3,089 (5.5)	3,900 (6.6)	4,396 (7.3)	4,780 (7.9)	6,144 (9.8)	7,323 (10.4)
유지류 제조업	4,242 (8.6)	3,408 (6.3)	3,605 (6.0)	3,360 (6.3)	3,257 (5.8)	3,416 (5.8)	3,313 (5.5)	3,284 (5.4)	3,479 (5.5)	3,629 (5.2)
낙농품 및 빙과류 제조업	170 (0.3)	138 (0.3)	145 (0.2)	143 (0.3)	231 (0.4)	244 (0.4)	247 (0.4)	280 (0.5)	282 (0.4)	341 (0.5)
곡물 가공 및 제조업	19,279 (38.9)	17,044 (31.6)	7,518 (12.6)	5,885 (11.1)	5,482 (9.7)	5,581 (9.5)	5,764 (9.6)	5,776 (9.5)	5,315 (8.5)	5,959 (8.5)
기타 식품 제조업	18,866 (38.0)	26,202 (48.5)	40,733 (68.1)	36,872 (69.4)	37,735 (66.8)	38,530 (65.7)	38,723 (64.5)	38,301 (63.1)	38,673 (61.6)	42,461 (60.6)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6,106 (12.3)	8,992 (16.6)	19,216 (32.1)	15,226 (28.7)	15,340 (27.2)	15,762 (26.9)	15,709 (26.2)	15,510 (25.5)	-	16,841 (24.0)
설탕 제조업	11 (0.0)	11 (0.0)	5 (0.0)	4 (0.0)	3 (0.0)	4 (0.0)	6 (0.0)	6 (0.0)	-	11 (0.0)
면 및 유사식품 제조업	550 (1.1)	535 (1.0)	508 (0.8)	513 (1.0)	577 (1.0)	531 (0.9)	550 (0.9)	558 (0.9)	-	638 (0.9)
조미료 및 첨가물 제조업	1,246 (2.5)	2,062 (3.8)	3,335 (5.6)	3,855 (7.3)	4,776 (8.5)	4,861 (8.3)	4,987 (8.3)	4,986 (8.2)	-	5,901 (8.4)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953 (22.1)	14,602 (27.0)	17,669 (29.5)	17,274 (32.5)	17,039 (30.2)	17,372 (29.6)	17,471 (29.1)	17,241 (28.4)	-	16,598 (23.7)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	-	-	-	-	1,427 (2.4)	1,639 (2.7)	1,813 (3.0)	-	2,472 (3.5)
사료 및 조제식품	274 (0.6)	321 (0.6)	466 (0.8)	512 (1.0)	841 (1.5)	850 (1.4)	1,000 (1.7)	1,156 (1.9)	1,296 (2.1)	1,633 (2.3)
음료 제조업	1,508 (100.0)	1,375 (100.0)	1,239 (100.0)	1,170 (100.0)	1,464 (100.0)	1,436 (100.0)	1,549 (100.0)	1,614 (100.0)	1,597 (100.0)	1,876 (100.0)
알콜음료 제조업	1,160 (76.9)	976 (71.0)	845 (68.2)	809 (69.1)	955 (65.2)	925 (64.4)	980 (63.3)	1,014 (62.8)	1,001 (62.7)	1,158 (61.7)
비알콜음료 제조	348 (23.1)	399 (29.0)	394 (31.8)	361 (30.9)	509 (34.8)	511 (35.6)	569 (36.7)	600 (37.2)	596 (37.3)	718 (38.3)

주: 2020년 조사기반 자료의 경우, 기타 식품제조업 내 세부 업종에 대한 자료는 공표되지 않음.

자료: 통계청(2020), 전국사업체조사; 경제총조사.

〈표 1-2〉 식품제조업 종사자 수 동향

단위: 명, %

업종명	1995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2020	
									조사 기반	등록 기반
식료품 제조업	312,350 (100.0)	285,659 (100.0)	297,441 (100.0)	262,652 (100.0)	313,422 (100.0)	327,381 (100.0)	342,089 (100.0)	353,949 (100.0)	352,472 (100.0)	370,629 (100.0)
육류 가공업	19,353 (6.2)	20,384 (7.1)	27,034 (9.1)	32,586 (12.4)	42,894 (13.7)	45,523 (13.9)	49,096 (14.4)	51,332 (14.5)	52,259 (14.8)	54,391 (14.7)
수산물 가공업	56,596 (18.1)	41,914 (14.7)	37,925 (12.8)	33,559 (12.8)	40,451 (12.9)	40,362 (12.3)	41,340 (12.1)	42,090 (11.9)	40,824 (11.6)	42,834 (11.6)
과·채 가공업	14,729 (4.7)	15,071 (5.3)	17,876 (6.0)	18,644 (7.1)	24,980 (8.0)	27,905 (8.5)	29,999 (8.8)	31,416 (8.9)	32,506 (9.2)	35,686 (9.6)
유지류 제조업	10,989 (3.5)	8,375 (2.9)	7,668 (2.6)	7,800 (3.0)	7,664 (2.4)	7,906 (2.4)	7,960 (2.3)	8,289 (2.3)	8,519 (2.4)	8,856 (2.4)
낙농품 및 빙과류 제조업	14,925 (4.8)	14,248 (5.0)	11,189 (3.8)	8,808 (3.4)	10,525 (3.4)	10,503 (3.2)	10,414 (3.0)	10,803 (3.1)	11,137 (3.2)	11,277 (3.0)
곡물 가공 및 제조업	43,597 (14.0)	39,412 (13.8)	23,003 (7.7)	20,305 (7.7)	21,739 (6.9)	22,382 (6.8)	23,641 (6.9)	24,094 (6.8)	22,221 (6.3)	23,467 (6.3)
기타 식품 제조업	113,654 (36.4)	117,951 (41.3)	144,297 (48.5)	132,303 (50.4)	154,376 (49.3)	162,017 (49.5)	168,671 (49.3)	174,031 (49.2)	173,252 (49.2)	181,521 (49.0)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44,534 (14.3)	39,394 (13.8)	62,073 (20.9)	51,744 (19.7)	57,905 (18.5)	60,714 (18.5)	62,305 (18.2)	61,299 (17.3)	-	63,362 (17.1)
설탕 제조업	1,364 (0.4)	1,076 (0.4)	1,155 (0.4)	546 (0.2)	325 (0.1)	387 (0.1)	652 (0.2)	613 (0.2)	-	646 (0.2)
면 및 유사식품 제조업	12,530 (4.0)	14,790 (5.2)	9,364 (3.1)	8,434 (3.2)	8,614 (2.7)	9,259 (2.8)	9,296 (2.7)	9,979 (2.8)	-	9,972 (2.7)
조미료 및 첨가물 제조업	15,220 (4.9)	13,966 (4.9)	18,404 (6.2)	17,917 (6.8)	24,271 (7.7)	25,342 (7.7)	26,799 (7.8)	26,878 (7.6)	-	27,849 (7.5)
기타 식료품 제조업	40,006 (12.8)	48,725 (17.1)	53,301 (17.9)	53,662 (20.4)	63,261 (20.2)	66,315 (20.3)	69,619 (20.4)	75,262 (21.3)	-	51,158 (13.8)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	-	-	-	-	20,976 (6.4)	22,658 (6.6)	26,229 (7.4)	-	28,534 (7.7)
사료 및 조제식품	11,190 (3.6)	7,816 (2.7)	8,779 (3.0)	8,647 (3.3)	10,793 (3.4)	10,783 (3.3)	10,968 (3.2)	11,894 (3.4)	11,754 (3.3)	12,597 (3.4)
음료 제조업	27,317 (100.0)	20,488 (100.0)	19,670 (100.0)	16,060 (100.0)	18,142 (100.0)	18,640 (100.0)	20,001 (100.0)	20,858 (100.0)	19,654 (100.0)	20,272 (100.0)
알콜음료 제조업	14,319 (52.4)	11,732 (57.3)	8,991 (45.7)	8,685 (54.1)	9,123 (50.3)	8,996 (48.3)	9,423 (47.1)	9,463 (45.4)	8,997 (45.8)	9,317 (46.0)
비알콜음료 제조	12,998 (47.6)	8,756 (42.7)	10,679 (54.3)	7,375 (45.9)	9,019 (49.7)	9,644 (51.7)	10,578 (52.9)	11,395 (54.6)	10,657 (54.2)	10,955 (54.0)

주: 2020년 조사기반 자료의 경우, 기타 식품제조업 내 세부 업종에 대한 자료는 공표되지 않음.

자료: 통계청(2020), 전국사업체조사; 경제총조사.

2. 2021~2022년 식품제조업 출하 및 물가 동향

2.1. 식품제조업 전반 출하 및 출하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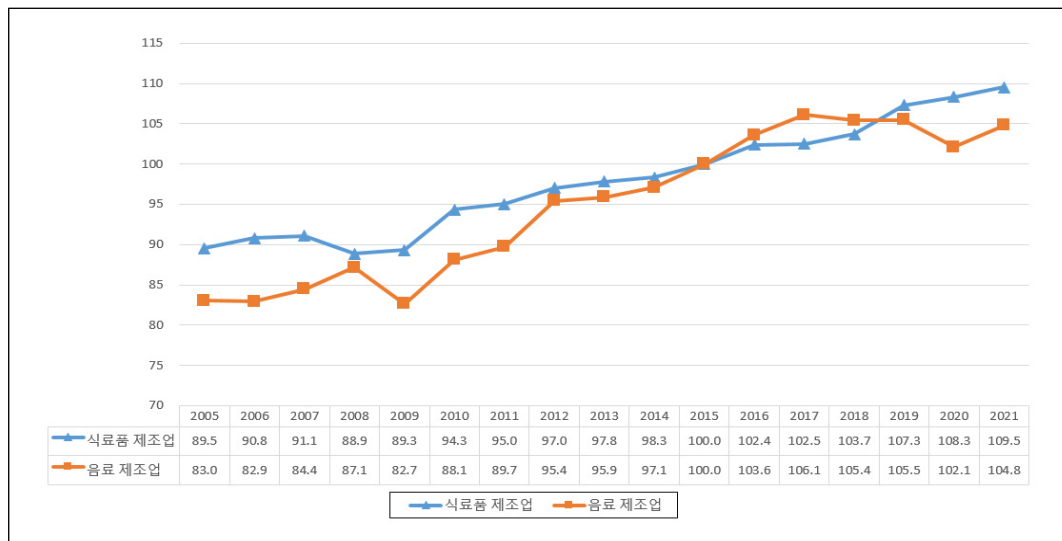
□ 2021~2022년 식품제조업의 출하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으며, 도매물가도 상승 추세 지속

○ (연도별) 출하지수 기준, 2021년 식료품제조업 출하는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고, 음료제조업 출하는 2.6% 증가함.

- 식료품제조업 출하지수: ('20)108.3 → ('21)109.5

- 음료제조업 출하지수: ('20)102.1 → ('21)104.8

〈그림 1-7〉 연도별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출하지수 추이(201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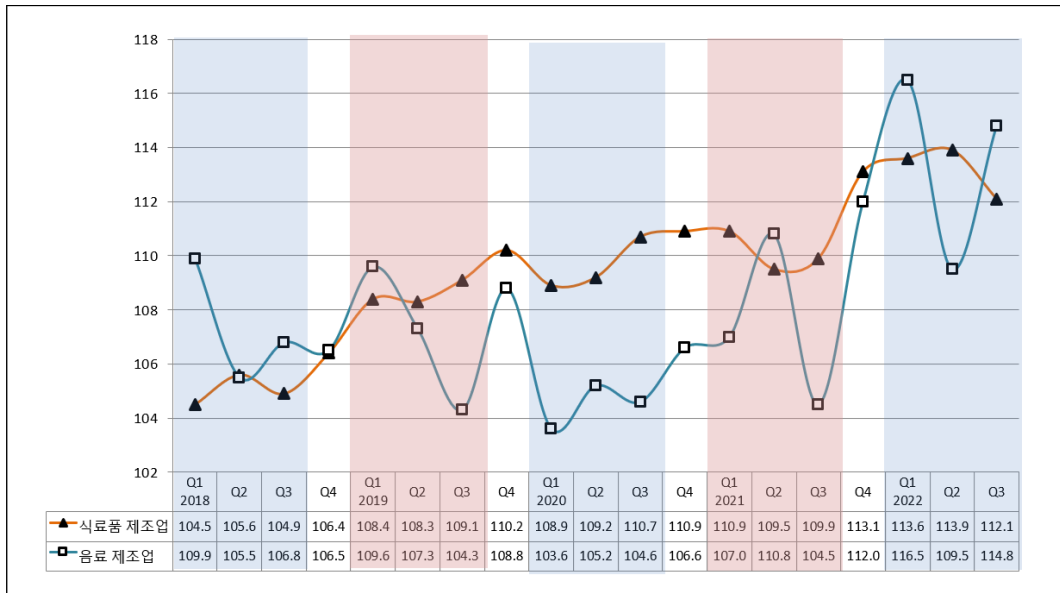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분기별) 2022년 3분기 식료품제조업 출하는 전분기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음료제조업 출하는 1분기 크게 증가했다가, 2분기에는 다시 2021년 4분기 수준으로 감소, 3분기에는 다시 2022년 1분기 수준으로 회복함.

- 식료품제조업 3분기 출하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 음료제조업 출하는 9.9% 증가

- 식품제조업 출하지수: ('21 3분기)109.9 → ('22 3분기)112.1
- 음료제조업 출하지수: ('21 3분기)104.5 → ('22 3분기)114.8

〈그림 1-8〉 분기별 식품 및 음료 제조업 출하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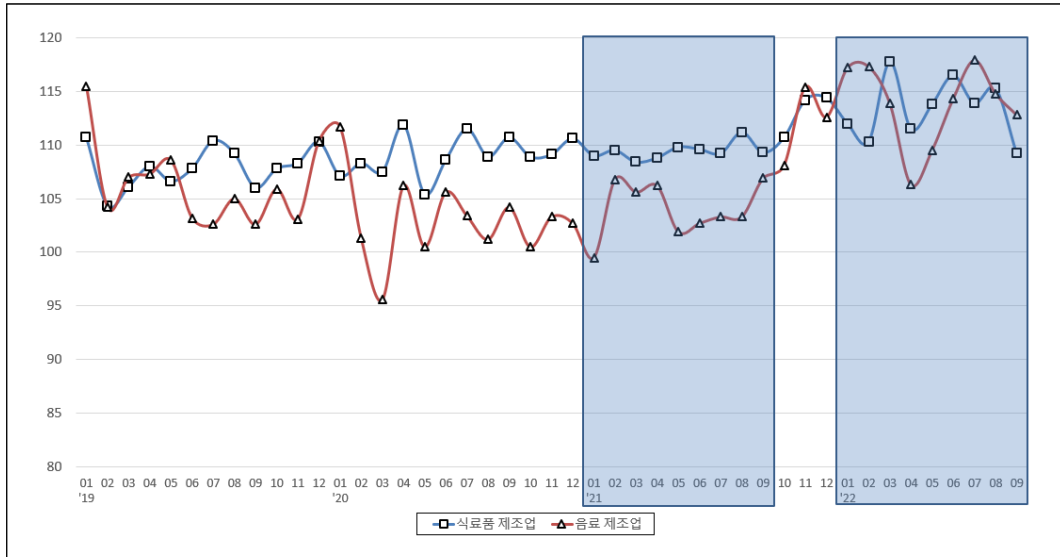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월별) 2022년 1~9월 식품제조업의 출하지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3월에 크게 높고 그 외 달에서는 전년 하반기와 유사한 수준임. 음료제조업 출하지수의 경우, 2~3월에 정점을 찍고 하락 추세임. 5월과 6월의 추세는 음료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이 흐름이 동일했으나 7월에서 9월까지 식품제조업의 출하지수는 대체로 하락세를 보임.

- 식품제조업 출하지수: 1~2월 하락, 3월 크게 증가, 4월 크게 하락, 5~6월 소폭 증가, 7월 다시 소폭 하락한 이후 8월에 반등하였으나 9월에 크게 하락
- 음료제조업 출하지수: 1~2월 크게 상승, 3~4월 크게 하락, 5월 소폭 증가, 6~7월 증가 추세 이후 8~9월은 하락세

〈그림 1-9〉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출하지수 월별 추이(2015=100)



자료: 통계청(각 연도),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2020년 식품제조업 출하액은 전년 대비 11.5% 증가한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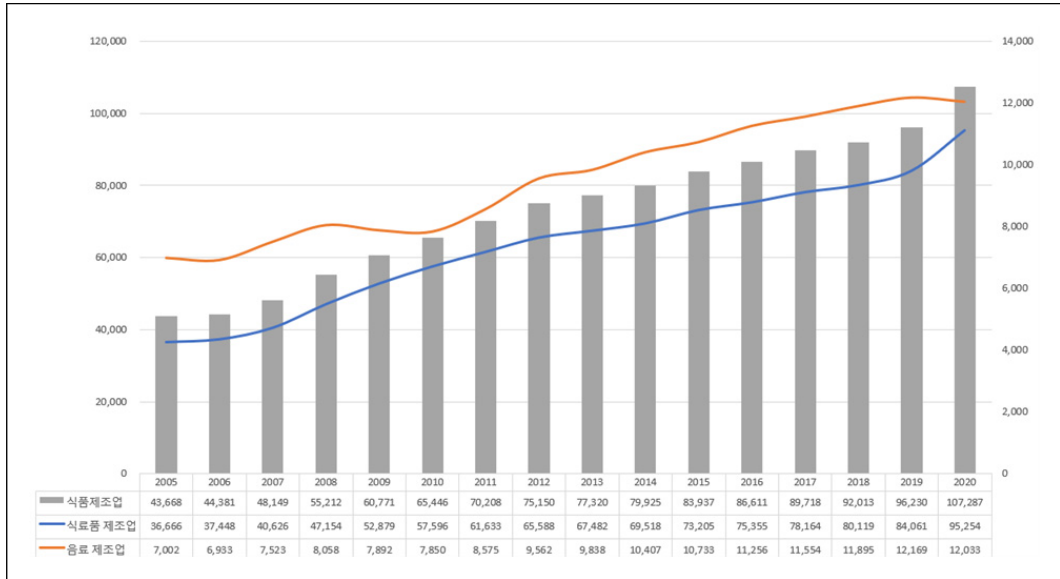
○ 2020년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 출하액은 각각 전년 대비 13.3% 증가, 1.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식료품제조업 출하액(십억 원): ('19) 84,061 → ('20) 95,254 (↑ 11,193)

- 음료제조업 출하액(십억 원): ('19) 12,169 → ('20) 12,033 (↓ 136)

〈그림 1-10〉 식품제조업 출하액 추이

단위: 십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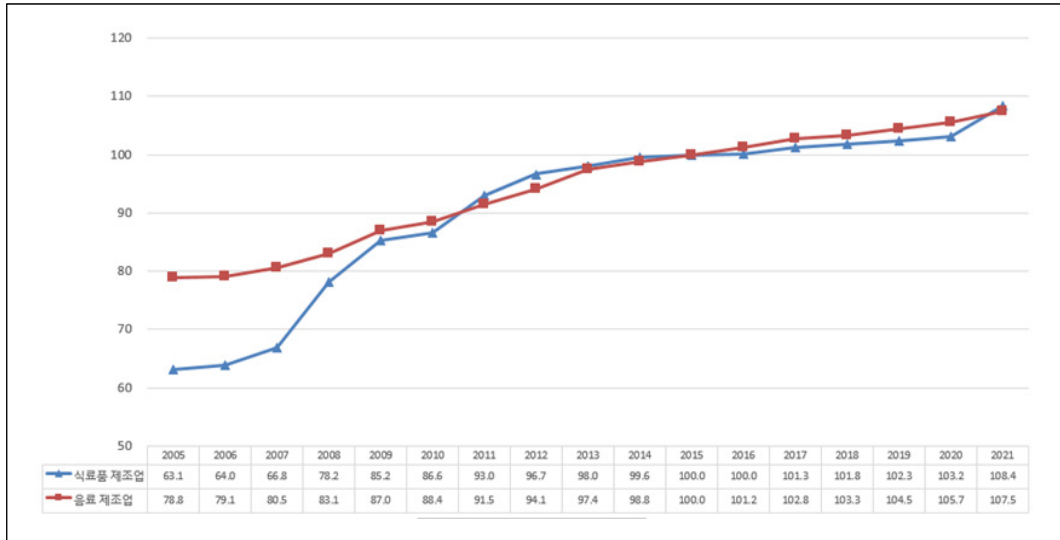
주 :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

2.2. 식품제조업 물가 동향

○ (연도별) 2021년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각각 5.0%, 1.7% 상승하는 등 식품 도매물가가 크게 상승함.

- 식료품제조업 생산자물가지수: ('20)103.2 → ('21)108.4
- 음료제조업 생산자물가지수: ('20)105.7 → ('21)107.5

〈그림 1-11〉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생산자물가지수 연도별 추이(2015=100)



자료: 한국은행(각 연도). 생산자물가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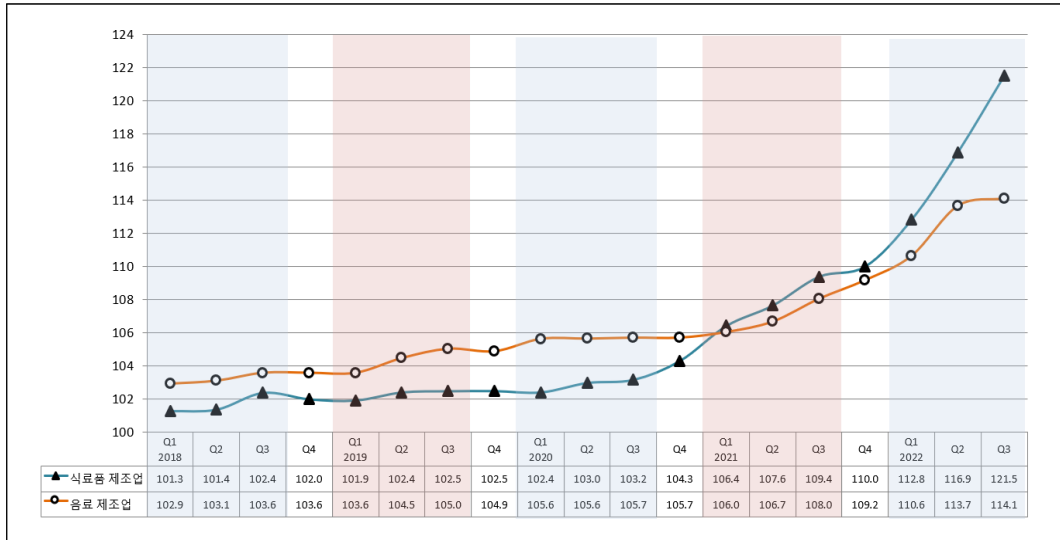
○ (분기별) 분기별 식료품 및 음료제조업의 생산자물가지수를 살펴본 결과, 식료품제조업의 경우 2020년 4분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22년 1~3분기 들어 급증한 경향을 보임.

- 식료품제조업 생산자물가지수: ('21 3분기)109.4 → ('22 3분기)121.5

○ 음료제조업 또한 2021년 3분기부터 비교적 급등하기 시작했으나, 식료품제조업보다는 다소 늦게 물가 상승이 시작되었으며, 상승세는 2022년 3분기에 소폭 꺾임.

- 음료제조업 생산자물가지수: ('21 3분기)108.0 → ('22 3분기)114.1

〈그림 1-12〉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생산자물가지수 분기별 추이(2015=100)



자료: 한국은행(각 연도). 생산자물가지조사.

○ (월별) 2022년 1~9월 식료품 및 음료제조업의 생산자물가지수를 살펴본 결과, 식료품 제조업의 생산자물가지수는 2022년 3~4월 급등, 5~6월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음료제조업의 경우, 1~4월까지 크게 증가한 후 5~9월은 완만한 유지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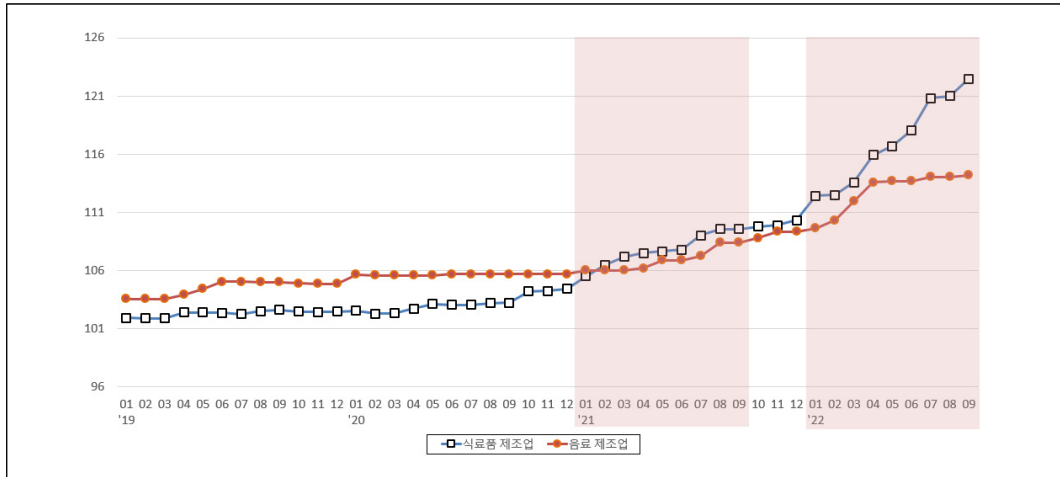
- 식료품제조업 생산자물가지수: ('21. 1~9월)107.8 → ('22. 1~9월)117.1
- 음료제조업 생산자물가지수: ('21. 1~9월)106.9 → ('22. 1~9월)112.8

〈표 1-3〉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생산자물가지수 비교(2015=100)

구분	2021년 1~9월	2022년 1~9월	증감률(%)
식료품제조업	107.8	117.1	8.6
음료제조업	106.9	112.8	5.5

자료: 한국은행(각 연도). 생산자물가지조사.

〈그림 1-13〉 식품품 및 음료 제조업 생산자물가지수 월별 추이(2015=100)



자료: 한국은행(각 연도). 생산자물가지조사.

2.3. 식품제조업 품목별 출하 및 판매액

□ 과·채 가공, 낙농품을 제외하고는 모든 식품제조업 업종에서 출하는 증가, 모든 식품제조업 업종에서 생산자물가지수는 증가

○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알콜음료 제조업(11.3%),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7.6%), 곡물가공품(7.2%), 식용 유지(5.5%), 기타식품(4.9%) 등의 순으로 높은 출하 증가율을 나타냄.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며 외식 소비가 회복됨에 따라 외식업에서 주로 소비되는 음료 전반과 곡물 가공품, 유지의 전반적 출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됨.
- 유지 및 곡물가공품, 사료의 경우 가격 및 출하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수급 불안정성에 의해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출하지수가 감소한 업종은 과·채가공과 낙농품(유가공품)임. 이는 2022년 상반기 낙농품 수입이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제품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하였음.

- 2022년 상반기 기준, 전체 유제품 수입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치즈(37.8%)의 경우 수입량이 전년 상반기 대비 6.1% 감소한 반면, 비중 17.5%를 차지하는 생우유 수입량은 38.3% 증가, 비중 8.0%를 차지하는 버터의 경우 42.2% 증가

〈표 1-4〉 2022년 1~3분기 업종별 출하지표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업종명(축약 업종명)	출하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식료품제조업	3.4	8.6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육류가공)	2.0	9.3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수산물가공)	4.2	5.7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과채가공)	-0.9	3.9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유지)	5.5	24.5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낙농품)	-6.2	4.0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곡물가공 및 전분)	7.2	10.1
기타 식품 제조업(기타식품)	4.9	4.5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사료 및 조제식품)	4.5	18.7
음료제조업	9.3	5.5
알콜음료 제조업(알콜음료)	11.3	5.9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비알콜음료)	7.6	5.2

주 1) 기타 식품 제조업에는 떡, 빵 및 과자류, 면류, 조미료 및 첨가물, 건강보조식품, 도시락 등이 포함됨.

2) 생산자물가지수는 출하지수의 산업 분류와 유사하게 적용하여 계산함.

자료: 통계청(2022).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경제총조사; 한국은행(각 연도). 생산자물가지조사.

○ 2021년 출하액은 알콜음료(주류)와 유가공을 제외하면 모두 증가세에 있음. 특히 2021년에 빠른 회복세로 전환된 업종은 유지류와 비알콜음료로 급식 부문의 수요 회복세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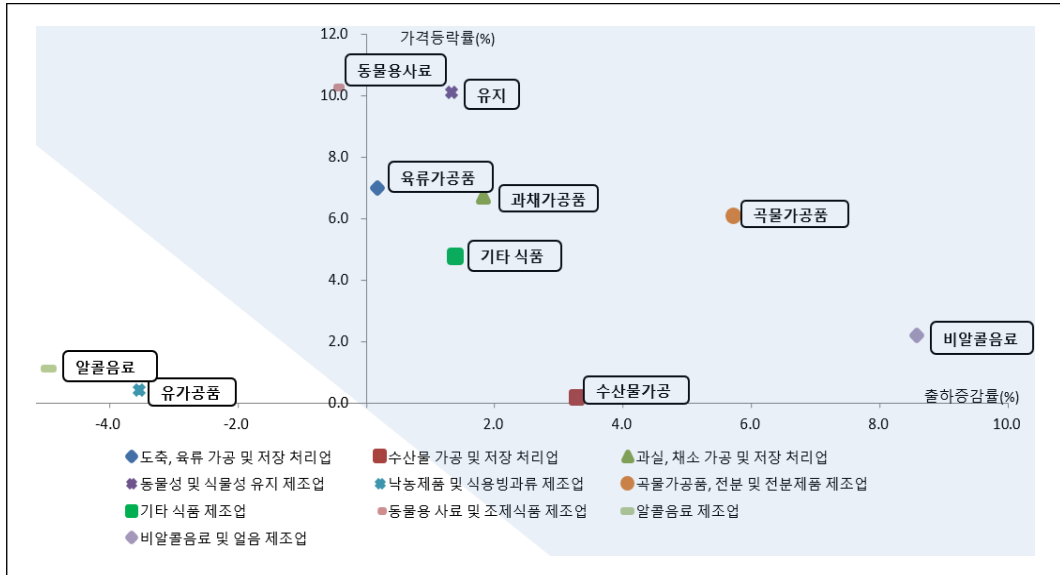
○ 특히 2022년에 출하가 회복된 업종은 곡물가공, 음료류 및 수산물가공으로 확인됨.

○ 2022년에 음료 출하가 증가한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며 외식 수요가 회복되고, 외부 활동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2년 3분기 유지류 및 육류가공품, 곡물가공품이나 동물용 사료의 가격이 크게 증가한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수급 불안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

〈그림 1-14〉 2021년 기준 전년대비 업종별 출하·가격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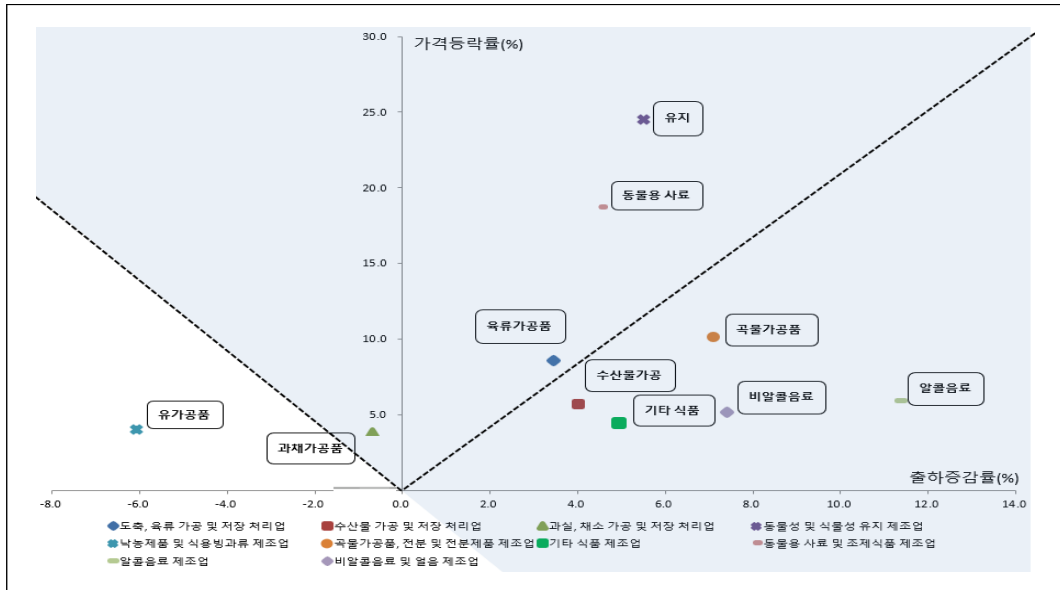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2020, 2021).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한국은행(2020, 2021). 생산자물가지수.

〈그림 1-15〉 2022년 1~3분기의 전년대비 업종별 출하·가격 변화율

단위: %



자료: 통계청(2020, 2021).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한국은행(2020, 2021). 생산자물가지수.

□ 2021년 국내판매액 증가 식품군은 식용유지류, 건강기능식품, 육가공품, 면류, 농산가공식품류, 음료류, 두부류 또는 묵류, 즉석식품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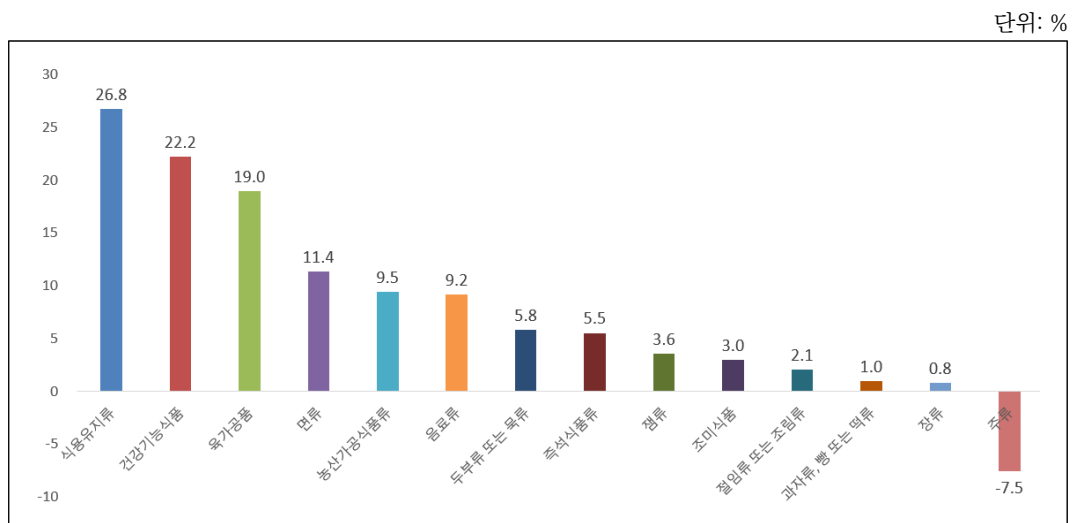
○ 2021년 식품의 실질 국내 판매액은 전년 대비 5.2% 증가해 2019년, 2020년의 전년 대비 국내판매액 증가율인 1.5%, 0.7%를 크게 상회함.

- 2021년에 전년 대비 식용유지류와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육가공품의 국내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8%, 22.2%, 19.0%씩 크게 증가함.

○ 2021년 식품의 국내 판매액 증가 요인은 코로나19 관련 조치의 완화로 인한 외식수요 증대와 더불어 건강 및 간편성에 대한 선호 트렌드가 유지 및 확대됨.

- aT 2021년 식품 등의 생산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내판매액 감소 식품군은 알가공품류(-44.41%),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26.44%), 코코아류(-8.07%)와 주류(-7.50%) 등으로 나타나, POS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수치와도 유사함.

〈그림 1-16〉 2021년 식품 품목군별 전년(2020년)대비 판매액 증감률



주 1) 육가공품은식육가공품 및 포장육과 동물성가공식품류판매액을 합한 값을 기반으로 산출한 값임.

2) 해당 값은 품목군별 판매액을 생산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하시킨 값에 대한 증감률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21), 2021년 식품 등의 생산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1-5〉 품목군별 국내판매액 변동현황

단위: 백만 원, %

품목군	2019년			2020년			2021년		
	국내 판매액	점유율	증가율	국내 판매액	점유율	증가율	국내 판매액	점유율	증가율
계	59,468,995	100.0	2.17	60,429,265	100.00	1.61	66,334,198	100.00	9.8
과자, 빵, 떡류	6,578,074	11.04	5.89	6,848,228	11.33	4.11	7,087,756	10.68	3.50
빙과류	353,038	0.59	-12.03	361,941	0.60	2.52	396,079	0.60	9.43
코코아류	961,458	1.61	0.56	880,532	1.46	-8.42	809,768	1.22	-8.04
당류	1,617,225	2.72	-3.81	1,635,504	2.71	1.13	1,827,539	2.76	11.74
잼류	160,723	0.27	5.93	146,447	0.24	-8.88	155,437	0.23	6.14
두부 또는 묵류	704,065	1.18	0.23	771,632	1.28	9.60	893,525	1.35	15.80
식용유지류	2,100,179	3.53	6.99	1,985,863	3.29	-5.44	2,771,739	4.18	39.57
면류	2,781,111	4.67	-0.73	2,445,030	4.05	-12.08	2,745,857	4.14	12.30
음료류	8,544,088	14.35	1.17	8,588,018	14.21	0.51	9,583,209	14.45	11.59
특수영양식품	392,424	0.66	5.95	397,899	0.66	1.40	427,522	0.64	7.44
장류	1,071,644	1.80	2.52	1,165,418	1.93	8.75	1,198,909	1.81	2.87
조미식품	4,299,422	7.22	3.95	4,459,637	7.38	3.73	5,080,585	7.66	13.92
절임 또는 조림류	2,312,584	3.88	3.81	2,433,660	4.03	5.24	2,605,537	3.93	7.06
농산가공식품류	3,260,799	3.52	3.52	3,458,322	5.72	6.06	3,951,612	5.96	14.26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168,331	0.28	24.96	236,609	0.39	40.56	284,720	0.43	20.33
알가공품류	9,536	0.02	31.83	8,010	0.01	-16.01	7,233	0.01	-9.69
수산가공식품류	5,082,214	8.53	2.85	5,238,541	8.67	3.08	5,669,677	8.55	8.23
동물성가공식품류	89,916	0.15	33.03	104,942	0.17	16.71	121,787	0.18	16.05
별곡 및 화분가공품류	16,782	0.03	146.99	10,595	0.02	-36.87	8,574	0.01	-19.07
즉석식품류	4,205,908	7.06	13.43	4,425,381	7.32	5.22	4,985,849	7.52	12.66
기타식품류	1,646,517	2.76	8.68	1,782,560	2.95	8.26	1,992,823	3.00	11.80
첨가물	1,858,364	3.12	4.75	1,604,206	2.65	-13.69	1,944,579	2.93	21.23
식품조사처리	335	0.00	257.44	51	0.00	084.65	35	0.00	-30.87
주류	5,281,302	8.87	6.68	5,255,327	8.70	-0.49	4,913,046	7.41	-6.51
기구 및 용기포장	5,955,313	10.00	-12.92	6,163,734	10.20	3.50	6,841,979	10.31	11.00
용기류	17,631	0.03	-9.18	21,346	0.40	21.07	16,296	0.02	-23.66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21), 식품 등의 생산실적.

□ 2018년부터 완만한 증가 추세에 있던 식품 생산액은 2021년 크게 증가

○ 2021년 생산액이 빠르게 증가한 식품류는 육가공품으로, 2018년 생산액 대비 약 110% 증가하였고, 이어서 동물성 가공식품(44.7%), 농산가공식품류(28.6%), 즉석식품류(28.6%), 조미식품(26.8%), 음료류(12.7%), 과자류·빵류 또는 떡류(11.5%) 순으로 높은 생산액 증가율을 나타냄.

○ 2018년 대비 2021년 생산액이 감소한 품목으로는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22.1%)와 알가공품류(-1.3%)로 확인됨.

〈표 1-6〉 식품제조업 업종별 생산액 변화 추이

품목	2018	2019	2020	2021	2018/2021 생산액 변화율
전체 합	48,685,303	49,890,950	50,699,966	56,265,959	15.6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111,615	148,097	185,478	234,513	110.1
동물성가공식품류	54,137	77,958	64,943	78,316	44.7
기타식품류	1,390,612	1,511,687	1,637,244	1,839,544	32.3
식용유지류	1,970,287	2,002,073	1,989,527	2,597,401	31.8
농산가공식품류	2,695,854	2,845,311	3,120,842	3,466,105	28.6
즉석식품류	3,581,323	4,158,420	4,003,288	4,604,495	28.6
조미식품	3,670,041	3,869,774	4,080,600	4,652,976	26.8
당류	1,430,720	1,465,195	1,507,391	1,791,127	25.2
두부류 또는 묵류	600,692	612,468	646,945	732,710	22.0
절임류 또는 조림류	1,968,069	2,093,843	2,197,748	2,340,705	18.9
면류	2,882,969	2,827,122	3,058,338	3,381,836	17.3
식품첨가물	2,087,397	2,133,580	2,342,578	2,410,276	15.5
장류	786,459	689,312	836,169	902,744	14.8
수산가공식품류	4,692,169	4,807,610	4,807,543	5,300,053	13.0
음료류	6,477,864	7,016,616	6,512,930	7,302,771	12.7
특수용도식품	268,784	265,212	284,187	300,642	11.9
과자류, 빵류또는 떡류	5,651,384	5,931,482	6,070,923	6,301,218	11.5
별꿀 및 화분가공품류	6,087	5,819	8,312	6,731	10.6
잼류	120,701	95,071	131,595	131,583	9.0
빙과류	336,433	328,710	330,330	349,522	3.9
알가공품류	6,972	8,368	6,974	6,880	-1.3
기구 및 용기포장	6,769,922	5,868,036	5,943,293	6,655,827	-1.7
웅기류	18,656	17,870	17,933	15,767	-15.5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1,106,156	1,111,318	914,855	862,216	-22.1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각 연도), 식품 등의 생산실적.

□ 대형마트 POS 데이터 분석 결과, 전년 대비 2022년에 판매액이 대체로 증가한 품목은 식용유 및 주류, 판매액이 감소한 품목은 유제품, 가공면류, 조미료, 편의식품, 통조림

○ 유제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구르트와 흰우유가 2020년 1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 음.

- 가공면류 역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1분기 대비 2020년 1분기에 판매량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2022년 1분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함.
- 조미료의 경우, 소금과 꿀을 제외한 모든 세부 품목에서 2019년 1분기~2022년 1분기까지 판매액이 대체로 감소하였으며, 그 중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폭으로 판매액이 감소한 품목은 음용식초와 겨자/와사비, 요리주, 액젓 순으로 나타남.
- 편의식품도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대부분의 품목에서 판매액이 증가한 이후 감소세에 들어섰으며, 2022년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품목은 스프(-29.6%), 죽(-13.2%), 햄/소시지(-6.3%), 만두(-5.1%)로 나타났고, 씨리얼(5.8%)과 레토르트 식품(34.4%)에 한하여 판매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통조림의 경우, 축산통조림, 수산통조림, 참치통조림은 2019년 1분기에서 2022년 1분기까지 지속적인 판매액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반찬통조림, 야채통조림, 과일통조림의 경우 동기간 판매액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내식 대체식으로 활용되던 반찬, 야채, 과일 통조림의 판매액이 코로나19 관련 제한 정책들이 완화되며 소비가 감소해 온 것으로 추측됨.
- 건강식품은 2022년 1분기 기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1분기 대비 모든 세부 품목(기타건강식품, 홍삼가공, 비타민)들의 판매액이 증가하였음.
- 음료의 경우, 2019년 1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대체로 판매액이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그 중 동기간 탄산수의 판매액 증가율이 약 52.4%로 가장 크게 성장함.
- 주류의 경우, 2019년 1분기 대비 2022년 1분기에 위스키, 와인과 같은 수입 주류의 판매액이 각각 199.3%, 50.8%와 같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일본 주류가 79.2%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차류는 원두커피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부품목에서 2019년 1분기 이후 2022년 1분기까지 판매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표 1-7〉 품목군별 판매 변동 추이

단위: 백만 원, %

품목군	세부분류	2019년 1분기	2020년 1분기	2021년 1분기	2022년 1분기	2019/2021 변화율	2021/2022 변화율
유제품	크림	3,264	3,702	3,982	3,463	22.00%	-13.00%
	버터	6,490	7,092	7,879	6,858	21.40%	-13.00%
	치즈	43,769	45,723	47,181	44,867	7.80%	-4.90%
	요구르트	102,141	101,593	93,324	85,913	-8.60%	-7.90%
	흰우유	101,790	104,629	96,411	93,899	-5.30%	-2.60%
	가공우유	24,320	24,073	24,150	26,948	-0.70%	11.60%
가공면류	파스타면	3,385	4,126	4,161	4,078	22.90%	-2.00%
	당면	7,227	7,682	7,663	6,824	6.00%	-11.00%
	기타면	23,005	25,062	24,300	23,844	5.60%	-1.90%
	국수면	3,445	4,375	3,490	3,504	1.30%	0.40%
	라면	148,527	167,982	125,894	131,124	-15.20%	4.20%
소스류	드레싱	1,194	1,378	1,509	1,459	26.40%	-3.30%
	스파게티소스	10,881	12,601	12,457	13,603	14.50%	9.20%
	기타소스	22,399	24,043	24,050	23,140	7.40%	-3.80%
	잼스프레드	7,343	7,247	6,369	6,343	-13.30%	-0.40%
	케찹	4,660	4,840	4,165	4,466	-10.60%	7.20%
	마요네즈	5,034	5,344	4,973	5,131	-1.20%	3.20%
식용유	올리브유	4,390	5,293	5,287	6,430	20.40%	21.60%
	참기름/들기름	7,576	8,821	8,401	8,587	10.90%	2.20%
	대두유	4,733	4,816	5,049	5,371	6.70%	6.40%
	기타 식용유	43,875	34,550	25,928	20,944	-40.90%	-19.20%
분말류	분말카레/짜장	7,352	8,789	6,812	7,138	-7.30%	4.80%
	분말류	15,147	16,716	14,669	13,471	-3.20%	-8.20%
조미료	겨자/와사비	1,970	2,039	2,562	2,158	30.00%	-15.80%
	소금	2,657	2,859	2,933	2,998	10.40%	2.20%
	물엿	4,275	4,883	4,635	4,429	8.40%	-4.50%
	후추	2,694	3,067	2,884	2,821	7.00%	-2.20%
	요리주	2,585	2,637	2,764	2,493	6.90%	-9.80%
	액젓	1,439	1,626	1,502	1,381	4.30%	-8.00%
	기타조미료	21,220	22,198	21,722	20,358	2.40%	-6.30%
	꿀	3,706	3,341	2,786	3,061	-24.80%	9.90%
	설탕	6,355	5,503	5,007	4,946	-21.20%	-1.20%
	음용식초	2,027	1,808	1,685	1,272	-16.90%	-24.50%
	요리식초	3,195	3,284	3,108	2,923	-2.70%	-5.90%

(계속)

품목군	세부분류	2019년 1분기	2020년 1분기	2021년 1분기	2022년 1분기	2019/2021 변화율	2021/2022 변화율
장류	된장	4,122	4,609	4,143	4,755	0.50%	14.80%
	고추장	13,312	13,118	11,601	12,722	-12.90%	9.70%
	간장	17,136	17,562	16,182	15,421	-5.60%	-4.70%
	쌈장	4,711	4,755	4,652	5,262	-1.20%	13.10%
편의식품	스프	3,187	3,273	5,810	4,093	82.30%	-29.60%
	즉석국	17,599	22,947	23,121	24,899	31.40%	7.70%
	어묵	22,876	26,876	25,450	24,703	11.30%	-2.90%
	즉석밥	42,283	51,644	45,194	44,945	6.90%	-0.60%
	죽	11,856	16,023	12,403	10,765	4.60%	-13.20%
	햄/소시지	67,747	76,715	69,099	64,752	2.00%	-6.30%
	씨리얼	30,802	31,490	26,678	28,227	-13.40%	5.80%
	기타레토르트	8,738	8,892	7,569	10,170	-13.40%	34.40%
	만두	52,693	59,894	46,759	44,384	-11.30%	-5.10%
	맛살	12,166	12,315	11,355	11,001	-6.70%	-3.10%
통조림	기타 통조림	51,576	60,007	76,632	62,055	48.60%	-19.00%
	축산통조림	50,733	46,964	55,686	61,829	9.80%	11.00%
	수산통조림	41,522	37,159	29,406	34,493	-29.20%	17.30%
	참치통조림	21,777	24,939	18,673	18,762	-14.30%	0.50%
	반찬통조림	2,721	3,489	2,352	2,159	-13.60%	-8.20%
	야채통조림	3,464	3,433	3,205	2,902	-7.50%	-9.40%
	과일통조림	2,347	2,650	2,191	1,896	-6.70%	-13.50%
건강식품	기타건강식품	22,871	29,650	31,333	29,147	37.00%	-7.00%
	홍삼가공	45,962	52,790	51,597	48,025	12.30%	-6.90%
	비타민	6,308	8,178	6,357	7,086	0.80%	11.50%
음료	탄산수	2,774	3,268	3,999	4,228	44.20%	5.70%
	기능성음료	12,458	12,438	9,626	11,213	-22.70%	16.50%
	주스	40,387	38,844	32,002	31,777	-20.80%	-0.70%
	두유	19,091	16,591	15,226	17,884	-20.20%	17.50%
	생수	44,437	46,845	37,977	40,847	-14.50%	7.60%
	탄산음료	41,787	41,163	41,140	45,805	-1.50%	11.30%
	위스키	11,751	12,283	20,089	35,168	71.00%	75.10%
주류	와인	44,051	43,843	63,947	66,437	45.20%	3.90%
	기타주류	11,580	11,481	14,898	18,981	28.70%	27.40%
	국산맥주	60,145	71,006	75,568	78,849	25.60%	4.30%
	탁주	7,513	7,568	9,000	9,693	19.80%	7.70%
	과실주	2,027	1,988	2,387	2,657	17.80%	11.30%
	소주	47,861	52,607	55,056	57,333	15.00%	4.10%
	수입맥주	57,979	40,255	36,522	30,758	-37.00%	-15.80%
	청주	4,229	4,047	3,561	3,582	-15.80%	0.60%
	일본주류	1,269	456	1,097	1,966	-13.60%	79.20%
	민속주	6,181	5,619	5,468	5,843	-11.50%	6.90%

(계속)

품목군	세부분류	2019년 1분기	2020년 1분기	2021년 1분기	2022년 1분기	2019/2021 변화율	2021/2022 변화율
차류	원두커피	10,752	13,773	14,772	15,096	37.40%	2.20%
	전통음료	1,584	1,721	1,766	1,750	11.50%	-0.90%
	녹차/홍차	4,188	3,481	2,743	3,301	-34.50%	20.30%
	식수차	5,836	5,083	4,174	4,275	-28.50%	2.40%
	인스턴스커피	104,557	86,010	79,968	74,057	-23.50%	-7.40%
	전통차	11,819	10,962	9,203	10,355	-22.10%	12.50%
	기타차	13,062	11,857	10,419	11,400	-20.20%	9.40%
	기타차음료	9,359	10,089	8,664	9,003	-7.40%	3.90%
커피음료	10,958	11,018	10,459	9,748	-4.60%	-6.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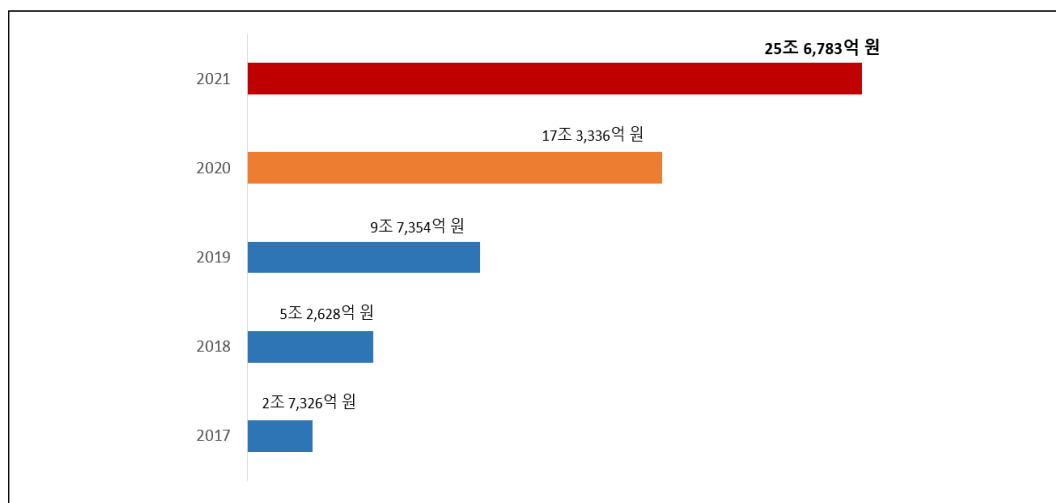
자료: 대형할인점(온라인 + 오프라인) POS 데이터(각 연도); 김상효 외(재인용, 2022).

2.4. 2021~2022년 온라인 식품소비 및 가계 식품지출 동향

□ 온라인을 통한 식품 거래액 및 소매판매액 대비 온라인 식품 거래액 비중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

○ 온라인을 통한 식품서비스 거래액은 '19년 9.7조 원 → '20년 17.3조 원 → '21년 25.7조 원으로 증가함.

〈그림 1-17〉 온라인 식품서비스 거래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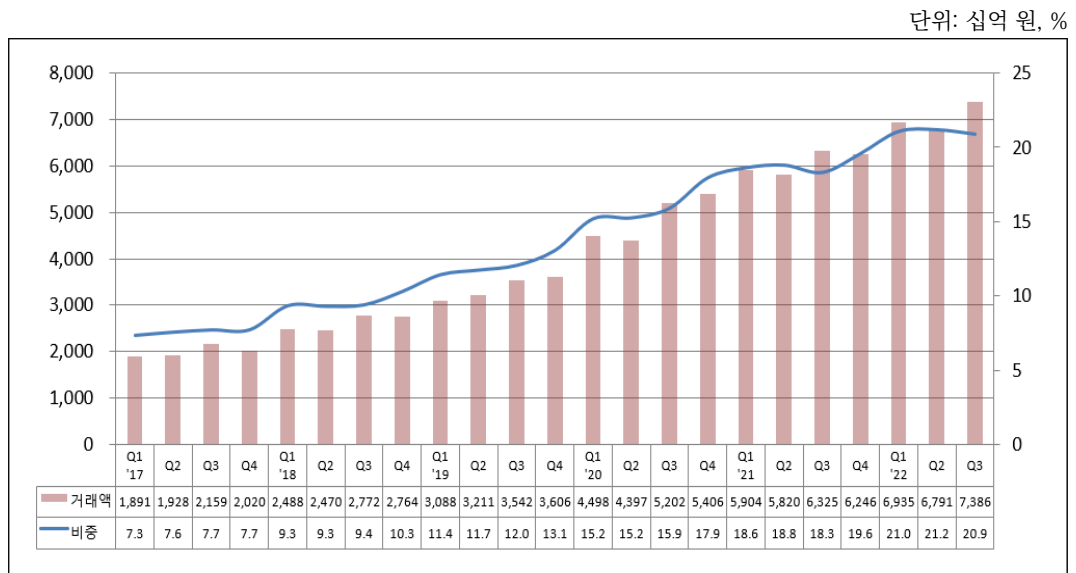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온라인 쇼핑동향조사.

□ 온라인 식품 판매액(거래액)의 경우, 2017년 1분기 1조 9천억 원에서 2022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여, 2022년 3분기의 경우 7조 4천억 원의 거래액을 달성

○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온라인 식품 판매액이 식품 소매 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분기 7.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4분기 기준 17.9%까지 상승하였고, 2022년 3분기에는 약 21%를 기록함.

〈그림 1-18〉 온라인 식품 판매액과 소매판매액 대비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각 연도), 서비스업동향조사; 온라인 쇼핑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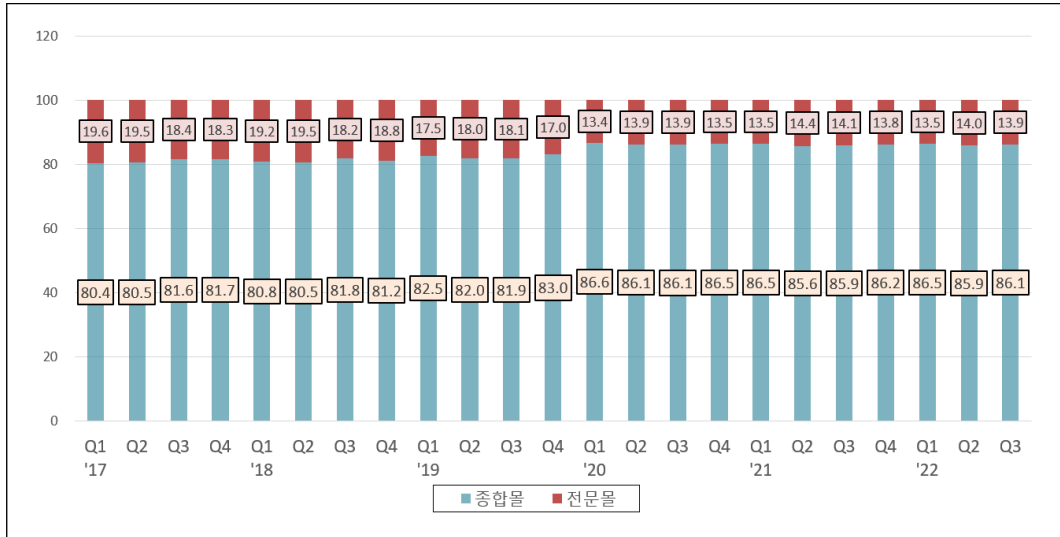
□ 음식료품의 온라인 거래액은 코로나19 발생 시점인 2020년을 기점으로 종합몰이 85%를 상회하여 전문몰 대비 거래액 비중에서 우위를 유지

○ 음식료품 온라인 운영형태별 거래액은 종합몰이 전체의 약 86%를 차지함.

○ 전문몰의 경우, 거래액 비중은 약 14%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온라인 거래에서 식품 취급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운영형태(매체)도 고객집단이나 상품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림 1-19〉 온라인 거래 음식료품 중 운영형태별 비중

단위: %



자료: 통계청(각 연도), 온라인 쇼핑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가구 내 식품비 지출은 2019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 유지하다 2022년 약 21%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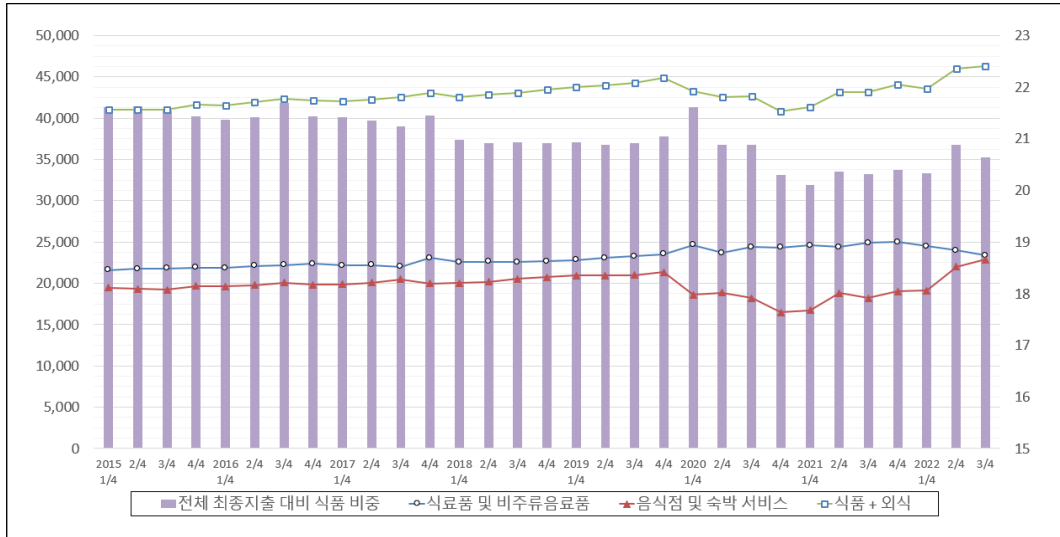
○ 가구 내 식품비 지출은 코로나19 이후에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 총식품비 지출액은 코로나19 확산 직전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총식품비 지출액(가구내+외식)은 2022년 1~3분기 135.9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5% 증가함.

○ 2022년 3분기 식품지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7.3% 증가하며 코로나19 확산 시점인 2020년 하반기 수준을 크게 상회함.

〈그림 1-20〉 식품 및 외식 실질 지출액 분기별 추이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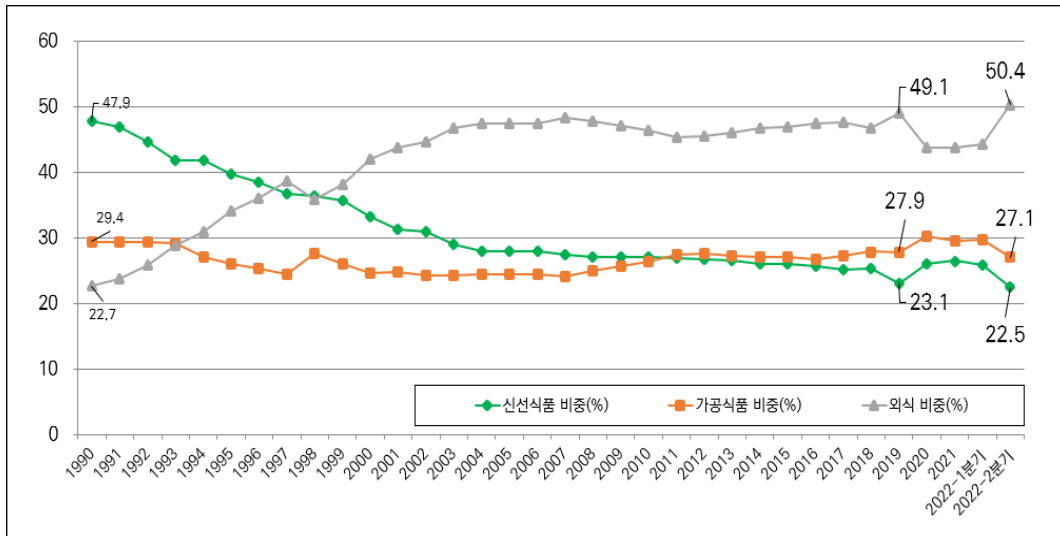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각 연도), 국민계정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21년 가구내(가정식)식품 지출액은 중 신선식품, 가공식품 모두 코로나19 이전보다 증가함.

〈그림 1-21〉 지출 목적별 실질 식품비 지출액 추이

단위: 천 원



자료: 이계임 외(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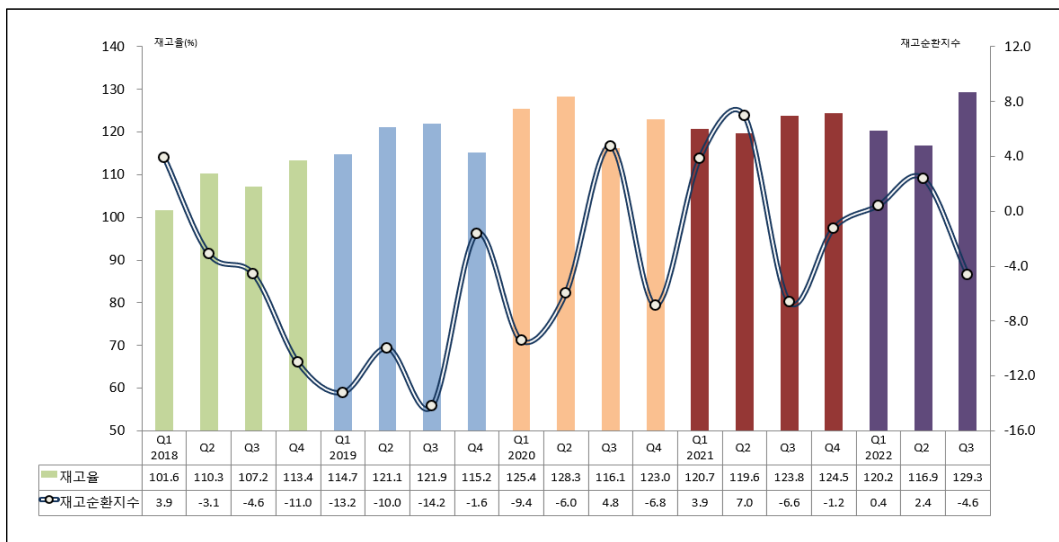
2.5. 식품제조업의 재고율

□ 2022년 3분기 식품제조업 재고율은 전년보다 상승

○ 2022년 3분기 식료품제조업의 재고율은 129.3%로 전년 동기보다 상승함.

○ 2021년 식료품제조업 재고순환지수는 1분기 3.9, 2분기 7.0, 그리고 3분기에는 -6.6, 4분기에는 -1.2로 하락하며, 재고 증가율이 출하 증가율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2년 1~2분기에 재고순환지수가 양수를 기록한 이후 3분기에 -4.6으로 다시 감소하며, 출하 증가율이 재고 증가율보다 낮아진 것으로 확인됨.

〈그림 1-22〉 식료품제조업 분기별 재고율과 재고순환지수



주 1) 재고율 = (재고량/출하량) × 100

2) 재고순환지수 = 전년 동기 대비 출하증가율 - 전년 동기 대비 재고증가율

자료: 통계청(각 연도), 광업제조업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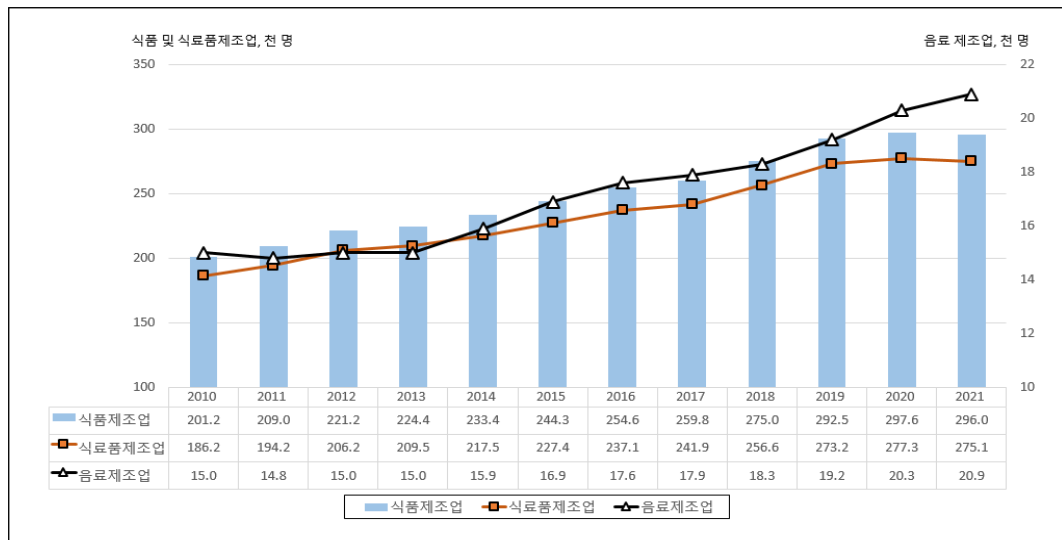
3. 2021~2022년 식품제조업 고용 동향

□ 2021년 식품제조업 고용은 전년대비 0.5% 감소

○ 2021년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 취업자수는 각각 전년 대비 -0.8%, 3.0% 변화했으며, 식품(식료품+음료)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0.5% 감소함.6)

- 식료품제조업 취업자수(천 명): ('20) 277.3 → ('21) 275.1
- 음료제조업 취업자수(천 명): ('20) 20.3 → ('21) 20.9
- 식품제조업 취업자수(천 명): ('20) 297.6 → ('21) 296.0

〈그림 1-23〉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취업자수 추이



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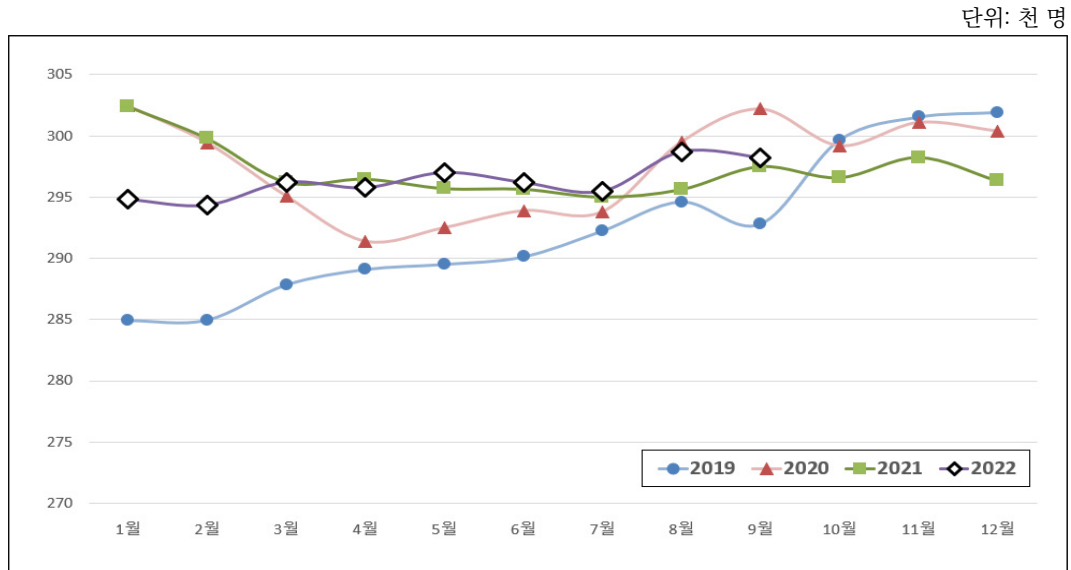
□ 2022년 1~9월 식품제조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

○ 2022년 9월 식품제조업 평균 취업자 수는 29만 8천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0.2% 증가함.

6) 취업자에서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는 제외함.

- 1~9월 식품제조업 평균 취업자 수(천 명): ('21) 297.2 → ('22) 296.3

〈그림 1-24〉 식품제조업 최근 3년간 월별 취업자 수 추이



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2년 1~3분기 식품제조업 취업자의 상용직 비율은 전년 동기대비 0.9%p 하락

○ 2021년 식품제조업 상용근로자 비율은 식료품제조업이 전년 대비 0.5%p 하락해 90.2%, 음료제조업은 전년 대비 1.3%p 하락한 95.5%를 나타내, 2014년 이후 이어져 오던 증가세가 감소세로 전환됨.

- 식료품제조업 상용근로자 비율: ('20) 90.7% → ('21) 90.2%

- 음료제조업 상용근로자 비율: ('20) 96.8% → ('21) 9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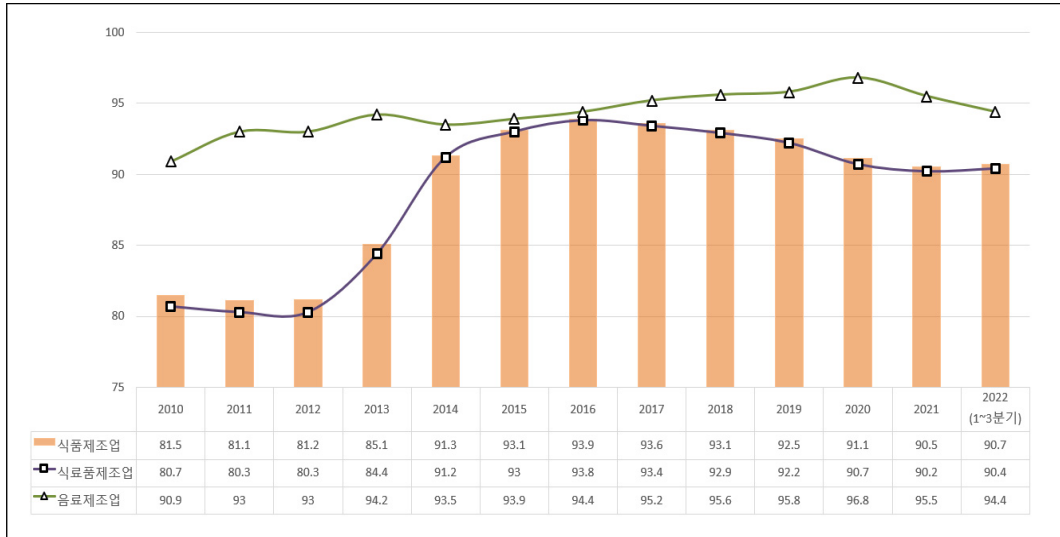
○ 2022년 1~3분기 상용근로자 비율은 식료품제조업이 전년대비 0.2%p 상승하여 90.4%를, 음료제조업은 전년대비 1.1%p 하락하며 94.4%를 나타냄.

- 2022년 1~3분기 식료품제조업 상용근로자 비율(%): ('21) 90.3 → ('22) 90.4

- 2022년 1~3분기 음료제조업 상용근로자 비율(%): ('21) 95.6 → ('22) 94.4

〈그림 1-25〉 식품제조업 취업자 중 상용직근로자 비율

단위: %



주: 상용근로자 비율은 상용근로자수/전체취업자수의 비율임.

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사업체노동력조사.

4. 식품 수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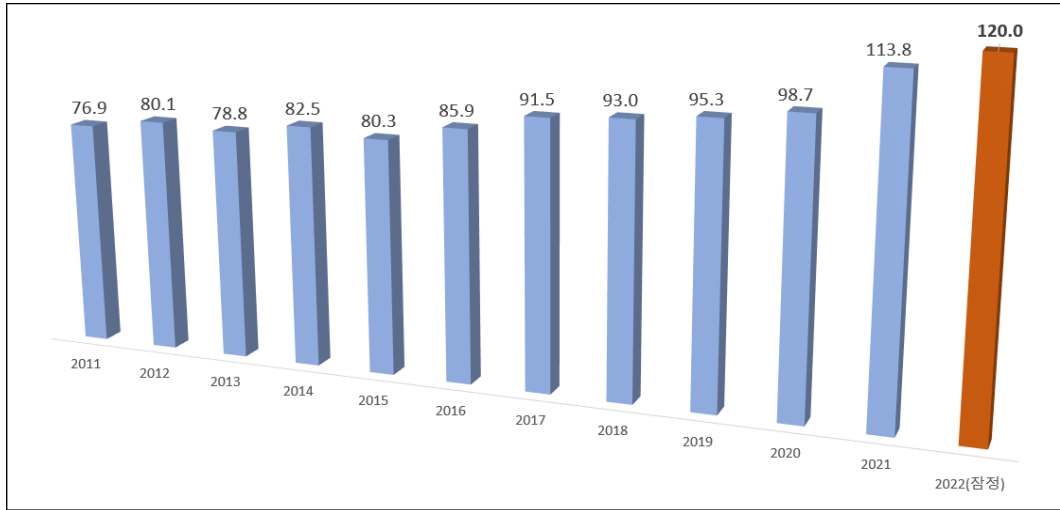
□ 2022년 농림수산물 수출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

○ 2022년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12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5.3% 증가함.

-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 한류와 연계된 K-푸드 상품군 개발 확대, 환율 등락에 따른 수출 변동성 해소, 원자재 수급 안정화, 물류 애로 해결, 수출선 다변화 등이 추후 점진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임.

〈그림 1-26〉 농림수산물 수출금액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KATI)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1-8〉 농림축산식품 수출 실적

단위: 천 톤(물량), 백만 달러(금액), %(증감률)

	2020년		2021년		증감률(B/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4,549.0	9,868.8	4,881.9	11,373.7	7.3	15.2
농림축산	3,934.8	7,564.3	4,069.1	8,558.1	3.4	13.1
신선	547.7	1,428.2	538.5	1,600.3	-1.7	12.1
가공	3,387.1	6,136.1	3,530.6	6,957.8	4.2	13.4
수 산	614.2	2,304.4	812.8	2,815.5	32.3	22.2

자료: aT,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동향 보고서(농식품수출정보).

○ 2016년부터 2022년 1~3분기까지 수출은 주로 참치, 라면, 김에 집중됨.

- 최근 7년간 참치, 김, 음료, 라면, 커피조제품등의 수출이 강세인 반면, 맥주는 2020년 이후 10위 바깥으로 이탈하는 양상을 보임.

〈표 1-9〉 연도별 농림수산물 수출 상위 20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2019		2020		2021		2022 1~3분기	
	품목	수출금액	품목	수출금액	품목	수출금액	품목	수출금액
1위	김	579.2	라면	603.6	김	692.9	라면	568.1
2위	참치	571.6	김	600.4	라면	674.4	김	520.7

(계속)

순위	2019		2020		2021		2022 1~3분기	
	품목	수출금액	품목	수출금액	품목	수출금액	품목	수출금액
3위	라면	467.0	참치	528.0	참치	579.2	참치	493.3
4위	음료	422.0	음료	410.4	음료	485.1	음료	407.9
5위	커피조제품	270.3	커피조제품	274.6	커피조제품	315.2	커피조제품	248.8
6위	인삼류	210.3	인삼류	229.8	인삼류	267.0	명태	212.3
7위	맥주	146.2	김치	144.5	김치	159.9	인삼류	179.1
8위	자당	119.8	자당	138.1	명태	151.9	곡류조제품	108.1
9위	비스킷	116.1	비스킷	117.6	자당	147.6	개 사료	108.0
10위	김치	105.0	어류제품	103.5	비스킷	134.2	김치	107.5
11위	조제분유	95.9	곡류조제품	92.5	곡류조제품	133.7	대구	104.8
12위	어류제품	94.8	조제분유	90.9	어류제품	106.6	비스킷	103.4
13위	파프리카	91.5	파프리카	86.4	조제분유	105.2	자당	103.2
14위	소주	89.7	소주	85.6	개사료	101.9	조제분유	78.0
15위	배	83.3	닭고기	75.7	대구	99.9	어류제품	73.2
16위	굴	76.7	배	71.7	소주	98.2	소주	69.9
17위	곡류조제품	68.9	굴	71.5	파프리카	82.4	굴	68.4
18위	대구	64.7	맥주	68.5	리큐르	82.1	리큐르	66.8
19위	전복	61.5	개사료	67.4	굴	80.1	굴	68.4
20위	닭고기	61.5	인스턴트면	58.2	오징어	76.9	오징어	43.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 IHS Markit: aTKATI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최근 7년간 수출 상위 5개국에는 일본, 중국, 미국, 베트남, 대만이 포함됨. 대체로 일본, 중국, 미국이 수출 상위 1~3순위를 유지해 왔으며, 이어서 베트남, 홍콩과 대만이 4, 5위에서 경합하는 양상을 보임.

○ 주요 수입 국가는 미국, 중국, 호주가 각각 1~3순위를 유지했으며, 이어서 브라질과 베트남이 4, 5순위로 확인됨.

〈표 1-10〉 연도별 수출 상위 5개 국가

단위: %

순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3분기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위	일본	22.1	일본	22.8	일본	22.4	일본	22.6	일본	20.2	중국	18.2	일본	18.3
2위	중국	17.2	중국	14.9	중국	16.1	중국	17.1	중국	16.0	일본	18.1	중국	18.2
3위	미국	10.2	미국	11.2	미국	11.6	미국	12.3	미국	15.4	미국	14.6	미국	13.9
4위	베트남	5.8	베트남	5.3	베트남	6.3	베트남	7.0	베트남	6.6	베트남	6.6	베트남	7.2
5위	아랍 에미리트	4.8	아랍 에미리트	4.9	홍콩	4.6	홍콩	4.3	홍콩	4.4	대만	4.1	대만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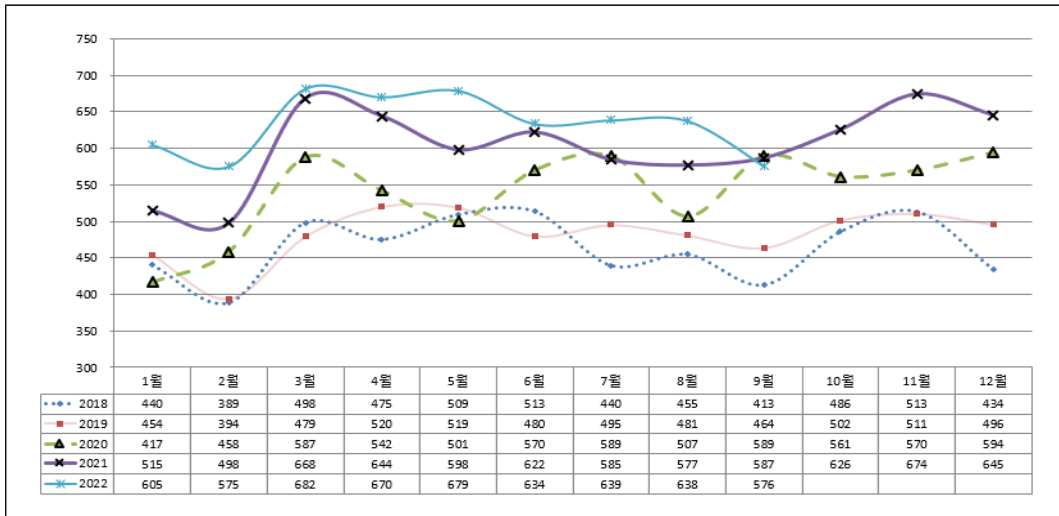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 IHS Markit: aT KATI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2022년 1~3분기 가공식품 수출액은 57.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어져 온 가공식품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였음(그림 1-27).

- 품목군별 수출액은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류가 가장 큰 폭(25.5%)으로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조제 사료(21.7%), 코코아와 그 조제품(20.4%), 낙농품(14.9%) 등 순임.

〈그림 1-27〉 가공식품 월별 수출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HS Markit.

○ 2022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폭이 큰 품목을 살펴보면, 라면류(19.9%), 음료류(10.9%), 커피제품(6.7%), 김(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동기간 김치의 판매액은 전년 대비 약 10% 감소하여 수출 하락세에 접어들.

〈그림 1-28〉 2022년 상반기 주요 수출 품목군별 수출액과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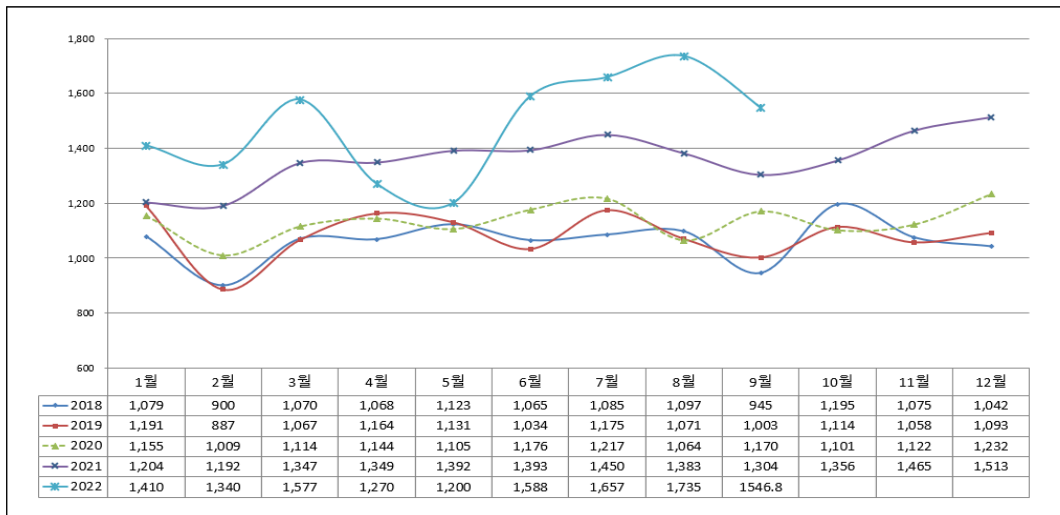
자료: IHS Markit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2022년 1~3분기 가공식품 수입액은 140.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0% 증가함.

- 품목군별 수입액은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12.3%,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류가 11.2%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다음으로는 조제사료(8.1%), 음료, 주류 식초 (6.6%) 순으로 확인됨.

〈그림 1-29〉 가공식품 월별 수입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HS Markit.

5. 경영실적, 비용구조, 경기 동향 및 전망

□ 2022년 식품제조업의 성장성은 전년 대비 개선

○ 2022년(1~3분기) 식품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과 총자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개선됨.

- 식품제조업의 매출액 증감률은 전산업이나 제조업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이는 그간 전반적으로 침체되었던 제조업 및 전 산업의 성장성 관련 지표들이 현재 코로나19 상황의 개선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로 인해 성장하며, 그간의 기저효과로 식품제조업 대비 상대적으로 더 큰 증가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됨.

〈표 1-10〉 식품제조업 성장성 지표 분기별 추이

단위: %

구분		2021년				20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매출액 증감률	전산업	7.4	18.7	15.4	24.9	17.0	20.5	17.5
	제조업	10.4	24.3	16.7	26.0	18.6	22.2	18.2
	식음료·담배	5.2	6.6	6.6	14.4	11.0	13.0	15.0
총자산 증감률	전산업	3.3	1.4	3.1	2.1	3.7	2.3	2.8
	제조업	3.5	1.4	3.3	1.3	4.8	2.9	2.4
	식음료·담배	1.9	1.5	3.1	-1.0	2.8	4.8	5.4

자료: 한국은행(2022). 2022년 1/4, 2/4, 3/4분기 기업경영분석(외감기업 대상).

□ 식품제조업의 수익성은 원료곡물 수입가격 상승 등 고물가 기조가 약해지며 개선

○ 2022년 1~3분기의 식품제조업의 영업이익이익률과 세전순이익률 모두 6%대 성장률을 기록함.

〈표 1-11〉 식품제조업 수익성 지표 분기별 추이

단위: %

구분		2021년				20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매출액 영업이익률	전산업	6.4	7.4	7.5	5.8	6.3	7.1	4.8
	제조업	6.7	9.0	9.6	7.5	8.4	8.6	5.4
	식음료·담배	6.4	6.5	6.5	1.0	5.5	6.6	6.7

(계속)

구분		2021년				20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	전산업	7.9	8.2	8.4	5.8	8.1	7.2	5.0
	제조업	8.0	10.7	10.3	6.9	10.5	8.4	6.2
	식음료·담배	6.7	7.3	6.5	0.0	5.7	6.2	6.1

주: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며,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은 영업이익에 영업 외 이익을 합산한 값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영업활동 관련 이익률에 해당하는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달리 영업활동과 재무활동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경영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임.

자료: 한국은행(2022). 2022년 1/4, 2/4, 3/4분기 기업경영분석(외감기업 대상).

□ 2022년 3분기 식품제조업의 재무안정성은 전년 동기 이후 소폭 회복

○ 식품제조업의 안전성 지표 중 차입금 의존도와 부채비율도 2~3분기에 전년보다 개선되는 양상을 보임.

〈표 1-12〉 식품제조업 안전성 지표 분기별 추이

단위: %

구분		2021년				20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부채비율	전산업	89.4	86.6	84.5	86.4	88.1	91.2	92.6
	제조업	71.7	65.9	63.8	64.8	65.7	70.8	71.3
	식음료·담배	76.6	85.3	85.1	87.6	92.9	80.2	82.8
차입금 의존도	전산업	24.4	24.6	24.2	24.1	23.9	24.5	25.2
	제조업	20.9	20.4	19.6	19.0	18.8	20.1	20.2
	식음료·담배	21.6	27.9	28.3	28.1	28.7	25.5	26.1

자료: 한국은행(2022). 2022년 1/4, 2/4, 3/4분기 기업경영분석(외감기업 대상).

□ 식료품제조업 영업이익률은 2010년 대비 5.8%p 감소, 음료 제조업은 6.5%p 증가

○ 식료품 제조업 중에서는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영업이익률이 20%를 상회하며 가장 높은 특징을 보이거나 대부분 감소함.

○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제조업” 영업이익률은 2010년에는 24.0%로 가장 높았으나 2020년에는 16.8%로 2위를 기록함.

○ 음료 제조업의 경우, 알코올음료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이 30%를 상회하며 꾸준히 높은 특징을 보임.

○ 2010년 대비 2020년 영업이익률이 가장 크게 감소한 업종은 과실, 채소 가공업으로 해당 기간 영업이익률이 약 9.8%p 감소하였음.

〈표 1-13〉 식품제조업 업종별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p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2010/2020 변화율(%p)
식품 제조업	14.4	10.6	8.6	-5.8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9.8	3.1	2.1	-7.7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2.5	8.0	6.9	-5.6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3.7	8.9	3.9	-9.8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4.4	11.9	7.6	-6.8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제조업	24.0	15.1	16.8	-7.2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9.9	9.1	5.2	-4.7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22.5	20.6	24.3	1.8
설탕 제조업	8.3	8.1	15.3	7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11.8	18.8	12.5	0.7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16.0	15.5	13.5	-2.5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	-	7.2	-
동물용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0.2	6.9	3.5	-6.7
음료 제조업	18.6	27.2	25.1	6.5
알코올음료 제조업	19.3	30.2	31.8	12.5
비알코올음료 및 얼음 제조업	17.9	24.3	19.8	1.9

주: 본 수치는 경제총조사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을 산정한 값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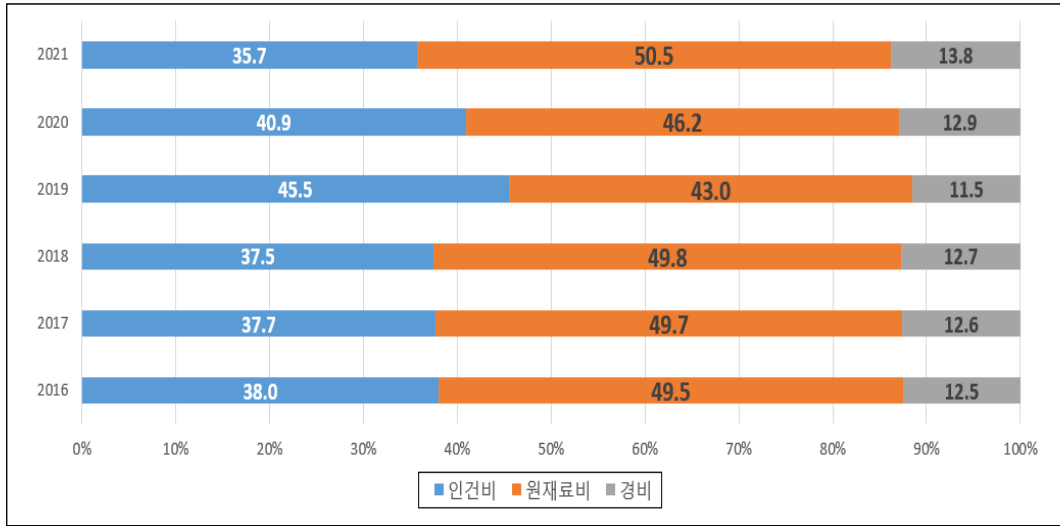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총조사.

□ 2021년 식품산업 인건비 비중은 35.7%로 감소 추세, 원재료비 비중은 50.5%로 증가 추세

○ 2022년 곡물가격 폭등 전임에도 불구하고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으며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인건비 비중은 원재료비 비중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 1-30〉 식품제조업 평균 비용구조



자료: KED 한국 기업평가 데이터.

- 2023년 식품제조업 매출액은 꾸준히 성장하며, 외식업 매출액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
- 식품제조업의 매출액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 3.2조 원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2019년에 비해 약 13조 원 높은 139.4조 원의 매출액을 올릴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144.4조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던 외식업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매출액이 118.4조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그 이후 2021년 소폭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다 2022년에 139.6조 원, 2023년에는 143.3조 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점의 매출액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31〉 2022~2023년 식품산업 매출액 전망

	2019	2020	2021	2022	2023
식품제조업 매출액 추이 및 전망	126.5 조원	129.7 조원	132.1 조원	135.7 조원	139.4 조원
외식업 매출액 추이 및 전망	144.4 조원	118.4 조원	119.6 조원	139.6 조원	143.3 조원

주 1) 2020년과 2021년 수치는 GDP의 전년비 증감률을 적용하였으며, 2022년 매출액은 2022년 1, 2분기의 전년비 증감률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2022년 3, 4분기 매출액을 추정된 값을 활용함.

2) 2023년 매출액은 식품제조업의 경우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매출액 증감률을, 외식업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5-2019년 매출액의 연평균 증감률을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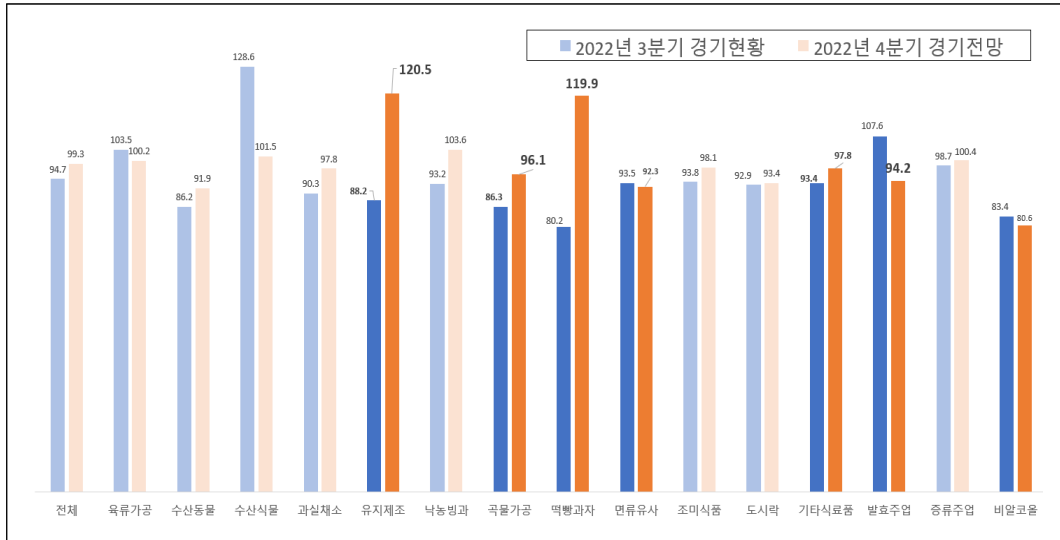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각 연도). 국민계정: 통계청(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식품산업은 2022년 4분기에 육류가공, 유지제조, 떡·빵·과자, 증류주 부문 성장 예상

○ 2022년 3분기는 육류가공, 수산식품 부문의 경기 현황이 전기 대비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그 외 부문의 경우, 대체로 전분기 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4분기 원자재 가격 상승 기조 약화의 영향으로, 육류가공이나 낙농빙과, 떡·빵·과자, 곡물가공, 기타 식료품 등 부문의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32〉 식품산업 업종별 2022년 3분기 경기현황 및 4분기 경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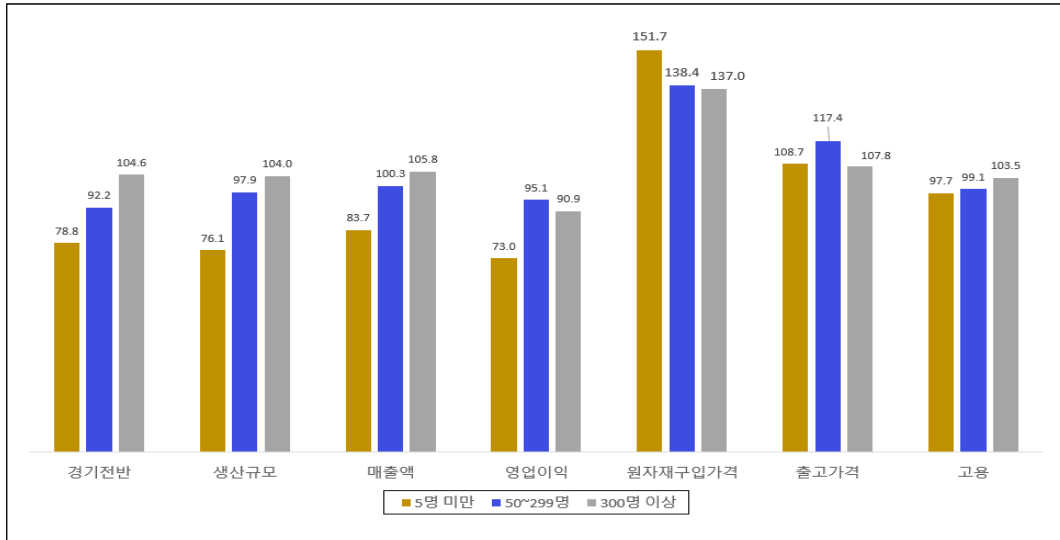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22). 식품산업 경기동향조사.

□ 2022년 4분기 식품산업의 규모별 경기 전망 중 원자재 구입 가격은 모든 기업규모에서 상승, 고용 부문에 있어서는 소기업, 중견기업은 악화 전망

○ 2022년 3분기 식품산업에서는 원자재 구입 가격이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종사자 수 5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에서 체감한 원재료 가격 상승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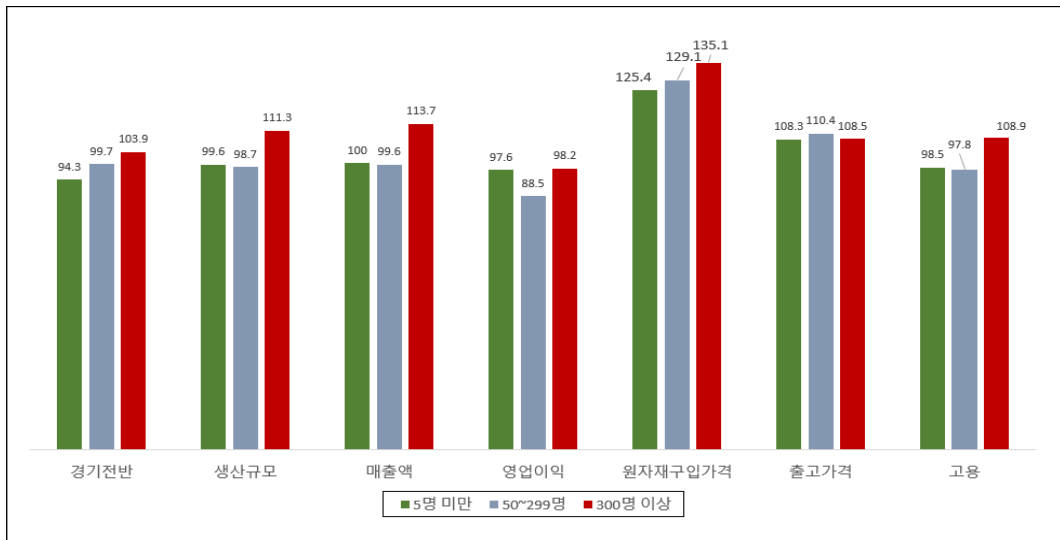
○ 2022년 4분기 또한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원자재 구입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그 중에서도 기업 규모가 가장 큰 대규모 기업이 원자재 구입가격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전망을 갖고있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 1-33〉 식품산업 규모별 2022년 3분기 경기현황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22). 식품산업 경기동향조사.

〈그림 1-34〉 식품산업 규모별 2022년 4분기 경기전망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22). 식품산업 경기동향조사.

2

2022년 식품산업 이슈

1. 식품산업 이슈 관련 설문 조사 개요

- 업종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한 식품업체 및 식품연구소 관리자급 154인(개인 7.1%, 회사법인 88.3%, 기관·단체 4.5%)을 대상으로 2022년 식품업계에 영향을 미친 이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함.
- 조사는 2022년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하는 조사방식을 채택하여 응답률을 높이고자 하였음.
- 조사대상자는 개인사업자 7.1%, 회사법인 88.3%, 기관·단체 4.5%로 구성되었으며, 각 유형별로 소·중·대규모 분류로 조사를 수행함.

〈표 2-1〉 설문 조사 대상 기관 및 규모별 비중

단위: %

구분	개인사업자		회사법인		기관·단체		계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소규모	7	8.3	70	83.3	7	8.3	84
중규모	4	6.5	58	93.5	0	0.0	62
대규모	0	0.0	8	100.0	0	0.0	8
계	11	7.1	136	88.3	7	4.5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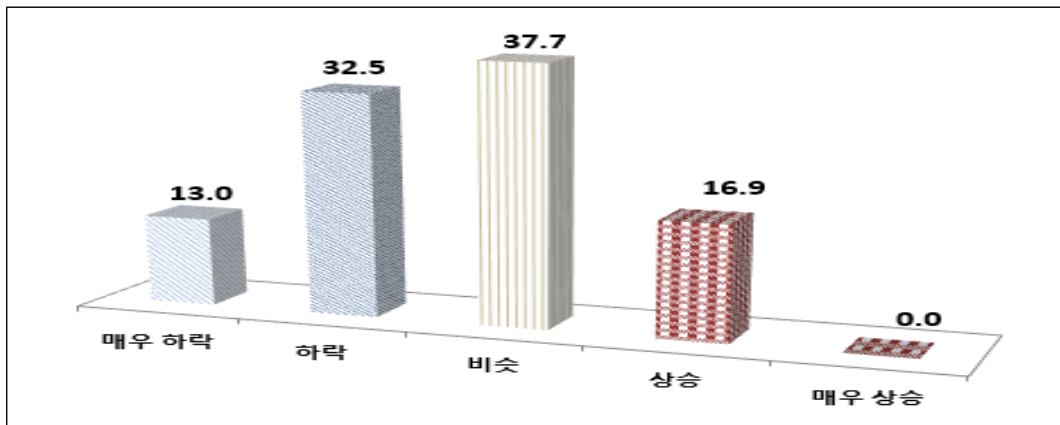
자료: 식품기업 관리자급 154인 대상 설문 조사 결과(2022. 07.).

2. 2022년 상반기 식품산업 동향 및 경영실적

- 금년 상반기 식품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수익성은 대체로 악화
- 전년보다 영업이익률이 하락한 업체는 전체의 45.5%로, 상승했다고 응답한 업체(16.9%)를 크게 상회하며, 식품산업의 수익성이 전년보다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영업이익률이 전년과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37.7% 수준임.
 - 2021년 조사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전년(2020년)보다 상승했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이 17.3% 수준으로 올해 조사결과보다는 소폭 높은 수치임.
- 소규모 식품업체 중 영업이익률이 전년보다 하락한 업체 비중은 50.0%로 중규모 업체(40.3%), 대규모 업체(37.5%)를 크게 상회함.
 - 영업이익률이 개선(상승)된 업체 비중은 8.3~30.6%이며, 업체규모별로 편차가 전년(14.4~21.3%)에 비해 확대됨.
 - 2021년 조사에서 영업이익률이 전년보다 하락했다고 응답한 소규모 업체의 비중이 59.4%로 올해 조사보다 높은 특징을 나타냄. 소규모 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작동했기 때문일 수 있음.

〈그림 2-1〉 2022년 상반기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변화

단위: 개, %



자료: 식품기업 관리자급 154인 대상 설문 조사 결과(2022. 07.).

〈표 2-2〉 기업규모별 2022년 상반기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변화

단위: %

구분	매우 하락	하락	비슷	상승	매우 상승
전체	13.0	32.5	37.7	16.9	0.0
소규모	11.9	38.1	41.7	8.3	0.0
중규모	14.5	25.8	29.0	30.6	0.0
대규모	12.5	25.0	62.5	0.0	0.0

자료: 식품기업 관리자급 154인 대상 설문 조사 결과(2022. 07.).

□ 모든 규모 식품기업들이 원자재 구매가격, 근로자 고용 용이성에서 경영상 어려움 토로

○ 소규모 업체 - 매출액(전체), 내수 판매, 자금 부문에서 다른 규모 업체보다 어려움을 더 토로하였으며, 수출 판매 부문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어려움을 표출함.

○ 중규모 업체 - 매출액 및 영업이익, 자금 부문에 있어서는 다른 규모의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어려움을 표출함.

○ 대규모 업체 - 내수 판매에 대해서는 타 규모의 기업 대비 적은 어려움을 토로하였지만, 원자재 구매 가격이나 근로자 고용의 용이성 부문에 있어서는 다른 규모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더 표출함.

〈표 2-3〉 2022년 상반기(2021년 전체기간 대비) 경영상 어려운 정도에 대한 업체 규모별 평가

단위: 5점 척도 기준

	전체	업체 규모별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매출액(전체)	3.34	3.49	3.15	3.25
내수 판매	3.38	3.50	3.24	3.13
수출 판매	3.23	3.18	3.31	3.25
영업이익(수익성)	3.66	3.77	3.50	3.75
가격을 올리는 관점에서의 제품 출고가격 설정	3.88	3.98	3.74	3.88
원자재 구매 가격	4.38	4.36	4.40	4.50
자금 사정	3.51	3.61	3.39	3.38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자율의 영향은 제외)	3.39	3.44	3.32	3.38
이자율로 인한 자금 사용 부담	3.49	3.52	3.42	3.63
필요한 근로자를 언제든지 고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의 근로자 고용의 용이성	4.04	4.07	3.98	4.13

주: 가장 어려운 경우를 5점으로 측정함.

자료: 식품기업 관리자급 154인 대상 설문 조사 결과(2022. 07.).

□ 코로나19 확산은 식품업체의 경영과 식품산업에 부정적 영향 미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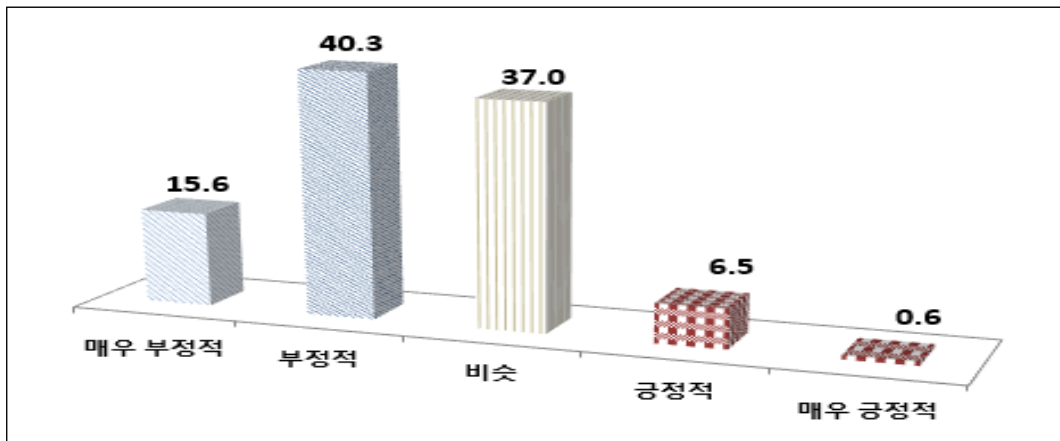
○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는 식품업체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55.9%)이 과반수를 초과하였으며, 긍정적 영향을 줬다는 응답은 7.1%에 불과함.

- 2021년 조사에서는 부정 응답이 66.7%로 올해보다 컸으며, 긍정 응답은 4.7%로 올해보다 작은 특징을 보였음.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2021년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코로나19가 경영·영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중은 모든 기업 규모에서 15.0% 이하,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은 소규모와 중규모 식품업체에서 과반을 차지한 반면, 대규모 식품업체에서는 25.0%에 불과함.

〈그림 2-2〉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

단위: %



자료: 식품기업 관리자급 154인 대상 설문 조사 결과(2022. 07.).

〈표 2-4〉 식품기업 규모별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 평가

단위: %

구분	매우 하락	하락	비슷	상승	매우 상승
전체	15.6	40.3	37.0	6.5	0.6
소규모	14.3	44.0	38.1	3.6	0.0
중규모	16.1	40.3	30.6	11.3	1.6
대규모	25.0	0.0	75.0	0.0	0.0

자료: 식품기업 관리자급 154인 대상 설문 조사 결과(2022.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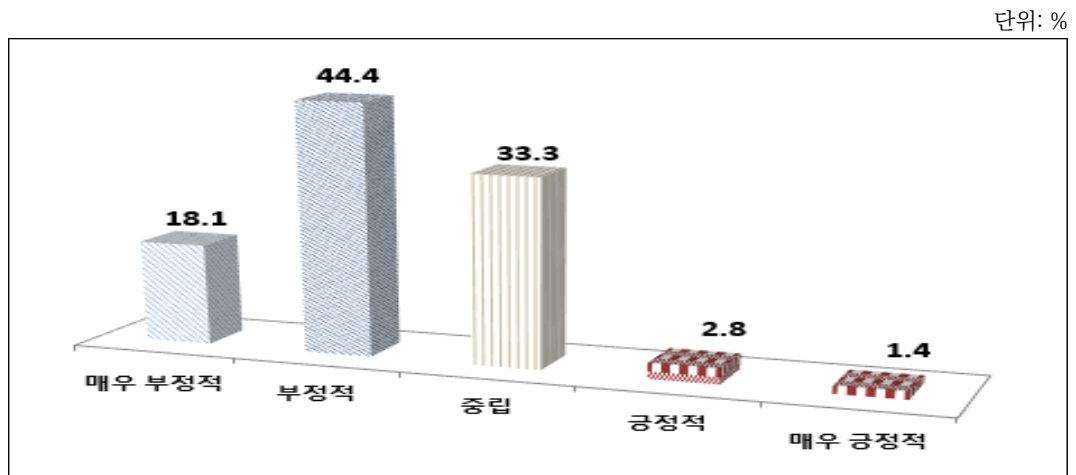
□ 코로나19 확산은 식품업체의 해외 수출 활동에 부정적 영향 미쳤다고 응답

○ 조사 대상 식품업체 중 46.8%가 현재 해외 수출을 하고 있다고 응답함.

○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는 식품업체의 해외 수출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62.5%)이 과반을 초과하였으며, 긍정적 영향을 줬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함.

○ 코로나19가 해외 수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중은 모든 식품기업 규모에서 7.2% 이하,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은 소규모와 중규모 식품업체에서 과반을 차지함. 다만, 대규모 식품업체에서는 ‘중립적이다’라는 응답 비중이 57.1%로 과반을 초과하여, 대규모 식품업체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이 반드시 해외 수출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움.

〈그림 2-3〉 해외 수출 활동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 평가



자료: 식품기업 관리자급 154인 대상 설문 조사 결과(2022. 07.).

〈표 2-5〉 해외 수출 활동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 평가

단위: %

구분	매우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중립적이다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전체	18.1	44.4	33.3	2.8	1.4
소규모	28.6	39.3	25.0	3.6	3.6
중규모	10.8	51.4	35.1	2.7	0.0
대규모	14.3	28.6	57.1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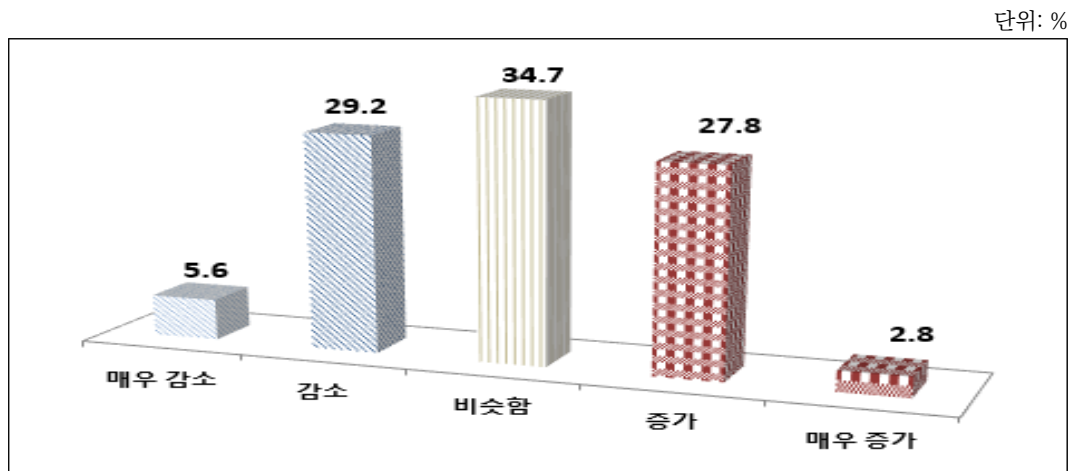
자료: 식품기업 관리자급 154인 대상 설문 조사 결과(2022. 07.).

□ 2022년 현재 식품업체의 해외 수출은 2021년 동기간과 비교할 시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

○ 조사 대상 식품업체 중 2022년의 해외 수출량이 2021년 동기간과 비교했을 시 유사하거나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약 65.0% 수준으로 나타남.

○ 단, 기업 규모별로 식품 수출 변화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소규모 기업의 경우, 약 40%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규모, 대규모 기업의 경우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30% 미만으로 나타남.

〈그림 2-4〉 2021년 동기 대비 현재 해외 수출의 변화



자료: 식품기업 관리자급 154인 대상 설문 조사 결과(2022. 07.).

〈표 2-6〉 식품기업 규모별 2021년 동기 대비 해외 수출의 변화 평가

단위: %

구분	매우 감소	감소	비슷함	증가	매우 증가
전체	5.6	29.2	34.7	27.8	2.8
소규모	10.7	25.0	25.0	32.1	7.1
중규모	2.7	32.4	40.5	24.3	0.0
대규모	0.0	28.6	42.9	28.6	0.0

자료: 식품기업 관리자급 154인 대상 설문 조사 결과(2022. 07.).

- 식품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은 주로 동남아시아,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 시장에 집중
- 현재 수출을 하고 있는 조사대상 식품업체 중 54.2%가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및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함.
 - 그 중 35%의 업체들이 동남아시아에서 해당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유럽, 중국, 미국, 그리고 일본, 중동, 호주 순으로 수출시장 개척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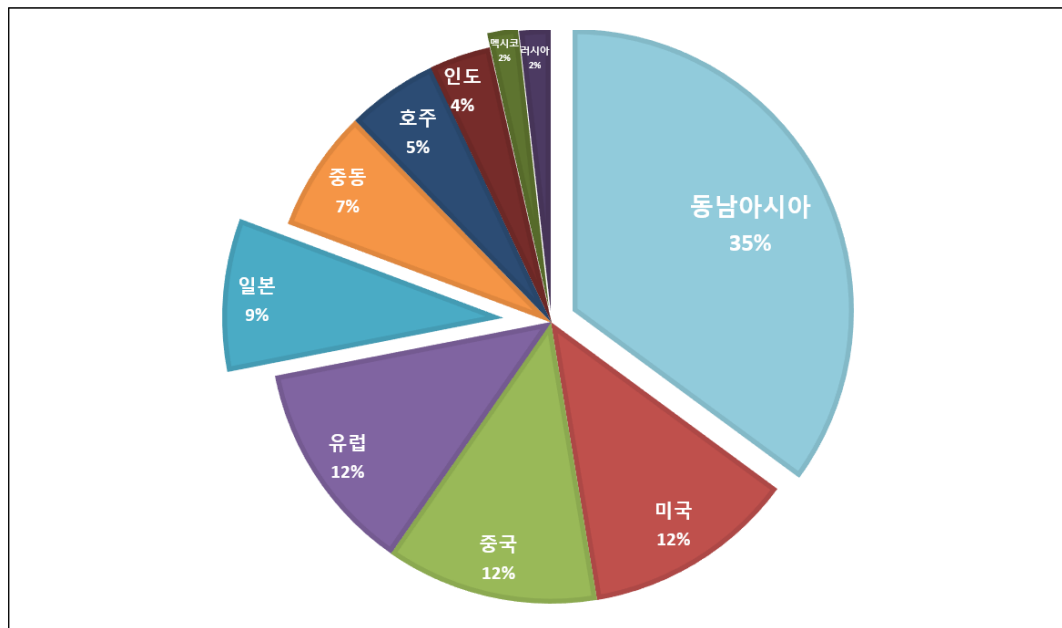
〈표 2-7〉 기업 규모별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및 발굴 노력 여부

단위: %

구분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및 발굴 노력 여부	
	예	아니오
전체	54.2	45.8
소규모	75.0	25.0
중규모	37.8	62.2
대규모	57.1	42.9

자료: 식품기업 관리자급 154인 대상 설문 조사 결과(2022. 07.).

〈그림 2-5〉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및 발굴 노력 중인 주요 국가



자료: 식품기업 관리자급 154인 대상 설문 조사 결과(2022. 07.).

- 식품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 중 대다수가 기존 수출시장에서의 판매 촉진 노력 기울여
- 현재 수출을 하고 있는 조사대상 식품업체 중 58.3%가 기존 수출시장에서의 판매 촉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응답함.
 - 판매 촉진을 위해 주로 노력하는 품목은 과자류(24.4%), 주류(12.2%), 음료류 및 조미료(각 9.8%), 아이스크림(7.3%), 홍삼(4.3%), 건강기능식품(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8〉 기업규모별 기존 수출 시장에서의 판매 촉진을 위한 노력 여부

단위: %

구분	새로운 수출 시장에서의 판매 촉진을 위한 노력 여부	
	예	아니오
전체	58.3	41.7
소규모	64.3	35.7
중규모	54.1	45.9
대규모	57.1	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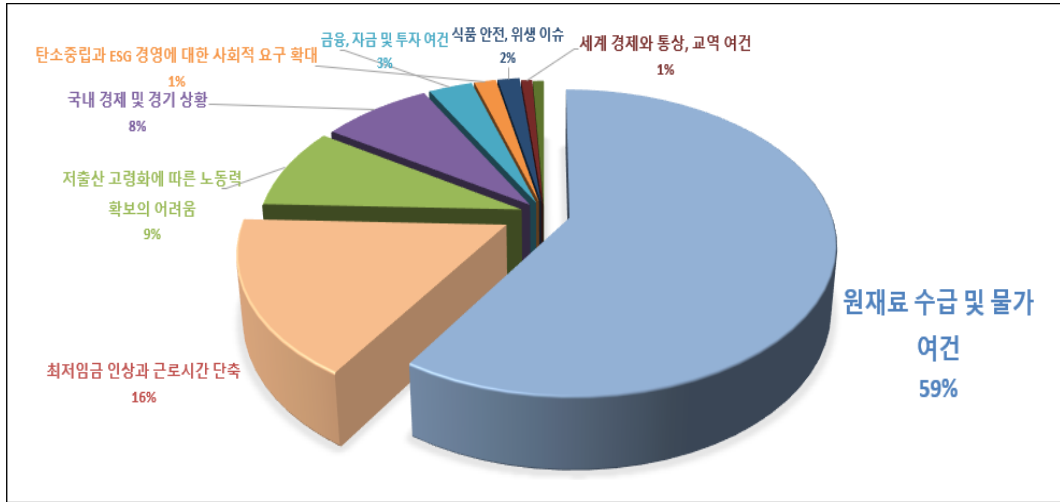
자료: 식품기업 관리자급 154인 대상 설문 조사 결과(2022. 07.).

3. 식품산업 여건 관련 이슈

- 식품제조업체들은 현재 원재료 수급 및 물가 여건과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을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판단
- 조사 대상 식품제조업체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업체가 원재료 수급 및 물가 여건(59%)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16%),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9%), 국내 경기 및 경기 상황(8%), 금융, 자금 및 투자여건(3%) 등의 순으로 응답함.

〈그림 2-6〉 식품산업 여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 비중

단위: %



자료: 식품기업 관리자급 154인 대상 설문 조사 결과(2022. 07.).

○ 식품 안전, 위생 이슈나 통상, 교역 여건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약 2%에 불과함.

- 탄소중립과 ESG 경영, 신기술 공정 개발 및 도입과 적용, 그리고 식품산업의 디지털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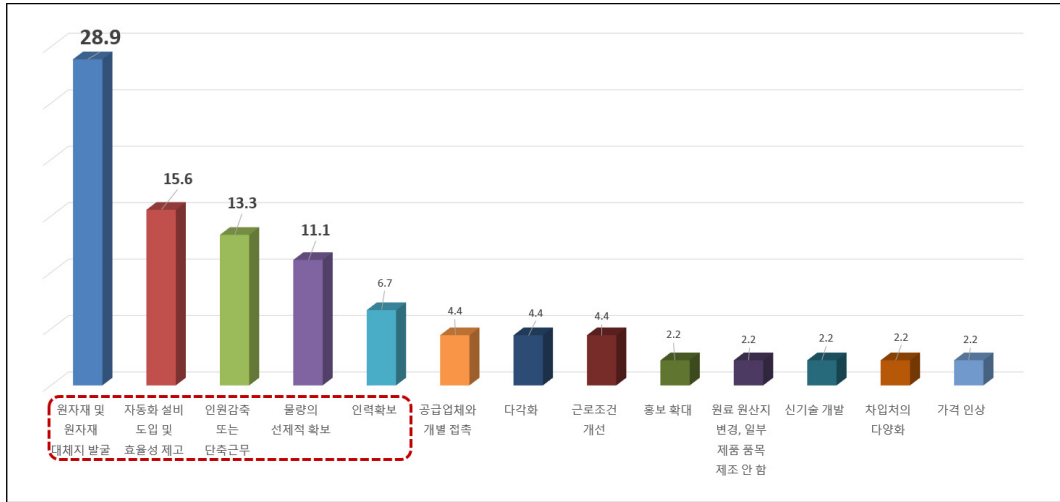
□ 식품업체의 주요 이슈 관련 대응 방향은 대부분 원자재 수급 관련

○ 조사 대상 식품제조업체 중 원자재를 대체하거나 원자재의 대체 수입처를 선정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28.9%, 자동화 설비 도입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한 업체가 15.6%, 인원 감축 또는 단축 근무 실시 업체가 13.3%,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업체가 11.1%로 나타남.

○ 가격 인상을 단행한 업체 비중은 최하위로, 소비자 반응 및 주변 경쟁 업체들을 의식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됨.

〈그림 2-7〉 식품제조업체 내 주요 이슈 관련 대응 현황

단위: %



자료: 식품기업 관리자급 154인 대상 설문 조사 결과(2022. 07.).

□ 식품산업 분류 중 향후 1~2년 내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여전히 간편식과 건강 기능식품

○ 향후 1~2년 내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 식품산업(분류)은 간편식(25.5%)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건강기능식품(16.2%), 커피 및 차(6.5%), 육류 가공품(6.3%), 빵 및 떡류, 조미식품 (5.4%), 과일 채소 가공품(4.3%) 순으로 나타남.

○ 향후 1~2년 내 성장 가능성이 낮게 평가된 식품산업 분류로는 알가공품, 염건수산가공품, 유지류, 과자류, 연식품이 꼽힘.

〈표 2-9〉 향후 1-2년 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식품산업(분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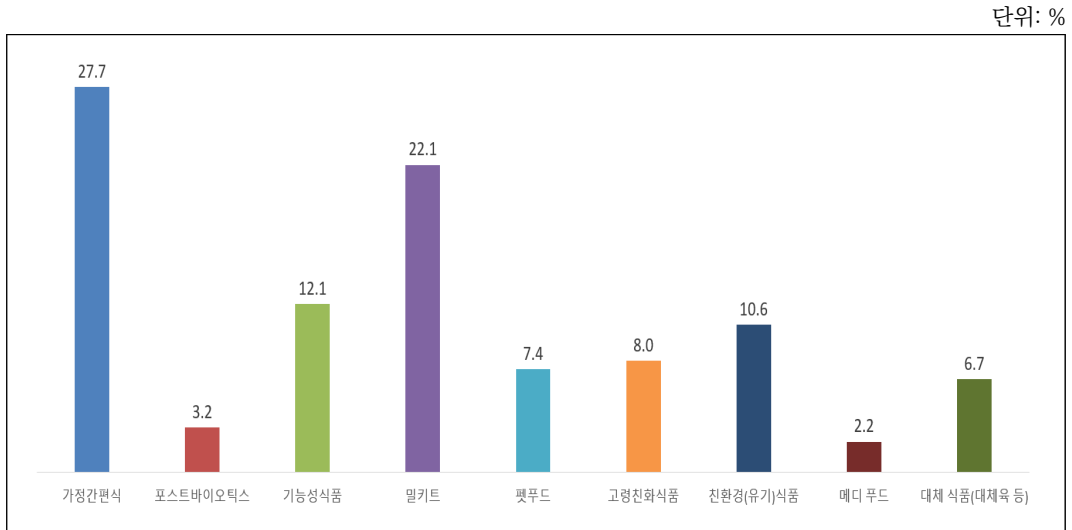
육류가공품	알가공품	조미수산 가공품	염건수산 가공품	김치 및 절임류	과일채소 가공품	장류	조미식품	유지류	유가공품
6.3	0.4	1.9	0.6	2.8	4.3	2.4	5.4	0.9	2.8
빵 및 떡류	과자류	면류	연식품	곡물가공품	커피 및 차	음료류	주류	간편식	건강기능식품
5.4	1.1	5.6	1.1	3.5	6.5	2.6	4.5	25.5	16.2

자료: 식품기업 관리자급 154인 대상 설문 조사 결과(2022. 07.).

□ 향후 1~2년 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식품은 가정간편식, 밀키트, 기능성 식품 순

○ 향후 1~2년 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식품으로는 가정간편식(27.7%), 밀키트(22.1%), 기능성식품(12.1%), 친환경(유기) 식품(10.6%)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덜 선정된 유망식품으로는 메디푸드(2.2%), 프로바이오틱스(3.2%)로 나타남.

〈그림 2-8〉 향후 1~2년 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식품



자료: 식품기업 관리자급 154인 대상 설문 조사 결과(2022.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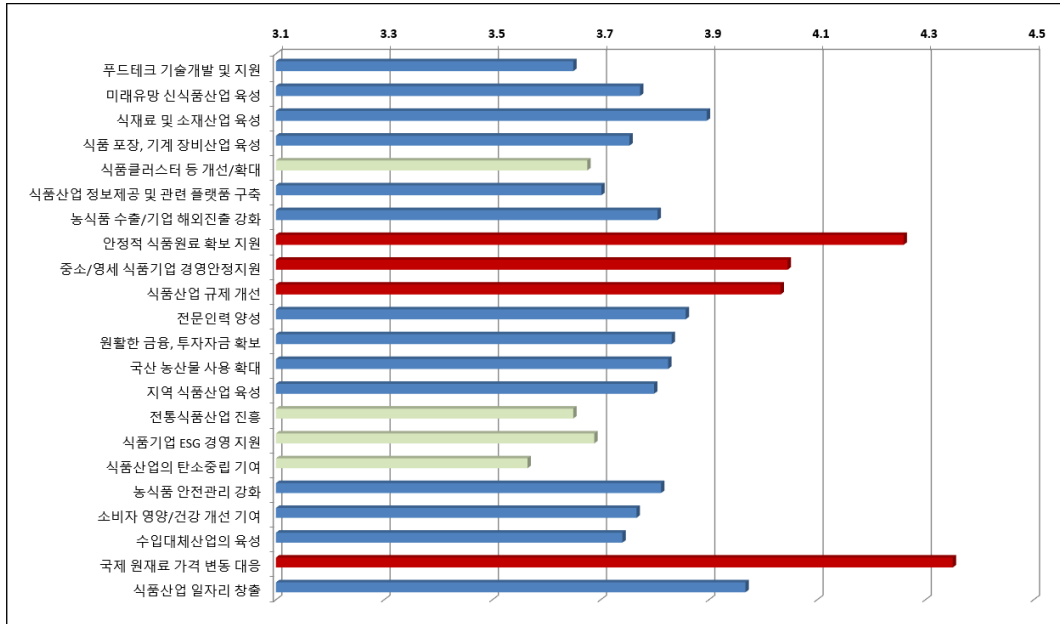
□ 향후 5년간 식품산업 정책과제로 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과제는 국제 원재료 가격 변동 대응으로 응답

○ 국제 원재료 가격 변동 대응 이외에도 안정적 식품 원료 확보 지원, 중소/영세 식품기업 경영안정 지원, 식품산업 규제 개선 등을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응답함.

○ 상대적으로 식품클러스터 개선/확대, 전통식품산업 진흥, 식품기업 ESG 경영, 식품산업의 탄소중립 기여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진해야 될 과제로 보는 업체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2-9〉 향후 5년간(2023-2027) 식품산업 정책과제로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

단위: 5점 척도



자료: 식품기업 관리자급 154인 대상 설문 조사 결과(2022. 07.).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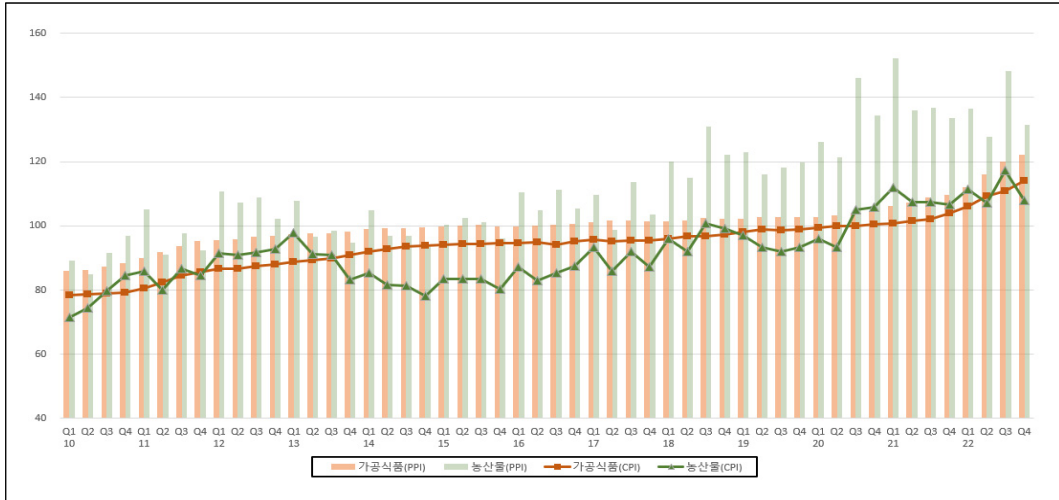
국제원재료 가격 상승의 가공식품 물가 파급영향

1. 식품 물가와 원재료 가격 동향

- 농산물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가공식품 물가는 작년에 이어 최근까지 상승세가 지속 심화되는 양상
- 농산물 물가는 2020년 3분기부터 급등하기 시작하여 2021년 1분기에 최고점에 도달한 이후 2022년 2분기까지 안정세가 지속되다가 3분기에 급등 후 다시 하향세로 접어들.
- 2022년 4분기 농산물 생산자물가지수(2015=100)는 131.5로 전년 동기 대비 1.6% 낮았으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는 107.9로 전년 동기 대비 1.2% 높은 수준이고, 2020년 동기에 비해서는 생산자물가지수는 -2.2% 낮고, 소비자물가지수는 2.1% 높은 수준임.
- 농산물 생산자물가는 시계열 변동성이 큰 특성을 보이며 특히, 2020년 하반기에서 2021년 상반기에 크게 상승함. 반면, 농산물 소비자물가는 생산자물가에 비해 변동성이 작으나 생산자물가와 유사한 추세를 보임.

○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의 농산물 물가상승은 2020년도 하반기의 과일 및 채소 가격 상승과 2020년산 쌀값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그림 3-1〉 농식품 및 가공식품 물가지수 추이



주: 생산자물가지수는 2015년,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100을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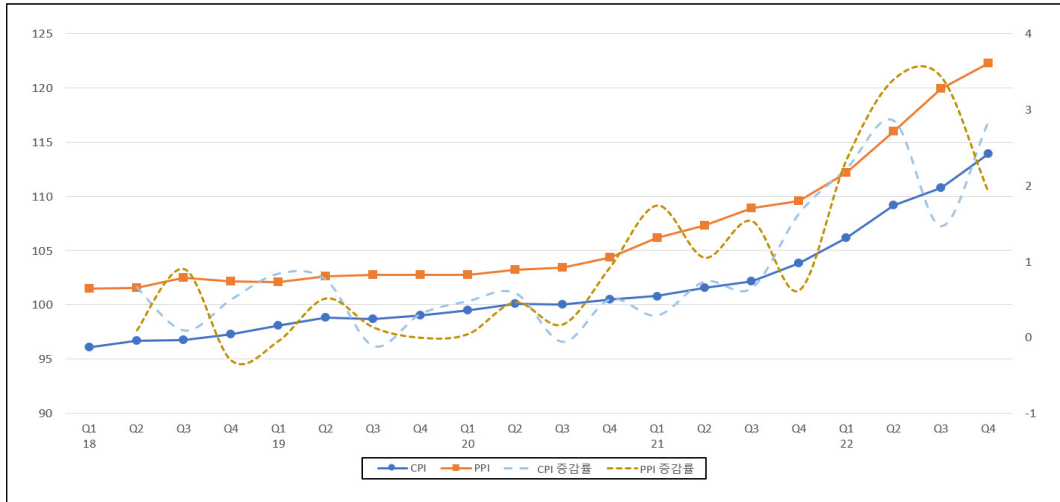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검색일: 2023. 2. 3.

□ 가공식품 생산자물가는 2021년 1분기부터 상승세가 본격화되었으나 소비자물가는 4분기부터 상승세로 전환

○ 2015년부터 본격적인 상승세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까지 가공식품 생산자물가(음식료품)와 소비자물가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각각 0.7%, 1.2%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왔음.

○ 그러나 2020년 4분기 가공식품 생산자물가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1.6%까지 상승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2년 4분기는 11.5%를 기록함. 가공식품 소비자물가는 2021년 3분기에 2.2%까지 상승한 이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22년 4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9.7%까지 상승함.

〈그림 3-2〉 최근 가공식품 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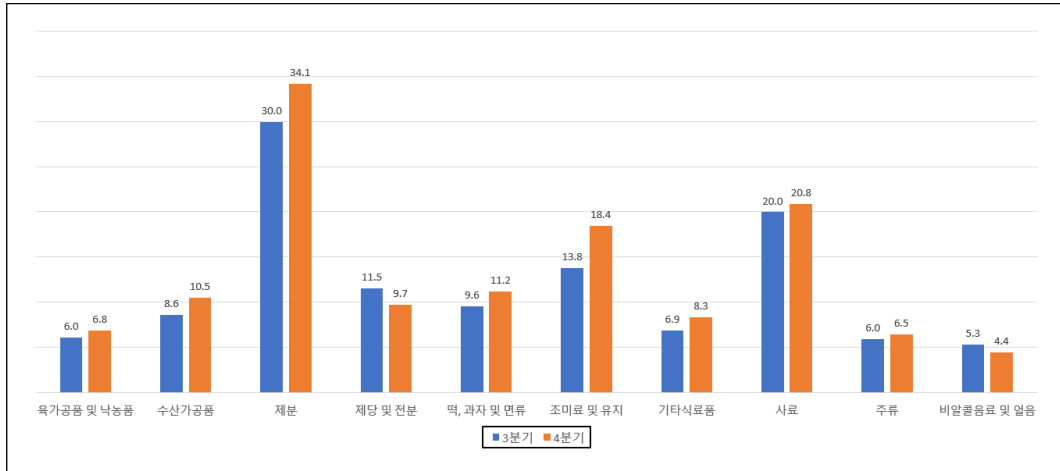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나타내며, 생산자물가지수는 2015년을,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검색일: 2023. 2. 3.

□ 가공식품 물가상승은 국제곡물 가격상승이 주요인

- 가공식품 물가상승은 제분, 제당 및 전분, 식용유, 사료 등의 수입곡물 가공품 가격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
- 2022년 4분기 가공식품 부류별 물가 상승률은 제분이 34.1%로 가장 크고 이후 사료(20.8%), 조미료 및 유지(18.4%), 떡, 과자 및 면류(11.2%) 순으로 나타남.
- 사료용 수입 밀, 옥수수, 대두는 사료 산업을 통해 배합사료로 가공된 이후 축산농가에 판매되며 식용 밀, 옥수수, 대두, 원당은 각각 1차 가공산업을 통해 밀가루, 전분 및 당류, 식용유 등의 식품소재로 1차 가공되고 이후 면류, 과자 등으로 재가공되어 소비자에 판매됨.
- 수입 곡물 가공품 중심의 물가상승은 2020년 하반기부터 지속되어 온 국제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의 영향으로 판단됨.

〈그림 3-3〉 2022년도 식음료품 부류별 물가 상승률

단위: %



주: 생산자물가지수(음식료품)를 활용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생산자물가지수. 검색일: 2023. 2. 3.

2. 원재료 가격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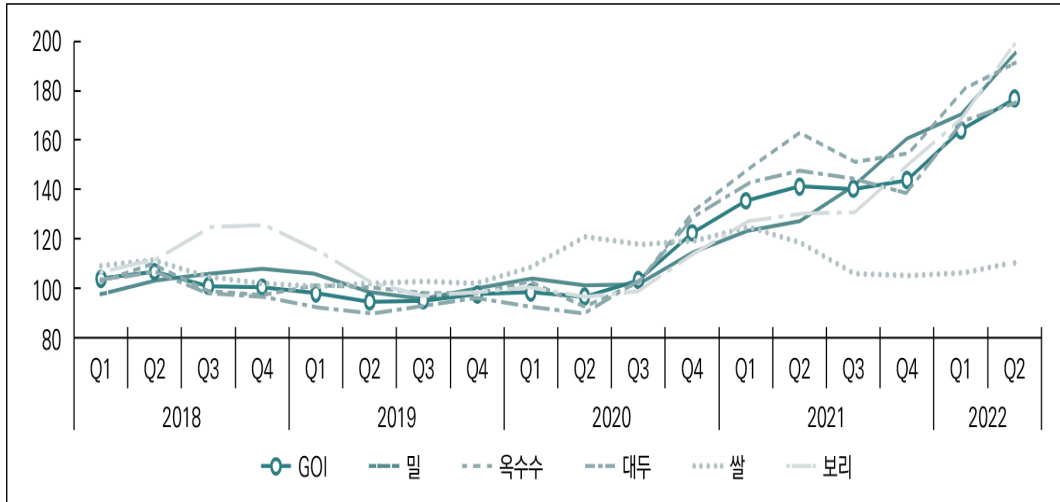
□ 국제곡물 가격은 2020년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21년 하반기부터는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시 급등

○ 작황 악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곡물 가격(IGC GOI 기준)은 2022년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5.5% 상승함. 이는 국제곡물 가격상승 이전인 2020년 2분기와 비교할 경우 84.2% 상승한 것임.

- 국제곡물 가격은 2015년 이후 안정세를 이어왔으나 코로나19, 미·중 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남미 등의 작황 악화로 2020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전환됨. 최근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뒤를 이은 각국의 식량 수출규제 조치는 국제곡물 가격을 급등시킴.

- 2022년 2분기 국제 밀, 옥수수, 대두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4.2%, 17.8%, 19.1% 상승하였으며 이는 2020년 2분기와 비교할 경우 각각 93.5%, 106.7%, 94.4% 상승한 것임.

〈그림 3-4〉 국제곡물 가격 추이



주: 세계곡물협회(IGC)의 전체 곡물가격 지수(GOI: Grains and Oilseeds Index) 품목별 가격지수이며 2015년을 100으로 재설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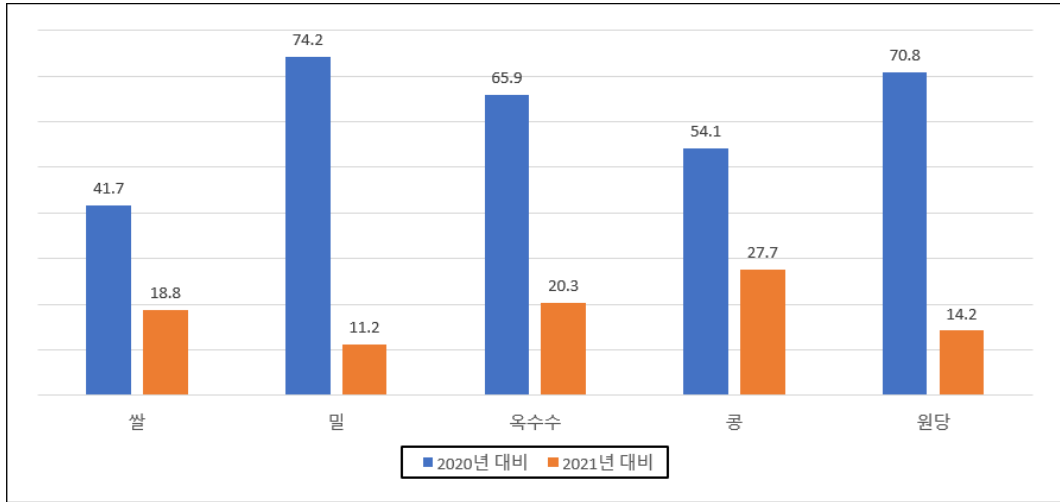
자료: IGC Grains and Oilseeds Index(<https://www.igc.int/en/markets/marketinfo-goi.aspx>) 웹페이지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 옥수수과 대두 수입가격은 2020년 4분기, 밀 수입가격은 2021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함. 2022년 4분기 밀, 옥수수, 대두 수입가격은 가격상승 이전인 2020년 4분기 대비 모두 50% 이상 상승함.

- 2022년 4분기 수입가격(달러 기준)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콩 27.7%, 옥수수 20.3%, 쌀 18.8%, 원당 14.2%, 밀 11.2% 수준임. 이는 수입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이전인 2020년과 비교할 경우 밀은 74.2%, 원당은 70.8%, 옥수수 65.9%, 콩이 54.1% 상승한 것임.

〈그림 3-5〉 2022년 4분기 식품 원재료 수입 가격상승률

단위: %



주: 2022년 수입가격(달러 기준) 수준을 2020년 4분기 및 2021년 4분기와 비교한 것임.

자료: 관세청(<https://unipass.customs.go.kr/ets/>), 수출입통계. 검색일: 2023.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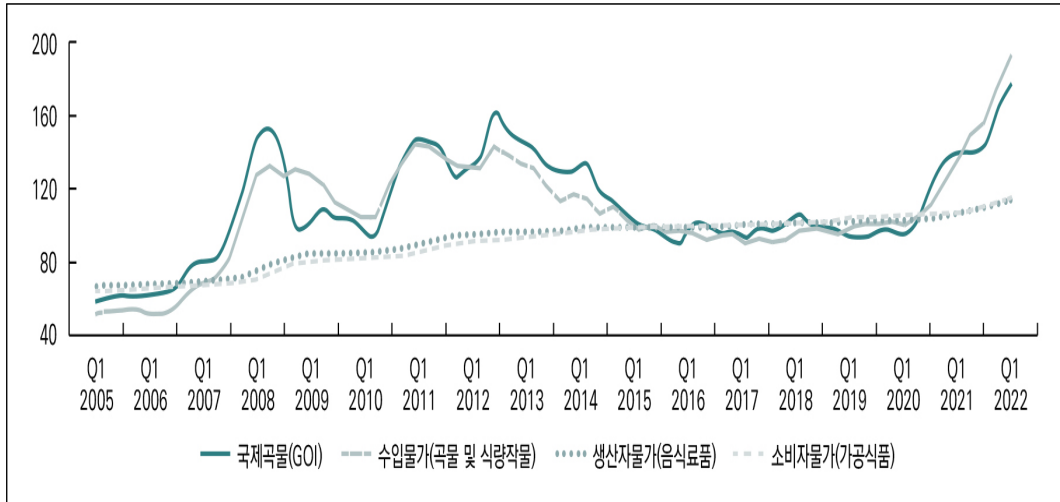
□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상승한 국제곡물 가격이 반영되는 하반기에도 곡물 수입물가 및 가공식품 물가 상승압력 지속 전망

○ 국제곡물 가격의 수입물가로의 반영은 3~6개월 소요되며 수입물가의 소비자물가로의 반영도 일정 시간이 소요됨.

- 업체들은 국내 도입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내 도착 3~6개월 이전에 국제곡물 시장에서 곡물을 매입함. 따라서 곡물 수입물가는 국제가격을 3~6개월 후행함.

- 2007~2008년 애그플레이션과 2011~2012년의 국제곡물 가격 급등 시에도 현재와 비슷한 국내 가공식품 물가 급등을 경험함.

〈그림 3-6〉 국제곡물 가격 및 관련 국내 물가 추이



주: 국제곡물 가격지수는 세계곡물협회(IGC)의 Grains and Oilseeds Index이며 수입물가는 원화 기준 지수임. 모든 가격은 지수로 2015년을 100으로 설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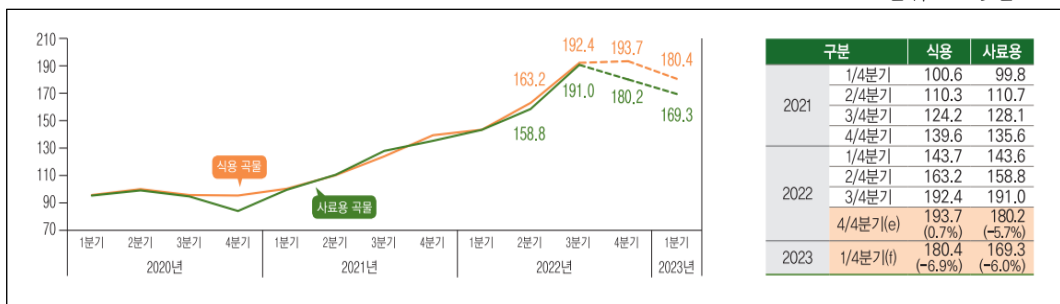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검색일: 2022. 7. 15.; IGC Grains & Oilseeds Index(<https://www.igc.int/en/markets/marketinfo-go.aspx>). 웹사이트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가 작성함.

○ 국제곡물 수입가격은 올해 하반기에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곡물 수입가격은 2021년 이후 상승세를 지속해 왔으며, 2022년 3분기 이후 하향세로 접어드는 양상을 보임. 이러한 추세는 2023년 1분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림 3-7〉 국제곡물 평균수입가격 동향과 전망

단위: 2015년=100



주 1) 품목별 식용, 사료용의 국내 수입액 가중치(최근 5개년 평균) 및 IHS Global Insight 대미환율 전망치를 이용하여 산출함. 괄호 안은 전 분기 대비 증감률.

2) 곡물 수입단가의 전망치는 관련 품목들의 반입 시점별 환율의 영향을 받으므로,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국제곡물 2022년 12월호(KREI 식품·배합사료 물가전망모형).

3. 국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가공식품 물가 파급영향

□ 수입원료 이용 식품산업 업종별 원재료 제조원가 비중은 54~78% 수준

○ 국제곡물 등 수입원재료를 많이 이용하는 업종(생산품목)별 원재료비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입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식품기업의 생산·공급비용 변화를 추정하는데 필수적으로 파악되어야 함.

- 업종(생산 품목 기준) 유형별 원가에서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8,727개 식품제조기업 중 주생산품목이 해당 업종으로 분류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원재료비의 총원가(제조원가) 대비 비중을 산출함(신용평가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 업종별 평균 원재료비 제조원가 비중은 53.8%~78.4%로 집계됨.
- 급여 원가 비중이 업종별로 5.8~24.6% 수준임을 감안할 때, 식품제조업 경영에서 원재료비의 변동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⁷⁾

〈표 3-1〉 식품산업 업종별 원재료비의 제조원가 대비 비중(2021년 기준)

단위: %

구분	빵류	과자류	면류	커피 및 코코아	음료류	제분	제당	식용유지	식품산업 전체
원재료비 원가 비중	58.8	59.4	61.5	65.1	53.8	73.5	65.5	78.4	74.8
급여 원가 비중	24.6	15.1	14.0	9.3	9.3	5.8	13.1	6.1	8.0
계	83.4	74.5	75.5	74.4	63.1	79.3	78.6	84.5	82.8

주: 기업 단위 데이터로 해당 업종으로 구분되는 업체에 대해 집계.

자료: (주)한국평가데이터 내부자료.

□ 식품제조업체 주요 원재료는 밀, 대두(콩), 옥수수, 팜유, 커피원두 등

○ 품목별 주요 원재료

- 빵류: 소맥분, 백설탕, 계란, 팔랑금, 버터, 정제소금

7) 식료품제조업의 2016년 대비 2021년 임금의 증가율은 24.5%임. 2020년 대비 2021년 임금 증가율은 2.85%이며, 이러한 임금 증가율의 제조원가 상승요인은 업종별로 0.2%~0.7% 수준으로 매우 낮음.

- 과자류: 소맥분, 백설탕, 감자, 팜유류, 물엿, 계란
- 면류: 소맥분, 팜유류, 감자전분, 변성전분(텍스트린), 건조채소, 고구마전분
- 제분: 소맥(밀), 옥수수, 소맥분, 쌀, 옥수수전분, 백설탕
- 제당: 원당, 옥수수, 물엿
- 식용유지: 대두, 옥수수, 대두유, 팜유류, 참깨

〈표 3-2〉 가공식품 품목별 주요 원재료와 구성비

단위: %

품목명	원재료별 비중
빵류	소맥분(밀가루) 62.6, 백설탕 11.2, 계란 6.0, 팔랑금(팥) 3.2, 버터 2.3, 정제소금 1.5
과자류	소맥분(밀가루) 44.3, 백설탕 12.1, 감자 8.3, 팜유류 4.6, 물엿 4.3, 계란 2.6
면류	소맥분(밀가루) 61.9, 팜유류 18.5, 감자전분 5.4, 변성전분(텍스트린) 1.9, 건조채소 1.5, 고구마전분 1.4
커피 및 코코아	커피원두 35.0, 원유 29.1, 백설탕 26.2, 물엿 3.0, 올리고당류 1.8, 전지분유 0.9
음료류	과당류 20.6, 백설탕 20.0, 감귤 18.0, 농축과채즙 9.0, 대두 8.3, 원유 7.8
제분	소맥(밀) 70.9, 옥수수 21.9, 소맥분(밀가루) 2.2, 쌀 1.6, 옥수수전분 0.8, 백설탕 0.5
제당	원당 57.1, 옥수수 40.8, 물엿 0.7
식용유지	대두 65.8, 옥수수 13.9, 대두유 10.1, 팜유류 4.6, 참깨 3.3

주: 사용량 기준이며 구성비중이 높은 순(최대 6순위)으로 집계한 것으로 원재료 비중의 합계가 100%가 되지 않음.
 자료: 2021 식품산업 원료소비실태조사 통계표 및 원시자료를 사용하여 저자가 재작성함.

4. 원재료별 가격상승률과 원가 상승 요인

□ 2022년 4분기 가공식품 원재료별 가격상승률

○ 주요 가공식품의 원가가 2022년 4분기 주요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 추정하고자 2022년 4분기 가공식품 주요 원재료별 평균 가격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을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함.

○ 원재료별 가격상승률을 살펴보면 팜유류(39.7%), 소맥분(밀가루)(26.0%), 옥수수 20.3%, 감자(18.5%), 원당(14.2%), 소맥(밀)(11.2%), 커피원두(1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3〉 2022년 4분기 가공식품의 전년 동기 대비 원재료별 가격상승률

단위: %

품목명	원재료별 가격상승률
빵류	소맥분(밀가루) 26.0, 백설탕 3.6, 계란 8.0, 팔랑금(팥) 6.9, 버터 14.6, 정제소금 -6.6
과자류	소맥분(밀가루) 26.0, 백설탕 3.6, 감자 18.5, 팜유류 39.7, 물엿 17.3, 계란 8.0
면류	소맥분(밀가루) 26.0, 팜유류 39.7, 감자전분 12.2, 기타전분 12.2, 건조채소 15.1, 고구마전분 12.2
커피 및 코코아	커피원두 11.0, 원유 3.9, 백설탕 3.6, 물엿 17.3, 올리고당류 17.3, 전지분유 0.0
음료류	과당류 3.6, 백설탕 3.6, 감귤 7.7, 농축과채즙 3.6, 대두 -8.3, 원유 3.9
제분	소맥(밀) 11.2, 옥수수 20.3 소맥분(밀가루) 26.0, 쌀 -12.6, 옥수수전분 12.2, 백설탕 3.6
제당	원당 14.2, 옥수수 20.3
식용유지	대두 -8.3, 대두유 39.7, 옥수수 20.3, 팜유류 39.7, 참깨 -5.1

주 1) 수입물가를 활용한 값의 경우, 환율 등락률을 반영(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함.

2) 2021년 4분기(10~12월)에 대한 2022년 4분기(10~12월) 평균 증감률로 계산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생산자물가지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수입물가지수. 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3.2.2.

○ 생산품목(업종)별 원재료비 증가율은 “원재료 구성비중 × 원재료별 가격상승률”의 가중합계로 구함. 원재료비 증가율은 업종에 따라 3.0~25.2%로 추정됨.

○ 품목별 원가 상승률 추정 결과, 2022년 4분기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공식품의 공급원가는 품목에 따라 약 2.4~15.5%씩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2% 이상~10% 미만: 식용유지(2.4%), 음료류(3.0%), 커피 및 코코아(4.4%)
- 10% 이상~20% 미만: 빵류(10.4%), 제분(10.4%), 제당(10.7%), 과자류(12.5%), 면류(15.5%)

〈표 3-4〉 2022년 4분기 가공식품의 전년 동기 대비 품목별 원가상승요인 추정

단위: %

품목명	원재료 가격상승에 따른 원가상승요인		
	원재료비 증가율	원재료비 원가비중	총원가 상승 요인
빵류	17.6	58.8	10.4
과자류	21.0	59.4	12.5
면류	25.2	61.5	15.5
커피 및 코코아	6.8	65.1	4.4
음료류	5.6	53.8	3.0
제분	11.9	75.2	10.4
제당	16.4	62.7	10.7
식용유지	3.0	82.3	2.4

주 1) 수입단가(관세청의 수입금액을 수입물량으로 나눈 것), 생산자물가(한국은행), 수입물가(한국은행) 기준

2) 2021년 4분기(10~12월)에 대한 2022년 4분기(10~12월) 평균 증감률로 계산함.

자료: 한국은행가데이터 내부자료.

5.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물가 파급영향계수와 파급영향

- 동일 가격변동에 따른 물가 파급영향계수는 밀, 원당, 옥수수, 대두 순
- 밀, 대두, 옥수수, 원당 등 국제 원재료 가격 10% 상승에 따른 업종별 물가에 대한 영향계수는 제분 3.96%, 제당 3.95%, 배합사료 2.33% 전분 및 당류 2.29% 순임.
 - 밀 가격 10% 상승은 제분에 대해 3.8%에 해당하는 가격 상승 요인
 - 옥수수 가격 10% 상승은 전분 및 당류에 대해 1.6%에 해당하는 가격 상승 요인
 - 대두 가격 10% 상승은 유지 및 식용유에 대해 0.9%에 해당하는 가격 상승 요인
 - 원당 가격 10% 상승은 제당에 대해 4.0%에 해당하는 가격상승 요인

〈표 3-5〉 국제 원재료 가격 10% 변동에 따른 식품물가 파급영향계수

부문명	밀	옥수수	대두	원당	계
제분	3.77	0.17	0.02	0.00	3.96
전분 및 당류	0.05	1.63	0.00	0.61	2.29
떡, 빵, 과자	0.17	0.06	0.08	0.08	0.39
면류	0.43	0.11	0.06	0.02	0.62
유지 및 식용유	0.00	0.26	0.86	0.00	1.13
제당	0.00	0.00	0.00	3.95	3.95
배합사료	0.37	1.73	0.13	0.10	2.33

주: 산업연관표(2018)를 이용하여 산출함.

- 2021년 4분기부터 2022년 4분기까지의 국제 원재료 가격 상승의 식품물가 파급영향을 살펴보면, 제분, 제당, 배합사료, 전분 및 당류 등의 순으로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2022년 4분기 국제 원재료 가격이 1년 전인 2021년 4분기 대비 추가로 약 3~25% 상승함에 따라 해당 기간 식품물가는 업종·부류별로 약 2.4~15.5%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됨.
 - 제분(10.31%), 제당(5.5%), 배합사료(3.93%), 전분 및 당류(3.45%) 순으로 파급영향(상승폭)이 클 것으로 추정됨.
- 2021년 4분기 대비 2022년 4분기 식품산업 물가에 대한 파급영향이 큰 품목은 밀, 옥수수, 원당, 대두의 순으로 분석됨.

□ 2019년 4분기부터 2022년 4분기까지의 국제 원재료 가격 상승의 식품물가 파급영향을 살펴보면, 제분, 제당, 전분 및 당류, 유지 및 식용유 등의 순으로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2022년 4분기 국제 원재료 가격이 3년 전인 2019년 4분기 대비 추가로 약 52.6~77.9% 상승함에 따라 해당 기간 식품물가는 업종·부류별로 약 2.67~30.73%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됨.

- 제분(30.73%), 제당(23.59%), 전분 및 당류(16.16%), 유지 및 식용유(6.49%), 면류(4.60), 떡, 빵, 과자(2.67%) 순으로 파급영향(상승폭)이 클 것으로 추정됨.

○ 2019년 4분기 대비 2022년 4분기 식품산업 물가에 대한 파급영향이 큰 품목은 밀, 옥수수, 원당, 대두 순으로 분석됨.

□ 2020년 4분기부터 2022년 4분기까지의 국제 원재료 가격 상승의 식품물가 파급영향을 살펴보면, 제분, 배합사료, 전분 및 당류, 제당 등의 순으로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2022년 1분기 국제 원재료 가격이 2년 전인 2020년 1분기 대비 추가로 약 28~86% 상승함에 따라 해당 기간동안 식품물가는 업종·부류별로 약 2.1~25.7%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됨.

○ 제분(25.68%), 배합사료(17.93%), 전분 및 당류(16.07%), 제당(11.07%), 유지 및 식용유(4.75%), 면류(3.93%), 떡, 빵, 과자(2.06%) 순으로 파급영향(상승폭)이 클 것으로 추정됨.

○ 2020년 4분기 대비 2022년 4분기 식품산업 물가에 대한 파급영향이 큰 품목은 옥수수, 밀, 원당, 대두의 순으로 분석됨.

〈표 3-6〉 2019~2022년의 각 4분기 기준 국제 원재료 가격 상승의 누적 식품물가 파급영향(1분기 비교)

단위: %

부문명	구분	밀	옥수수	대두	원당	계
제분	2019년 대비 2022년	29.36	1.27	0.11	0.00	30.73
	2020년 대비 2022년	24.16	1.47	0.06	0.00	25.68
	2021년 대비 2022년	10.03	0.26	0.03	0.00	10.31
전분 및 당류	2019년 대비 2022년	0.39	12.14	0.00	3.64	16.16
	2020년 대비 2022년	0.32	14.05	0.00	1.71	16.07
	2021년 대비 2022년	0.13	2.47	0.00	0.85	3.45
떡, 빵, 과자	2019년 대비 2022년	1.32	0.45	0.42	0.48	2.67
	2020년 대비 2022년	1.09	0.52	0.23	0.22	2.06
	2021년 대비 2022년	0.45	0.09	0.12	0.11	0.77
면류	2019년 대비 2022년	3.35	0.82	0.32	0.12	4.60
	2020년 대비 2022년	2.76	0.95	0.17	0.06	3.93
	2021년 대비 2022년	1.14	0.17	0.09	0.03	1.43
유지 및 식용유	2019년 대비 2022년	0.03	1.94	4.52	0.00	6.49
	2020년 대비 2022년	0.03	2.24	2.48	0.00	4.75
	2021년 대비 2022년	0.01	0.39	1.26	0.00	1.66
제당	2019년 대비 2022년	0.01	0.01	0.01	23.56	23.59
	2020년 대비 2022년	0.01	0.02	0.00	11.05	11.07
	2021년 대비 2022년	0.00	0.00	0.00	5.49	5.50
배합사료	2019년 대비 2022년	2.88	12.88	0.68	0.60	17.04
	2020년 대비 2022년	2.37	14.91	0.37	0.28	17.93
	2021년 대비 2022년	0.98	2.62	0.19	0.14	3.93

주: 산업연관표(2018)를 이용하여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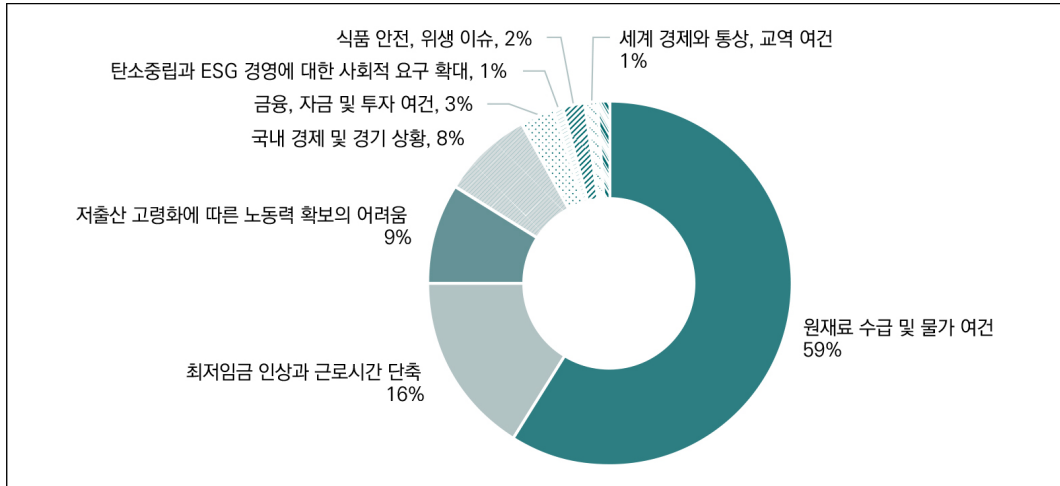
6. 산업계 요구와 정부 대응

□ 산업계에서는 원재료 수급 및 물가 여건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응답

○ 식품기업 관리자급 154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60% 정도가 ‘원재료 수급 및 물가 여건’이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이슈라고 응답함. 원재료 조달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 치솟는 수입물가 수준을 감당하기에는 지원 수준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그림 3-8〉 식품산업 여건 중 가장 중요한 이슈 1순위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식량 국제가격 및 유가 상승으로 국내 가공식품 물가 동반 상승. 정부는 2022년 5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발표, 식품에 대해 할당 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 또는 면제

○ 정부는 먹거리, 생계비, 주거 부담 완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정부가 3조 1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통해 민생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며, 농식품 관련 10대 과제에 대해 후속 조치 및 정책 효과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음.

○ 농식품 관련 10대 대책으로 정부는 식품 원료 7대 할당관세 적용, 커피 및 코코아 원두 부가세 한시 면제, 단순가공식품 부가세 한시 면제, 농축산물 할인쿠폰 확대, 밀가루 가격 안정, 사료 구매자금 1조 5천억 원 지원,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식품 가공업체 원료 매입자금 지원,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자금 지원, 면세 농산물 공제 한도 한시 상향을 제시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물가 상황을 고려하여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매주 1~2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7. 시사점

- 글로벌 공급망 위기, 기후변화 등으로 향후 국제곡물 시장의 위기는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 국제곡물 시장 위기는 국내 가공식품 산업의 생산활동 및 물가에 영향이 매우 크므로 근본적 대책 필요
- 국제곡물 시장 수급 여건이 양호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제곡물 가격의 변동성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고곡가는 흑해 지역 곡물 생산 및 수출 능력 저하, 비료 등 농자재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추세가 국내 식품물가에 미치는 파급영향도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됨.
-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국제곡물 수급 악화, 가격 급등에 대비해 해외 곡물의 안정적 확보와 물가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수행 중에 있으나 세계 및 금융지원 이외의 근본적인 대응책이 미흡함.
- 이는 2007년~2008년 애그플레이션 이후 국제곡물 위기 대응을 위한 국내 곡물자급률 제고, 해외농업개발, 해외곡물 유통망 진입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2014년 이후 국제곡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정책추진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어 지속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큼.
- 근본적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대체 원산지 개발, 금융 및 세계지원 등의 정책이 수행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국제곡물 위기 대응 수단 마련을 위한 정책 개발 필요
- 농식품 물가의 상승은 특히,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불안정성 우려를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함.
- 국제곡물 위기 대응 수단 마련을 위한 국내 곡물자급률 제고, 해외농업개발, 곡물 유통망 진입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성과를 낼 수 있음.

- 2007년~2008년 애그플레이션 이후 위기 대응 수단 마련을 위해 추진된 정책이 국제곡물 가격 안정세로 국민적 관심사에서 멀어지면서 관련 자원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이 설계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음.

4

세계 식품산업 동향

1. 세계 식품시장 동향

□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8.1조 달러 수준

○ 2021년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8.1조 달러이며 전년보다 5.6% 증가함.

- 식품 종류별 시장규모: 식료품 4.3조 달러, 음료 2.9조 달러
- 식료품 시장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음료 시장 시장규모는 감소함.
- 2021년 식료품, 음료, 담배 시장 시장규모는 모두 증가함.

○ 2020년 이후 식품시장(2020~2024년)은 연평균 4%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식료품 시장은 연 4.4%, 음료 시장은 연 4.6%씩 성장할 전망이다.

〈표 4-1〉 전세계 식품시장 규모(시장구분별)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세계식품 시장	7,415.3	7,743.2	7,832.3	7,707.6	8,141.9	8,428.7	8,746.5	9,154.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품 시장	3847.2	3,994.2	4,013.7	4,184.4	4,349.4	4,514.9	4,697.6	4,966.9
	(51.9)	(51.6)	(51.2)	(54.3)	(53.4)	(53.6)	(53.7)	(54.3)
음료 시장	2,853.4	2,968.7	2,992.3	2,725.4	2,933.9	3,039.6	3,153.4	3,261.2
	(38.5)	(38.3)	(35.4)	(36.0)	(36.1)	(36.1)	(36.1)	(35.6)
담배 시장	714.4	780.3	826.3	797.8	858.6	874.3	895.5	926.3
	(9.6)	(10.1)	(10.5)	(10.4)	(10.5)	(10.4)	(10.2)	(10.1)

주: 제조업 기준이며 2019년 이후 수치는 추정치임.

자료: Global Data(각 연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재인용)(<https://www.at.or.kr>). 검색일 2023. 2. 2.

□ 식품시장 규모의 성장이 예상되는 지역은 아·태 지역, 유럽, 북미 순

○ 향후(2020~2024년) 식품시장 증가예상액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6,793억 달러, 유럽 3,180억 달러, 북미 1,935억 달러, 중동·아프리카 1,672억 달러 등임.

○ 품목별 시장규모 성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고기대용식품 12.0%, 기타 건조식품 7.8%, 기타 냉동식품 6.7%, 스낵류 6.1%, 기타 통조림 6.0% 등임.

〈표 4-2〉 전세계 식품시장 규모(대륙별)

단위: 십억 달러,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세계식품 시장	7,415.3	7,743.2	7,832.3	7,707.6	8,141.9	8,428.7	8,746.5	9,154.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유럽	2,088.7	2,198.8	2,140.7	2,062.7	2,153.3	2,212.9	2,274.1	2,380.7
	(28.2)	(28.4)	(27.3)	(26.8)	(26.4)	(26.3)	(26.0)	(26.0)
아시아, 태평양	2,832.1	3,031.3	3,138.9	3,125.0	3,330.6	3,470.5	3,628.9	3,804.3
	(38.2)	(39.1)	(40.1)	(40.5)	(40.9)	(41.2)	(41.5)	(41.6)
북미	1,261.3	1,297.8	1,329.1	1,323.8	1,403.6	1,438.9	1,477.0	1,517.3
	(17.0)	(16.8)	(17.0)	(17.2)	(17.2)	(17.1)	(16.9)	(16.6)
중남미	744.6	706.4	689.7	664.1	687.2	706.7	728.2	753.1
	(10.0)	(9.1)	(8.8)	(8.6)	(8.4)	(8.4)	(8.3)	(8.2)
중동·아프리카	488.5	508.9	534.0	531.9	567.1	599.8	638.4	699.1
	(6.6)	(6.6)	(6.8)	(6.9)	(7.0)	(7.1)	(7.3)	(7.6)

주: 제조업 기준이며 2019년 이후 수치는 추정치임.

자료: Global Data(각 연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재인용)(<https://www.at.or.kr>). 검색일 2023. 2. 2.

〈표 4-3〉 식품산업 원료별 구입액 비중과 생산자물가 상승률(2015=100)

단위: %, %p.

부류	소재 여부	품목명	구입액 비중				생산자물가지수(1/4분기)		
			2016 (a)	2019 (b)	2020 (c)	증감 (c-b)	2021 (c)	2022 (d)	등락률 (d-c)/c*100
곡류 및 곡분	원물	쌀	3.0	2.7	2.6	-0.1	139.0	127.4	-8.4
		옥수수*	2.8	2.8	3.0	0.2	144.0	195.5	35.8
		밀*	5.0	5.9	6.7	0.8	107.1	175.1	63.5
	소재	밀가루	4.8	4.0	4.4	0.4	99.0	108.7	9.9
두류 및 서류	원물	콩*	5.0	3.9	4.4	0.5	113.5	149.3	31.5
	소재	주정	6.6	5.4	5.5	0.1	100.0	108.2	8.2
엽근채류	원물	배추	1.6	4.2	3.7	-0.5	147.9	176.5	19.3
		무	1.0	1.6	1.3	-0.3	119.6	124.6	4.2
양념채소류	원물	건고추	1.3	1.5	1.7	0.2	211.3	151.0	-28.5
		마늘	0.9	0.7	0.7	0	125.1	149.2	19.3
	소재	고춧가루	1.4	1.4	1.5	0.1	136.2	116.1	-14.8
특용 작물류	원물	인삼	1.8	1.9	1.8	-0.1	85.3	86.7	1.6
과일 채소 (유래)식품	소재	농축과·채즙	1.3	1.2	1.5	0.3	122.5	129.7	5.8
축산물 및 (유래) 식품소재	원물	쇠고기	4.3	3.8	3.3	-0.5	121.5	116.3	-4.3
		돼지고기	6.2	6.3	6.4	0.1	85.1	97.8	15.0
		닭고기	3.8	3.6	3.8	0.2	130.5	155.0	18.7
		계란	1.2	1.0	1.3	0.3	139.0	117.0	-15.9
우유 및 유가공품	원물	원유	11.1	11.6	11.0	-0.6	100.3	102.5	2.2
	소재	치즈	1.0	1.0	1.1	0.1	99.4	99.4	0.0
수산물 및 (유래) 식품소재	원물	물오징어	1.4	1.5	1.7	0.2	256.1	264.1	3.1
	소재	마른김(맛김)	2.6	1.8	1.8	0	104.8	104.8	0.0
		어육살	1.3	1.4	1.5	0.1	103.4	104.2	0.8
당류	원물	원당	3.9	2.8	2.8	0	-	-	-
	소재	백설탕(정제당)	2.4	2.5	2.5	0	99.1	103.4	4.4
식용유지류	소재	팜유류(식용정제유)	2.6	0.9	1.5	0.6	102.1	123.5	21.0
커피(류) 소재	원물	커피원두(원두커피)	2.2	1.8	1.7	-0.1	80.6	138.0	71.2
	기타		19.5	22.8	20.8	-2.0	-	-	-
	계		100.0	100.0	100.0	-			

주 1) 2019년 기준 1% 이상 품목에 대해 정리하고 나머지 품목은 '기타'로 정리함.

2) 2019년 건강기능식품 소재(고시형 원료)도 '기타'로 포함함.

3)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 옥수수, 콩(대두), 커피원두의 경우, 생산자물가지수가 아닌 수입물가지수값을 사용(*표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aT(각 연도), 식품산업 원료소비실태조사; 한국은행(각 연도), 생산자물가지수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Ⅲ

식품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및
연계구조 분석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⁸⁾

- 식품산업의 국가·경제적 위상을 파악하기 위해 식품산업과 전후방 산업 간 연계성 분석이 필요하며, 식품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농림수산업, 음식료품제조업, 외식산업의 상호연계구조와 각 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품산업 동향, 구조, 특성 파악과 구조적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핵심 이슈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장에서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식품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및 연계구조 분석을 수행함.

⁸⁾ 본 장은 중앙대학교 진현정 교수 연구팀에서 작성함.

2. 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산업연관표 실측표와 2019년 산업연관표 연장표를 바탕으로 20년에 걸친 농식품산업 구조와 타산업과의 연계 모습 및 변화를 분석함.
- 먼저 식품산업 정의 및 범위를 설정하고, 이에 맞게 산업연관표의 식품산업을 분류한 후 산업연관표상의 국민경제 내 식품산업 현황을 분석함.
- 식품산업 연계구조는 식품산업 부문별 생산유발계수, 감응도계수, 영향력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 등을 통해 분석함. 이를 바탕으로 5년의 시차를 가진 각 연도 계수의 시계열적 비교를 수행함.
-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식품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분석함.
 - 2020년과 2021년은 실측치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식품산업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품산업 최종수요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을 실시함.
 - 2022년은 분석 시점 1분기 및 2분기 자료만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자료와 시물레이션을 바탕으로 3분기 및 4분기를 추정하여 식품산업의 최종수요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함.
 - 최종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식품 수요 변화가 전체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2020년, 2021년, 2022년 3개년에 걸쳐 비교 분석함.

2

식품산업

1. 식품산업의 정의

- ‘식품’은 연구의 목적과 해당 분야 및 연구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됨.
 - 식품위생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에 따르면, 식품을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로 정의함. 이때 식품 및 식품 원료,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은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인 식품공전을 따라야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7항에 따르면, 식품은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로 정의됨. 위 정의는 식품을 농수산물이 원료가 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식품위생법이 정의하고 있는 식품의 정의보다 그 범위가 좁음.
- ‘식품산업’에 대한 정의 역시 ‘식품’에 대한 정의와 마찬가지로 연구목적, 연구범위 및 연구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장 총칙 제3조(정의) 8항은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으로 정의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산업의 범위는 “1.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임.

-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C. 제조업” 중 “10. 식료품 제조업(manufacture of food products)”⁹⁾은 “농업, 임업 및 어업에서 생산된 산출물을 사람이나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식료품 및 동물용 사료로 가공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면서, “육류, 수산물, 과일 및 채소 가공품,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곡물 가공품, 낙농품 및 기타 식료품과 동물용 사료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구성”된다고 정의하여 식료품 제조업에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용 식품 제조업까지를 범위로 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업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농산물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수집, 가공, 조리, 포장, 판매와 같은 여러 단계를 경유하게 되는데 넓은 의미에 있어서 농식품산업이란 이와 같이 농식품의 각 단계에서 행하여지는 제반 경제행위를 수행하는 산업을 총칭”한다고 정의함.
- 식품산업의 정의는 기관에 따라 산업의 범위가 다르고 또한 식품의 범위에도 차이가 있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식품을 ‘사람’이 먹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식품산업을 정의함.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식품으로 포함하여 식품산업을 정의함.

○ 본 연구는 식품 및 식품산업에 대한 기존 법령과 기존연구의 정의를 참고함과 동시에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농림수산업, 음식료품제조업, 외식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식품산업을 정의하고자 함.

9) 한국표준산업분류 > C. 제조업 > 10. 식료품 제조업(manufacture of food products) > “농업, 임업 및 어업에서 생산된 산출물을 사람이나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식료품 및 동물용 사료로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육류, 수산물, 과일 및 채소 가공품,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곡물 가공품, 낙농품 및 기타 식료품과 동물용 사료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구성된다. 또한 식탁용 소금, 화학조미료 및 건강 보조식품 등과 같이 식료품으로 특별히 가공된 제품과 비식용의 육류 분말, 어분 및 동·식물성 유지를 가공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산지에서 생산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농·임·수산물이 선별, 세척, 정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식품산업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농산물로 구성된 농림수산업과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 및 가공하는 식료품 제조업, 이러한 농수산물과 식료품이 유통되는 외식업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함.

2. 산업연관표의 식품산업 분류

- 본 연구를 위한 식품산업 부문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통합대분류(33부문) 중 농림수산업, 식료품제조업, 외식업에 해당함.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2015년 실측표와 2019년 연장표는 2015년의 산업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음<표 2-1~표 2-3>.
 - 농림수산업은 작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농림업어업서비스로 구성됨. 작물은 농업을 통해 얻어지는 각종 농작물 재배를 주 생산품으로 분류하며, 축산물은 일정한 가축이나 동물을 사육, 증식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산물을 얻는 활동을 의미함. 임산물은 산림에서 채취하기 위한 모든 생산 활동과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활동 모두를 포괄하며, 농림어업서비스는 농업 생산에 필요한 서비스업(예, 지도사업, 품종개량, 병충해 방지, 산불방지 등)을 의미함.
 - 식료품제조업은 농축수산물 및 임산물 등을 가공하여 각종의 주·부식 또는 조미용 식료품을 생산하는 상품을 포함함. 그 외에도 가축의 도축 및 곡물의 도정 활동과 배합사료 등의 생산하는 활동 또한 포함됨.
 - 외식업은 통합 소분류에 해당하며, 일정한 장소에서 접객시설을 갖추고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조리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거나,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특정 음식을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함.

〈표 2-1〉 2015년 산업연관표의 농림수산업 분류

통합대분류 (33부문)		통합중분류 (83부문)		통합소분류 (165부문)		기본부문 (381부문)			
코드번호	부문명칭	코드번호	부문명칭	코드번호	부문명칭	코드번호	부문명칭		
A	농림수산물	01	작물	011	곡물 및 식량작물	0111	벼		
						0112	맥류 및 잡곡		
						0113	콩류		
						0114	감자류		
				012	채소 및 과일	0121	채소		
						0122	과실		
						019	기타작물	0191	화훼작물
								0192	약용작물
				0193	잎담배				
				0194	천연고무				
				0195	종자				
				0196	기타식용작물				
		0199	기타 비식용작물						
		02	축산물	021	낙농 및 축우	0211	낙농		
						0212	축우		
				029	기타 축산	0291	양돈		
						0292	가금		
		0299	기타축산						
		03	임산물	030	임산물	0301	영림		
						0302	원목		
						0303	식용 임산물		
						0309	기타 임산물		
		04	수산물	040	수산물	0401	수산어획		
						0402	수산양식		
05	농림어업 서비스	050	농림어업 서비스	0500	농림어업 서비스				

자료: 한국은행, 2015년 산업연관표 부문 분류표.

〈표 2-2〉 2015년 산업연관표의 음식료품제조업 분류

통합대분류 (33부문)		통합중분류 (83부문)		통합소분류 (165부문)		기본부문 (381부문)	
코드번호	부문명칭	코드번호	부문명칭	코드번호	부문명칭	코드번호	부문명칭
C01	음식료품	08	식료품	081	육류 및 낙농품	0811	도축육
						0812	가금육
						0813	육가공품
						0814	낙농품
				082	수산물 가공품	0821	수산물 가공품
						0822	수산동물 저장품
				083	정곡 및 제분	0831	정곡
						0832	제분
				084	제당 및 전분	0841	원당
						0842	정제당
						0843	전분 및 당류
				085	떡, 과자 및 면류	0851	떡, 빵 및 과자류
						0852	면류
				086	조미료 및 유지	0861	조미료 및 첨가용식품
						0862	유지
				087	기타 식료품	0871	과실 및 채소 가공품
						0872	커피 및 차류
						0873	인삼 및 건강보조 식품
		0879	기타 식료품				
		088	사료	0880	사료		
		09	음료품	091	주류	0911	주정
						0912	소주
						0913	맥주
0919	기타 주류						
092	비알콜음료 및 얼음			0920	비알콜음료 및 얼음		
10	담배	100	담배	1000	담배		

자료: 한국은행, 2015년 산업연관표 부문 분류표.

〈표 2-3〉 2015년 산업연관표의 외식업 분류

통합대분류 (33부문)		통합중분류 (83부문)		통합소분류 (165부문)		기본부문 (381부문)	
코드번호	부문명칭	코드번호	부문명칭	코드번호	부문명칭	코드번호	부문명칭
I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58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581	음식점 및 주점	5811	일반음식점
						5812	기타음식점
						5813	주점
						5814	비알콜음료점

자료: 한국은행, 2015년 산업연관표 부문 분류표.

○ 본 연구에서 식품산업 범위는 한국은행 2015년 산업연관표 기준 농림수산업, 음식료품 제조업, 외식업에 속한 55개 기본부문 중 비식용품을 제외한 44개 기본부문(농림수산업 16부문, 음식료품제조업 24부문, 외식업 4부문)을 포함함.

- 농림수산업은 총 25개 기본부문 중 비식용품인 잎담배, 화훼작물, 천연고무, 종자, 기타 비식용작물, 영립, 원목, 기타임산물, 농림어업서비스의 9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부문을 포함함.
- 음식료제조업은 총 26개 기본부문 중 비식용품인 사료와 담배를 제외하여 24개 부문을 포함함.
- 외식업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기준 분류와 동일하게 총 4개 부문을 포함함.

○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산업연관표 분류 기준은 지속적으로 변함(표 2-4~표 2-6).

- 농림수산업과 음식료품제조업의 경우, 2000년에 세분화되어 있던 부문이 2015년에는 통합됨.
- 예를 들어, 농림수산업의 경우 2000년에 ‘보리’, ‘밀’, ‘잡곡’으로 각각 분류되어 있었지만, 2010년부터 ‘맥류 및 잡곡’으로 통합됨. 음식료품제조업의 경우 ‘우유’, ‘유제품’, ‘아이스크림’으로 각각 분류되어 있었지만, 2015년에는 ‘낙농품’으로 통합됨.
- 외식업의 경우 2000년에는 ‘음식점’으로만 되어있던 부문이 2015년에 ‘일반음식점’, ‘주점’, ‘기타음식점’, ‘비알콜음료점’으로 세분화됨.

〈표 2-4〉 연도별 농림수산업 분류(기본부문 기준)

농림수산업(기본부문 기준)							
2000		2005		2010		2015	
코드 번호	부문명칭	코드 번호	부문명칭	코드 번호	부문명칭	코드 번호	부문명칭
1	벼	001	벼	001	벼	111	벼
2	보리	002	보리	002	맥류 및 잡곡	112	맥류 및 잡곡
3	밀	003	밀				
4	잡곡	004	잡곡				
7	콩류	007	콩류	003	콩류	113	콩류
8	감자류	008	감자류	004	감자류	114	감자류
5	채소	005	채소	005	채소	121	채소
6	과실	006	과실	006	과실	122	과실
9	유지작물	009	유지작물	007	약용작물	192	약용작물
10	약용작물	010	약용작물				
11	기타 식용작물	011	기타 식용작물	008	기타 식용작물	196	기타 식용작물
18	낙농	018	낙농	014	낙농	211	낙농
19	한육우	019	육우	015	육우	212	축우
20	양돈	020	양돈	016	양돈	291	양돈
21	가금	021	가금	017	가금	292	가금
22	기타 축산	022	기타 축산	018	기타 축산	299	기타 축산
25	식용 임산물	025	식용 임산물	021	식용 임산물	303	식용 임산물
27	해면어종	027	수산어획	023	수산어획	401	수산어획
28	내수면어종						
29	해면양식어종	028	수산양식	024	수산양식	402	수산양식
30	내수면양식어종						

자료: 한국은행, 2015년 산업연관표 부문 분류표.

〈표 2-5〉 연도별 음식료품제조업 분류(기본부문 기준)

음식료품제조업(기본부문 기준)							
2000		2005		2010		2015	
코드 번호	부문명칭	코드 번호	부문명칭	코드 번호	부문명칭	코드 번호	부문명칭
046	도축육	045	도축육	035	도축육	811	도축육
047	가금육	046	가금육	036	가금육	812	가금육
048	육가공품	047	육가공품	037	육가공품	813	육가공품
049	우유	048	우유	038	우유	814	낙농품
050	유제품	049	유제품	039	낙농품		
051	아이스크림	050	아이스크림				

(계속)

음식료품제조업(기본부문 기준)									
2000		2005		2010		2015			
코드 번호	부문명칭	코드 번호	부문명칭	코드 번호	부문명칭	코드 번호	부문명칭		
052	어육 및 어묵	051	어육 및 어묵	040	수산물 가공품	821	수산물 가공품		
053	수산통조림	052	수산물통조림						
054	수산냉동품	053	수산물냉동품						
055	수산저장품	054	수산물저장품	041	수산동물 저장품	822	수산동물 저장품		
056	기타 수산식품	055	기타 수산물가공품	042	정곡	831	정곡		
057	정미	056	정미						
058	정맥	057	정맥	043	제분	832	제분		
059	제분	058	제분	044	원당	841	원당		
060	원당	059	원당	045	정제당	842	정제당		
061	정제당	060	정제당	046	전분 및 당류	843	전분 및 당류		
062	전분	061	전분						
063	당류	062	당류						
064	빵 및 곡분과자	063	빵 및 곡분과자	047	떡, 빵 및 과자류	851	떡, 빵 및 과자류		
065	설탕과자	064	코코아제품 및 설탕과자						
066	국수류	065	국수류	048	면류	852	면류		
067	정제엽	066	발효 및 합성조미료	049	조미료 및 첨가용 식품	861	조미료 및 첨가용 식품		
068	발효조미료								
069	기타조미료							067	기타조미료
070	장류							068	장류
071	동물성유지	069	동물성유지	050	유지	862	유지		
072	식물성유지 및 식용유	070	식물성유지	051	과실 및 채소가공품	871	과실 및 채소가공품		
073	과실 및 채소가공품	071	과실 및 채소가공품						
074	커피 및 차류	072	커피 및 차류	052	커피 및 차류	872	커피 및 차류		
075	인삼식품	073	인삼식품	053	인삼 및 건강보조식품	873	인삼 및 건강보조식품		
076	누룩 및 맥아	074	누룩 및 맥아	054	기타 식료품	879	기타 식료품		
077	두부	075	두부						
078	기타 식료품	076	기타 식료품						
079	주정	077	주정	056	주정	911	주정		
080	소주	078	소주	057	소주	912	소주		
081	맥주	079	맥주	058	맥주	913	맥주		
082	기타주류	080	기타주류	059	기타 주류	919	기타 주류		
083	청량음료	081	비알콜성 음료	060	비알콜음료 및 얼음	920	비알콜음료 및 얼음		
084	생수 및 얼음	082	생수 및 얼음						

자료: 한국은행, 2015년 산업연관표 부문 분류표.

〈표 2-6〉 연도별 외식업 분류(기본부문 기준)

외식업(기본부문 기준)							
2000		2005		2010		2015	
코드 번호	부문명칭	코드 번호	부문명칭	코드 번호	부문명칭	코드 번호	부문명칭
331	음식점	323	일반음식점	318	일반음식점	5811	일반음식점
		324	주점	319	주점	5812	주점
		325	기타음식점	320	기타음식점	5813	기타음식점
						5814	비알콜음료점

자료: 한국은행. 2015년 산업연관표 부문 분류표.

3. 식품산업 현황

○ 2000년 이후 농림수산업, 음식료품제조업, 외식업 모두 성장세가 지속됨〈표 2-7〉.

- 2000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총공급액 기준 농림수산업은 72.7%(39조 4천억 → 68조 1천억), 음식료품제조업은 150.8%(59조 2천억 → 148조 5천억), 외식업은 298.3%(41조 6천억 → 165조 9천억) 성장함.
- 총산출 역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함. 2010년 대비 2019년 기준, 농림수산업은 64.5%(35조 6천억 → 58조 6천억), 음식료품제조업은 129.4%(50조 9천억 → 116조 7천억), 외식업은 319.4%(24조 4천억 → 158조 3천억) 증가함. 특히, 외식업 총산출액은 2010년 이후부터 음식료품제조업에 비해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남.
- 수출의 경우 농림수산업은 53.0%, 음식료품제조업 163.4%, 외식업 89.6% 증가하였음. 특히, 음식료품제조업의 수출 성장이 2000년 대비 2.5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수입의 경우 농림수업은 150%, 음식료품제조업 282%, 외식업 95% 증가하였음. 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입 또한 음식료품제조업이 2000년 대비 3.8배 이상 증가함.

〈표 2-7〉 식품산업의 규모 변화 추이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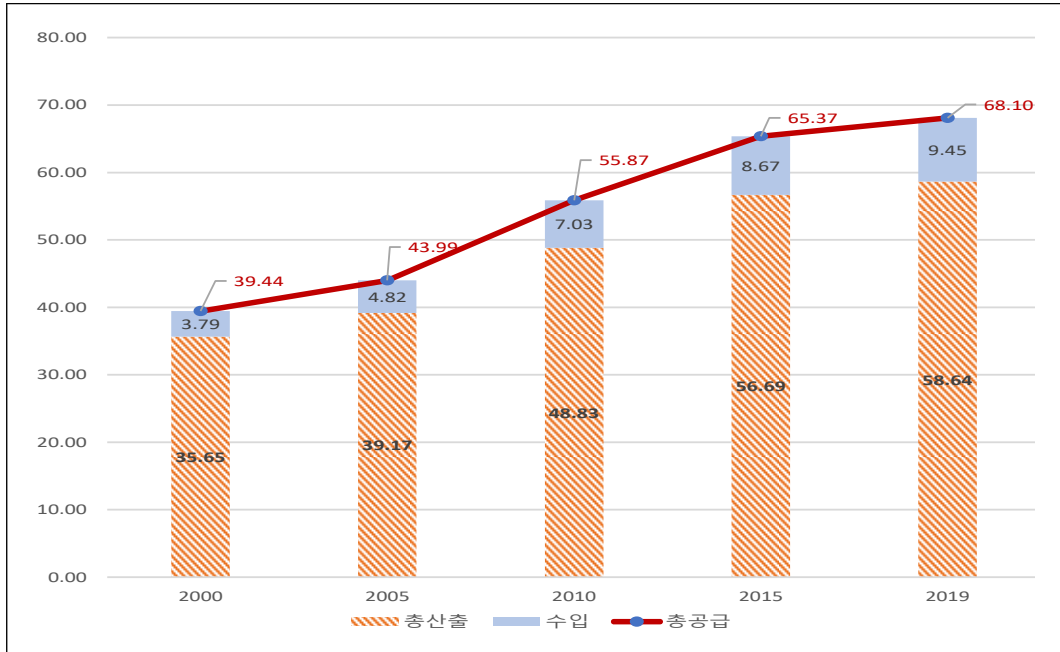
연도	분류	총공급	총산출	최종소비지출	투자 및 재고	수입	수출
2000	농림수산업	39,439,112	35,653,512	11,704,755	-35,126	3,785,600	611,278
	음식료품제조업	59,190,272	50,893,059	33,202,115	379,361	8,297,213	2,820,497
	외식업	41,668,421	37,733,940	24,398,045	0	3,934,481	2,770,118
2005	농림수산물	43,991,209	39,172,114	12,230,774	926,432	4,819,095	450,295
	음식료품제조업	71,009,966	60,680,373	35,919,922	316,837	10,329,593	2,925,415
	외식업	54,254,159	51,509,657	35,048,878	0	2,744,496	1,529,649
2010	농림수산업	55,865,095	48,831,701	14,250,800	1,400,094	7,033,394	573,688
	음식료품제조업	90,536,010	74,489,015	39,406,010	2,598,773	15,970,129	5,423,013
	외식업	80,349,714	75,843,991	47,950,239	0	4,505,723	2,746,203
2015	농림수산물	65,366,402	56,692,324	16,316,520	867,905	8,674,078	574,653
	음식료품제조업	118,040,494	96,018,236	43,194,714	81,275	22,022,258	6,227,016
	외식업	119,920,062	114,640,217	69,034,783	0	5,279,845	2,793,259
2019	농림수산물	68,095,969	58,643,002	17,533,823	-355,301	9,452,967	935,534
	음식료품제조업	148,477,914	116,742,922	56,743,483	2,112,636	31,734,992	7,428,854
	외식업	165,946,122	158,266,245	93,000,285	0	7,679,877	5,252,982

주 1) 총공급=총산출+수입
 2) 최종소비지출=민간소비지출+정부소비지출
 3) 투자 및 재고=민간고정자본형성+정부고정자본형성+재고증감
 4) 수출=국내산 수출+수입산 재수출(주로 음식료품 제조업에서 수입산 재수출이 발생함)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 식품산업의 수입, 총산출, 총공급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총공급 증가율의 경우 외식업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음식료품제조업, 농림수산업 순임. 특히, 음식료품제조업의 경우 총산출의 증가뿐만 아니라 수입의 증가도 큰 폭으로 늘어남(그림 2-1~그림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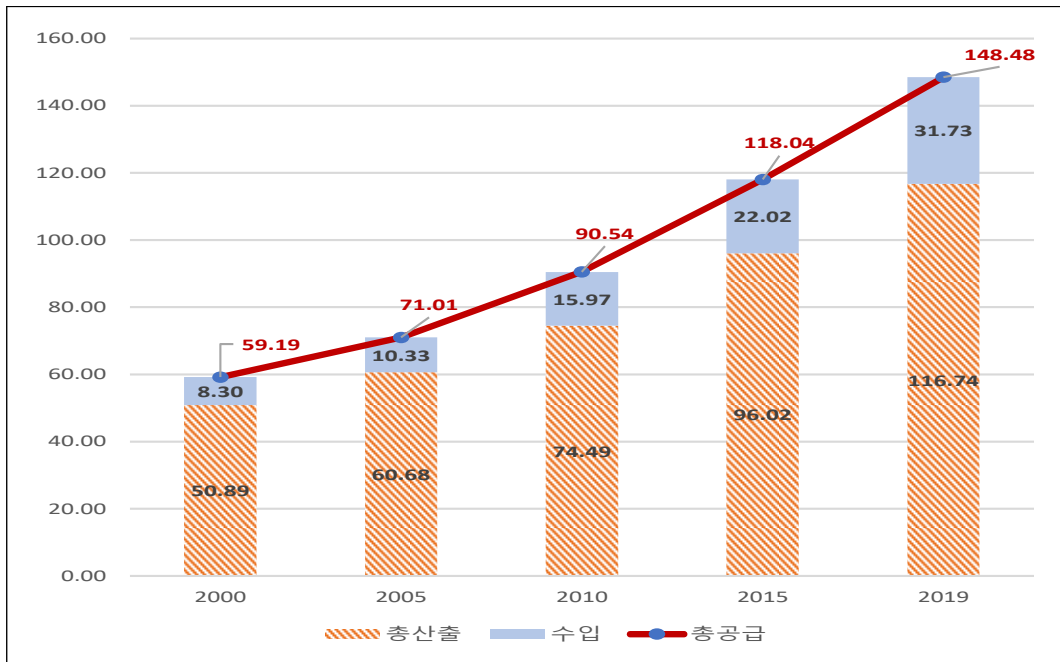
〈그림 2-1〉 농림수산업의 총공급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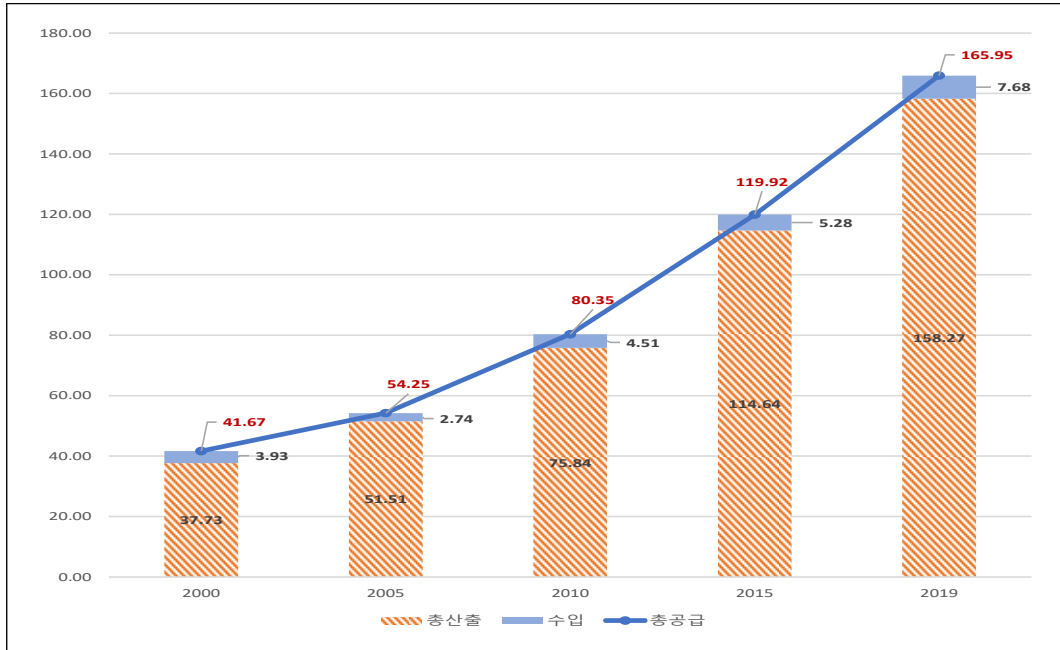
〈그림 2-2〉 음식료품제조업의 총공급

단위: 조 원



〈그림 2-3〉 외식업의 총공급

단위: 조 원



3

식품산업 연계구조 분석

1. 산업연관분석

1.1. 산업연관표

- 경제 사회에서 특정 산업부문의 경제활동은 타 산업부문의 경제활동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호연관 관계를 이루고 있음. 국내 모든 경제활동 간의 상호연관 관계를 하나의 '표'의 형태로 기술한 것이 산업연관표임.
 - 국내 산업연관표는 한국은행에서 1년 동안의 산업 간 거래관계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행렬형식으로 기록하여 통계표를 제공하고 있음.
 -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산업부문은 타 산업부문으로부터 중간재를 구입하고 여기에 자본, 노동 등 본원적 생산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이를 다른 산업에 중간재로 팔거나 최종소비자에게 소비재나 자본재 등으로 판매함.
 - 이러한 경제 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화폐단위로 기록한 것이 산업연관표임.

-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생산유발효과, 가격파급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고용 유발효과 등을 분석할 수 있음.

1.2. 산업연관표 구조

○ <그림 3-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산업연관표는 각 산업부문 간 거래를 기록하는 부분과 노동,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구입 부분, 그리고 각 산업부문 생산물을 최종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부분 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 산업연관표의 세로(열) 방향은 각 산업부문의 투입구조, 가로(행) 방향은 배분구조를 나타냄.
- 투입구조는 특정 산업이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지출한 생산비용의 구성을 의미함. 투입구조는 중간재 투입을 나타내는 중간투입 부문과 임금, 이윤, 간접세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구입 비용을 나타내는 부가가치 부문으로 구분되며 이들의 총합이 총투입액이 됨.
- 배분구조는 각 산업부문의 생산물이 어떤 부문에 중간수요 또는 최종수요의 형태로 얼마나 사용되었는가를 의미함. 배분구조는 타 부문의 생산을 위하여 직접 투입되는 중간수요 부문과 소비재, 자본재, 수출 등의 최종재로 사용되는 최종수요 부문으로 구분됨.

○ <그림 3-1>의 산업연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됨.

- 총투입액(X_j) = 중간투입액 + 부가가치 (투입구조)
- 총산출액(X_i) = 중간수요액 + 최종수요액 - 수입액 (배분구조)
- 총수요액 = 중간수요액 + 최종수요액 = 총공급액
- 총투입액 = 총산출액

〈그림 3-1〉 산업연관표의 구조

		중간수요			최종수요			수입 (공제)	총 산출액
		1 ... j ... n	중간 수요계	소비 ... 투자 ... 수출	최종 수요계				
중간 투입	1 . . i . . n	X_{ij} (내생부분)	W_i	$C_i \dots I_i \dots E_i$ (외생부분)	Y_i	M_i	X_i		
	중간투입계							U_j	
부가 가치	파용자보수	R_j	$(외생부분)$						
	영업잉여	S_j							
	고정자본소모	D_j							
	생산세 (보조금공제)	T_j							
	부가가치계	V_j							
	총투입액	X_j							

주: 한국은행(2019). 2015년 산업연관표.

1.3. 산업연관분석

○ 이러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특정 산업과 타 산업과의 상호연관 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이 산업연관분석(inter-industry analysis) 또는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임.

- 일반적으로 국민경제의 순환과정은 소득 순환과 산업 간 생산물 순환,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음.
- 산업 간 생산물 순환은 생산 부문 상호 간의 재화/서비스의 거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국민소득계정에서는 제외되나 산업 간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함.
- 따라서 본 연구는 농림수산업, 음식료품제조업, 외식업을 중심으로 각 산업 간의 연

관관계를 파악하고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산업 간 생산물 순환의 측면에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 한편,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는 가격평가 기준에 따라 구매자가격평가표, 생산자가격평가표, 기초가격평가표의 세 가지 형태로 작성되고 있음(한국은행, 2014).
 - 한국은행은 2016년 이후 산업연관표 연장표의 경우 생산자가격으로만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생산자가격 평가표를 사용하였음.
 - 2019년까지 진행된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사업보고서」는 기초가격에 근거한 투입산출표를 이용함. 이후 2020년에 진행된 「2020년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사업보고서」는 생산자가격에 근거한 2018년 산업연관표 연장표를 이용하였음.
 - 유발계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 또한 생산자가격에 기반한 2000년부터의 실측표와 2019년 연장표를 사용함.

2. 생산유발계수

2.1. 정의 및 도출

-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 수준을 나타냄.
 - 따라서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 한 단위 발생에 따라 유발되는 직·간접 생산파급효과를 합한 것을 의미함.
- 각 산업부문의 재화나 서비스 생산에 사용되기 위하여 다른 산업으로부터 구입한 원재료, 연료 등의 중간투입액과 피용자 보수, 고정자본소모 등 부가가치를 해당 산업의 총투입액으로 나눈 투입계수(식 1)를 활용하여 생산유발계수를 도출함.

$$a_{ij} = \frac{x_{ij}}{X_j} \quad (i, j = 1, 2, \dots, n) \quad \text{식 (1)}$$

- a_{ij} 는 투입계수, x_{ij} 는 j 산업부문에 사용되는 i 재 투입액이며, X_j 는 j 부문의 총산출액을 의미함. 즉, 투입계수는 특정 산업부문 j 에서 생산물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i 산업부문으로부터의 투입액을 나타내며, 이는 투입구조를 나타냄과 동시에 생산의 기술적인 관계를 나타냄.

○ 산업부문 수가 많은 경우 투입계수를 이용하여 생산과급효과를 계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역행렬을 이용하여 생산유발계수를 도출함.

- 산업연관표의 수급 방정식은 식 (2)와 같음.

$$AX + Y - M = X \quad \text{식 (2)}$$

- A 는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행렬, X 는 총산출액 벡터, Y 는 최종수요액 벡터, M 은 수입액 벡터를 의미함. 즉, 식 (2)는 각 산업부문 생산물의 수급관계에서 중간수요와 최종수요의 합계에서 수입을 차감하면 총산출액과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함.

○ 식 (2)로부터 도출되는 최종수요의 생산유발액은 식 (3)과 같음.

$$X = (I - A)^{-1}(Y - M) \quad \text{식 (3)}$$

- I 는 주대각 요소가 모두 1이고 그 외의 요소는 0인 단위행렬, $(I - A)^{-1}$ 는 최종수요의 일반적인 생산유발계수행렬을 의미함. 생산유발계수행렬은 다른 말로 레온티에프 (Leontief) 역행렬이라고도 지칭함.
- 이렇게 도출한 생산유발계수는 1단위의 최종수요가 주어지는 경우 각 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누적 승수의 의미를 지님.

○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하는 식 (4)는 다음과 같음.

$$\Delta X^e = (I - A^e)^{-1} A_H^e \Delta X_H \quad \text{식 (4)}$$

- ΔX^e 는 H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산출량 변화, A^e 는 투입계수행렬에서 H 부분이 포함된 열과 행을 제외하고 작성한 행렬, A_H^e 는 투입계수행렬 A 에서 H 부분의 원소를 제외한 H 부분 열벡터, ΔX_H 는 H 부분 산출액의 변화량을 의미함.
- 식(4)를 이용하여 외생화된 특정 산업부분의 수요량 변화가 다른 산업의 생산을 몇 단위 유발시키는지를 계산할 수 있음.

○ 각종 유발효과의 기본이 되는 생산유발계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산업연관모델은 수입을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경쟁수입형(competitive import type)과 비경쟁수입형(non-competitive import type) 모델로 나뉘짐.

- 경쟁수입형 모델은 같은 산업부분으로 분류되어 있는 재화/서비스라면 수입품과 국산품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재화로 간주하여 수입을 처리함. 비경쟁수입형 모델은 국산품과 수입품을 별도로 작성한 비경쟁수입형 산업연관표에서 도출됨.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에 속하기 때문에 수입으로 인한 전체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경쟁수입형 모델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함.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식품산업의 변화가 국산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함.
- 최종수요 발생에 따른 국내생산파급효과만을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국산과 수입을 구분하여 분석한 비경쟁수입형의 생산유발계수값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경쟁수입형모델을 이용함.

○ 비경쟁수입형 모델 : $(I - A^d)^{-1}$ 모형

- 비경쟁수입형표의 국산거래표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과 같은 수급방정식이 성립됨.

$$A^d X + Y^d = X \quad \text{식 (5)}$$

- 여기에서 A^d 는 국산투입계수행렬, Y^d 는 국산품에 대한 최종수요벡터를 나타냄.

- 식 (5)를 X 에 대하여 풀면 식 (6)의 비경쟁수입형 생산유발계수를 얻게 됨.

$$X = (I - A^d)^{-1} Y^d \quad \text{식 (6)}$$

- $(I - A^d)^{-1}$ 는 생산유발계수행렬(또는 레온티에프역행렬)로서 각 산업부문의 최종수요 1단위(예, 1원) 변화가 각 산업부문에 유발하는 산출변화, 즉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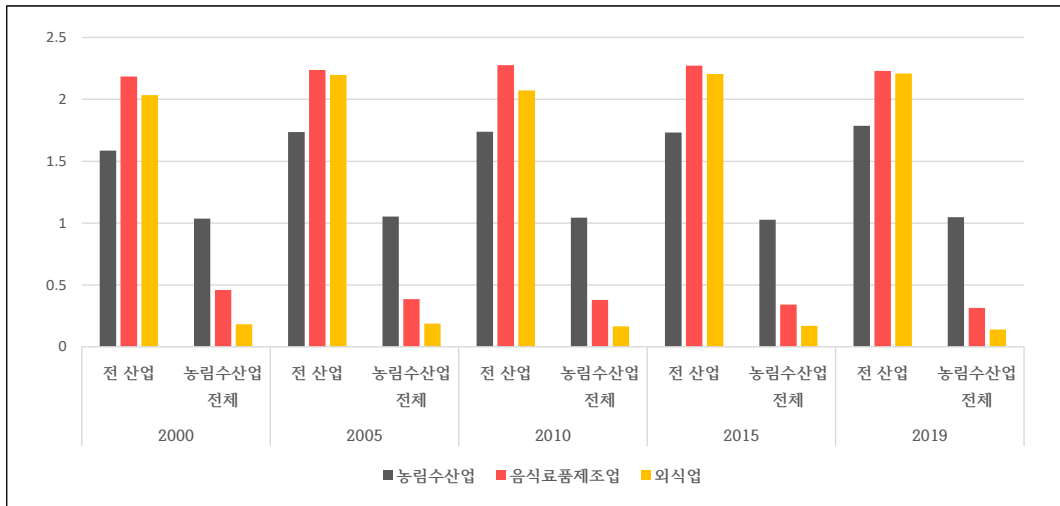
2.2. 생산유발계수

○ 연도별 농림수산업, 음식료품제조업, 외식업의 생산유발계수가 <표 3-1>에 제시되어 있으며, 연도별 비교를 위해 <그림 3-2>에 그래프로 제시함.

<표 3-1> 연도별 생산유발계수

생산유발계수		농림수산업	음식료품제조업	외식업
년도	구분			
2000	전 산업	1.587	2.185	2.034
	농림수산업 전체	1.036	0.460	0.183
2005	전 산업	1.736	2.237	2.197
	농림수산업 전체	1.053	0.386	0.189
2010	전 산업	1.738	2.277	2.072
	농림수산업 전체	1.045	0.380	0.166
2015	전 산업	1.732	2.271	2.206
	농림수산업 전체	1.028	0.342	0.170
2019	전 산업	1.786	2.230	2.209
	농림수산업 전체	1.048	0.315	0.140

〈그림 3-2〉 연도별 생산유발계수 비교 그래프



○ 농림수산업의 전산업에 대한 생산유발계수는 2015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2000년: 1.587 → 2005년: 1.736 → 2010년: 1.738 → 2015년: 1.732 → 2019년: 1.786).

- 2019년 기준 농림수산업의 전산업에 대한 생산유발계수는 1.786으로 나타남. 이는 농림수산품에 대한 최종수요 10억 원 증가는 전체산업에 17.86억 원의 직·간접적인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함.
- 2000년 대비 2019년의 변화를 살펴보면, 농림수산업의 전산업에 대한 생산유발계수는 0.199만큼 증가함. 특히 2000년에서 2005년에 증가 폭이 컸으며, 그 이후에는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음식료품제조업의 전산업에 대한 생산유발계수는 2015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2000년: 2.185 → 2005년: 2.237 → 2010년: 2.277 → 2015년: 2.271 → 2019년: 2.230).

- 2019년 기준 음식료품제조업의 전산업에 대한 생산유발계수는 2.230, 농림수산업에 대한 생산유발계수는 0.315로 나타남. 이는 음식료품제조업 부문의 최종수요 10억 원 증가는 국내 전체산업에 직·간접적으로 22.3억 원, 농림수산업에 3.15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옴을 의미함.

- 2000년 대비 2019년의 변화를 살펴보면, 음식료품제조업의 전체산업에 대한 생산유발계수는 0.045만큼 증가함. 2000년에서 2005년의 증가가 가시적이었으며, 그 이후에는 작은 폭에서 등락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편, 음식료품제조업의 농림수산업에 대한 생산유발계수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2000년: 0.460 → 2019년: 0.315). 이는 음식료품제조업의 생산에서 국내산 농림수산물 원물의 비중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풀이됨.

○ 외식업의 전산업에 대한 생산유발계수는 2010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2000년: 2.034 → 2005년: 2.197 → 2010년: 2.072 → 2015년: 2.206 → 2019년: 2.209).

- 2019년 기준 외식업의 전산업에 대한 생산유발계수는 2.209, 농림수산업에 대한 생산유발계수는 0.140으로 나타남. 이는 외식업 부문의 최종수요 10억 원 증가는 국내 전체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22.09억 원, 농림수산업에 1.4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함.
- 2000년 대비 2019년의 변화를 살펴보면, 외식업의 전체산업에 대한 생산유발계수는 0.175만큼 증가함. 2000년에서 2005년, 2010년에서 2015년에 상승이 있었으며, 2015년에서 2019년에는 가시적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19년 외식업의 농림수산업에 대한 생산유발계수는 2000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2000년: 0.183 → 2019년: 0.140). 2000년에서 2019년까지 생산유발계수가 등락하면서 줄어드는 추세를 보임. 이는 음식료품제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산 농림수산물 원물의 비중이 줄어들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됨.

3.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

3.1. 정의 및 도출

- 영향력계수는 특정 산업부문에서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한 경우 전체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제시하며, 전체산업의 평균치에서 괴리된 정도를 나타냄.
 - 영향력계수가 1보다 큰 부문은 해당 부문의 수요 증가로 인해 전체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가 평균보다 큰 산업이라는 것을 의미함.
 - 영향력계수는 식품산업 생산유발계수의 열합을 전 산업의 평균으로 나누어 산출함.
- 감응도계수는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 한 단위씩 변화할 때 특정 산업이 받는 영향인 전방연쇄효과를 나타내는 계수임.
 - 즉, 모든 산업부문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할 때, 특정 산업의 산출물이 타 산업부문에 투입되는 효과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제시하며, 전체산업의 평균치에서 괴리된 정도를 나타냄.
 - 감응도계수는 식품산업 생산유발계수의 행합을 전산업의 평균으로 나누어 산출함.

3.2.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

- 연도별 농림수산업, 음식료품제조업, 외식업의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가 <표 3-2>에 제시되어 있으며, 시각적인 비교를 위해 <그림 3-3>과 <그림 3-4>에 그래프로 제시함.
- 농림수산업의 영향력계수는 2005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2000년: 0.869 → 2005년: 0.866 → 2010년: 0.944 → 2015년: 0.944 → 2019년: 0.970).

- 음식료품제조업의 영향력계수 또한 2005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2000년: 1.196 → 2005년: 1.116 → 2010년: 1.236 → 2015년: 1.238 → 2019년: 1.249).
- 외식업의 영향력계수의 경우 지속해서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2000년 대비 2019년을 살펴보면 계수의 크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2000년: 1.114 → 2005년: 1.096 → 2010년: 1.124 → 2015년: 1.203 → 2019년: 1.200). 농림수산업과 음식료품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전체기간에 걸쳐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음식료품제조업과 외식업의 경우 영향력계수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음식료품제조업, 외식업의 수요 증가는 전체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가 평균보다 큰 산업인 것을 알 수 있음. 반면에 농림수산업은 1보다 다소 낮으므로 생산유발효과가 평균보다 작은 산업으로 분류됨.
- 농림수산업의 감응도계수는 2015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1을 기준으로 값이 작은 수준에서 등락하는 것으로 나타남(2000년: 1.072 → 2005년: 1.025 → 2010년: 0.962 → 2015년: 1.005 → 2019년: 0.957).
- 음식료품제조업의 감응도계수는 지속해서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2000년 대비 2019년을 살펴보면 계수의 크기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2000년: 1.040 → 2005년: 1.080 → 2010년: 0.951 → 2015년: 1.153 → 2019년: 1.083).
 - 2000년에서 2005년과 2010년에 걸쳐 다소 하락하였다가, 2015년에 다시 상승하였고, 2019년에는 전기 대비 다소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음.
- 외식업의 감응도계수의 경우 2000년과 2015년을 제외하고는 감응도계수가 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남(2000년: 1.037 → 2005년: 0.903 → 2010년: 0.850 → 2015년: 1.026 → 2019년: 0.957).
 - 즉, 2000년 대비 2019년을 살펴보면 다른 산업으로부터의 영향이 평균보다 적어진 것을 알 수 있음. 외식업 산출물이 다른 산업에 중간원료로써 사용되기보다 타 산업

노동자들의 식사로 활용되기 때문에, 산업 특성상 감응도계수가 1보다 낮게 형성되는 것으로 풀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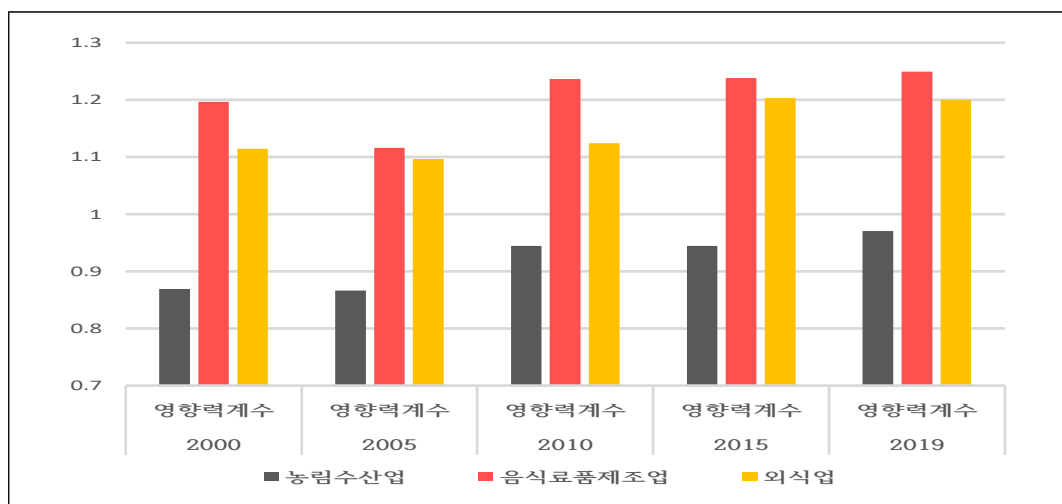
○ <그림 3-4>에 제시된 감응도계수의 변화 특징 중 하나가 음식료품제조업과 외식업 부문의 감응도계수가 2010년에 상대적으로 작아졌다는 것임.

- 이에 2010년 다른 산업부문의 감응도계수를 살펴본 바, 석탄, 석유화학, 1차 금속, 도소매 등의 생산유발계수가 타 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감응도계수는 부문 간 상대적 크기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이 음식료품제조업과 외식업 부문의 2010년 감응도계수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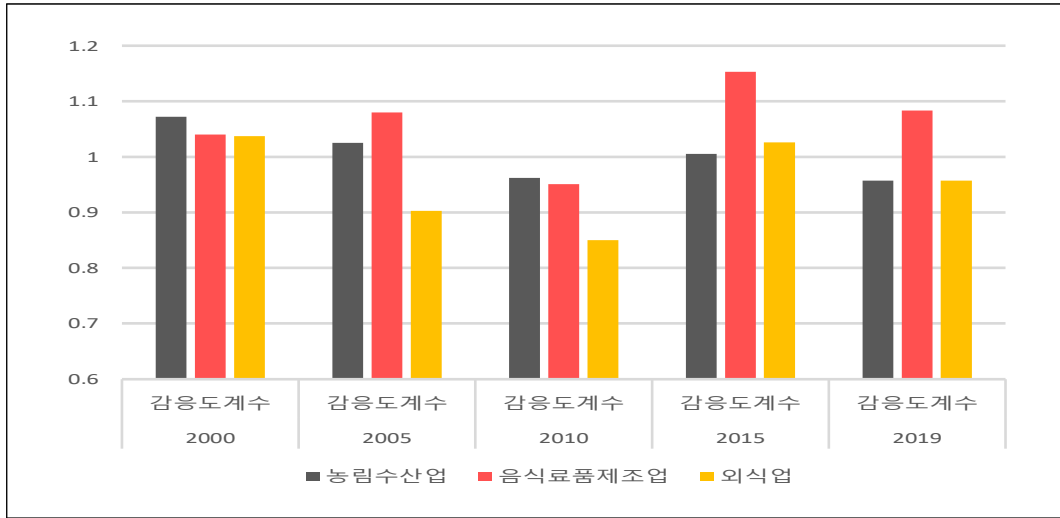
<표 3-2> 연도별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

연도	구분	농림수산업	음식료품제조업	외식업
2000	영향력계수	0.869	1.196	1.114
	감응도계수	1.072	1.040	1.037
2005	영향력계수	0.866	1.116	1.096
	감응도계수	1.025	1.080	0.903
2010	영향력계수	0.944	1.236	1.124
	감응도계수	0.962	0.951	0.850
2015	영향력계수	0.944	1.238	1.203
	감응도계수	1.005	1.153	1.026
2019	영향력계수	0.970	1.249	1.200
	감응도계수	0.957	1.083	0.957

<그림 3-3> 연도별 영향력계수 비교 그래프



〈그림 3-4〉 연도별 감응도계수 비교 그래프



4. 부가가치유발계수

4.1. 정의 및 도출

○ 부가가치유발계수는 특정 산업부문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 변화하면 직·간접적으로 부가가치가 얼마만큼 유발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임.

- 부가가치유발계수행렬은 앞서 논의한 생산유발계수행렬 $(I-A)^{-1}$ 에 부가가치율의 대각행렬 \hat{A}^v 를 곱하여 추정됨.

4.2. 부가가치유발계수

○ 농림수산업의 전체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유발계수는 2000년 대비 2019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2000년: 0.885 → 2005년: 0.887 → 2010년: 0.810 → 2015년: 0.844 → 2019년: 0.841).

- 2019년 농림수산업의 전체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41로 나타남. 이는 농림수산품에 대한 최종수요 10억 원 증가는 전체산업에 8.41억 원의 직·간접적인 부가가치유발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함.
- 2000년과 2005년에 비슷한 크기로 나타났다가, 2010년에 소폭 감소 후 2015년과 2019년에는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전체기간에 걸쳐 볼 때 2000년 대비 2019년은 0.044만큼 감소함. 이는 자체 부문 부가가치유발계수의 감소 때문으로 보는데, 농림수산업 부문의 비용 대비 수익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 음식료품제조업의 전체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전 기간에 걸쳐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2000년: 0.812 → 2005년: 0.794 → 2010년: 0.729 → 2015년: 0.762 → 2019년: 0.764).

- 2019년 기준 음식료품제조업의 전체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764, 농림수산업에 대한 생산유발계수는 0.160으로 나타남. 이는 음식료품제조업 부문의 최종수요 10억 원 증가는 국내 전체산업에서 7.64억 원, 농림수산업에 1.60억 원 직·간접적 부가가치유발효과를 가져옴을 의미함.
- 2000년 대비 2019년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048만큼 감소함. 2000년에서 2010년까지 감소하였다가 그 이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음식료품제조업의 농림수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2000년: 0.285 → 2019년: 0.160). 이는 음식료품제조 부문에서 농림수산업 원물의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으로 풀이됨. 국내산 원물이 음식료품제조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산 원료와 힘든 가격경쟁을 한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줌.

○ 외식업의 전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유발계수는 2000년 대비 2019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2000년: 0.833 → 2005년: 0.871 → 2010년: 0.797 → 2015년: 0.821 → 2019년: 0.820).

- 2019년 기준 외식업의 전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20, 농림수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071로 나타남. 이는 외식업 부문의 최종수요 10억 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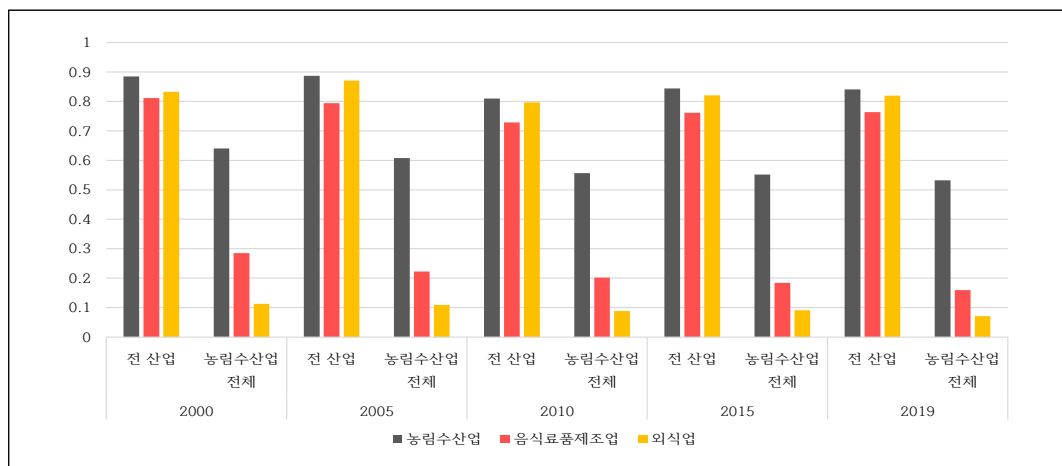
는 국내 전체산업에 8.20억 원, 농림수산업에 0.71억 원의 직·간접적 부가가치유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함.

- 2000년 대비 2019년의 변화를 살펴보면, 외식업의 전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013만큼 소폭 감소함. 2010년에 소폭 감소하였다가 2015년과 2019년에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외식업의 농림수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전체기간에 걸쳐 줄어드는 추세이며 이는 앞부분 음식료품제조업의 해석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산 원료가 외국산 원료와의 가격경쟁으로 인해 단가를 올리기 어려운 구조 때문으로 풀이됨.

〈표 3-3〉 연도별 부가가치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농림수산업	음식료품제조업	외식업
년도	구분			
2000	전 산업	0.885	0.812	0.833
	농림수산업 전체	0.640	0.285	0.113
2005	전 산업	0.887	0.794	0.871
	농림수산업 전체	0.608	0.223	0.109
2010	전 산업	0.810	0.729	0.797
	농림수산업 전체	0.557	0.202	0.088
2015	전 산업	0.845	0.762	0.821
	농림수산업 전체	0.553	0.184	0.091
2019	전 산업	0.841	0.764	0.820
	농림수산업 전체	0.532	0.160	0.071

〈그림 3-5〉 연도별 부가가치유발계수 비교 그래프



5. 취업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

5.1. 정의 및 도출

- 노동유발계수는 특정 상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10억 원) 변화함에 따라 해당 상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에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하며, 취업계수 또는 고용계수를 생산유발계수행렬 $(I - A^d)^{-1}$ 에 곱하여 계산됨.
 - 취업계수는 산출액 10억 원 생산에 고용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하며 취업자 수를 산출액으로 나눈 값이며, 고용계수는 고용자(임금근로자) 수를 산출액으로 나뉘서 계산됨.
 - 취업자는 피용자, 자영업자 및 무급 가족 종사자를 포함함.

5.2.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

- 농림수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00년 대비 2019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2000년: 65.785 → 2005년: 51.050 → 2010년: 32.598 → 2015년: 23.891 → 2019년: 24.877).
 - 다만 2019년에는 전기 대비 비슷한 수치가 나타남. 고용유발계수는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2000년: 7.021 → 2005년: 6.595 → 2010년: 5.286 → 2015년: 3.978 → 2019년: 3.677).
 - 2019년 기준 농림수산업의 최종수요 10억 원 증가는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24.877명 취업자 수, 3.677명 고용자 수 증가를 유발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음식료품제조업의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는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취업- 2000년: 39.370 → 2005년: 27.669 → 2010년: 20.899 → 2015년: 15.288 → 2019년: 14.465; 고용 - 2000년: 10.042 → 2005년: 8.611 → 2010년: 8.116 → 2015년: 6.678 → 2019년: 6.370).
 - 2019년 기준 음식료품제조업의 최종수요 10억 원 증가는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14.465명 취업자 수, 6.370명 고용자 수 증가를 유발하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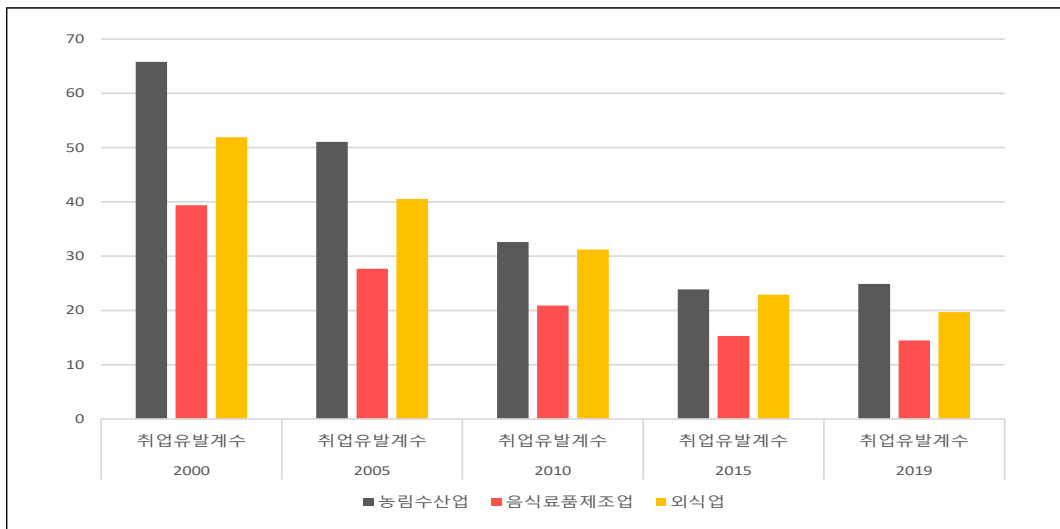
- 외식업의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는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취업 - 2000년: 51.887 → 2005년: 40.537 → 2010년: 31.209 → 2015년: 22.882 → 2019년: 19.672; 고용 - 2000년: 19.668 → 2005년: 16.870 → 2010년: 16.064 → 2015년: 12.018 → 2019년: 10.309).
- 2019년 기준 외식업의 최종수요 10억 원 증가는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19.672명 취업자 수, 10.309명 고용자 수 증가를 유발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4〉 연도별 취업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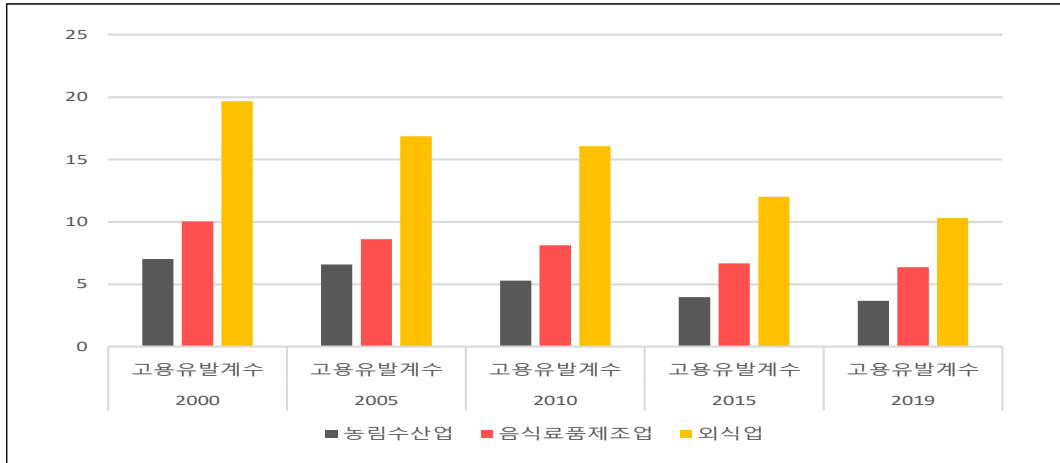
단위: 명/십억 원

년도	구분	농림수산업	음식료품제조업	외식업
2000	취업유발계수	65.785	39.370	51.887
	고용유발계수	7.021	10.042	19.668
2005	취업유발계수	51.050	27.669	40.537
	고용유발계수	6.595	8.611	16.870
2010	취업유발계수	32.598	20.899	31.209
	고용유발계수	5.286	8.116	16.064
2015	취업유발계수	23.891	15.288	22.882
	고용유발계수	3.978	6.678	12.018
2019	취업유발계수	24.877	14.465	19.672
	고용유발계수	3.677	6.370	10.309

〈그림 3-6〉 연도별 취업유발계수 비교 그래프



〈그림 3-7〉 연도별 고용유발계수 비교 그래프



○ 본 연구의 대상인 식품산업에 속한 농림수산업, 음식료품제조업, 외식업 세 부문 모두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 동안 해당 부문 생산으로 인해 파급되는 취업 및 고용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음〈표 3-5〉.

- 특정 부문의 취업 및 고용계수 크기의 변화는 자체 부문 계수의 변화뿐만 아니라 해당 부문의 생산이 유발되는 부문의 계수 변화까지도 연결되어 있음.
- 따라서 이 세 부문 계수의 변화가 자체 부문 계수 변화와 맞물려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세 부문의 취업계수 및 고용계수를 도출함. 〈표 3-5〉를 살펴보면, 이 세 부문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 크기의 감소는 각각의 자체 부문 취업 및 고용계수 크기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남.

〈표 3-5〉 연도별 취업계수 및 고용계수

취업계수					
	2000	2005	2010	2015	2019
농림수산업	0.0591	0.0441	0.0271	0.0194	0.0207
음식료품제조업	0.0053	0.0044	0.0038	0.0029	0.0027
외식업	0.0333	0.0246	0.0204	0.0136	0.0114
고용계수					
	2000	2005	2010	2015	2019
농림수산업	0.0041	0.0035	0.0026	0.0016	0.0014
음식료품제조업	0.0039	0.0031	0.0027	0.0022	0.0021
외식업	0.0140	0.0113	0.0115	0.0076	0.0063

○ 한편, 이 세 부문으로 인해 생산이 유발되는 부문들에서도 전체 기간에 걸쳐 취업 및 고용지수가 다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식품 산업부문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 크기의 감소는 전산업에 걸쳐 전통적인 생산 부문의 자동화 및 생산 효율화로 인해 인력 사용이 줄어드는 현상과 맥락을 같이함.

- 특히, 취업 및 고용계수의 감소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 기인할 것으로 판단됨.

- i) 농림수산업의 경우 기계·설비 증가로 인한 노동력 대체 및 생산성 향상
- ii) 음식료품제조업은 생산과정에서 자동화된 영역의 증가
- iii) 외식업의 경우 키오스크와 같은 무인단말기 사용 증가에 따른 고용인원 감축

4

2020년 식품산업 투입산출구조 분석

1. 분석 개요

- 농림수산물 중 벼, 축우, 양돈, 가금, 기타축산은(음식료품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정곡, 도축육, 가금육 산업을 통해 타 산업 및 최종수요로 투입되고 있음.
 - 정곡, 도축육, 가금육 생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제조업으로 분류되며, 이로 인해 산업연관표 또한 해당 산업부문을 음식료품제조업 소분류로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다른 국가승인통계와의 통일성과 정합성을 유지하고, 거시적인 산업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이러한 산업분류는 벼, 축우, 양돈, 가금, 기타축산을 1차 가공하는 정곡, 도축육, 가금육 부문을 음식료품제조업에 포함하여 국내산 농림수산물의 음식료품제조업 투입을 과대평가할 여지가 있으므로 식품산업에 대한 국내산 농림수산물의 투입구조 분석에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함.
 - 벼, 축우, 양돈, 가금, 기타축산은 모두 도축육, 가금육, 정곡으로 가공된 후 음식료품 제조업 및 외식업으로 투입됨. 따라서 해당 분류 하에서는 국내산 농림수산물의 음식료품제조업으로의 투입은 과대 평가되고 외식업으로의 투입은 과소 평가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 농림수산업의 투입구조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정곡, 도축육, 가금육에서 다른 산업으로의 투입을 벼, 축우, 양돈, 가금, 기타축산으로부터의 투입으로 전환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함.¹⁰⁾

- 벼, 축우, 양돈, 가금, 기타축산이 정곡, 도축육, 가금육으로 투입되는 금액 및 비중을 이용하여 정곡, 도축육, 가금육의 음식료품제조업 및 외식업 투입액 일부를 농림수산업의 투입액으로 상정함.
- 즉, 정곡, 도축육, 가금육 생산업은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을 소비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가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간주됨.

〈표 4-1〉 농림수산업과 음식료품제조업 일부 품목에 대한 조정방법 설명

구분	세부 내용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조정없이 활용	설명	- 산업연관표가 제공하는 농림수산업, 음식료품제조업의 투입흐름을 그대로 활용
	용도	- 기존 통계와의 비교 - 거시적인 산업 구성 파악
농림수산업과 음식료품제조업 일부 품목에 대한 투입액 조정	설명	- 농림수산업인 벼, 육우, 가금, 기타축산이 음식료품제조업인 정곡, 도축육, 가금육으로 투입되는 비중을 활용하여 벼, 육우, 가금, 기타축산과 정곡, 도축육, 가금육의 중간투입 조정
	용도	- 국내산 농림수산품의 음식료품제조업 투입 과대평가 문제를 완화하고 국산 농림수산품의 투입구조를 보다 현실적으로 파악

○ 전체 식품산업 공급흐름 파악을 위하여 2019년까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분류체계와 조정된 중간 투입액을 활용하여 국내산 농림수산품 투입구조를 분석함.

○ 그러나 2020년의 경우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실측표 제공이 지연되는 관계로 기존 2015년에서 2019년의 산업연관표에 제시된 추세를 바탕으로 2020년 수치를 추정함.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식품 산업별 산출과 투입의 세부 항목 추세를 바탕으로 2020년 각 항목의 수치를 도출함.
- 예를 들어, 농림수산업 부문 수입의 경우 2016년은 2015년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2017년은 2016년 대비 2.0% 감소, 2018년은 2017년 대비 5.1% 증가, 2019년은 2018년 대비 3.8% 증가함. 따라서 5년간 농림수산업의 수입은 평균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0)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9년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사업보고서」 참고

2. 전체 식품산업 공급과 수요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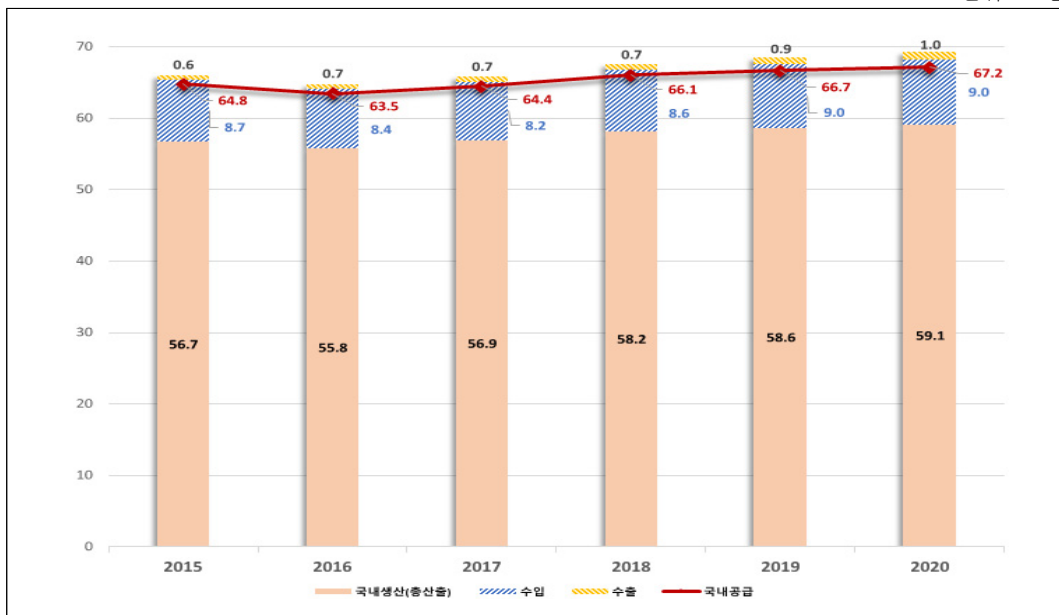
2.1. 농림수산업

○ 농림수산업의 산출구조를 보면, 국내 공급은 2020년 67.2조 원으로 전년 대비 0.5조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19년: 6.7조 원)<그림 4-1>.

- 이는 농림수산업 국내 생산이 전년 대비 0.5조 원 증가한 것에 기인하였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농림수산업 국내 생산액은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2020년에도 추세가 유지된 것으로 추정됨('19년: 58.6조 원 → '20년: 59.1조 원).
- 농림수산업 수입액은 최근 5년 동안 평균 0.8%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2020년 또한 2019년과 유사하게 약 9조 원으로 추정됨.

<그림 4-1> 농림수산업의 산출구조

단위: 조 원



주 1)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연구진이 별도로 조정하지 않고 산업연관표에서 식품산업에 해당하는 기본부분의 수치를 단순 합산하여 계산하였으며, 2020년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변화율을 바탕으로 추정한 값임.

2) 국내 공급=국내생산(총산출)+수입-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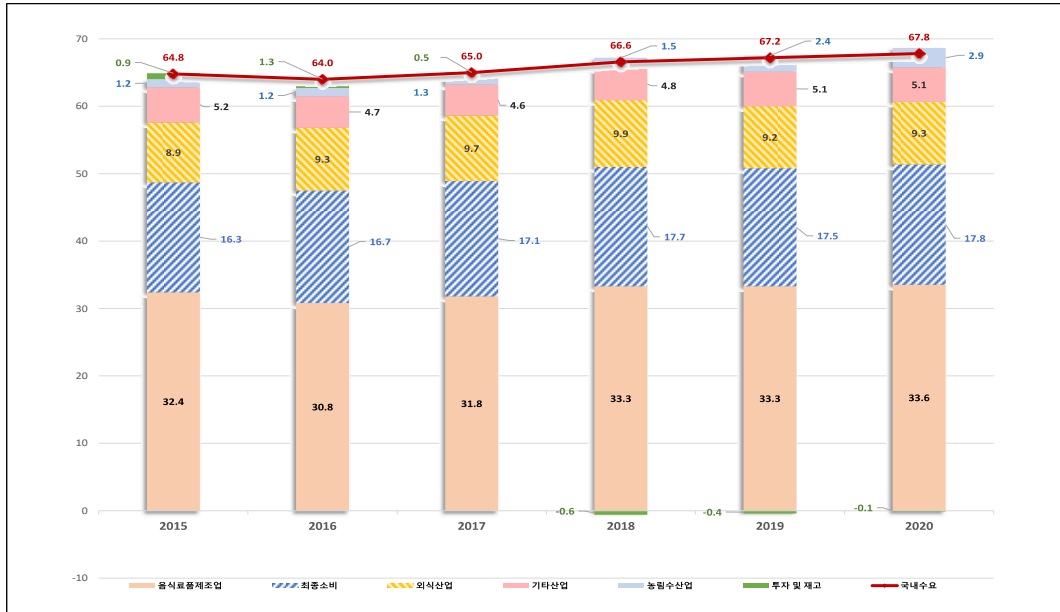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각 연도), 산업연관표.

○ 농림수산업 투입구조를 보면, 국내 수요는 2019년에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음식료품제조업 및 외식업의 중간수요와 최종 소비 모두 꾸준히 증가하였음. 이에 2020년 또한 국내 수요가 2019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예상됨(그림 4-2).

- 음식료품제조업의 농림수산물 수요는 2016년에 전년 대비 1.6조 원 감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33.3조 원까지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33.6조 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예측됨.
- 2015년 이후 외식업 생산에 투입되는 농림수산물 공급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9.9조 원에 이르렀으며, 2019년에 소폭 감소하여 9.2조 원으로 나타남. 그러나 5년간 최종소비는 2019년을 제외하고 증가하였기 때문에 2020년의 경우 9.3조 원으로 2019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농림수산물의 최종소비의 경우 2019년에 소폭 감소하여 전년 대비 -1.1%(0.2조) 감소하였으나, 5년간 최종소비는 2019년을 제외하고 증가하였기 때문에 2020년의 최종소비의 경우 17.8조로 2019년(17.5조) 대비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됨.
- 음식료품제조업으로의 투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48.9%(31.8조 원)에서 2018년 50.1%(33.3조 원)로 상승하였으나, 2019년 49.6%(33.3조 원)로 감소하였고, 2020년의 경우 49.5%(33.6조 원)로 비중이 감소된 것으로 예상됨.
- 최종소비 비중은 2017년 26.3%(17.1조 원)에서 26.5%(17.7조 원)로 미미하게 증가하였으나, 2019년 26.1%(17.5조 원)로 감소함. 2020년의 경우 26.3%(17.8조 원)로 소폭 다시 증가한 것으로 예상됨.

〈그림 4-2〉 농림수산업의 투입구조

단위: 조 원



주 1) 2020년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변화율을 바탕으로 추정된 값임.

2) 국내 공급과 국내 수요는 동일함.

3) 국내 수요=중간수요(농림수산업, 음식료품, 외식업, 기타산업)+최종수요(최종소비+투자 및 재고)

4)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연구진이 별도로 조정하지 않고 산업연관표에서 식품산업에 해당하는 기본부분의 수치를 단순 합산하여 계산됨.

자료: 한국은행(각 연도), 산업연관표.

○ 〈표 4-2〉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농림수산업의 산출구조(그림 4-1) 및 투입구조(그림 4-2)를 한 표로 정리한 것임.

〈표 4-2〉 농림수산업의 투입산출구조

단위: 조 원, (%)

항목	구분	규모	구분	규모	
2015	농림수산 국내공급	64.8	중간 수요	농림수산	1.2조 (1.9)
	국내생산	56.7		음식료품	32.4조 (50.0)
	수입	8.7		외식업	8.9조 (13.7)
	수출	0.6	최종 수요	기타산업	5.2조 (8.0)
최종소비				16.3조 (25.2)	
				투자 및 재고	0.9조 (1.3)

(계속)

항목	구분	규모	구분	규모	
2016	농림수산 국내공급	63.5	중간 수요	농림수산	1.2 (1.8)
	국내생산	55.8		음식료품	30.8 (48.1)
	수입	8.4		외식업	9.3 (14.6)
	수출	0.7	최종 수요	기타산업	4.7 (7.4)
				최종소비	16.7 (26.1)
투자 및 재고	1.3 (2.0)				
2017	농림수산 국내공급	64.4	중간 수요	농림수산	1.3 (2.0)
	국내생산	56.9		음식료품	31.8 (48.9)
	수입	8.2		외식업	9.7 (15.0)
	수출	0.7	최종 수요	기타산업	4.6 (7.1)
				최종소비	17.1 (26.3)
투자 및 재고	0.5 (0.8)				
2018	농림수산 국내공급	66.1	중간 수요	농림수산	1.5 (2.2)
	국내생산	58.2		음식료품	33.3 (50.1)
	수입	8.6		외식업	9.9 (14.8)
	수출	0.7	최종 수요	기타산업	4.8 (7.3)
				최종소비	17.7 (26.5)
투자 및 재고	-0.6 (-0.9)				
2019	농림수산 국내공급	66.7	중간 수요	농림수산	2.4 (3.6)
	국내생산	58.6		음식료품	33.3 (49.6)
	수입	9.0		외식업	9.2 (13.7)
	수출	0.9	최종 수요	기타산업	5.1 (7.6)
				최종소비	17.5 (26.1)
투자 및 재고	-0.4 (-0.5)				
2020	농림수산 국내공급	67.2	중간 수요	농림수산	2.9 (4.3)
	국내생산	59.1		음식료품	33.6 (49.5)
	수입	9.0		외식업	9.3 (13.7)
	수출	1.0	최종 수요	기타산업	5.1 (7.5)
				최종소비	17.8 (26.3)
투자 및 재고	-0.1 (-0.2)				

주: 2020년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변화율을 바탕으로 추정된 값임. 2015년부터 2019년의 자료는 연구진이 별도로 조정하지 않고 산업연관표에서 식품산업에 해당하는 기본부문의 수치를 단순 합산하여 계산됨.

자료: 한국은행(각 연도), 산업연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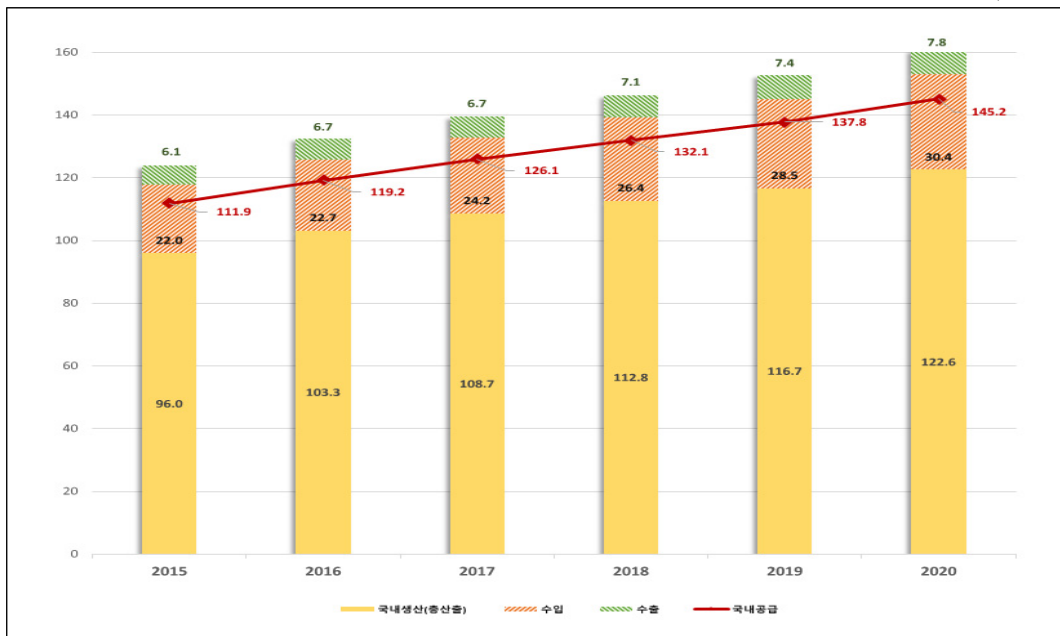
2.2. 음식료품제조업

○ 음식료품제조업의 산출구조를 보면, 국내 공급은 2020년 145.2조 원으로 전년 대비 7.4조 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19년: 137.8조 원)<그림 4-3>.

- 이는 음식료품제조업의 국내생산액이 전년 대비 5.9조 원 증가한 것에 기인함. 2015년부터 음식료품제조업의 국내생산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상승추세는 2020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됨('19년: 116.7조 원 → '20년: 122.6조 원).
- 음식료품제조업의 수입액 및 수출액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따라서, 2020년 수입액은 30.4조 원으로 2019년 대비 1.9조 원 증가하고, 수출액은 7.8조 원으로 2019년 대비 0.4조 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 4-3〉 음식료품제조업의 산출구조

단위: 조 원



주 1)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연구진이 별도로 조정하지 않고 산업연관표에서 식품산업에 해당하는 기본부분의 수치를 단순 합산하여 계산하였으며, 2020년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변화율을 바탕으로 추정된 값임.

2) 국내 공급=국내생산(총산출)+수입-수출

자료: 한국은행(각 연도), 산업연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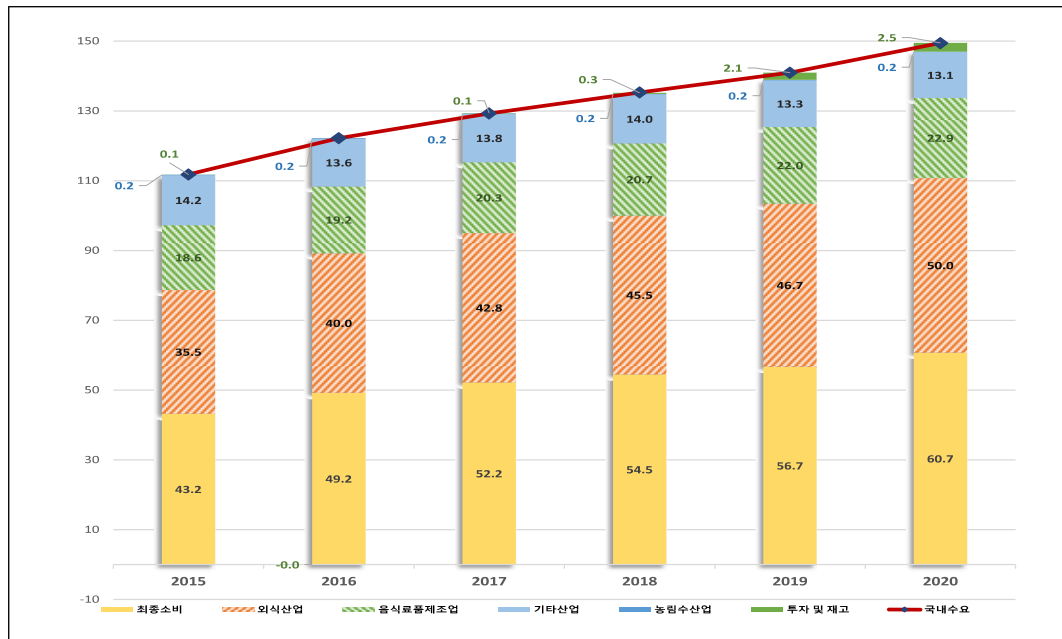
○ 음식료품제조업의 투입구조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2020년 또한 증가한 것으로 예상됨(그림 4-4).

- 이는 외식업 매출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간편식 배송서비스의 발달, 편의점을 통한 간편 소비지출 증가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음식료품제조업의 최종소비는 2015년부터 평균 7.1% 증가하여 2020년에는 60.7조 원으로 추정됨.
- 2015년 이후 외식업 생산에 투입되는 음식료품제조업 공급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46.7조 원에 이룸. 따라서 2020년의 경우 또한 외식업 생산에 투입되는 음식료품제조업 공급액이 50.0조 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됨.

〈그림 4-4〉 음식료품제조업의 투입구조

단위: 조 원



주 1)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연구진이 별도로 조정하지 않고 산업연관표에서 식품산업에 해당하는 기본부분의 수치를 단순 합산하여 계산하였으며, 2020년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변화율을 바탕으로 추정한 값임.

2) 국내 공급과 국내 수요는 동일함.

3) 국내 수요=중간수요(농림수산업, 음식료품, 외식업, 기타산업)+최종수요(최종소비+투자 및 재고)

자료: 한국은행(각 연도), 산업연관표.

○ 〈표 4-3〉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음식료품제조업의 산출구조(그림 4-3) 및 투입구조(그림 4-4)를 한 표로 정리한 것임.

〈표 4-3〉 음식료품제조업의 투입산출구조

단위: 조 원, (%)

항목	구분	규모	구분	규모	
2015	음식료품 국내공급	111.9	중간 수요	농림수산	0.2 (0.2)
	국내생산	96.0		음식료품	18.6 (16.6)
	수입	22.0		외식업	35.5 (31.8)
	수출	6.1	최종 수요	기타산업	14.2 (12.7)
				최종소비	43.2 (38.6)
투자 및 재고	0.1 (0.1)				
2016	음식료품 국내공급	119.3	중간 수요	농림수산	0.2 (0.2)
	국내생산	103.3		음식료품	19.2 (15.7)
	수입	22.7		외식업	40.0 (32.7)
	수출	6.6	최종 수요	기타산업	13.6 (11.1)
				최종소비	49.3 (40.3)
투자 및 재고	-0.0 (0.0)				
2017	음식료품 국내공급	126.1	중간 수요	농림수산	0.2 (0.2)
	국내생산	108.7		음식료품	20.3 (15.7)
	수입	24.2		외식업	42.8 (33.1)
	수출	6.7	최종 수요	기타산업	13.8 (10.7)
				최종소비	52.2 (40.4)
투자 및 재고	0.1 (0.1)				
2018	음식료품 국내공급	132.2	중간 수요	농림수산	0.2 (0.2)
	국내생산	112.8		음식료품	20.7 (15.3)
	수입	26.4		외식업	45.5 (33.6)
	수출	7.0	최종 수요	기타산업	14.0 (10.4)
				최종소비	54.5 (40.3)
투자 및 재고	0.3 (0.2)				
2019	음식료품 국내공급	137.8	중간 수요	농림수산	0.2 (0.1)
	국내생산	116.7		음식료품	22.0 (15.6)
	수입	28.5		외식업	46.7 (33.1)
	수출	7.4	최종 수요	기타산업	13.3 (9.4)
				최종소비	56.7 (40.2)
투자 및 재고	2.1 (1.5)				
2020	음식료품 국내공급	145.2	중간 수요	농림수산	0.2 (0.1)
	국내생산	122.6		음식료품	22.9 (15.4)
	수입	30.4		외식업	50.0 (33.5)
	수출	7.8	최종 수요	기타산업	13.1 (8.8)
				최종소비	60.7 (40.6)
투자 및 재고	2.5 (1.7)				

주: 2020년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변화율을 바탕으로 추정한 값임. 2015년부터 2019년의 자료는 연구진이 별도로 조정하지 않고 산업연관표에서 식품산업에 해당하는 기본부문의 수치를 단순 합산하여 계산됨.

자료: 한국은행(각 연도), 산업연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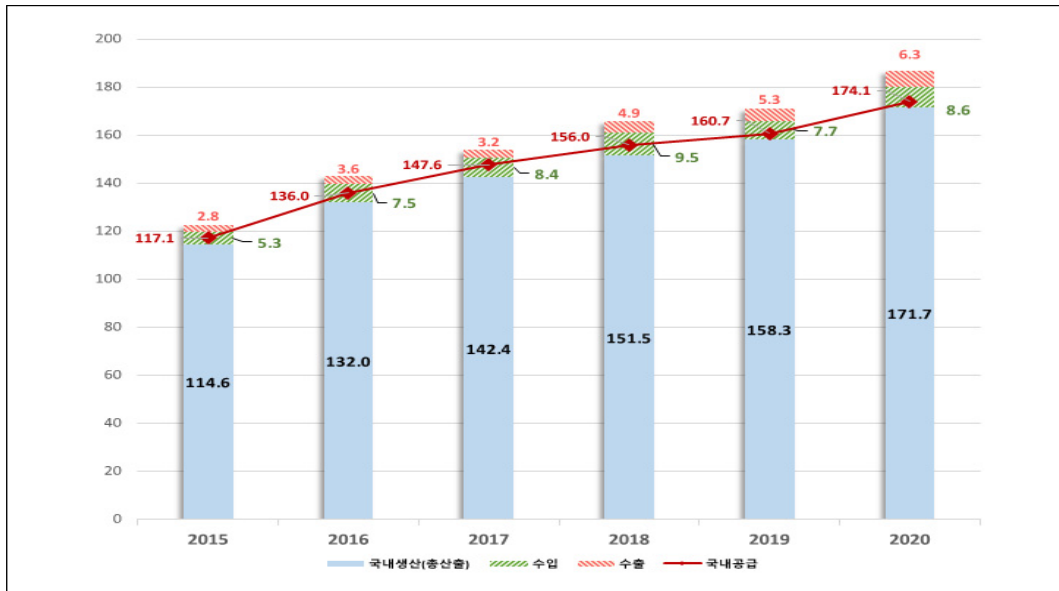
2.3. 외식업

○ 외식업의 산출구조를 보면, 국내 공급은 2020년 174.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3.4조 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19년: 160.7조 원)〈그림 4-5〉.

- 이는 외식업의 국내생산액이 전년 대비 13.4조 원 증가하고('19년: 158.3조 원 → '20년: 171.7조 원), 수출이 1.0조 원 증가('19년: 5.3조 원 → '20년: 6.3조 원)한 것에 따른 결과로, 최근 5개년 동안 외식업의 국내 생산 및 수출액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4-5〉 외식업의 산출구조

단위: 조 원



주 1)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연구진이 별도로 조정하지 않고 산업연관표에서 식품산업에 해당하는 기본부분의 수치를 단순 합산하여 계산했으며, 2020년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변화율을 바탕으로 추정된 값임.

2) 국내 공급=국내생산(총산출)+수입-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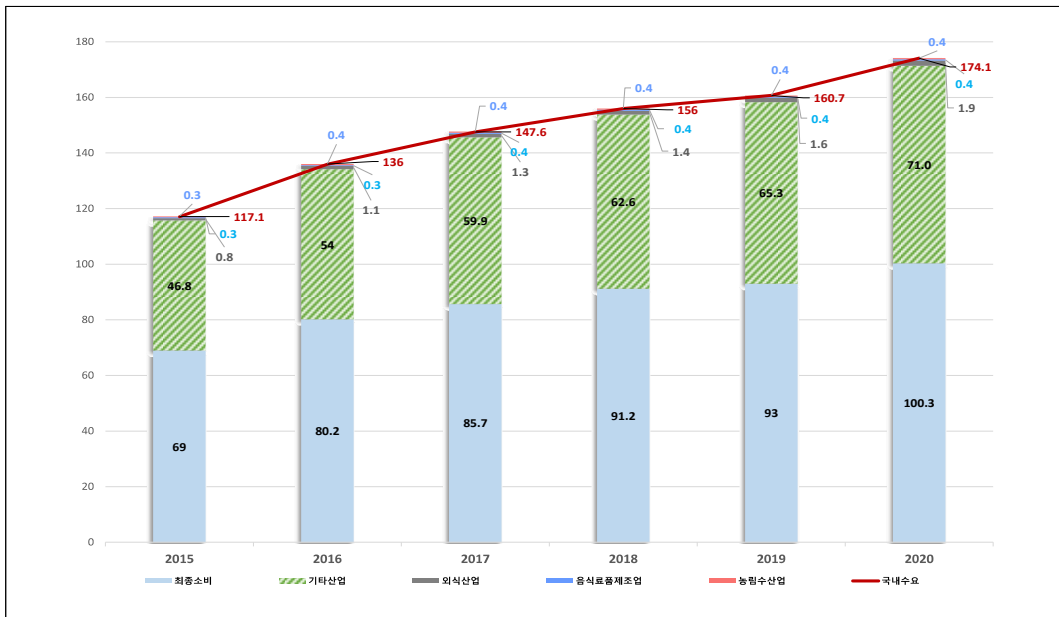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각 연도), 산업연관표.

○ 외식업의 투입구조를 보면, 외식업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는 국내 중간수요 및 최종수요 모두 동일하게 확인됨. 이에 외식업의 국내 수요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적으로 연 8.3%씩 증가하였음. 2020년 최종소비는 100.3조, 기타산업 중간수요는 71.0조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그림 4-6〉.

- 외식업의 최종소비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해 음식점 및 배달서비스 산업의 성장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 또한, 외식업의 기타산업 중간수요 증가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단체급식이 점차 위탁으로 바뀌고 있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그림 4-6〉 외식업의 투입구조

단위: 조 원



주 1)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연구진이 별도로 조정하지 않고 산업연관표에서 식품산업에 해당하는 기본부분의 수치를 단순 합산하여 계산했으며, 2020년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변화율을 바탕으로 추정된 값임.

2) 국내 공급과 국내 수요는 동일함.

3) 국내 수요=중간수요(농림수산업, 음식료품, 외식업, 기타산업)+최종수요(최종소비+투자 및 재고)

4)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산업연관표에서 외식업에 대한 투자 및 재고 부문 수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그래프에서도 별도로 나타내지 않았음.

자료: 한국은행(각 연도), 산업연관표.

○ 〈표 4-4〉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외식업의 산출구조(그림 4-5) 및 투입구조(그림 4-6)를 한 표로 정리한 것임.

〈표 4-4〉 외식업의 투입산출구조

단위: 조 원, (%)

항목	구분	규모	구분	규모	
2015	외식업 국내공급	117.1	중간 수요	농림수산	0.3 (0.2)
				음식료품	0.3 (0.2)
	외식업	0.8 (0.6)			
	기타산업	46.8 (39.9)			
	국내생산	114.6	최종 수요	최종소비	69.0 (58.9)
투자 및 재고				- -	
수입	5.3				
수출	2.8				
2016	외식업 국내공급	136.0	중간 수요	농림수산	0.4 (0.3)
				음식료품	0.3 (0.3)
	외식업	1.1 (0.8)			
	기타산업	54.0 (39.7)			
	국내생산	132.0	최종 수요	최종소비	80.2 (59.0)
투자 및 재고				- -	
수입	7.5				
수출	3.6				
2017	외식업 국내공급	147.6	중간 수요	농림수산	0.4 (0.2)
				음식료품	0.4 (0.3)
	외식업	1.3 (0.8)			
	기타산업	59.9 (40.6)			
	국내생산	142.4	최종 수요	최종소비	85.7 (58.1)
투자 및 재고				- -	
수입	8.4				
수출	3.2				
2018	외식업 국내공급	156.0	중간 수요	농림수산	0.4 (0.3)
				음식료품	0.4 (0.3)
	외식업	1.4 (0.9)			
	기타산업	62.6 (40.1)			
	국내생산	151.5	최종 수요	최종소비	91.2 (58.5)
투자 및 재고				- -	
수입	9.5				
수출	4.9				
2019	외식업 국내공급	160.7	중간 수요	농림수산	0.4 (0.3)
				음식료품	0.4 (0.3)
	외식업	1.6 (1.0)			
	기타산업	65.3 (40.6)			
	국내생산	158.3	최종 수요	최종소비	93.0 (57.9)
투자 및 재고				- -	
수입	7.7				
수출	5.3				
2020	외식업 국내공급	174.1	중간 수요	농림수산	0.4 (0.2)
				음식료품	0.4 (0.2)
	외식업	1.9 (1.1)			
	기타산업	71.0 (40.8)			
	국내생산	171.7	최종 수요	최종소비	100.3 (57.6)
투자 및 재고				- -	
수입	8.6				
수출	6.3				

주: 2020년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변화율을 바탕으로 추정된 값임. 2015년부터 2019년의 자료는 연구진이 별도로 조정하지 않고 산업연관표에서 식품산업에 해당하는 기본부문의 수치를 단순 합산하여 계산됨.

자료: 한국은행(각 연도). 산업연관표.

3. 국내산 농림수산물 공급 흐름

- 2020년 국내산 농림수산물의 공급흐름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2020년 산업연관표 발표가 지연됨에 따라 2015년에서 2019년까지의 변화를 바탕으로 추정함.
- 국내산 농림수산물의 음식료품제조업 과대 투입 문제를 완화하고 국산 농림수산물의 투입구조를 보다 현실적으로 파악하고자 2011년부터 2019년의 산업연관표상 음식료품으로 분류된 정곡, 도축육, 가금육의 농림수산물 비중을 반영함.
 - 정곡, 도축육, 가금육 전체 생산을 농림수산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곡, 도축육, 가금육으로 1차 농축산물이 투입된 비중만큼만 농림수산물로 간주함. 1차 농축산물로 배분할 때는 벼, 축우, 양돈, 가금, 기타축산이 타 부문으로 중간 투입되는 비율을 고려하여 배분함.
 - 음식료품제조업과 외식업의 경우, 한국은행 「국민계정」 중 경제활동별 GDP 및 GNI에 제시된 2019년과 2020년 변화율을 반영하여 2020년 수치를 추계함.
 - 가계소비의 경우 한국은행 「국민계정」 중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에 제시된 2019년과 2020년 변화율을 반영하여 2020년 수치를 추계함.
- 이 같은 조정 및 추정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2020년의 음식료품제조업, 외식업으로 투입된 국내산 농림수산물 공급흐름이 <표 4-5>에 제시됨.
 - 농림수산물에 대한 가계소비는 전년(22조 230억 원) 대비 약 2조 1,530억 원 증가(24조 1,760억 원)한 것으로 추정됨. 식품산업 투입은 전년(29조 7,770억 원) 대비 약 2조 7,010억 원 감소(27조 760억 원)한 것으로 추정됨. 이 중 음식료품제조업으로의 투입은 6,540억 원 정도 늘어났으나, 외식업에서 3조 3,540억 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2020년 국내산 농림수산물의 총산출은 58조 2,070억 원으로, 전년(58조 6,430억 원) 대비 약 4,360억 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표 4-5〉 국내산 농림수산품의 공급흐름(2011~2020)

단위: 십억 원(%)

연도	식품산업투입			가계소비 (D)	수출, 재고, 기타 (E)	총산출 (F=C+D+E)
	음식료품제조업 (A)	외식업 (B)	합계 (C=A+B)			
2011	10,164 (20.0)	11,803 (23.3)	21,968 (43.3)	22,357 (44.1)	6,427 (12.7)	50,752 (100.0)
2012	10,965 (21.0)	12,603 (24.1)	23,568 (45.1)	23,317 (44.6)	5,391 (10.3)	52,276 (100.0)
2013	10,760 (20.6)	11,980 (22.9)	22,740 (43.5)	24,437 (46.7)	5,152 (9.8)	52,329 (100.0)
2014	11,143 (21.1)	12,170 (23.1)	23,313 (44.2)	24,677 (46.8)	4,704 (8.9)	52,695 (100.0)
2015	11,051 (19.5)	17,844 (31.5)	28,895 (51.0)	20,586 (36.3)	7,211 (12.7)	56,692 (100.0)
2016	10,681 (19.2)	17,862 (32.0)	28,544 (51.2)	20,221 (36.3)	7,012 (12.6)	55,776 (100.0)
2017	10,993 (19.3)	18,936 (33.3)	29,930 (52.6)	20,656 (36.3)	6,330 (11.1)	56,915 (100.0)
2018	10,904 (18.7)	19,739 (33.9)	30,643 (52.7)	21,876 (37.6)	5,652 (9.7)	58,171 (100.0)
2019	11,499 (19.6)	18,278 (31.2)	29,777 (50.8)	22,023 (37.5)	6,843 (11.7)	58,643 (100.0)
2020	12,153 (20.9)	14,924 (25.6)	27,076 (46.5)	24,176 (41.5)	6,955 (11.9)	58,207 (100.0)

○ 국내산 농림수산품의 식품산업 투입 비중은 2019년 50.8%에서 2020년 46.5%로 4.3%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가계소비 비중은 2019년 37.5%에서 2020년 41.5%로 4.0%p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식품산업의 투입 비중은 최근 7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가 2019년 소폭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가계소비 비중은 2015년에 전년 대비 급감한 이후 서서히 증가하다가 그 수치가 2019년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대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5

코로나19로 인한 식품산업 영향과 전체산업 파급효과

1. 코로나19로 인한 식품산업 변화

- 코로나19의 급격한 유행으로 인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20년 3월 12일 전 세계적인 대유행 상태 ‘팬데믹’(Pandemic)을 선포함. 이에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여행 제한 등이 실시됨.
-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역별 감염자 수에 따라 외식 시간과 인원수가 제한되면서 외식 업계는 큰 타격을 받음. 그러나 이와 반대로 배달 음식과 집에서 간단하게 직접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를 포함한 반조리식품 등의 소비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서용희, 2020).
 -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19-25세 소비자의 경우 배달 음식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6-40세 소비자의 경우는 배달 음식의 증가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대형마트, 식품 소매점, 편의점 등의 사용이 감소하고 대신 인터넷으로 인한 식품 구매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이홍승·김준환, 2021).
-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식품산업은 개인의 소비뿐만 아니라 외래관광객의 방문도 영향을 받음. 코로나19로 인해 입출국이 자유롭지 못함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입국 관광객이 급속히 감소함.

- <표 5-1>을 보면, 2020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입국외국인 수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9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2021년 2분기부터는 2020년 동기간보다 입국외국인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외래관광객조사(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개별 외래관광객 1인은 식음료 비로 평균 218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 김예솔·진현정(2021)은 2020년 외래관광객 감소로 인해 식음료산업에 2,083백 만 달러만큼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함. 또한 외래관광객 감소로 인해 음식물제조업 부문에서 177억 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함.

〈표 5-1〉 분기별 입국외국인 수

단위: 명, %

입국외국인정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9년 (명)	4,153,418	4,392,928	4,461,387	4,654,573
2020년 (명)	2,130,297	114,235	212,420	202,893
증감률(19년대비 20년) (%)	-48.71	-97.40	-95.24	-95.64
2021년 (명)	214,117	239,256	294,400	296,732
증감률(19년대비 21년) (%)	-94.84	-94.55	-93.40	-93.62
증감률(20년대비 21년) (%)	-89.95	109.44	38.59	46.25

자료: 법무부(각 연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이와 같이 코로나19는 식품산업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외식업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제시됨. 따라서 식품의 중요한 수요처인 가계, 수출, 외래관광객 부분을 반영하여 농림수산업, 음식료품제조업, 외식업의 수요에 미친 변화를 도출하고 전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함.

- 2020년과 2021년은 실제 자료에 근거하여 농림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세 부분에 대한 지출 및 수출 금액을 분석함.
- 2022년은 분석 시점을 기준으로 2분기까지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3-4분기 대해서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분석함.
- 2021년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도출된 결과와 '2021 식품산업의 파급효과 및 연계구조 분석'에서 시나리오에 바탕을 두고 도출한 결과를 비교하여 가장 적합도가 높은 시나리오를 선정함.

- 2021년 '식품산업의 파급효과 및 연계구조 분석'에서 2021년 3-4분기 분석을 위해 이용한 시나리오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i) 시나리오1: 2021년의 1-2분기 지출 및 수출이 3-4분기에도 동일하다고 가정

ii) 시나리오2: 다른 모든 사항은 시나리오 1과 같음. 단 2021년 4분기는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되었기 때문에, 가계의 외식비가 시나리오1에서 설정한 값 대비 60% 정도 덜 감소할 것으로 가정

iii) 시나리오3: 2020년 1-2분기 대비 2021년 1-2분기의 지출 및 수출 변화가 2021년 3-4분기에도 동일할 것이라고 가정

○ 분석자료는 가계 소비 동향, 식품 수출 동향, 외래관광객 방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국가 통계 및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이용함.

- 외래관광객 감소로 인한 외식 부문 매출액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 정보(2019~2022)」,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외래관광객조사」를 이용함.

- 해당 자료들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외래관광객의 1인당 식음료비(외식비)는 평균 217.5 달러 정도로 계산됨.

- 외래관광객의 가공식품 지출액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의 「방한 외래관광객 쇼핑관광 실태조사」를 활용함.

- 해당 자료에 의하면, 외래관광객의 2019년 1인당 가공식품 지출액은 평균 73,525 원, 농축수산물 지출액은 평균 2,203원으로 나타남.

- 가계의 외식, 신선식품, 가공식품의 지출액을 분석하기 위해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함.

- 농림수산물 수출 동향의 경우 한국농수산물공사의 Kati에서 제공하는 수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가공식품 수출동향은 IHS MARKIT 자료를 이용함.

- 경제적 파급효과는 2019년 식품산업 연계구조 분석과정에서 도출된 유발계수를 활용함.

2. 코로나19 이후 식품산업의 수요 변화

○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식품산업 변화는 <표 5-2>와 <그림 5-1>에 제시됨.

- 가구당 평균 신선식품 소비액의 경우 19년 대비 20년에는 16.7% 증가하였으며, 21년에는 19년 대비 25.0%가 증가함. 20년 대비 21년의 경우 7.2% 증가함(1,884천 원 → 2,198천 원 → 2,355천 원).
- 가공식품의 경우 19년 대비 20년에는 가구당 평균 연간소비액이 12.7% 증가하였으며, 21년에는 19년 대비 15.4%가 증가함. 20년 대비 21년의 경우 2.4% 증가함(2,272천 원 → 2,559천 원 → 2,620천 원).
- 외식비의 경우 19년 대비 20년에는 -7.4% 감소하였으나, 20년 대비 21년은 5.0% 상승함(4,002천 원 → 3,909천 원 → 3,894천 원).

○ 농식품산업의 수출액은 19년 대비 21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농림수산물 수출액을 보면 19년 대비 20년에는 -1.8% 소폭 감소하였으나, 21년에는 19년 대비 16.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2,892백만 달러 → 2,842백만 달러 → 3,356백만 달러).
- 가공식품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수출액이 증가함. 20년에는 19년 대비 11.8%가 증가하였으며, 21년은 19년 대비 24.9%가 증가함. 따라서 20년 대비 21년은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5,795백만 달러 → 6,479백만 달러 → 7,239백만 달러).

〈표 5-2〉 농식품산업의 가구당 연간소비 및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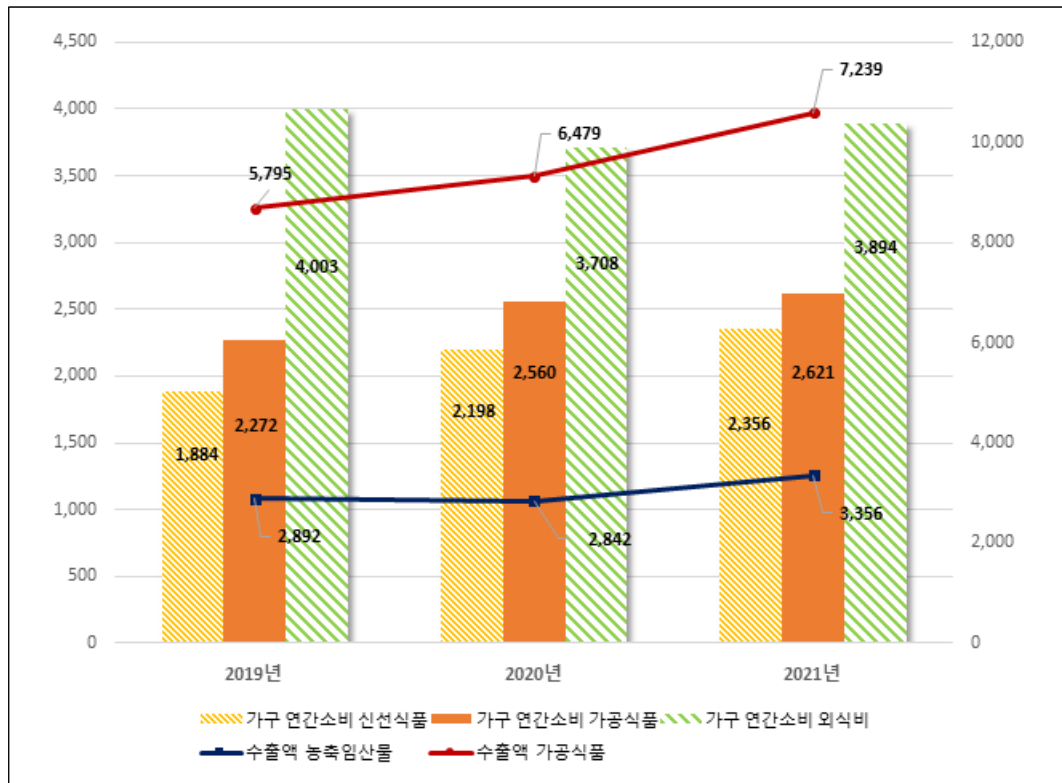
단위: 원, 천 달러, %

구분	가구당 연간소비(원) ¹⁾			수출액(천 \$)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비	농축임산물 ²⁾	가공식품 ³⁾
2019년	1,884,234	2,272,126	4,002,747	2,892,463	5,794,527
2020년	2,198,419	2,559,689	3,707,718	2,841,762	6,479,246
증감률(19년대비 20년)	16.7	12.7	-7.4	-1.8	11.8
2021년	2,355,983	2,620,910	3,893,866	3,355,678	7,239,078
증감률(19년대비 21년)	25.0	15.4	-2.7	16.0	24.69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농식품수출정보; IHS MARKIT.

〈그림 5-1〉 연도별 식품의 가구당 연간소비 및 수출액

단위: 가구당 연간소비(원), 수출액(천 달러)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농식품수출정보; IHS MARKIT.

3. 분석 과정

3.1. 2022년 3-4분기 예측을 위한 시나리오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식품산업 부문의 받은 영향과 이로 인한 전체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은 2가지 방향으로 수행함.

- 2020년의 경우 2021년 ‘식품산업의 파급효과 및 연계구조 분석’에서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해당 보고서에 제시된 결과를 차용함.
- 2021년 경우 현재까지의 통계치를 바탕으로 실제 변화된 지출액과 수출액을 파악함.
- 2022년 경우 분석 시점까지 제공되는 1분기 및 2분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3-4분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함.
- 분석에는 각 변수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률(성장률)을 반영함.

○ 2021년 실측치를 기준으로 도출한 2019년 대비 2021년 식품산업 최종수요 변화를 <표 5-3>에 제시함.

<표 5-3> 5년간 평균 증감률을 반영한 2019년 대비 2020년 및 2021년의 식품산업 부문 영향

단위: 십억 원

구분		외식업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총합
2019년도 대비	외래입국자 감소로 인한 ¹⁾	-4,248.36	-1,305.57	-39.12	-5,593.05
	가계소비 변화로 인한	-10,378.14	4,782.91	5,540.28	-54.96
2020년도 변화 ²⁾	수출변화로 인한 ¹⁾		537.89	-297.00	240.89
	19년 대비 20년 변화액	-14,626.50	4,015.22	5,204.16	-5,407.12
2019년도 대비	외래입국자 변화 요인 ¹⁾	-5,744.46	-1,665.42	-49.90	-7,459.78
	가계소비 변화 요인	-6,489.25	6,061.70	8,832.04	8,404.49
2021년도 변화	수출 변화 요인 ¹⁾	-	1,535.79	186.75	1,722.54
	19년 대비 21년 변화액	-12,233.71	5,932.08	8,968.89	2,667.25

주 1) 달러의 경우 연평균 환율을 이용함.

2) 2020년의 결과는 2021년 ‘식품산업의 파급효과 및 연계구조 분석’에 제시된 수치임.

○ 2019년 대비 2021년 외식부문은 12.2조 원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음식료품제조업은 5.9조 원 증가하였고, 농림수산품은 9.0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대비 2020년에 변화한 식품산업 수요 변화의 총합은 -5.5조 원인 반면, 2021년은 2019년 대비 2.7조 원으로 증가하였음.
- 2021년의 경우 2020년과 비슷하게 코로나19로 인해 외식문화가 줄어드는 대신 가구 내에서의 신선식품 및 가공식품 소비가 증가하고, K-문화 확산의 여파로 가공식품 수출이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19년에 비해 식품산업의 최종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실제 자료에 근거하여 도출한 2019년 대비 2021년 식품산업 수요 변화는 2021년 ‘식품산업의 파급효과 및 연계구조 분석’에서 사용한 3개의 시나리오 중 시나리오3의 추정 결과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표 5-4〉 2021년의 시나리오 3 및 실측치 비교

단위: 십억 원

2021년	외식업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시나리오3	실측치	시나리오3	실측치	시나리오3	실측치
외래입국자 변화 요인	-4,723.2	-5,744.5	-1,451.5	-1,665.4	-43.5	-49.9
가계소비 변화 요인	-10,309.7	-6,489.4	6,191.8	6,061.7	9,035.3	8,832.0
수출 변화 요인			1,714.6	1,535.8	133.1	186.8
19년 대비 21년 변화액	-15,032.8	-12,233.7	6,454.0	5,932.1	9,124.9	8,968.9

○ 따라서 2022년 3-4분기 식품수요의 변화는 2021년 ‘식품산업의 파급효과 및 연계구조 분석’에서 사용한 시나리오 중 세 번째 방식을 이용해 분석함. 그 결과 2019년 대비 2022년 외식업의 최종수요는 총 4.9조 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반면 음식료품은 5.5조 원, 농축수산물은 8.3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표 5-5).

- 이에 농림수산물, 가공식품, 외식에 대한 외래입국자, 가계소비, 수출 부문의 2021년 1-2분기 대비 2022년 1-2분기의 지출 및 수출 변화 비율을 도출함. 그리고 이 비율이 2022년 3-4분기에도 같다고 가정함.

〈표 5-5〉 5년간 평균 증감률을 반영한 2019년 대비 2022년 식품산업 부문 영향(시나리오)

단위: 십억 원

구분	외식업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총합
외래입국자 변화 요인 ¹⁾	-5,985.97	-1,735.44	-52.00	-7,773.40
가계소비 변화 요인	1,094.99	5,253.05	7,164.02	13,512.06
수출 변화 요인 ¹⁾		2,032.56	1,199.51	3,232.08
19년 대비 22년 변화액	-4,890.98	5,550.18	8,311.53	8,970.73

주: 달러의 경우 연평균 환율을 이용함.

3.2. 2020~2022년 식품산업 지출 및 수출 변화 추정치

- 2020년, 2021년 식품산업 최종수요 변화와 2022년 시나리오에 의한 결과를 요약하면, 2019년 대비 식품산업의 최종수요 변화는 2020년 총 -5.4조 원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은 2.7억 원, 2022년은 9.0조 원 증가된 것으로 추정됨〈표 5-6〉, 〈그림 5-2〉.
- 코로나19 이후 외식업 수요의 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에 14.6조 원 감소하였으나, 2021년 12.2조 원, 2022년 4.9조 원으로 2019년 대비 감소폭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음〈표 5-6〉, 〈그림 5-2〉.
 - 2019년과 2022년의 가계동향조사의 외식비를 비교하면 2019년 2분기 가구 월평균 소비는 334,335원인 반면, 2022년 2분기의 경우 386,151원으로 소비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다양한 모임 및 외식 생활 증가로 인한 현상으로 풀이됨.
- 가공식품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9년 대비 2020년은 4.0조 원 증가하였으며, 2021년은 2019년 대비 5.9조, 2022년은 2019년 대비 5.5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표 5-6〉, 〈그림 5-2〉.
- 농림수산품의 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은 2019년 대비 5.2조 원 증가, 2021년은 2019년 대비 8.9조, 2022년은 2019년 대비 8.3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표 5-6〉, 〈그림 5-2〉.

- 2019년 대비 2022년의 증가액이 2021년보다 적은 이유는 2022년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외식 소비가 증가하고, 이에 가계의 음식료품 및 농축수산물 소비가 2021년보다 감소하여 발생한 상황으로 추정됨.

〈표 5-6〉 2019년 대비 2020~2022년 식품 지출 및 수출액 변화

단위: 십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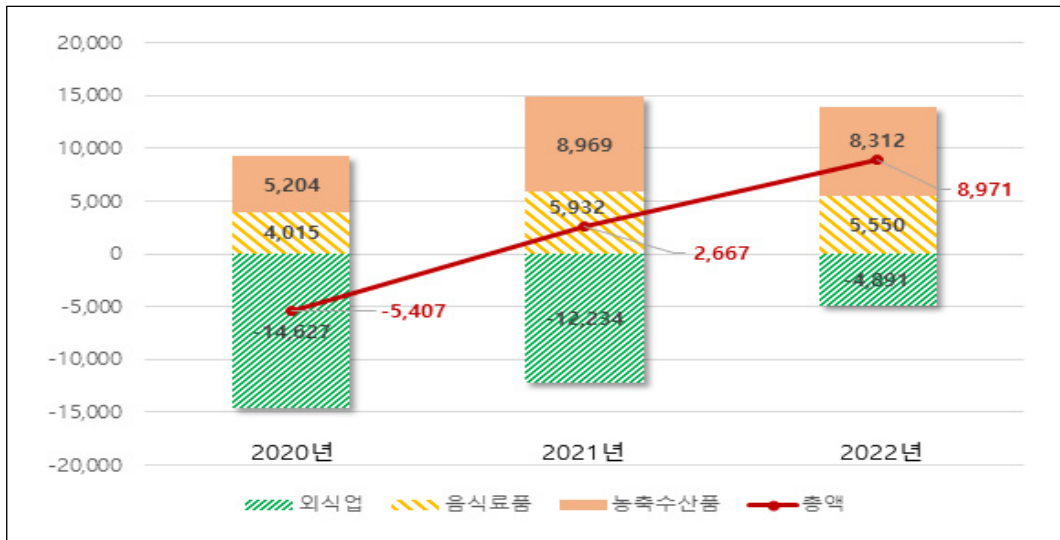
지수 반영 여부	부문	2020년 ¹⁾ (실측치)	2021년 (실측치)	2022년 (시나리오 추정)
3개년 비교 물가지수 미반영	외식	-14,626.50	-12,233.71	-4,890.98
	가공식품	4,015.22	5,932.08	5,550.18
	농축수산물	5,204.16	8,968.89	8,311.53
	총액	-5,407.12	2,667.25	8,970.73
식품산업 소비자물가 지수 반영 ²⁾	외식	-14,626.50	-11,251.46	-4,374.76
	가공식품	4,015.22	5,811.21	5,064.03
	농축수산물	5,204.16	8,723.75	7,510.19
	총액	-5,407.12	3,283.50	8,199.47

주 1) 2021년 농식품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및 연계구조 분석결과를 참고함.

2) 2020년 기준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 가공식품 소비자물가지수, 외식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함.

〈그림 5-2〉 코로나19로 인한 식품산업별 소비 변화

단위: 십억 원



4.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 <표 5-6>에 제시된 2021년과 2022년 식품의 최종수요 변화를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에 대입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식품산업의 파급효과를 추정함.
- 2019년 대비 2021년 식품 최종수요 변화액이 전체산업에 미친 영향은 생산유발효과로 2.6조 원이 증가하고, 부가가치유발효과로 2.0조 원이 증가하였으며, 취업유발효과로 68,254명의 취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표 5-7>.

<표 5-7>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산업별 파급효과

단위: 십억 원, 명

산업분류	2021년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농림수산	9,560.34	4,852.87	197,803.3
비식용농림수산	260.94	143.22	3,033.0
식용음식료품	3,335.75	716.88	9,052.2
비식용음식료	1,586.98	764.36	1,203.9
광산품	1.40	0.66	5.0
섬유 및 가죽제품	27.49	5.59	95.1
목재 및 종이, 인쇄	173.41	55.92	599.4
석탄 및 석유제품	179.99	45.17	14.7
화학제품	677.19	184.99	1054.9
비금속광물제품	-3.03	-0.93	-7.5
1차 금속제품	15.91	2.98	14.1
금속가공제품	6.02	2.14	19.8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20.88	-8.41	-27.9
전기장비	-47.44	-13.49	-103.4
기계 및 장비	40.94	12.63	116.7
운송장비	67.02	14.52	126.5
기타제조업 제품	-85.46	-24.19	-520.1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215.19	113.32	1,689.4
전력, 가스 및 증기	-6.79	-1.85	-4.3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125.78	-70.01	-777.0
건설	-37.92	-16.75	-245.8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289.01	-153.91	-3391.8
운송서비스	217.15	78.99	1970.9

(계속)

산업분류	2021년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음식점(외식업)	-12,269.09	-3,997.87	-140,464.0
숙박서비스	5.99	3.23	60.7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58.69	-32.97	-266.9
금융 및 보험 서비스	3.13	1.84	11.2
부동산서비스	-862.43	-632.71	-2171.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116.26	58.42	760.6
사업지원서비스	-101.76	-68.83	-1,181.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30.34	23.19	217.0
교육서비스	-3.63	-2.58	-42.8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20.78	-11.05	-222.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1.23	0.68	11.7
기타제조	-9.11	-4.11	-178.9
기타	48.58	0.00	0.0
전 산업	2,629.44	2,041.94	68,254.4

○ 2019년 대비 2022년 식품 최종수요 변화액이 전체산업에 미친 영향은 생산유발효과로 16.8조 원이 늘어났으며, 부가가치유발효과로 7.2조 원이 증가함. 그리고 취업유발효과로 190,827명 취업자 수가 증가함<표 5-8>.

〈표 5-8〉 2022년 코로나19로 인한 산업별 파급효과

단위: 십억 원, 명

산업분류	2022년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농림수산	9,778.67	4,963.70	202,320.6
비식용농림수산	274.71	150.77	3,193.0
식용음식료품	5,078.95	1,091.51	13,782.7
비식용음식료	1,624.03	782.21	1,232.0
광산품	6.33	2.99	22.7
섬유 및 가죽제품	108.47	22.07	375.1
목재 및 종이, 인쇄	317.47	102.37	1,097.3
석탄 및 석유제품	348.15	87.36	28.5
화학제품	976.52	266.76	1,521.1
비금속광물제품	37.53	11.50	93.3
1차 금속제품	69.16	12.97	61.3
금속가공제품	116.02	41.28	381.3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63.68	25.65	85.2

(계속)

산업분류	2022년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전기장비	43.42	12.35	94.6
기계 및 장비	77.39	23.89	220.7
운송장비	103.01	22.32	194.4
기타제조업 제품	-15.80	-4.47	-96.2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334.41	176.10	2625.4
전력, 가스 및 증기	241.03	65.62	151.1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4.76	-2.65	-29.4
건설	6.38	2.82	41.3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593.34	315.98	6963.4
운송서비스	478.72	174.14	4344.8
음식점(외식업)	-4,755.97	-1,549.73	-54,449.2
숙박서비스	21.25	11.46	215.2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105.97	59.53	481.9
금융 및 보험 서비스	277.07	163.12	992.2
부동산서비스	-235.51	-172.77	-59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460.25	231.26	3010.9
사업지원서비스	87.94	59.48	1021.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38.97	29.79	278.7
교육서비스	3.80	2.70	44.7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17.89	9.51	19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23.31	12.85	222.4
기타제조	35.96	16.24	706.0
기타	62.35	0.00	0.0
전 산업	16,800.13	7,220.65	190,826.7

○ 전체산업에 미친 영향을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측면에서 연도별로 정리하면 <표 5-9>와 같음.

○ 2019년 대비 2020년은 전체적으로 식품 수요가 줄어들어 생산, 부가가치, 취업 등에서 손실을 유발시킨 것으로 나타남<표 5-9>.

- 이는 코로나19 초창기 입국 제한으로 인해 외래관광객이 전년 대비 98% 이상 감소하고, 거리두기 정책으로 가계 외식비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발생한 결과로 추정됨.

○ 2021년의 경우, 외식비 지출은 여전히 코로나19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배달 음식 등의 증가로 외식비 지출이 2020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함<표 5-9>.

- <표 5-6>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20년 대비 2021년에 가공식품의 지출이 1.9조 원 그리고 농축산물의 지출이 3.8조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이 증가에는 물가의 상승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지만, 집에서 직접 조리를 위한 지출이 전년보다도 더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됨.
- 이로 인해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모두 2019년 대비 2021년에 플러스 파급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2022년의 경우, 거리두기 해제 및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등으로 외출이 비교적 자유로워 이전 연도들보다 가계의 외식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됨<표 5-9>.

- 오히려 보상심리로 인해 2019년에 비해 가계의 외식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보임. 특히 2022년 1-2분기는 2020년 및 2021년의 같은 분기와 비교하여 외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2019년과 비교하여도 가계의 외식소비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외식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외식물가의 상승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가공식품과 농축수산물이 전년도 대비 줄어들기는 했으나 2019년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나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2019년보다 식품 부문 전체 지출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이로 인해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2019년 대비 2022년에 플러스 파급효과가 나타났으며, 그 크기는 2021년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됨.

〈표 5-9〉 2019년 대비 2020~2022년 식품 수요 변화로 인한 전체산업 파급효과

단위: 십억 원, 명

지수 반영 여부	유발계수	2020년 ¹⁾ (실측치)	2021년 (실측치)	2022년 (시나리오 추정)
3개년 비교 물가지수 반영 없음	생산유발	-13,788.22	2,629.44	16,800.13
	부가가치유발	-4,552.80	2,041.94	7,220.65
	취업유발	-100,198.0	68,399.0	190,826.7
식품산업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²⁾	생산유발	-13,788.22	2,418.32	15,026.95
	부가가치유발	-4,552.80	2,000.33	6,588.18
	취업유발	-100,198.0	66,529.5	172,428.6

주 1) 2021년 농식품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및 연계구조 분석 결과를 참고함.

2) 2020년 기준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 가공식품 소비자물가지수, 외식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함.

○ 본 연구에서는 2022년의 1분기 및 2분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 대비 2022년의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정도를 추정함.

- 실제 2022년 10월부터 해외 입국 후 PCR검사 의무 폐지 등 여행 규제가 해제되면서 외래관광객 입국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본 예측보다 외래입국자 요인으로 인한 외식 및 가공식품 지출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고 여겨짐.

○ 전체적으로 2020년에는 가계소비와 외래관광객 소비 감소로 외식소비가 크게 줄어든 것이 식품 부문에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이었는데, 2021년에 가계 외식이 다소 회복되고 2022년에는 완전히 회복되어 가계의 지출 변화로 인한 외식업체가 받는 부정적인 영향이 전반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외래입국자의 숫자가 아직은 회복되지 않았기에 향후 외래입국자가 늘어나면 외식 부분의 지출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큼.
- 다만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여행을 못 가는 대신 국내에서 외식, 가공식품 및 농축수산물 지출을 늘렸는데, 해외여행이 다시 증가하면 식품산업 전체 지출에 있어서 다소 줄어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임.

IV

가공식품
소비 지출 분석

1

가구의 식품비 지출 분석

1. 가구의 식품비 지출 추이

1.1. 가구의 식품비 지출액 동향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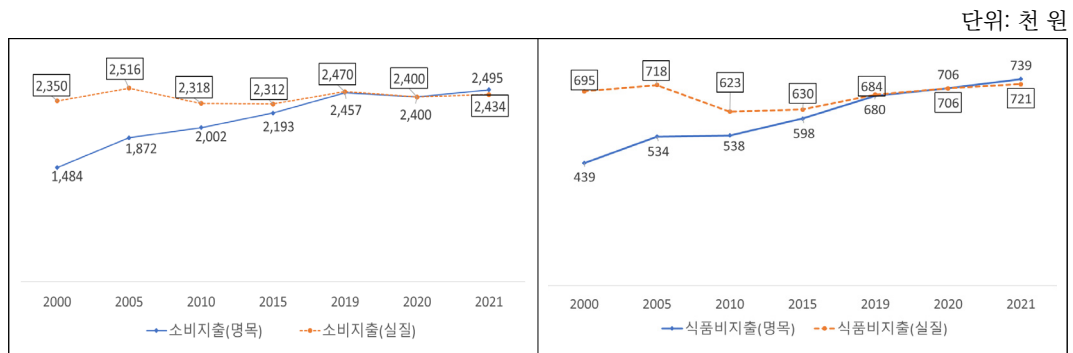
- 우리나라 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과 식품비 지출액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명목금액 기준). 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은 2000년 148만 4천 원에서 2015년 219만 3천 원, 2021년에는 249만 5천 원 수준까지 증가하였고, 식품비 지출액 역시 2000년 43만 9천 원에서 2015년 59만 8천 원, 2021년 73만 9천 원으로 증가함.
-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 전년 대비 2.3%가 감소하였으나, 2021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249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함. 가구당 월평균 식품비 지출액은 코로나19 이후 2020년 3.8%, 2021년에 4.7%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73만 9천 원을 기록함.

11) 식품비 지출액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식사비(외식비)를 포함한 것이며, 담배는 제외한 것임.

○ 한편, 물가지수(2020=100)를 고려하여 실질금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2021년 가구당 소비지출액은 243만 4천 원으로 2020년에 비해 1.4%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 비해 1.5% 감소함. 식품비 실질 지출액은 2021년에 72만 1천 원을 기록하며 2019년 이후 지속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1%(1만 4천 원)로 2019년 대비 2020년 증가율 3.3%(2만 1천 원)에 비해 둔화됨.

- 실질금액을 기준으로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소비지출은 정체 내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식품비 지출액은 2010년경을 기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그림 1-1〉 가구의 소비지출, 식품비 지출 추이



주 1) 각 지출액은 명목 금액 기준이며, 실질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디플레이트한 값임.
 2) 식품비 지출액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식사비(외식비)를 포함한 것이며, 담배는 제외한 것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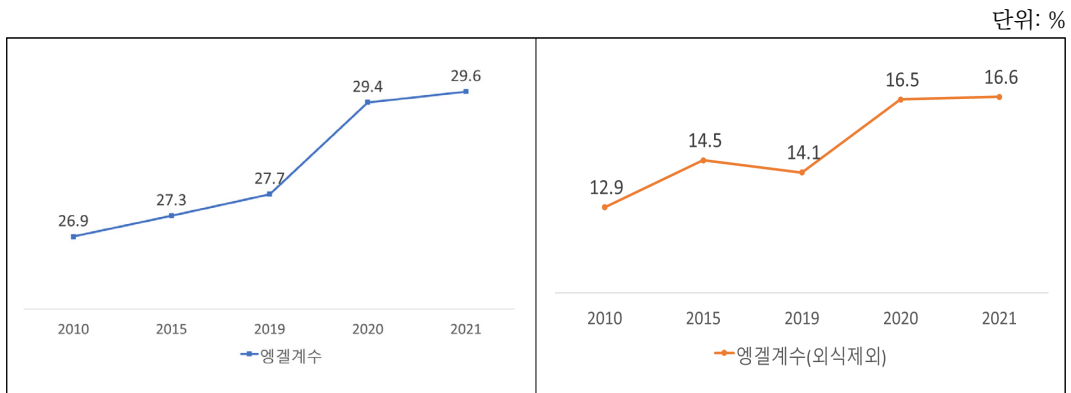
1.2. 엔겔계수 변화 추이

○ 소비지출액에서 식품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엔겔계수는 2010년 26.9%, 2015년 27.3%, 2019년 27.7%로 꾸준히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2020년 엔겔계수는 전년 대비 1.7%p 상승한 29.4%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29.6%로 2020년과 비슷함 수준이나, 2019년과 비교하면 1.9%p 증가한 수준임.

○ 일반적으로 엔겔계수는 소득 수준이 향상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외식 지출 증가와 간편식과 건강 기능성 식품 등 고부가가치 식품 소비가 확대되면서 엔겔계수가 높아진 특징을 나타냄.

○ 2020년 앵겔계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 전체적인 소득 수준 감소의 영향을 받아 29.4%로 증가함. 특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소비자들의 대면 전염 우려로 외식 소비가 감소하였으나 가정 내 식품 소비가 확대됨에 따라 외식 소비를 제외한 앵겔계수가 2019년 14.1%에서 2020년 16.5%로 2.4%p 큰 폭으로 상승함. 2021년 외식비를 제외한 앵겔계수 또한 16.6%로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그림 1-2〉 앵겔계수 변화 추이



주 1) 앵겔계수는 식품비 지출액/전체 소비지출액의 비중임.

2) 각 지출액은 명목 금액 기준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1.3. 식품유형별(신선식품/가공식품/외식) 식품비 차지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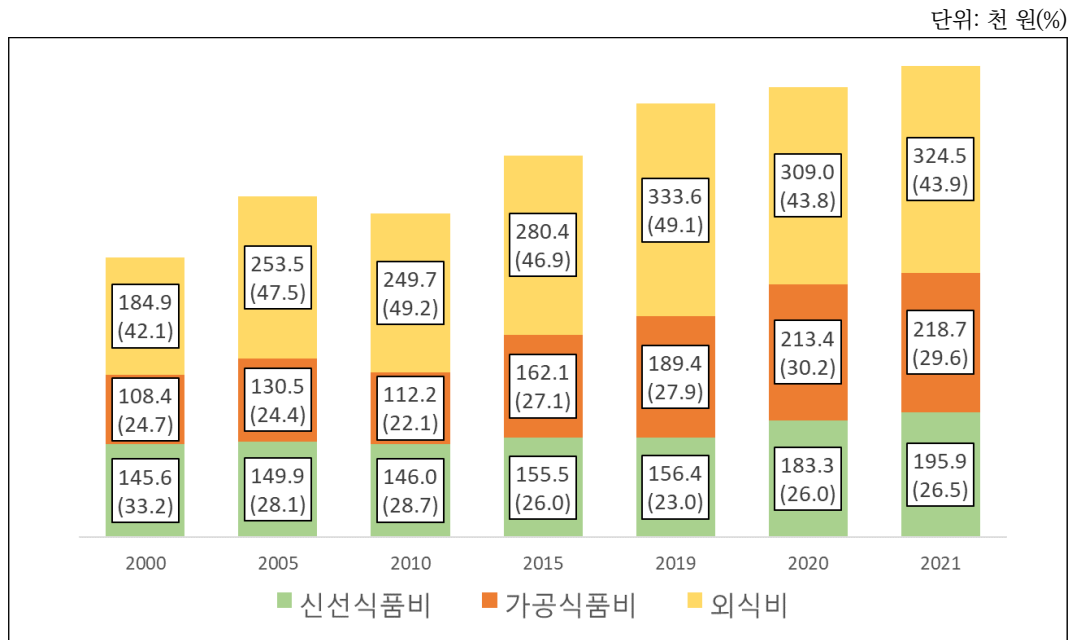
○ 식품비를 식품유형별로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지출 비중 추이를 살펴봄. 2021년에 외식비가 4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가공식품비(29.6%), 신선식품비(26.5%) 순임.

○ 외식비가 전체 식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2.1%에서 2019년 49.1%로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2020년에 43.8%로 크게 감소함. 2021년 가구당 월평균 외식비 지출액은 32만 5천 원으로 식품비 지출액 중 43.9%를 차지하였으며, 2020년 30만 9천 원에 비해 5%가 증가하였으나 2019년의 33만 4천 원에는 못 미치며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 신선식품 지출액은 2019년까지 대체로 정체되었으나 2020년 가정식이 증가하면서 가구당 월평균 18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17.2%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가구당 월평균 19만 6천 원을 지출하여 전년 대비 6.9% 증가함. 식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3.2%에서 2019년 23.0%까지 감소하였으나 2020년 26.0%, 2021년 26.5%로 증가추세를 보임.

○ 가공식품 지출액은 간편화 및 다양화/고급화 추세에 힘입어 2010년 11만 2천 원에서 2019년 18만 9천 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20년에는 21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12.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2021년에는 21만 9천 원으로 증가추세가 유지되었으나 전년 대비 2.5% 상승으로 증가폭이 둔화됨. 전체 식품비에서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0.2%로 3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2021년에는 가공식품 지출액은 증가하였으나 전년 대비 증가율이 신선식품과 외식에 못 미쳐 식품비에서 점하는 비중은 29.6%로 약간 감소함.

〈그림 1-3〉 연도별 가구당 식료품비 지출액 중,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비 추이



주: 명목금액 기준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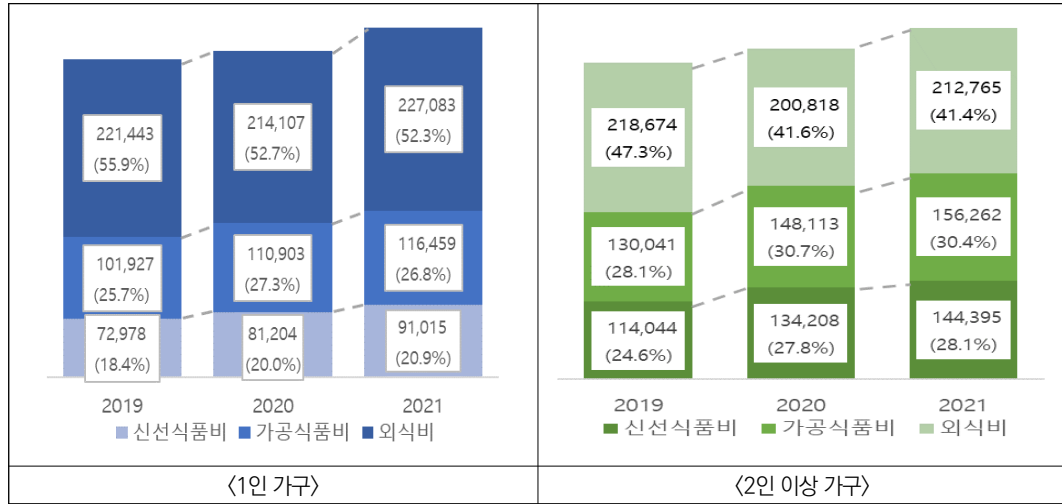
1.4. 가구 특성별 식품비 지출 변화

1.4.1. 가구원 수별 지출 비교

-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식품비 지출액을 신선식품비와 가공식품비, 외식비로 구분하여 2019년에서 2021년까지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 모두 신선식품비와 가공식품비가 증가했으며, 외식비의 경우 2019년에서 2020년에 감소했다가 2021년에 다시 증가함.
- 외식비 비중의 경우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 모두 소폭 감소하였으며, 1인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남. 1인 가구의 외식비 비중은 2019년 55.9%에서 2020년 52.7%로 3.2%p 감소하였으며, 2021년 52.3%로 0.4%p가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2인 이상 가구의 외식비 비중은 5.7%p, 0.2%p 감소함.
- 가공식품비 비중의 경우 2019년 이후 2020년에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 모두 증가했으나, 2020년 이후 감소하였고, 이러한 감소폭은 1인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남. 1인 가구의 가공식품비 비중은 2020년 27.3%에서 2021년 26.8%로 0.5%p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2인 이상 가구의 지출 비중은 0.2%p 감소함.
- 외식비와 가공식품비 비중의 감소분은 1인 가구의 신선식품 지출 비중을 2019년 대비 2.5%p 증가시켰으며, 2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3.5%p 증가시켜 신선식품비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인 것을 확인함.

〈그림 1-4〉 가구원 수별 식료품비 지출액 중,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비 추이

단위: 원(%)



주 1) 명목금액 기준임.

2) 가구원 수별 지출액은 OECD 균등화 방식에 따라 지출액을 해당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재계산한 것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1인 가구는 연령대별로 식료품비 지출 구성에 큰 차이를 나타냄. 20~30대 가구주와 40~50대의 1인 가구는 외식비의 비중이 식품비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60대 이상 1인 가구의 식품비 지출 비중은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비가 고루 접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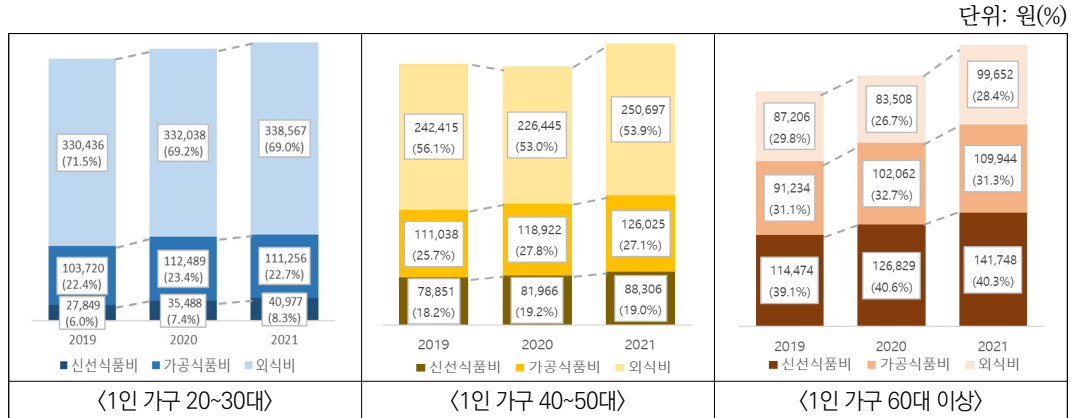
○ 연령대별로 20~30대 1인 가구의 2021년 외식비 비중은 2019년에 비해 2.5%p 감소하였으나 69.0%로 여전히 높아, 식료품비의 대부분을 외식소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공식품비 비중은 22.7%로 월평균 11만 1,256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신선식품비 비중은 전년에 비해 0.9%p 증가하였으나 8.3%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임.

○ 40~50대 1인 가구의 경우 외식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대비 2.2%p 감소하고, 2021년 대비 0.9%p 증가해 53.9%를 점하는 상황으로 월평균 25만 697원을 지출하고 있음. 가공식품비의 경우 2019년 대비 1.4%p 증가했으나, 2021년 대비 0.7%p 감소한 27.1%, 신선식품비의 경우 19.0%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60대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2021년 신선식품비 비중이 40.3%로 가장 크고, 가공식품

비(31.3%), 외식비(28.4%) 순임. 다른 연령대와 마찬가지로 외식비 비중 증가에 반해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임.

〈그림 1-5〉 1인 가구 연령대별 식료품비 지출액 중,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비 추이



주 1) 명목금액 기준임.

2) 가구원 수별 지출액은 OECD 균등화 방식에 따라 지출액을 해당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재계산한 것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1.4.2. 가구주 연령대별 지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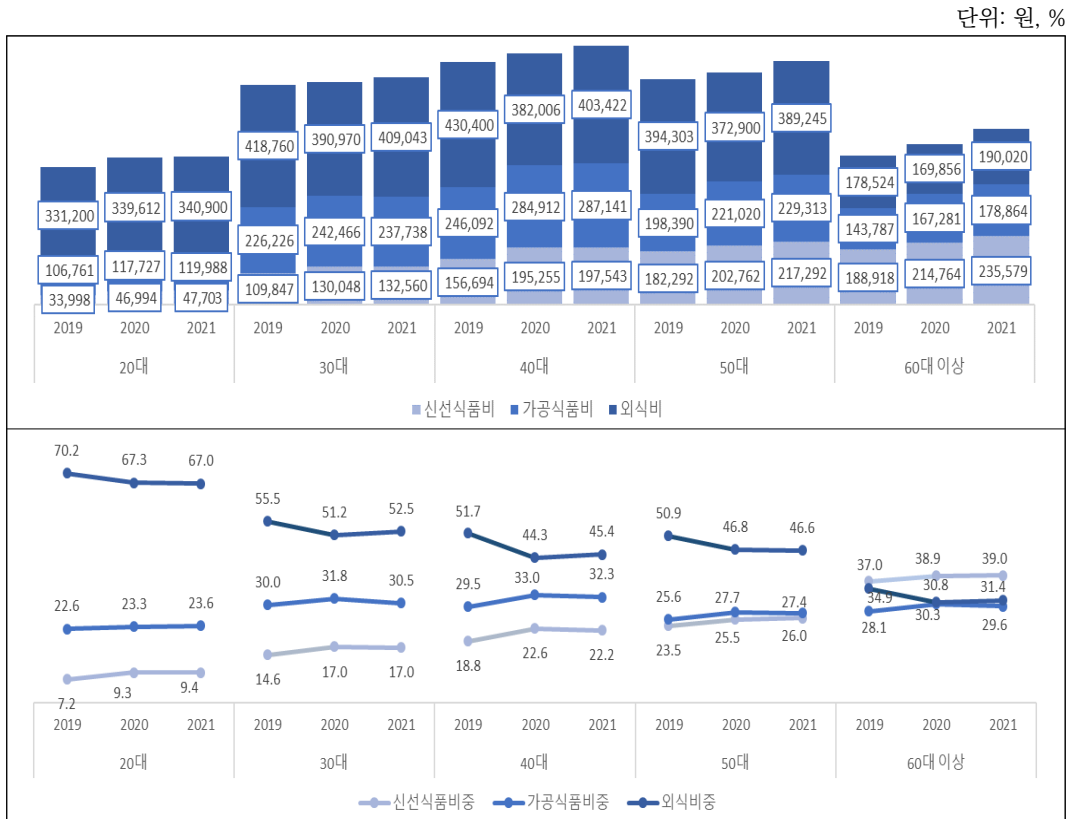
○ 가구주 연령대별로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의 식품비 지출이 가장 많고, 50대, 30대 가구의 순서이며,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 지출액이 대체로 증가함. 가구주의 연령대별로 식료품비 지출액 중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비 비중을 살펴보면, 가구주가 40대인 가구는 가공식품 지출 비중이 32.3%로 가장 큰 특징을 보임. 2020년 대비 2021년 가공식품비 비중이 가장 크게 감소한 연령대는 가구주 연령 30대 가구로 2020년 31.8%에서 2021년 30.5%로 1.3%p 감소하였고, 금액으로는 가구당 4,728원 가량이 감소함.

○ 다른 연령대에서 가공식품비의 비중이 감소한 데 비해, 가구주 연령 20대 이하 가구의 경우 가공식품비 비중이 0.3%p 증가함. 금액으로는 2,261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신선식품 지출 비중이 가장 큰 연령대는 가구주 60대 이상 가구로 2021년 지출 비중이 39.0%에 달하며, 이는 가구주 연령 30대인 가구의 지출 비중 17.0%의 두 배 이상, 가구주 연령 20대인 가구의 지출 비중 9.4%의 4배 가까운 수준임.

○ 가구주 연령에 상관없이 2021년 외식비는 2020년 대비 모두 증가하였으며, 가구주 연령이 20대 또는 60대 이상 가구주인 가구는 2019년 대비 높은 수준임. 외식 지출 비중이 가장 큰 연령층의 가구는 20대로 67.0%에 달하며, 30대 52.5%, 40~50대 46% 정도, 60대 이상 31.4%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빠르게 감소함.

〈그림 1-6〉 가구주 연령대별 식료품비 지출액 중,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비 변화



주 1) 명목금액 기준임.

2) 가구원 수별 지출액은 OECD 균등화 방식에 따라 지출액을 해당 가구원 수의 제공근으로 나누어 재계산한 것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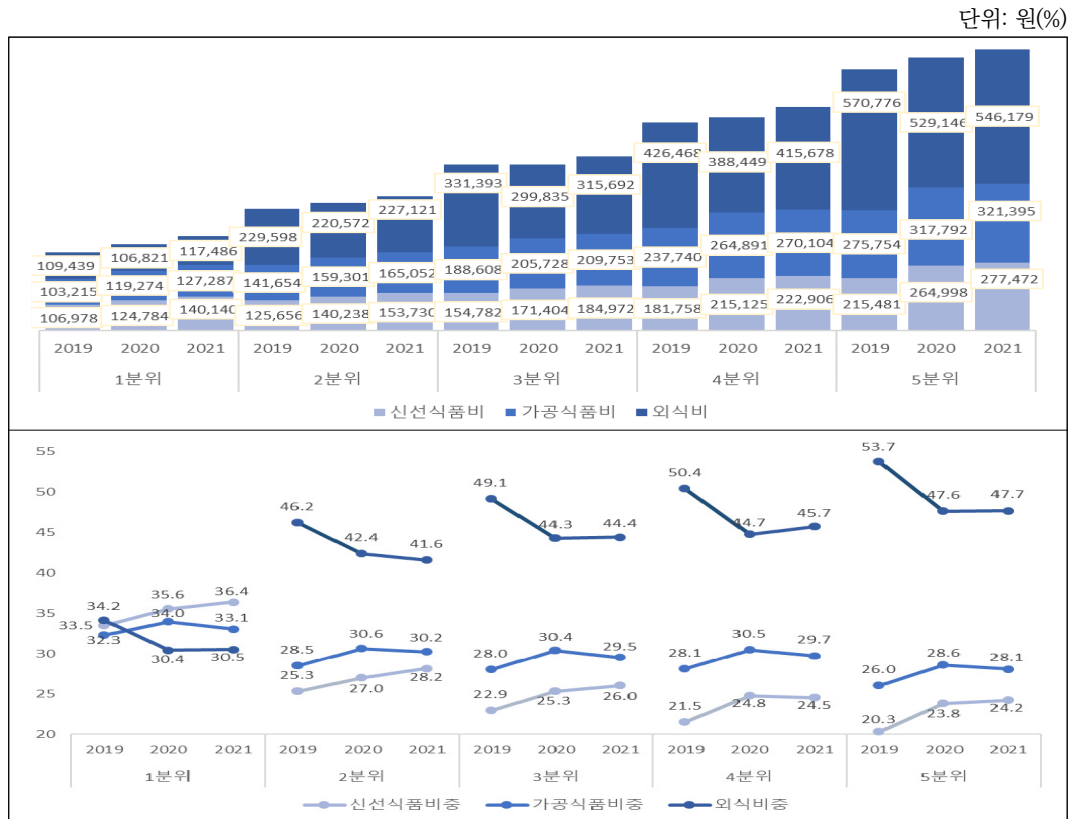
1.4.3. 가구 소득수준별 지출 비교

○ 소득분위별로 신선식품비와 가공식품비, 외식비가 2020년 대비 2021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봄. 모든 소득분위에서 가공식품 지출 비중이 감소한 가운데, 소득분위 1분위 가구(소득 하위 20% 가구)와 3분위 가구에서 가장 크게 감소함.

○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식품 지출액이 빠르게 늘어나고 외식비 비중이 확대됨. 소득분위 5분위 가구의 2021년 외식비 비중은 47.7%로 전년 대비 0.1%p 증가하였고, 4분위 가구의 외식비 비중은 전년 대비 1.0%p 증가해 다른 경우에 비해 크게 증가함. 반면, 1분위 가구와 2분위 가구에서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액으로는 오히려 월평균 외식비 지출이 각각 10,665원과 6,549원 증가함.

○ 2021년 신선식품비 비중은 소득 4분위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2분위 가구의 경우 2020년 27.0%에서 2021년 28.2%로 1.2%p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함.

〈그림 1-7〉 소득분위별 식료품비 지출액 중,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비 변화



주: 명목금액 기준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2.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액 추이

2.1.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 동향

- 가공식품 품목 분류별로 지출액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21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품목류는 곡물가공품으로 20.6%를 차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가구당 월평균 4만 5,005원을 지출함. 곡물가공품은 과거부터 꾸준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20%대 비중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임.
- 2021년 가구당 월평균 당류 및 과자류의 지출액은 2만 6,955원으로 곡물가공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 지출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5% 감소하였으나 2019년에 비해서는 많은 수준임. 당류 및 과자류 비중은 2015년 14.8%로 높았으며 이후 소폭 감소하여 2021년에 12.3%로 나타남.
- 기타식품의 경우에는 지출액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매년 꾸준히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임. 기타식품 지출액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2% 증가하여, 2021년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 2만 5,183원, 11.5%를 차지하고 있음.
- 조미식품은 식생활의 외부화 등으로 비중이 축소되어 2015년과 2019년 6%대가 유지되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집밥 확대에 힘입어 2020년 22.0% 증가하였으며 2021년 지출액은 1만 5,772원(7.2%)으로 2020년 수준이 유지됨.
- 주류의 경우 꾸준히 소비지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에 1만 7,449원으로 2020년의 1만 5,673원에 비해 11.3%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수산가공품은 2021년 가구당 월평균 1만 8,349원을 지출하여 금액과 전체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과일가공품의 경우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출액 규모가 3,000원 선으로 비중은 1.7%로 높지 않은 상황임.

〈표 1-1〉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액 변화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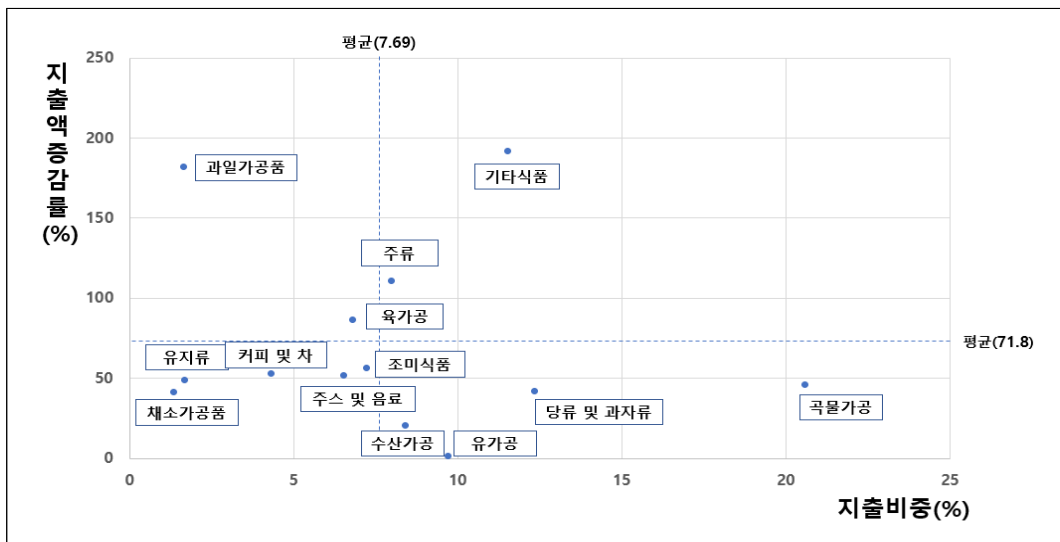
품목 분류	2000	2005	2010	2015	2019	2020	2021	연평균증감율	
								2000-2010	2010-2021
곡물가공	19,837 (18.3)	24,081 (18.5)	30,775 (21.6)	33,136 (20.4)	38,173 (20.2)	43,304 (20.3)	45,005 (20.6)	4.5%	3.5%
육가공	7,330 (6.8)	6,702 (5.1)	7,977 (5.6)	9,634 (5.9)	12,189 (6.4)	14,470 (6.8)	14,871 (6.8)	0.8%	5.8%
수산가공	15,596 (14.4)	17,436 (13.4)	15,234 (10.7)	16,918 (10.4)	16,798 (8.9)	18,891 (8.9)	18,349 (8.4)	-0.2%	1.7%
유가공	17,661 (16.3)	19,898 (15.2)	20,858 (14.7)	20,369 (12.6)	20,189 (10.7)	21,362 (10.0)	21,243 (9.7)	1.7%	0.2%
유지류	2,365 (2.2)	2,265 (1.7)	2,449 (1.7)	2,697 (1.7)	2,579 (1.4)	3,291 (1.5)	3,645 (1.7)	0.4%	3.7%
과일가공품	370 (0.3)	731 (0.6)	1,281 (0.9)	2,866 (1.8)	3,321 (1.8)	3,461 (1.6)	3,613 (1.7)	13.2%	9.9%
채소가공품	1,312 (1.2)	1,223 (0.9)	2,097 (1.5)	2,152 (1.3)	2,493 (1.3)	2,968 (1.4)	2,961 (1.4)	4.8%	3.2%
당류 및 과자류	12,557 (11.6)	17,398 (13.3)	18,964 (13.3)	23,915 (14.8)	25,168 (13.3)	27,375 (12.8)	26,955 (12.3)	4.2%	3.2%
조미식품	10,148 (9.4)	11,766 (9.0)	10,085 (7.1)	11,170 (6.9)	12,797 (6.8)	15,616 (7.3)	15,772 (7.2)	-0.1%	4.1%
기타식품	4,969 (4.6)	7,406 (5.7)	8,627 (6.1)	11,059 (6.8)	19,960 (10.5)	23,524 (11.0)	25,183 (11.5)	5.7%	10.2%
커피 및 차	4,015 (3.7)	4,831 (3.7)	6,151 (4.3)	6,659 (4.1)	8,239 (4.4)	9,110 (4.3)	9,414 (4.3)	4.4%	3.9%
쥬스 및 음료	6,946 (6.4)	9,718 (7.4)	9,393 (6.6)	10,717 (6.6)	13,716 (7.2)	14,366 (6.7)	14,279 (6.5)	3.1%	3.9%
주류	5,249 (4.8)	7,039 (5.4)	8,268 (5.8)	10,767 (6.6)	13,779 (7.3)	15,673 (7.3)	17,449 (8.0)	4.6%	7.0%
합계	108,354 (100.0)	130,495 (100.0)	142,159 (100.0)	162,059 (100.0)	189,401 (100.0)	213,411 (100.0)	218,739 (100.0)	2.8%	4.0%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한편, 2021년 가공식품 지출액은 2010년보다 평균 71.8% 증가한 가운데, 가공식품 품목 분류별로는 기타식품이 191.9%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면서도 지출 비중이 11.5%로 평균보다 높음. 과일가공품의 경우 182%로 비슷하게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지만, 지출 비중이 1.7%로 평균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남. 다음으로 주류와 육가공이 평균 이상의 지출액 증가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함.

○ 이에 반해, 평균 이하의 증가율을 보인 가공식품의 경우 유가공이 1.8%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외에도 곡물가공, 수산가공, 유가공, 유지류, 채소가공품, 당류 및 과자류, 조미식품, 커피 및 차, 주스 및 음료 등이 있음. 특히, 유지류, 채소가공품, 조미식품, 커피 및 차, 주스 및 음료는 지출액 증가율과 마찬가지로 지출 비중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1-8〉 2021년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 비중 및 2010년 대비 지출액 증감률



주 1) 지출 비중은 2021년 가공식품 지출액 대비 각 분류별 비중을 의미하며, 지출액 증감률은 2010년 지출액 대비 2021년 지출액 증감률을 의미함.

2) 점선은 가공식품 전체 지출액의 2010년 대비 2021년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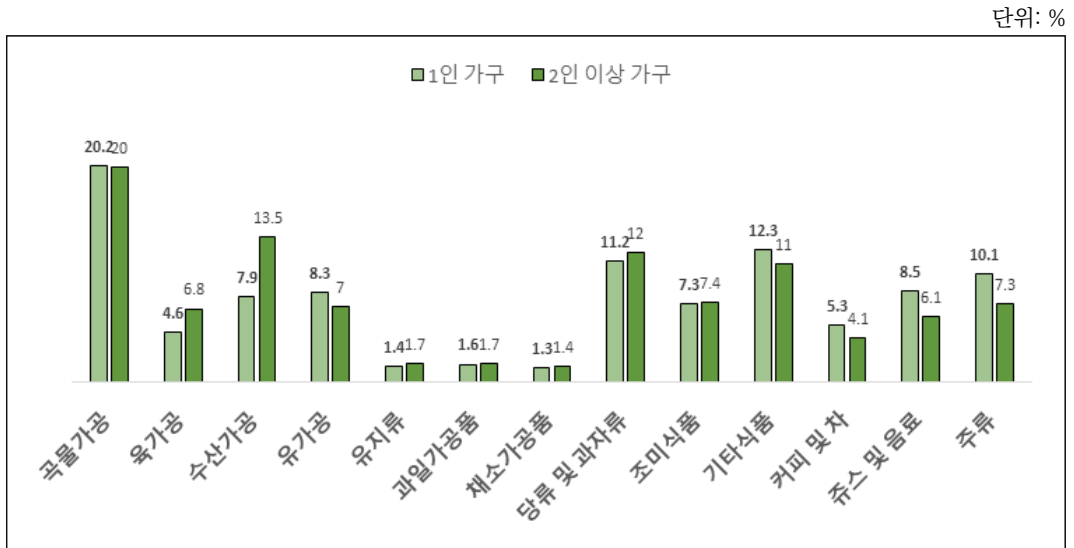
2.2. 가구 특성별 지출 변화

2.2.1. 가구원 수별 지출 비교

○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 모두 곡물가공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유지류와 과일가공품, 채소가공품 비중은 공통적으로 모두 1.5% 내외의 낮은 비중을 차지함.

○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기타식품(12.3%), 유가공(8.3%), 커피 및 차(5.3%), 주스 및 음료(8.5%), 주류(10.1%)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인 이상 가구는 육가공(6.8%), 수산가공(13.5%), 유가공(7.0%), 당류 및 과자류(12.0%) 등의 비중이 높은 편임.

〈그림 1-9〉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액 비중(2021)



주: 가구원 수별 지출액은 OECD 균등화 방식에 따라 지출액을 해당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재계산한 것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가공식품 분류별로는 20~30대 1인 가구는 곡물가공(24.7%), 주류(15.1%), 당류 및 과자류(14.4%), 기타식품(13.3%), 주스 및 음료(11.1%)가 높은 비중을 점함. 40~50대 1인 가구의 주요 품목 비중 또한 20~30대 1인 가구와 큰 차이는 보이지 않음.

○ 한편, 60대 이상 1인 가구는 곡물가공(17.3%), 수산가공(16.2%), 조미식품(14.9%), 기타식품(10.0%), 당류 및 과자류(8.2%), 유가공(7.6%) 순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조미식품 지출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1-2〉 가구원수별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액 비중(2021)

단위: %

구분	1인 가구 전체	1인 가구 20~30대	1인 가구 40~50대	1인 가구 60대 이상	2인 이상 가구
곡물가공	20.2	24.7	20.3	17.3	20.0
육가공	4.6	5.0	5.4	4.3	6.8
수산가공	7.9	7.0	10.9	16.2	13.5
유가공	8.3	4.5	5.7	7.6	7.0
유지류	1.4	0.6	1.1	2.9	1.7
과일가공품	1.6	1.0	1.8	1.9	1.7
채소가공품	1.3	0.5	0.9	1.9	1.4
당류 및 과자류	11.2	14.4	10.8	8.2	12.0
조미식품	7.3	2.3	4.3	14.9	7.4
기타식품	12.3	13.3	12.6	10.0	11.0
커피 및 차	5.3	0.6	5.8	3.7	4.1
쥬스 및 음료	8.5	11.1	8.0	4.9	6.1
주류	10.1	15.1	12.5	6.2	7.3

주: 가구원 수별 지출액은 OECD 균등화 방식에 따라 지출액을 해당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재계산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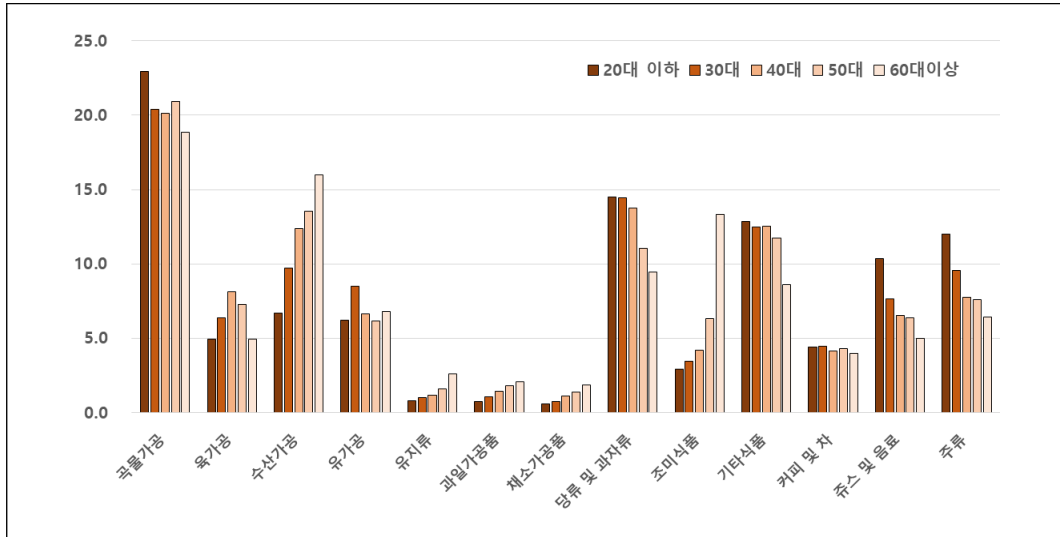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2.2.2. 가구주 연령대별 지출 비교

- 가공식품 품목 분류별로 지출액 비중을 살펴본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곡물가공품의 비중이 가장 높음. 특히 가구주 연령 20대 이하 가구는 22.9%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 가구는 18.9%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산가공품과 과일가공품, 채소가공품, 유지류, 조미식품의 비중도 증가하는 특징이 있어, 집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됨. 특히, 60대 이상 가구의 조미식품 비중은 13.3%로 20대 가구주 2.9%에 비해 크게 높은 편임.
- 반면, 당류 및 과자류와 기타식품, 쥬스 및 음료, 주류 비중은 가구주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대조를 이룸.
- 육가공품의 경우 가구주 연령 40대까지는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비중이 함께 증가하지만 50대부터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유가공품의 경우 30대의 지출액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그림 1-10〉 가구주 연령대별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액 비중(20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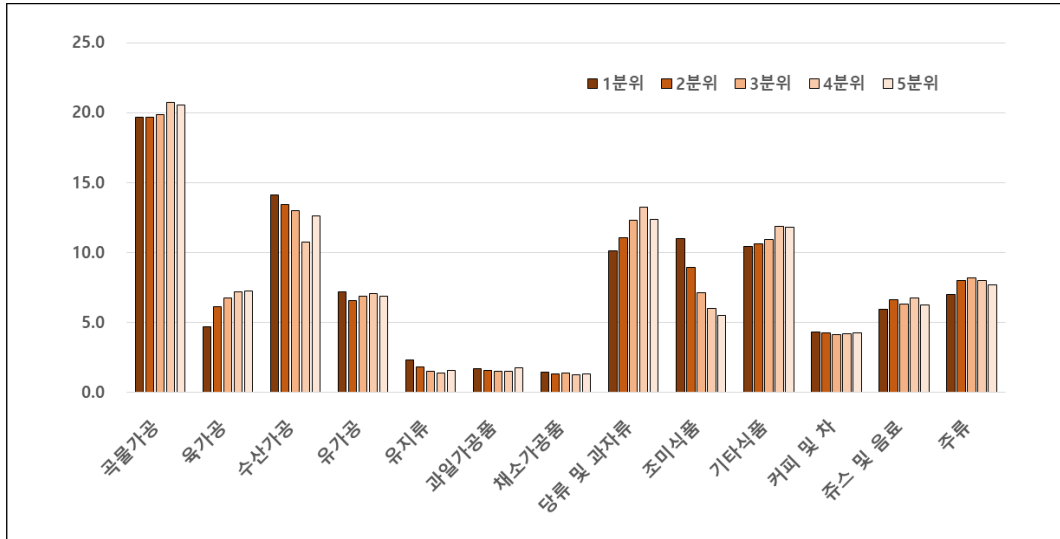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2.2.3. 가구 소득수준별 지출 비교

- 가공식품 분류별로 지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서 곡물 가공품의 비중이 가장 높고 대체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곡물가공품, 육가공품, 기타 식품의 지출 비중이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남.
- 육가공품의 경우 소득 1분위 가구(소득하위 20%)의 지출 비중이 4.7%인데 반해, 소득 5분위 가구의 지출 비중은 7.3%로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가 큼.
- 기타식품의 경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으며, 소득 1분위 10.4%, 2분위 10.6%, 3분위 10.9%, 4분위와 5분위 11% 이상 수준임.
-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지출 비중이 감소하는 품목은 수산가공품과 채소가공품, 조미식품임. 소득 1분위 가구(소득 하위 20%)의 수산가공품 지출 비중은 14.1%인데 반해, 소득 5분위 가구의 비중은 12.6%이며, 조미식품 비중은 1분위 가구 11.0%, 5분위 가구 5.5%로 다른 품목에 비해 비교적 큰 차이를 보임.

〈그림 1-11〉 소득분위별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액 변화(2021)

단위: %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2

가구의 가공식품 품목별 지출구조 분석

1. 가공식품 상위 품목별 지출 추이

1.1. 가공식품 지출액 상위 품목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연간 지출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구의 월평균 가공식품 지출액에서 가공식품 세부 품목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함. 이 비중을 바탕으로 지출기준 상위 1위부터 30위까지의 품목을 살펴봄.
- 2021년 기준 가구의 월평균 가공식품 지출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식빵 및 기타빵(7.7%), 한과 및 기타과자(6.4%), 즉석/동결식품(5.0%), 기타육류가공품(4.9%), 우유(4.4%) 순임.
 - 식빵 및 기타빵과 한과 및 기타과자는 2000년부터 모든 분석 연도에서 3위 내에 드는 가구의 주요 지출 가공식품임.
 - 즉석/동결식품은 2005년 상위 30위 내에 진입하여 2005년 1.3%, 2010년 1.5%, 2015년 2.6%, 2019년 4.9%, 2020년, 21년 5.0%로 지출액 비중이 꾸준히 증가함. 코로나19 발생 이후 집밥 수요가 늘면서 2020년과 2021년에는 3위를 기록함.

- 기타육류가공품(육포, 훈제, 떡갈비, 냉동돈까스 등) 또한 2005년 2.9%, 2010년 3.3%, 2015년 3.5%, 2019년 4.5%, 2020년 4.8%, 2021년 4.9%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우유는 2010년(8.4%)까지 지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이었으나 2015년 6.8%에서 2021년 4.4%로 감소함. 이는 우유의 주요 소비층인 영유아 수 감소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예상됨.

○ 전년(2020년) 대비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인 품목은 반찬류와 라면류임. 반찬류의 경우 2020년 지출액 비중 3.0%에서 2021년 3.6%로 증가하여 11위에서 7위로 상승함. 역으로 라면류는 2020년 3.3%, 2021년 2.9%로 7위에서 11위로 하락함. 이는 가구의 집밥 음식 수요 증가로 인하여 밥과 함께 먹을 수 있는 반찬류의 지출은 증가한 데 반해, 라면류와 같이 한끼 식사 대체식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됨.

○ 가구의 기타육류가공품 지출액 비중이 증가세인 반면 햄 및 베이컨 비중은 2000년 2.0% (16위), 2010년 1.6%(19위), 2021년 1.1%(26위)로 감소하는 추세임. 분유 또한 2000년 2.8%(12위)에서 2005년 1.9%(16위), 2010년 1.2%(25위)로 출산율 저하와 함께 30위 밖으로 밀려남.

○ 가구의 주류 지출 비중 추세를 살펴보면 맥주와 소주 모두 지출 비중이 높아짐. 특히 맥주의 경우 무알코올 맥주, 수제 맥주 등 제품의 다양화에 힘입어 2000년 15위(2.3%)에서 2020년(3.6%), 2021년(3.8%) 기준 6위까지 오름. 소주는 2000년 1.5%(21위), 2010년 1.6%(20위), 2020년 2.1%(17위), 2021년 2.1%(16위)를 차지함.

〈표 2-1〉 연도별 지출액 상위 품목 변화

단위: %

순위	2000		2005		2010		2015		2019		2020		2021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1	우유	9.2	우유	8.6	우유	8.4	한국 및 기타과자	7.8	식빵 및 기타빵	7.8	식빵 및 기타빵	7.4	식빵 및 기타빵	7.7
2	한국 및 기타과자	6.2	한국 및 기타과자	7.5	식빵 및 기타빵	7.2	식빵 및 기타빵	7.4	한국 및 기타과자	7.2	한국 및 기타과자	6.8	한국 및 기타과자	6.4
3	식빵 및 기타빵	6.0	식빵 및 기타빵	5.5	한국 및 기타과자	7.2	우유	6.8	우유	5.2	즉석/동결식품	5.0	즉석/동결식품	5.0
4	기타육류가공품	4.3	기타음료	3.7	라면류	3.4	기타육류가공품	3.5	즉석/동결식품	4.9	기타육류가공품	4.8	기타육류가공품	4.9
5	말린 고추	3.7	라면류	3.7	커피	3.3	맥주	3.5	기타육류가공품	4.5	우유	4.7	우유	4.4
6	김	3.3	말린 고추	3.5	기타육류가공품	3.3	아이스크림	3.4	맥주	3.7	맥주	3.6	맥주	3.8
7	라면류	3.3	김	3.3	아이스크림	3.3	라면류	3.3	기타음료	3.4	라면류	3.3	라면류	3.6
8	기타음료	3.3	요구르트	3.3	요구르트	3.2	기타음료	3.2	커피	3.3	커피	3.3	커피	3.3
9	요구르트	3.1	과일 및 아채류	3.3	기타음료	3.2	커피	3.1	라면류	3.2	아이스크림	3.1	아이스크림	3.2
10	떡	3.0	기타육류가공품	2.9	떡	2.9	요구르트	3.1	라면류	3.0	기타음료	3.0	기타음료	2.9
11	커피	2.8	아이스크림	2.9	과일 및 아채류	2.7	즉석/동결식품	2.6	아이스크림	2.9	라면류	3.0	라면류	2.9
12	분유	2.8	떡	2.7	맥주	2.6	기타육류가공품	2.4	요구르트	2.8	요구르트	2.8	기타육류가공품	2.7
13	과일 및 아채류	2.7	커피	2.7	기타육류가공품	2.5	떡	2.3	기타육류가공품	2.5	기타육류가공품	2.6	요구르트	2.7
14	아이스크림	2.6	맥주	2.3	말린 고추	2.4	과일 및 아채류	2.3	과일 및 아채류	2.3	말린 고추	2.5	떡	2.3
15	맥주	2.3	기타육류가공품	2.0	분유	2.0	라면류	2.1	떡	2.3	떡	2.3	말린 고추	2.2
16	햄 및 베이컨	2.0	분유	1.9	케이크	1.9	케이크	2.1	말린 고추	2.2	과일 및 아채류	2.2	소주	2.1
17	기타육류가공품	1.9	분유	1.8	라면류	1.8	말린 고추	1.9	소주	1.9	소주	2.1	케이크	2.0
18	분유	1.6	라면류	1.8	김	1.7	소주	1.8	소주	1.8	케이크	1.8	과일 및 아채류	1.9
19	젓갈	1.5	소주	1.8	햄 및 베이컨	1.6	과일가공품	1.8	과일가공품	1.7	과일가공품	1.6	과일가공품	1.7
20	참기름 및 들기름	1.5	햄 및 베이컨	1.6	소주	1.6	분유	1.7	생수	1.6	생수	1.6	생수	1.6
21	소주	1.5	케이크	1.4	즉석/동결식품	1.5	햄 및 베이컨	1.6	분유	1.4	생수	1.5	분유	1.5
22	라면류	1.4	마른멸치	1.3	채소가공품	1.5	김	1.4	김치	1.3	분유	1.5	김치	1.5
23	마른멸치	1.4	즉석/동결식품	1.3	마른멸치	1.4	채소가공품	1.3	채소가공품	1.3	채소가공품	1.4	채소가공품	1.4
24	케이크	1.3	젓갈, 조청	1.3	김치	1.3	수산물통조림	1.1	김	1.3	김	1.3	기타조미식품	1.2
25	젓갈, 조청	1.2	수산물통조림	1.2	분유	1.2	생수	1.1	햄 및 베이컨	1.2	기타조미식품	1.2	김	1.1
26	어묵	1.2	김치	1.1	수산물통조림	1.2	어묵	1.1	차	1.0	햄 및 베이컨	1.2	햄 및 베이컨	1.1
27	채소가공품	1.2	분유	1.1	기타분류식품	1.2	젓갈, 조청	1.0	분유	1.0	차	1.0	차	1.0
28	기타조미식품	1.2	기타조미식품	1.0	국수류	1.1	마른멸치	1.0	사탕 및 젤리	1.0	차즈	1.0	차즈	1.0
29	마른징어	1.2	젓갈	1.0	분유	1.1	차	1.0	기타조미식품	1.0	국수류	1.0	국수류	1.0
30	수산물통조림	1.1	어묵	1.0	어묵	1.1	차즈	0.9	수산물통조림	0.9	기타수산물가공품	0.9	기타수산물가공품	1.0

주: 표본 기준치를 적용하여 월평균 가구당 가공식품 지출액에서 품목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계산.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1.2. 가구원 수별 지출액 상위 품목 비교

-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가공식품 지출을 비교하기 위해 OECD 가구 균등화 방식을 이용하여 가구 지출액을 1인화된 지출액으로 조정함<표 2-2>. 균등화 방식 중 제공근 방식은 가구원 수의 제공근으로 가구 지출을 나눔으로써 지출액에 가구소비에 대한 규모의 경제를 반영함.
- 2021년 가구의 가공식품 품목별 지출액 비중을 가구원 수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7.6%)와 2인 이상 가구(7.7%) 모두 식빵 및 기타빵의 지출액 비중이 가장 높음. 또한 두 가구 형태 모두 한과 및 기타과자(5.9%, 6.4%) 지출액 비중이 2순위를 차지함. 그러나 3위 품목은 간편식을 선호하는 1인 가구의 경우 즉석/동결 식품(5.4%)이 차지하였고 2인 이상 가구는 부식인 기타육류 가공품(5.1%)이 차지해 차이가 있음.
-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어린이가 주요 소비층인 우유,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과일 및 야채쥬스, 치즈의 지출액 비중이 1인 가구보다 높음. 또한 2인 이상 가구는 기타육류 가공품을 비롯하여 반찬류, 기타조미식품, 햄 및 베이컨 등 부식 재료의 지출액 비중이 1인 가구보다 높음. 반면 1인 가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홈술’과 ‘혼술’ 문화의 확산에 따라 맥주, 와인 및 과일주, 양주의 지출액 비중이 2인 이상 가구보다 높음.

1.3. 가구주 연령대별 지출액 상위 품목 비교

- 가구주 연령대별 지출액 상위 품목은 <표 2-3>과 같음.
- 2021년 가구주 연령 60대 미만 가구에서는 식빵 및 기타빵과 한과 및 기타과자가 지출액 비중 기준 각각 1, 2순위를 차지함. 가구주 연령이 60대 이상인 가구의 최다 지출 품목은 말린 고추였으며(5.7%), 식빵 및 기타빵 지출은 그 다음을 차지함(5.7%).
 - 가구주 연령 50대 미만의 가구의 경우 즉석/동결식품이 지출액 비중 3위를 차지하는

데 반해, 50대의 경우 4위, 60대 이상의 경우 8위를 차지해 고령 가구에서의 지출액 비중 순위가 낮은 특징이 있음.

- 이와 반대로 가구주 연령 50대에서 지출액 비중 3위인 기타육류 가공품은 가구주 나이가 많은 가구에서 순위가 높음(20대 이하 8위, 30대 5위, 40대 4위, 50대 3위). 이는 가구주 연령 60대 이상 가구에서 3위로 지출액 비중이 높은 우유(20대 이하 10위, 30대 6위, 40대 5위, 50대 5위, 60대 3위)도 마찬가지임.

○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탕 및 젤리와 같은 디저트류는 가구주 연령대가 높은 가구에서 순위가 낮음. 가구주 연령 20대 이하인 가구에서 지출액 비중 4순위인 맥주 또한 가구주 나이가 많은 가구에서 지출액 비중과 순위가 낮아짐. 반면에 가구주 연령대 60대 이상에서 6번째로 지출액 비중이 높은 떡(3.5%)은 가구주 연령대가 낮은 가구에서 지출액 비중과 순위가 낮음.

1.4. 가구 소득분위별 지출액 상위 품목 비교

○ 가구 소득분위별 지출액 상위 품목은 <표 2-4>와 같음.

○ 2021년 기준 가구 소득수준별 가공식품 지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서 식빵 및 기타 빵이 1순위를, 한과 및 기타과자가 2순위를 기록함. 가장 소득수준이 낮은 소득 1분위 가구를 제외하고 즉석/동결 식품과 기타 육류 가공품은 각각 3순위와 4순위를 차지함. 소득 1분위 가구에서는 우유와 말린 고추가 각각 3순위와 4순위를 차지함.

○ 말린 고추(1분위 4위, 2분위 7위, 3분위 16위, 4분위 20위, 5분위 25위), 라면류(1분위 9위, 2분위 10위, 3분위 11위, 4분위 11위, 5분위 13위), 소주(2분위 13위, 3분위 14위, 4분위 17위, 5분위 18위)는 높은 소득분위의 가구에서 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아이스크림(1분위 16위, 2분위 14위, 3분위 9위, 4분위 7위, 5분위 8위), 과일

및 야채주스(1분위 27위, 2분위 18위, 3분위 18위, 4분위 16위, 5분위 15위), 기타조미식품(1분위 30위권 밖, 2분위 26위, 3분위 24위, 4분위 23위, 5분위 22위)은 높은 소득분위의 가구에서 지출액 비중 순위가 높음.

〈표 2-2〉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지출액 상위 품목(2021)

단위: 원, %

순위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품목	금액(원)	비중(%)	품목	금액(원)	비중(%)
1	식빵 및 기타빵	8,890	7.6	식빵 및 기타빵	11,704	7.7
2	한과 및 기타과자	6,836	5.9	한과 및 기타과자	9,706	6.4
3	즉석/동결식품	6,282	5.4	기타육류 가공품	7,731	5.1
4	맥주	5,909	5.1	즉석/동결식품	7,303	4.8
5	커피	4,521	3.9	우유	6,913	4.5
6	우유	4,446	3.8	반찬류	5,424	3.6
7	반찬류	4,303	3.7	맥주	5,385	3.5
8	기타육류 가공품	4,148	3.6	커피	4,878	3.2
9	기타음료	4,076	3.5	아이스크림	4,796	3.1
10	기타곡물가공품	4,058	3.5	라면류	4,287	2.8
11	라면류	3,765	3.2	기타음료	4,256	2.8
12	소주	3,474	3.0	요구르트	4,198	2.7
13	아이스크림	3,240	2.8	기타곡물가공품	3,984	2.6
14	생수	3,218	2.8	떡	3,757	2.5
15	말린 고추	3,111	2.7	말린 고추	3,606	2.4
16	요구르트	2,839	2.4	소주	3,055	2.0
17	떡	2,369	2.0	과일 및 야채주스	3,013	2.0
18	김치	2,328	2.0	케이크	2,971	1.9
19	케이크	2,263	1.9	과일가공품	2,605	1.7
20	과일 및 야채주스	1,955	1.7	두부	2,462	1.6
21	과일가공품	1,849	1.6	생수	2,243	1.5
22	두유	1,558	1.3	김치	2,240	1.5
23	두부	1,542	1.3	채소가공품	2,185	1.4
24	와인 및 과일주	1,508	1.3	기타조미식품	1,964	1.3
25	채소가공품	1,263	1.1	김	1,724	1.1
26	차	1,259	1.1	햄 및 베이컨	1,704	1.1
27	김	1,145	1.0	국수류	1,547	1.0
28	젓갈	1,057	0.9	차	1,532	1.0
29	양주	1,040	0.9	기타수산물가공품	1,529	1.0
30	참깨 및 들깨	1,010	0.9	치즈	1,497	1.0

주: 가구원 수별 지출액은 가구소비에 대한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기 위해 OECD 균등화 방식에 따라 지출액을 해당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재계산한 것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표 2-3〉 가구주 연령대별 지출액 상위 품목(2021)

단위: %

순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1	식빵 및 기타빵	9.9	식빵 및 기타빵	8.9	식빵 및 기타빵	8.4	식빵 및 기타빵	8.2	말린 고추	5.7
2	한과 및 기타과자	7.9	한과 및 기타과자	7.9	한과 및 기타과자	7.5	한과 및 기타과자	6.1	식빵 및 기타빵	5.7
3	즉석/동결식품	7.6	즉석/동결식품	5.6	즉석/동결식품	5.9	기타육류 가공품	5.5	우유	4.6
4	맥주	6.6	맥주	5.4	기타육류 가공품	5.8	즉석/동결식품	5.1	한과 및 기타과자	4.5
5	기타음료	5.4	기타육류 가공품	4.6	우유	4.7	우유	4.3	기타육류 가공품	3.9
6	아이스크림	4.8	우유	4.2	맥주	4.4	반찬류	4.0	떡	3.5
7	케이크	3.8	아이스크림	3.9	반찬류	4.0	맥주	3.6	요구르트	3.3
8	기타육류 가공품	3.7	반찬류	3.8	아이스크림	3.9	커피	3.4	즉석/동결식품	3.2
9	기타곡물가공품	3.6	커피	3.5	라면류	3.3	라면류	3.3	커피	3.1
10	우유	3.5	기타음료	3.4	커피	3.2	기타음료	3.0	반찬류	2.9
11	라면류	3.5	케이크	3.2	기타음료	3.2	아이스크림	2.9	기타곡물가공품	2.8
12	커피	3.3	기타곡물가공품	2.8	기타곡물가공품	2.6	기타곡물가공품	2.7	소주	2.5
13	생수	3.3	분유	2.7	요구르트	2.4	요구르트	2.7	라면류	2.3
14	반찬류	2.8	라면류	2.6	케이크	2.4	떡	2.4	두부	2.2
15	과일 및 야채주스	1.9	과일 및 야채주스	2.6	과일 및 야채주스	2.2	소주	2.3	과일가공품	2.1
16	양주	1.8	요구르트	2.1	소주	1.8	과일 및 야채주스	1.9	아이스크림	2.1
17	와인 및 과일주	1.7	생수	1.8	떡	1.7	과일가공품	1.8	기타음료	2.1
18	요구르트	1.7	소주	1.8	햄 및 베이컨	1.5	케이크	1.8	맥주	2.1
19	소주	1.7	떡	1.6	김치	1.5	김치	1.8	참깨 및 들깨	1.9
20	분유	1.5	사탕 및 젤리	1.4	과일가공품	1.5	생수	1.7	채소가공품	1.9
21	차	1.2	와인 및 과일주	1.3	기타조미식품	1.4	두부	1.7	젓갈	1.8
22	김치	1.1	기타조미식품	1.2	생수	1.4	말린 고추	1.6	김치	1.7
23	기타조미식품	1.0	이유식	1.2	사탕 및 젤리	1.2	채소가공품	1.4	생수	1.6
24	떡	1.0	김치	1.1	두부	1.2	기타조미식품	1.4	참기름 및 들기름	1.5
25	햄 및 베이컨	0.8	치즈	1.1	채소가공품	1.2	햄 및 베이컨	1.2	두유	1.5
26	사탕 및 젤리	0.8	과일가공품	1.1	치즈	1.1	김	1.1	김	1.4
27	과일가공품	0.8	차	1.1	차	1.1	두유	1.1	과일 및 야채주스	1.4
28	치즈	0.7	햄 및 베이컨	1.1	소시지	1.1	차	1.0	마른멸치	1.3
29	기타미분류식품	0.7	두부	1.0	어묵	1.1	어묵	1.0	잼, 꿀, 조청	1.2
30	국수류	0.7	소시지	0.9	김	1.0	국수류	1.0	기타수산동물가공품	1.2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표 2-4〉 가구의 소득분위별 지출액 상위 품목(2021)

단위: %

순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1	식빵 및 기타빵	6.0	식빵 및 기타빵	7.1	식빵 및 기타빵	7.4	식빵 및 기타빵	8.2	식빵 및 기타빵	8.7
2	한과 및 기타과자	5.1	한과 및 기타과자	5.9	한과 및 기타과자	6.8	한과 및 기타과자	6.9	한과 및 기타과자	6.6
3	우유	4.9	즉석/동결식품	4.7	즉석/동결식품	5.1	즉석/동결식품	5.3	기타육류 가공품	5.5
4	말린 고추	4.4	기타육류 가공품	4.5	기타육류 가공품	5.0	기타육류 가공품	5.1	즉석/동결식품	5.1
5	즉석/동결식품	4.0	우유	4.3	우유	4.2	우유	4.5	우유	4.5
6	반찬류	3.7	맥주	3.7	맥주	4.1	맥주	4.2	반찬류	4.0
7	기타육류 가공품	3.5	말린 고추	3.5	반찬류	3.3	아이스크림	3.5	맥주	3.8
8	커피	3.3	커피	3.4	커피	3.3	반찬류	3.5	아이스크림	3.5
9	라면류	3.2	반찬류	3.4	아이스크림	3.1	커피	3.2	커피	3.3
10	요구르트	3.0	라면류	3.2	기타음료	3.1	기타음료	3.1	기타음료	2.8
11	기타곡물가공품	3.0	기타음료	3.0	라면류	3.1	라면류	2.9	요구르트	2.8
12	맥주	2.8	기타곡물가공품	2.9	기타곡물가공품	2.7	기타곡물가공품	2.7	기타곡물가공품	2.7
13	떡	2.7	소주	2.8	요구르트	2.5	요구르트	2.6	라면류	2.6
14	기타음료	2.7	아이스크림	2.7	소주	2.4	케이크	2.2	케이크	2.4
15	소주	2.6	요구르트	2.6	떡	2.3	떡	2.2	과일 및 야채주스	2.4
16	아이스크림	2.3	떡	2.4	말린 고추	2.3	과일 및 야채주스	2.1	떡	2.3
17	두부	2.1	생수	2.0	케이크	2.0	소주	1.9	과일가공품	1.8
18	생수	2.1	과일 및 야채주스	1.7	과일 및 야채주스	1.7	생수	1.5	소주	1.5
19	김치	1.9	케이크	1.7	생수	1.7	과일가공품	1.5	와인 및 과일주	1.5
20	과일가공품	1.7	김치	1.6	과일가공품	1.6	말린 고추	1.5	두부	1.5
21	두유	1.6	두부	1.6	두부	1.5	김치	1.5	김치	1.4
22	젓갈	1.5	과일가공품	1.6	김치	1.4	두부	1.4	기타조미식품	1.4
23	채소가공품	1.5	채소가공품	1.4	채소가공품	1.4	기타조미식품	1.3	채소가공품	1.4
24	참깨 및 들깨	1.4	두유	1.2	기타조미식품	1.3	채소가공품	1.2	생수	1.3
25	참기름 및 들기름	1.4	김	1.2	햄 및 베이컨	1.1	햄 및 베이컨	1.2	말린 고추	1.3
26	김	1.3	기타조미식품	1.1	김	1.0	사탕 및 젤리	1.1	햄 및 베이컨	1.2
27	과일 및 야채주스	1.2	참깨 및 들깨	1.1	차	1.0	김	1.1	치즈	1.2
28	국수류	1.1	젓갈	1.0	기타수산물가공품	1.0	치즈	1.0	차	1.1
29	마른멸치	1.1	햄 및 베이컨	1.0	국수류	1.0	기타수산물가공품	1.0	김	1.0
30	케이크	1.1	참기름 및 들기름	1.0	두유	0.9	차	1.0	기타미분류식품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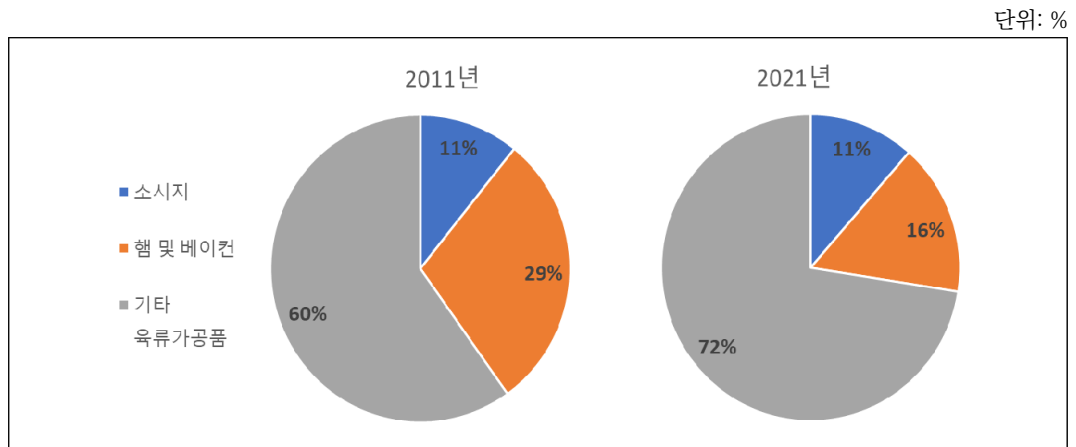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2. 주요 육류 가공품 지출 추이

2.1. 가구의 지출 변화

- 최근 11년(2011~2021년)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연간 지출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구의 월평균 육류가공품(소시지, 햄 및 베이컨, 기타 육류가공품) 지출액 추이를 분석함. 비중을 제외한 모든 분석은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디플레이트한 실질 지출액임.
- 육류가공품 중 육포, 훈제, 떡갈비, 냉동돈까스 등을 포함한 기타 육류가공품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햄 및 베이컨, 소시지 순임. 기타 육류가공품의 경우 전체 육류가공품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60%에서 2021년 72%로 증가함. 반면 같은 해 햄 및 베이컨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9%에서 16%로 감소하였으며, 소시지는 11%로 같은 수준을 유지함.

〈그림 2-1〉 가구의 육류가공품 품목별 지출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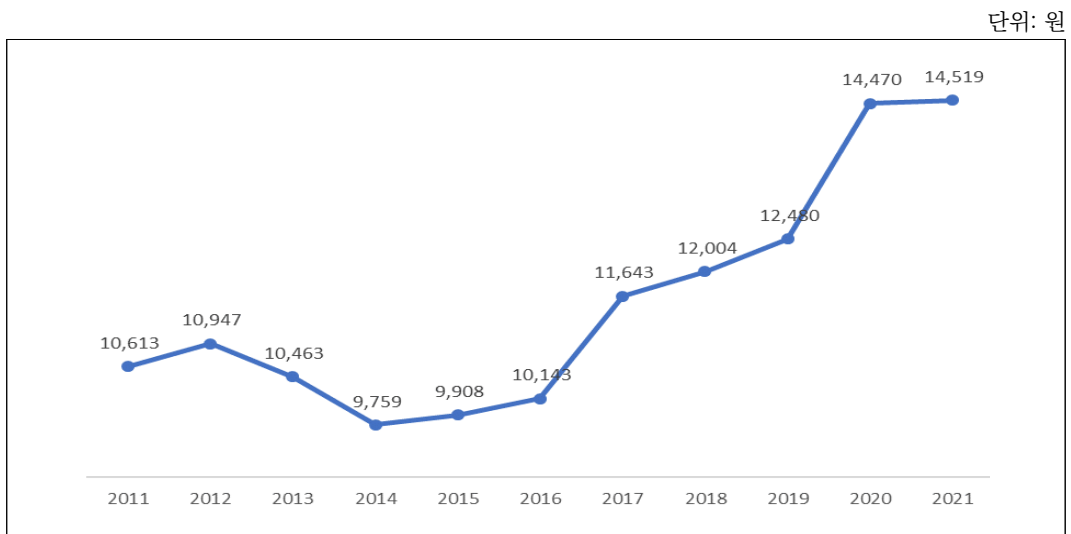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2011~2021년 가구의 월평균 육류가공품 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10,613원에서 2021년 14,519원으로 37% 증가함. 이 중 기타 육류가공품은 2011년 6,659원에서 2021년 10,560원으로 59% 대폭 증가하여 육류가공품 지출 증가추세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음.

- 가구의 기타 육류가공품에 대한 지출은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함.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집밥 수요가 증가한 2020년에는 가구의 기타 육류가공품 지출이 전년 대비 19%(8,610원에서 10,207원) 대폭 증가함.
- 동기간 동안 가구의 소시지 지출액은 등락은 있었으나 2011년 1,128원에서 2021년 1,675원으로 49% 증가함.
- 반면 햄 및 베이컨 지출액은 2011년 2,825원에서 2021년 2,284원으로 19% 감소함. 이는 가구의 대체 육류가공식품, 특히 기타 육류가공류의 소비가 증가하였고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예상됨. 특히 2015년 말 WHO에 의해 2군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타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

〈그림 2-2〉 가구의 월평균 육류가공품 지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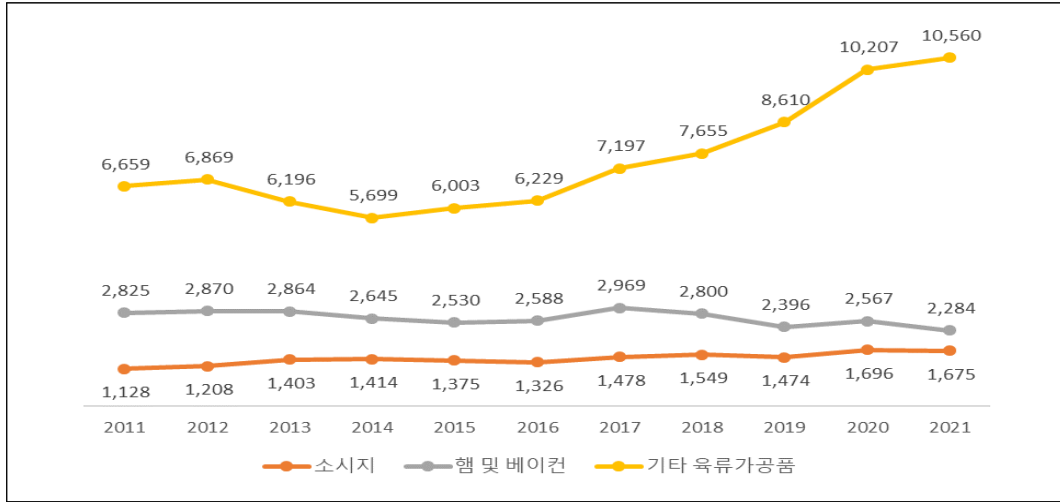


주: 육류가공품 지출은 가구의 소시지, 햄 및 베이컨, 기타 육류가공품의 지출액을 합한 값임. 소시지와 햄 및 베이컨 지출액은 해당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기타 육류가공품 지출액은 가공식품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명목 지출액을 디플레이트 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그림 2-3〉 가구의 월평균 육류가공품 지출 추이

단위: 원



주: 소시지와 햄 및 베이컨은 해당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기타육류가공품은 가공식품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명목 지출액을 디플레이트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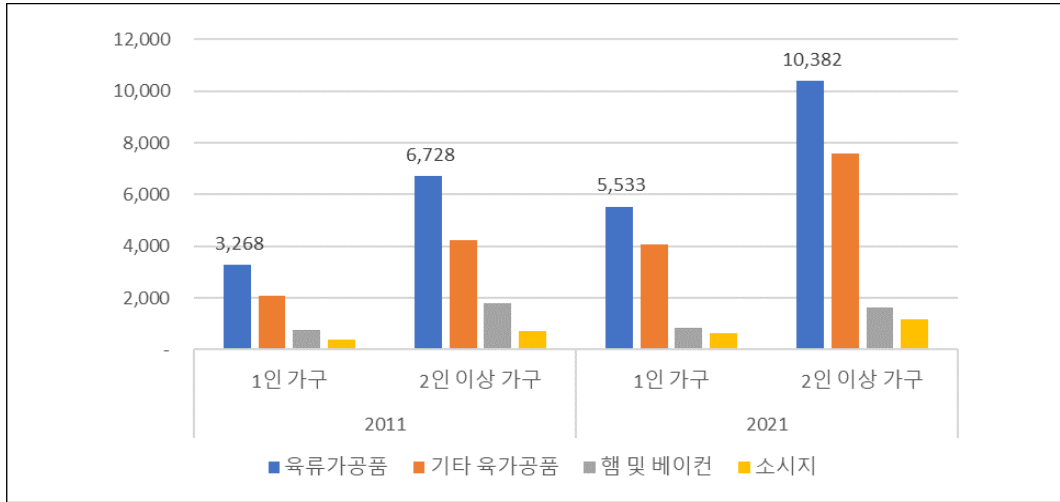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2.2. 가구 특성별 지출 변화

- 최근 11년(2011~2021년)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연간 지출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구의 월평균 육류가공품 지출액을 가구 규모(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가구주 연령(20대 이하~60대 이상), 소득수준별(소득 1~5분위)로 비교함.
- 2021년 가구원 수별 월평균 육류가공품 지출을 살펴보면, 모든 세부 품목에서 2인 이상 가구의 지출이 1인 가구의 지출보다 컸음. 또한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 모두 기타 육류가공품, 햄 및 베이컨, 소시지 순으로 지출이 높았음. 이는 2011년에도 마찬가지임.

〈그림 2-4〉 가구원 수별 월평균 육류가공품 지출 비교 : 2011년 vs 2021년

단위: 원



주 1) 가구원 수별 지출액은 가구 소비에 대한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기 위해 OECD 균등화 방식에 따라 지출액을 해당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재계산한 것임.

2) 육류가공품 지출은 가구의 소시지, 햄 및 베이컨, 기타 육류가공품의 지출액을 합한 값임. 소시지와 햄 및 베이컨 지출액은 해당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기타육류가공품 지출액은 가공식품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명목 지출액을 디플레이트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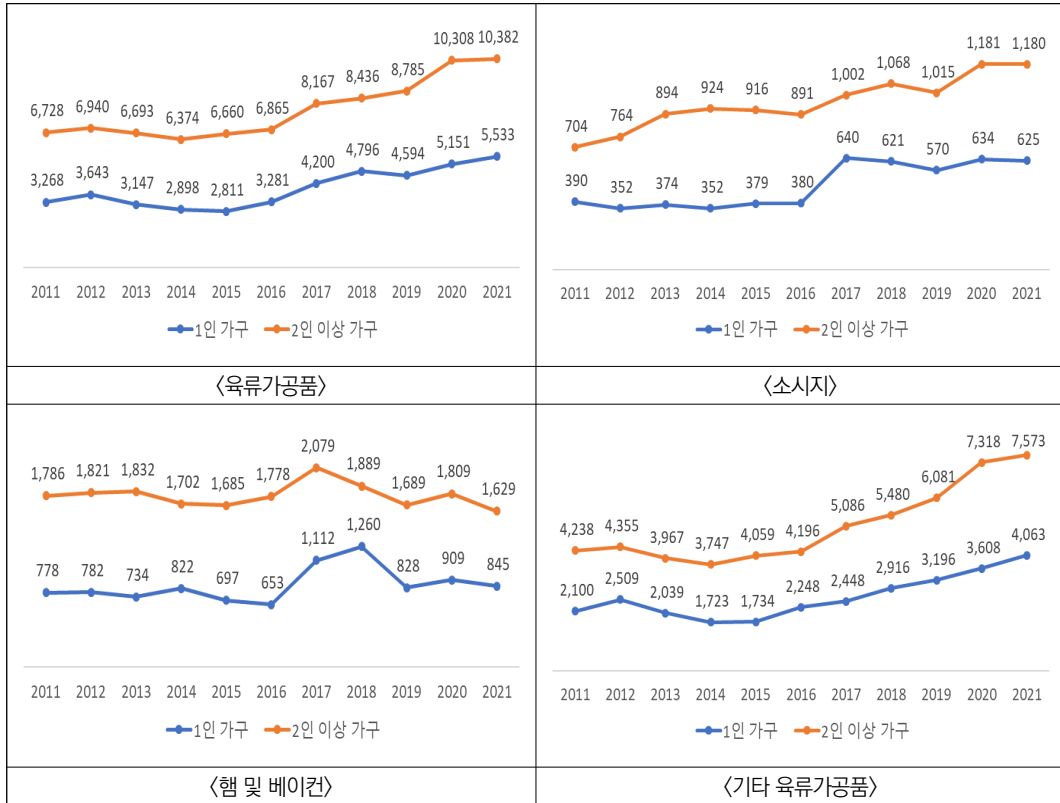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2011~2021년 육류가공품 지출은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 모두에서 증가세를 보임 (1인 가구 연평균 증가율 5.4%, 2인 이상 가구 연평균 증가율 4.4%).

-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지는 기타 육류가공품의 경우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지출액이 각각 연평균 6.8%, 6.0%씩 증가함. 햄 및 베이컨의 경우 1인 가구의 지출액이 연평균 0.8%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2인 이상 가구의 지출액은 연평균 0.9%씩 감소하였음. 소시지의 경우 1인 가구의 지출액이 연평균 4.8%씩 증가하고, 2인 이상 가구의 지출액은 이보다 조금 높은 연평균 5.3%씩 증가하였음.

〈그림 2-5〉 가구원 수별 월평균 육류가공품 지출 추이

단위: 원



주 1) 가구원 수별 지출액은 가구 소비에 대한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기 위해 OECD 균등화 방식에 따라 지출액을 해당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재계산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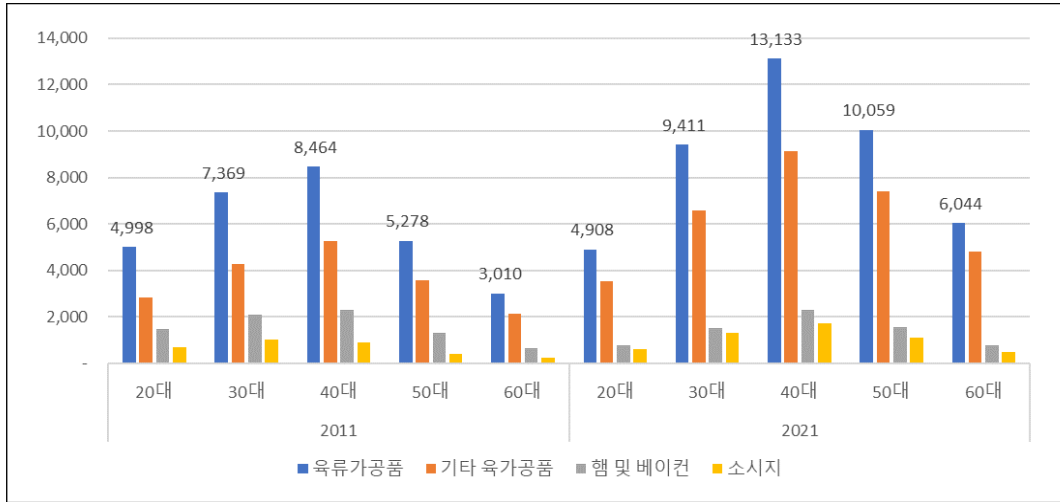
2) 육류가공품 지출은 가구의 소시지, 햄 및 베이컨, 기타 육류가공품의 지출액을 합한 값임. 소시지와 햄 및 베이컨 지출액은 해당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기타육류가공품 지출액은 가공식품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명목 지출액을 디플레이트 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가구주 연령대별 육류가공품 지출액을 살펴보면 2021년 육류가공품 지출액이 가장 큰 가구는 가구주 연령대가 40대인 가구임(13,133원), 그 다음으로는 50대(10,059원), 30대(9,411원), 60대(6,044원), 20대(4,908원) 순임. 2011년에도 육류가공품 지출액이 가장 큰 가구는 가구주 연령대가 40대인 가구였으나(8,464원), 다음으로 지출이 큰 가구의 가구주 연령대는 30대(7,369원), 50대(5,278원), 20대(4,998원), 60대(3,010원) 순임. 10년 동안 육류가공품을 소비하는 가구의 가구주 연령대 분포에 변화가 있었으나, 가구주 연령대에 상관없이 기타 육류가공품, 햄 및 베이컨, 소시지 순으로 지출액이 큼을 알 수 있음.

〈그림 2-6〉 가구주 연령대별 월평균 육류가공품 지출 비교 : 2011년 vs 2021년

단위: 원



주 1) 20대는 20대 이하, 60대는 60대 이상을 의미함

2) 육류가공품 지출은 가구의 소시지, 햄 및 베이컨, 기타 육류가공품의 지출액을 합한 값임. 소시지와 햄 및 베이컨 지출액은 해당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기타육류가공품 지출액은 가공식품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명목 지출액을 디플레이트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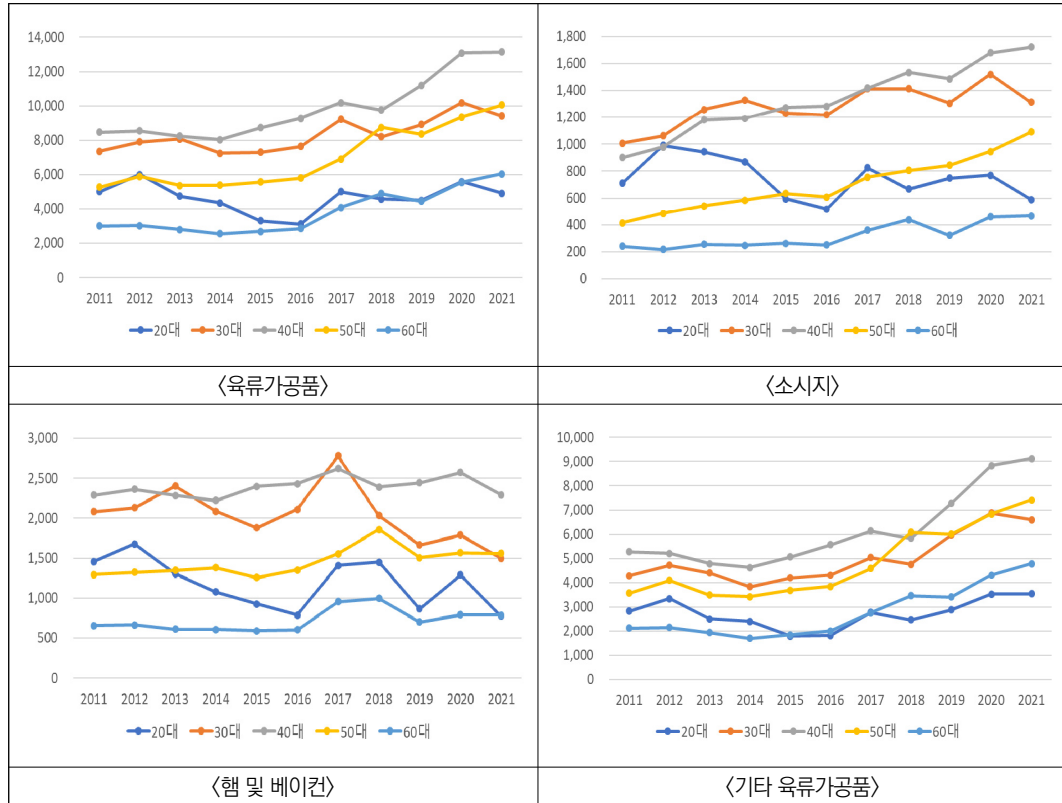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2011~2021년 20대 가구주 가구의 경우 육류가공품 지출액의 연평균 변화율은 -0.2%로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가구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육류가공품의 연평균 지출액과 증가율도 높아짐(30대 2.5%, 40대 4.5%, 50대 6.7%, 60대 이상 7.2%).

- 20대 가구주 가구의 경우 소시지와 햄 및 베이컨에서 연평균 지출액이 각각 1.8%, 6.1%씩 감소함. 30대 가구주 가구 또한 햄 및 베이컨 지출액이 연평균 3.2%씩 감소함. 햄 및 베이컨 지출의 경우 40대 이상의 타 연령대에서 약 증가(+1.8%~+1.9%) 혹은 보합세에 그침. 기타 육류가공품은 분석 기간 내 모든 연령대에서 지출액이 증가함.

〈그림 2-7〉 가구주 연령대별 월평균 육류가공품 지출 추이

단위: 원



주 1) 20대는 20대 이하, 60대는 60대 이상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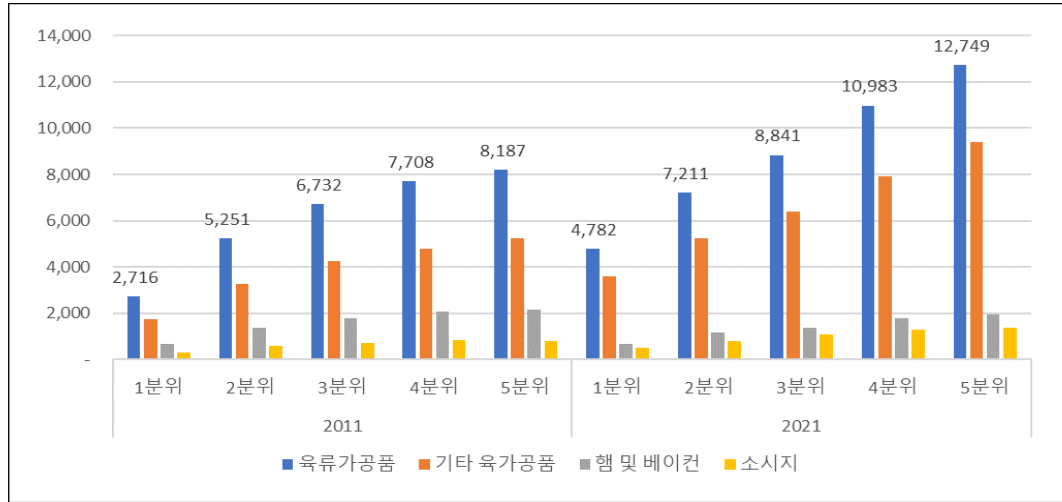
2) 육류가공품 지출은 가구의 소시지, 햄 및 베이컨, 기타 육류가공품의 지출액을 합한 값임. 소시지와 햄 및 베이컨 지출액은 해당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기타육류가공품 지출액은 가공식품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명목 지출액을 디플레이트 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가구 소득분위별로 육가공품 지출을 살펴보면 모든 소득분위에서 기타 육가공품, 햄 및 베이컨, 소시지 순으로 지출이 크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육류가공품에 대한 지출이 커짐. 2011년과 비교 시 2021년 가구의 육류가공품에 대한 지출은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기타 육가공품의 지출이 눈에 띈.

〈그림 2-8〉 가구 소득분위별 월평균 육류가공품 지출 비교: 2011년 vs 2021년

단위: 원



주: 육류가공품 지출은 가구의 소시지, 햄 및 베이컨, 기타 육류가공품의 지출액을 합한 값임. 소시지와 햄 및 베이컨 지출액은 해당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기타육류가공품 지출액은 가공식품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명목 지출액을 디플레이트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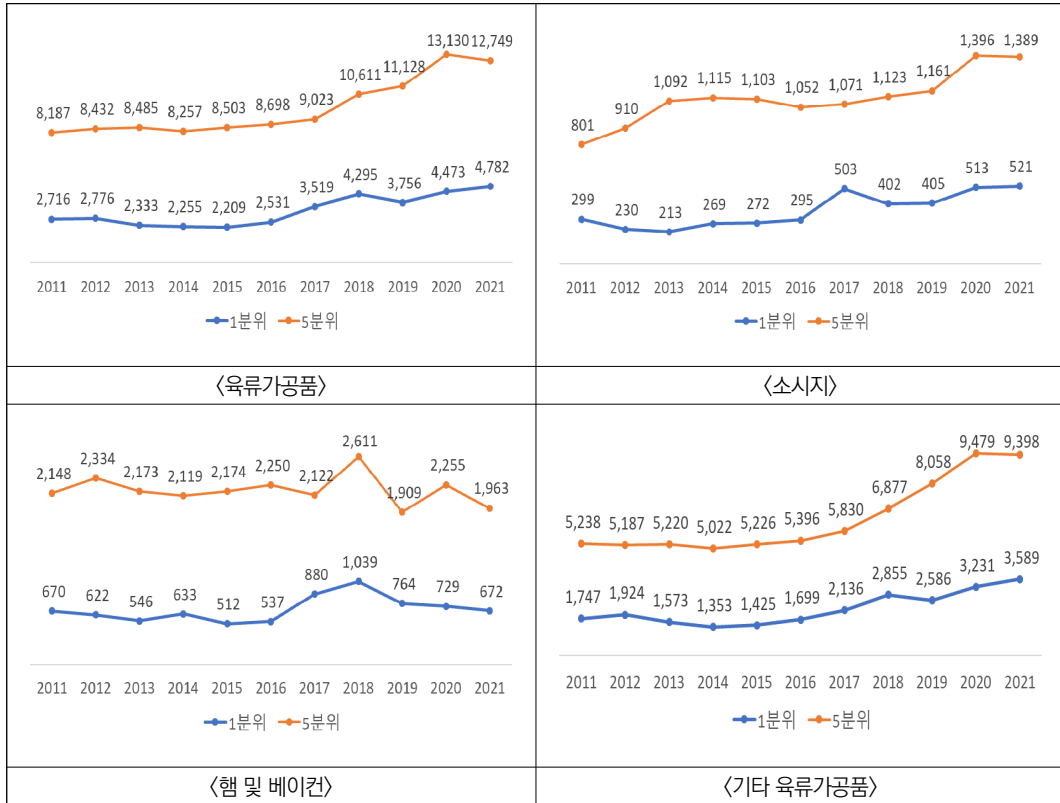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2011~2021년 저소득(소득 1분위) 가구의 육류가공품 지출은 연평균 증가율 5.8%, 고소득(소득 5분위) 가구는 연평균 증가율 4.5%를 기록함.

- 품목별로 살펴보면 소시지 지출액의 경우 저소득·고소득 가구 모두 연평균 5.7%씩 증가하였고, 기타 육류가공품의 경우 저소득 가구의 지출액 증가율(7.5%)이 고소득 가구의 증가율(6.0%)에 비해 1.5%p 더 높음. 햄 및 베이컨의 경우 저소득 가구의 연평균 지출액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고소득 가구는 매년 평균 0.9%씩 감소함.

〈그림 2-9〉 가구 소득분위별 월평균 육류가공품 지출 추이

단위: 원



주: 육류가공품 지출은 가구의 소시지, 햄 및 베이컨, 기타 육류가공품의 지출액을 합한 값임. 소시지와 햄 및 베이컨 지출액은 해당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기타육류가공품 지출액은 가공식품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명목 지출액을 디플레이트 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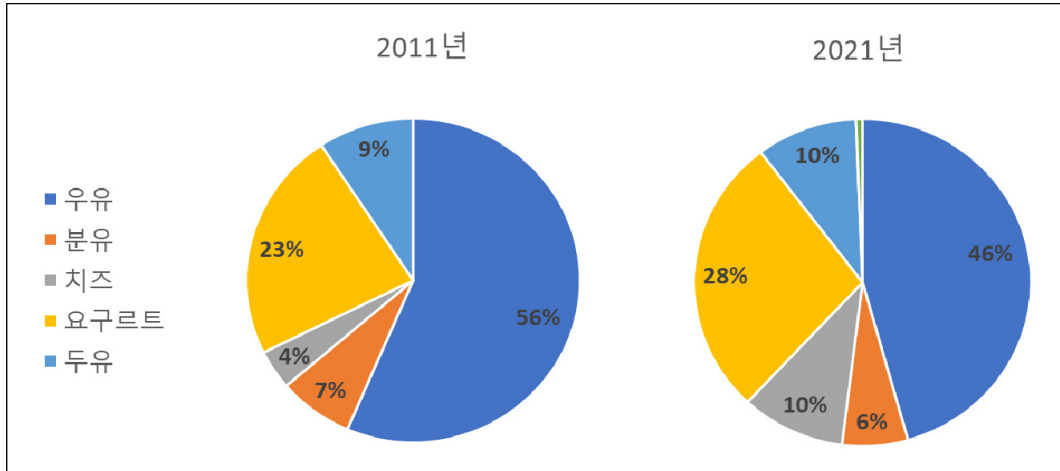
3. 주요 유제품 지출 추이

3.1. 가구의 지출 변화

○ 가구의 유제품 지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인 우유는 2011년 유제품 지출의 절반 이상(57%)을 차지하였으나 2021년에는 영유아 인구수 감소와 함께 절반 이하 수준인 46%로 감소함. 음료 제품의 다양화와 대체 유제품인 요구르트와 치즈의 지출이 각각 5%p, 6%p 증가한 것도 가구의 우유 지출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임.

〈그림 2-10〉 가구의 유제품 품목별 지출 비중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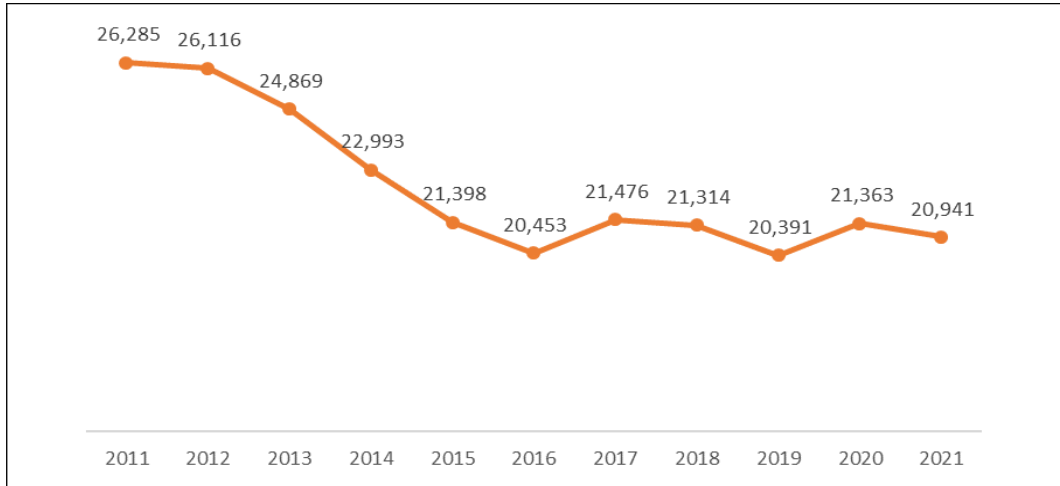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가구의 월평균 유제품 지출액은 2011년 26,285원에서 2021년 20,941원으로 20% 감소함. 2021년과 2011년을 비교해 볼 때 치즈를 제외하고 모든 품목에서 가구의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우유 지출액은 2011년 14,808원에서 2021년 9,562원으로 35% 감소하여 가장 많이 감소한 반면, 두유는 2011~2021년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완만한 추세를 보임.
- 요구르트 지출액은 2021년 5,803원으로 2016년 이후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2011년 6,050원에서 4.1%p 감소한 수준임. 특히 코로나19 이후 간편식 선호 증가, 체중 관리를 위한 끼니 대응으로 소비되면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1%나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연질치즈 등 제품의 다양화와 소비자 취향 변화로 인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치즈는 꾸준한 지출 증가추세를 보임. 2021년 가구의 월평균 치즈 지출액은 2,092원으로 2011년 1,033원 대비 2배(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1〉 가구의 월평균 유제품 지출 변화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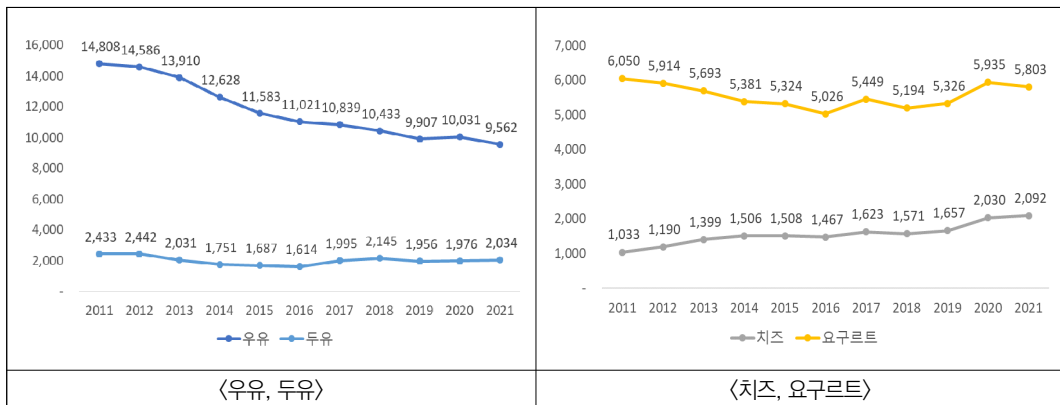


주: 유제품 지출은 가구의 우유, 분유, 치즈, 요구르트, 두유, 기타 유제품의 지출액을 합한 값임. 우유, 분유, 치즈, 두유 지출액은 해당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요구르트 지출액은 발효유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기타 유제품 지출액은 가공식품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명목 지출액을 디플레이트 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그림 2-12〉 가구의 월평균 유제품 품목별 지출 추이

단위: 원



주: 우유, 치즈, 두유 지출액은 해당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요구르트 지출액은 발효유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명목 지출액을 디플레이트 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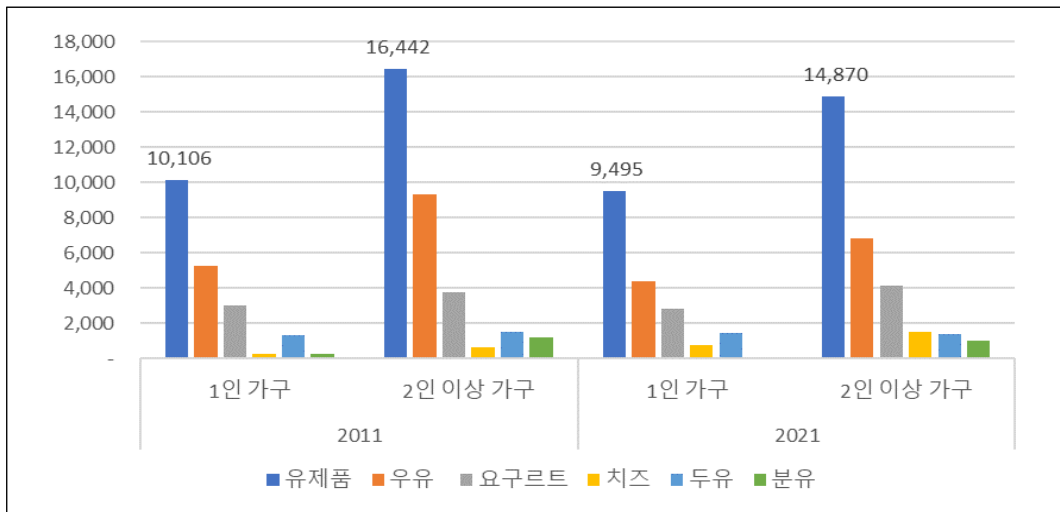
3.2. 가구 특성별 지출 변화

○ 2021년 가구원 수별 월평균 유제품 지출을 살펴보면, 2인 이상 가구의 유제품 지출(16,442원)이 1인 가구의 유제품 지출액(10,106원)보다 컸음. 품목별로 보면 우유, 요구르트, 치즈, 분유는 2인 이상 가구의 지출이 1인 가구보다 컸으나 두유는 1인 가구의 지출(1,479원)이 2인 이상 가구(1,380원)보다 큼.

○ 1인 가구의 경우 우유, 요구르트, 두유, 치즈, 분유 순으로 지출이 높았던 반면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우유, 요구르트, 치즈, 두유, 분유 순으로 두유와 치즈의 순위가 바뀜. 이를 2011년 2인 이상 가구의 유제품 지출 순위(우유, 요구르트, 두유, 분유, 치즈)와 비교해 보면 2인 이상 가구의 치즈 지출액이 확연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음.

〈그림 2-13〉 가구원 수별 월평균 유제품 지출 비교: 2011년 vs 2021년

단위: 원



주 1) 가구원 수별 지출액은 가구 소비에 대한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기 위해 OECD 균등화 방식에 따라 지출액을 해당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재계산한 것임.

2) 유제품 지출은 가구의 우유, 분유, 치즈, 요구르트, 두유, 기타 유제품의 지출액을 합한 값임. 우유, 분유, 치즈, 두유 지출액은 해당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요구르트 지출액은 발효유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기타 유제품 지출액은 가공식품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명목 지출액을 디플레이트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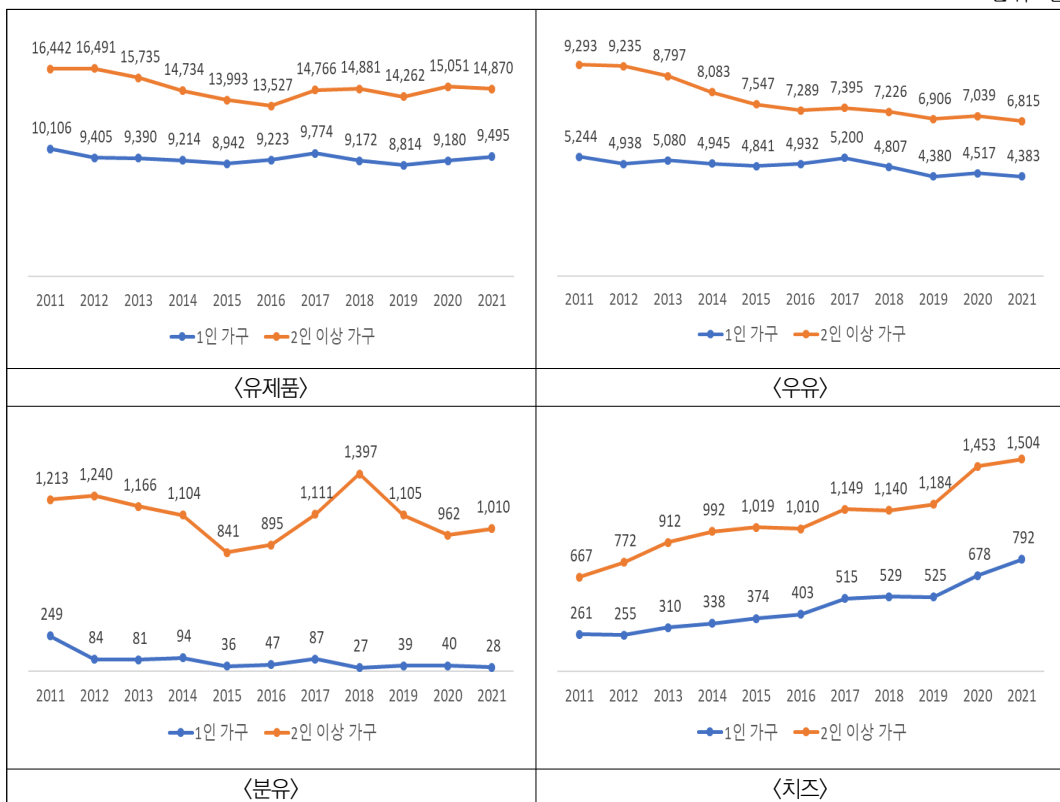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2011~2021년간 유제품의 지출액은 1인 가구(연평균 -0.6%)와 2인 이상 가구(연평균 -1.0%) 모든 경우 미세하게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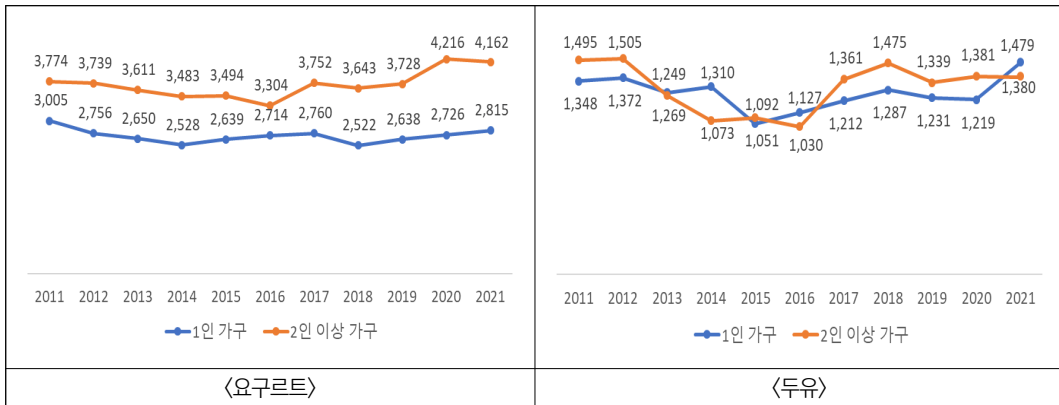
- 우유의 경우, 1인 가구의 연평균 변화율은 -1.8%, 2인 이상 가구의 연평균 변화율은 -3.1%로 2인 이상 가구의 우유 지출액이 더 가파르게 감소하였음. 치즈는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1인 가구의 경우 매년 11.7%씩,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매년 8.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요구르트와 두유는 같은 기간 동안 보합세를 유지하였으나 요구르트는 1인 가구(연평균 -0.7%)에서, 두유는 2인 이상 가구(연평균 -0.8%)에서 약 감소세를 보임.

〈그림 2-14〉 가구원 수별 월평균 유제품 지출 추이

단위: 원



(계속)



주 1) 가구원 수별 지출액은 가구 소비에 대한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기 위해 OECD 균등화 방식에 따라 지출액을 해당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재계산한 것임.

2) 유제품 지출은 가구의 우유, 분유, 치즈, 요구르트, 두유, 기타 유제품의 지출액을 합한 값임. 우유, 분유, 치즈, 두유 지출액은 해당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요구르트 지출액은 발효유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기타 유제품 지출액은 가공식품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명목 지출액을 디플레이트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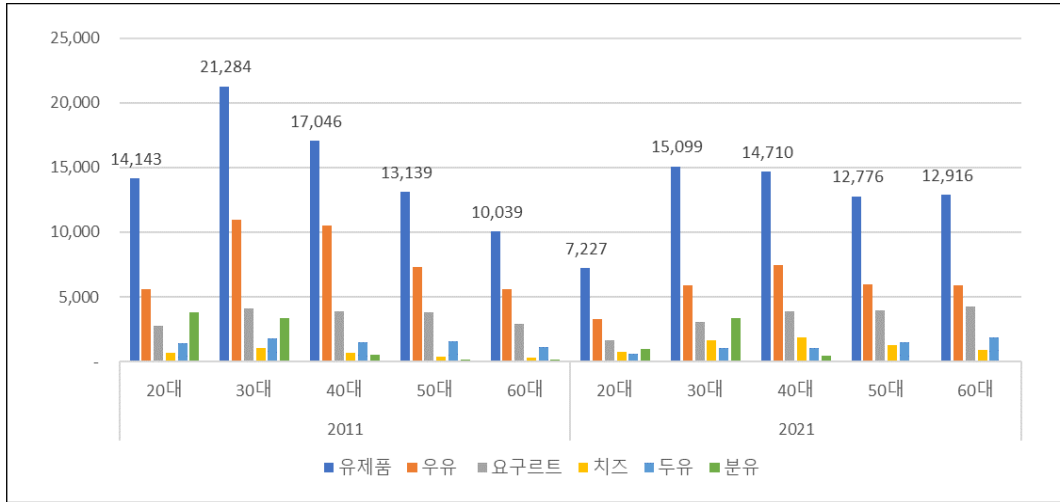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2021년 가구주 연령별 가구의 월평균 유제품 지출을 살펴보면 30대 가구주 가구의 경우 15,099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40대 가구주(14,710원), 60대(12,916원), 50대(12,776원), 20대(7,227원) 순임. 2011년에도 가구주 연령 30대(21,284원)와 40대(17,046원) 가구의 유제품 지출이 가장 컸으나, 다음이 20대(14,143원), 50대(13,139원), 60대(10,039원) 순서임. 2011년에 비해 20대 가구주 가구의 유제품 지출 감소가 눈에 띈.

- 2021년 유제품 세부 품목의 가구주 연령별 지출을 살펴보면 30대의 경우 우유, 분유, 요구르트, 치즈, 두유 순으로 지출이 크고, 40대는 우유, 요구르트, 치즈, 두유, 분유 순서임. 50대와 60대는 우유, 요구르트, 두유, 치즈, 분유 순으로 지출이 컸음.

〈그림 2-15〉 가구주 연령별 월평균 유제품 지출 비교: 2011년 vs 2021년

단위: 원



주 1) 20대는 20대 이하, 60대는 60대 이상을 의미함.

2) 유제품 지출은 가구의 우유, 분유, 치즈, 요구르트, 두유, 기타 유제품의 지출액을 합한 값임. 우유, 분유, 치즈, 두유 지출액은 해당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요구르트 지출액은 발효유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기타 유제품 지출액은 가공식품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명목 지출액을 디플레이트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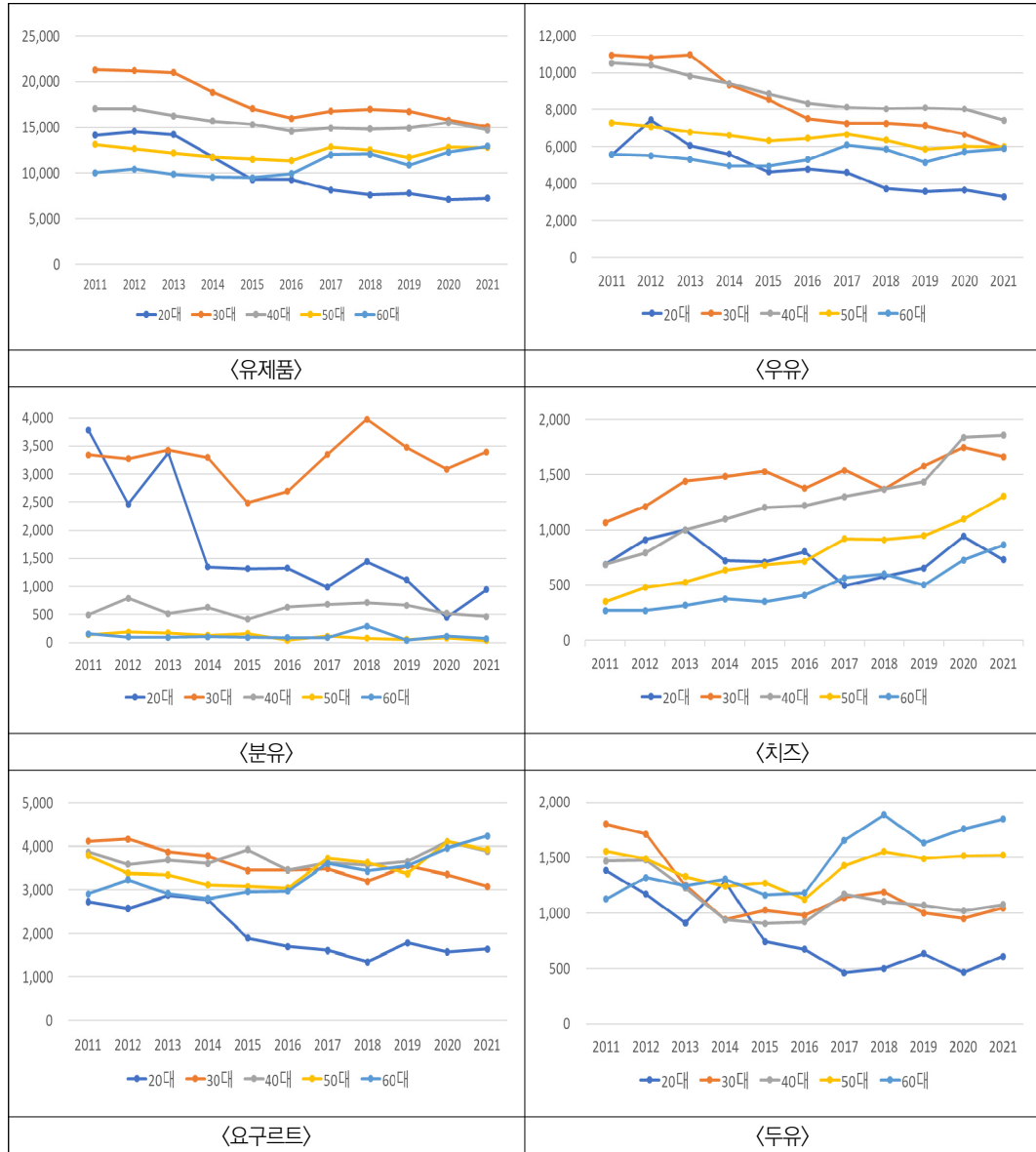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유제품의 전반적인 감소세 속에 20~30대 젊은 가구주 가구 중심으로 치즈를 제외한 우유, 요구르트, 두유의 감소세가 확연히 나타남〈그림 2-16〉.

- 우유의 경우,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만이 분석기간 연평균 0.5%의 증가율을 보였고, 나머지 20~30대에서는 -6.0%~-1.9%의 변화율을 보임. 두유 또한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에서만 연평균 5.1%의 증가세를 보이고 나머지 가구주 연령대에서는 감소세임.
- 치즈의 경우 모든 가구주 연령대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율이 큼(20대 연평균 증가율 0.6%, 30대 4.5%, 40대 10.4%, 50대 14.0%, 60대 이상 12.3%).

〈그림 2-16〉 가구주 연령별 월평균 유제품 지출 추이

단위: 원



주 1) 20대는 20대 이하, 60대는 60대 이상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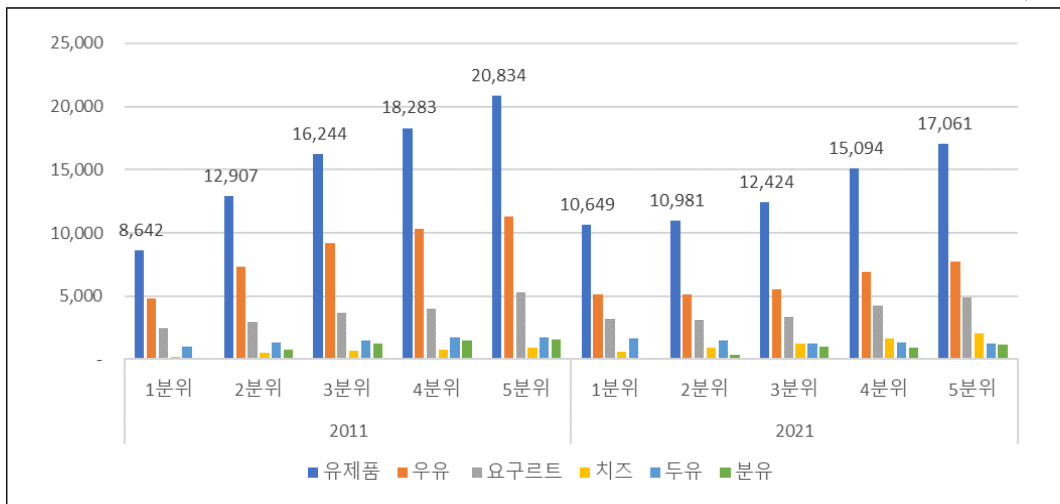
2) 유제품 지출은 가구의 우유, 분유, 치즈, 요구르트, 두유, 기타 유제품의 지출액을 합한 값임. 우유, 분유, 치즈, 두유 지출액은 해당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요구르트 지출액은 발효유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기타 유제품 지출액은 가공식품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명목 지출액을 디플레이트 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2021년 소득분위별 가구의 월평균 유제품 지출을 살펴보면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유제품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1분위 10,649원, 2분위 10,981원, 3분위 12,424원, 4분위 15,094원, 5분위 17,061원). 소득 1~3분위 가구는 우유, 요구르트, 두유, 치즈, 분유 순서로 가구 지출액이 높은 반면, 소득 4~5분위 가구는 우유, 요구르트, 치즈, 두유, 분유 순서로 높음.

〈그림 2-17〉 가구 소득분위별 월평균 유제품 지출 비교: 2011년 vs 2021년

단위: 원



주: 유제품 지출은 가구의 우유, 분유, 치즈, 요구르트, 두유, 기타 유제품의 지출액을 합한 값임. 우유, 분유, 치즈, 두유 지출액은 해당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요구르트 지출액은 발효유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기타 유제품 지출액은 가공식품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명목 지출액을 디스플레이 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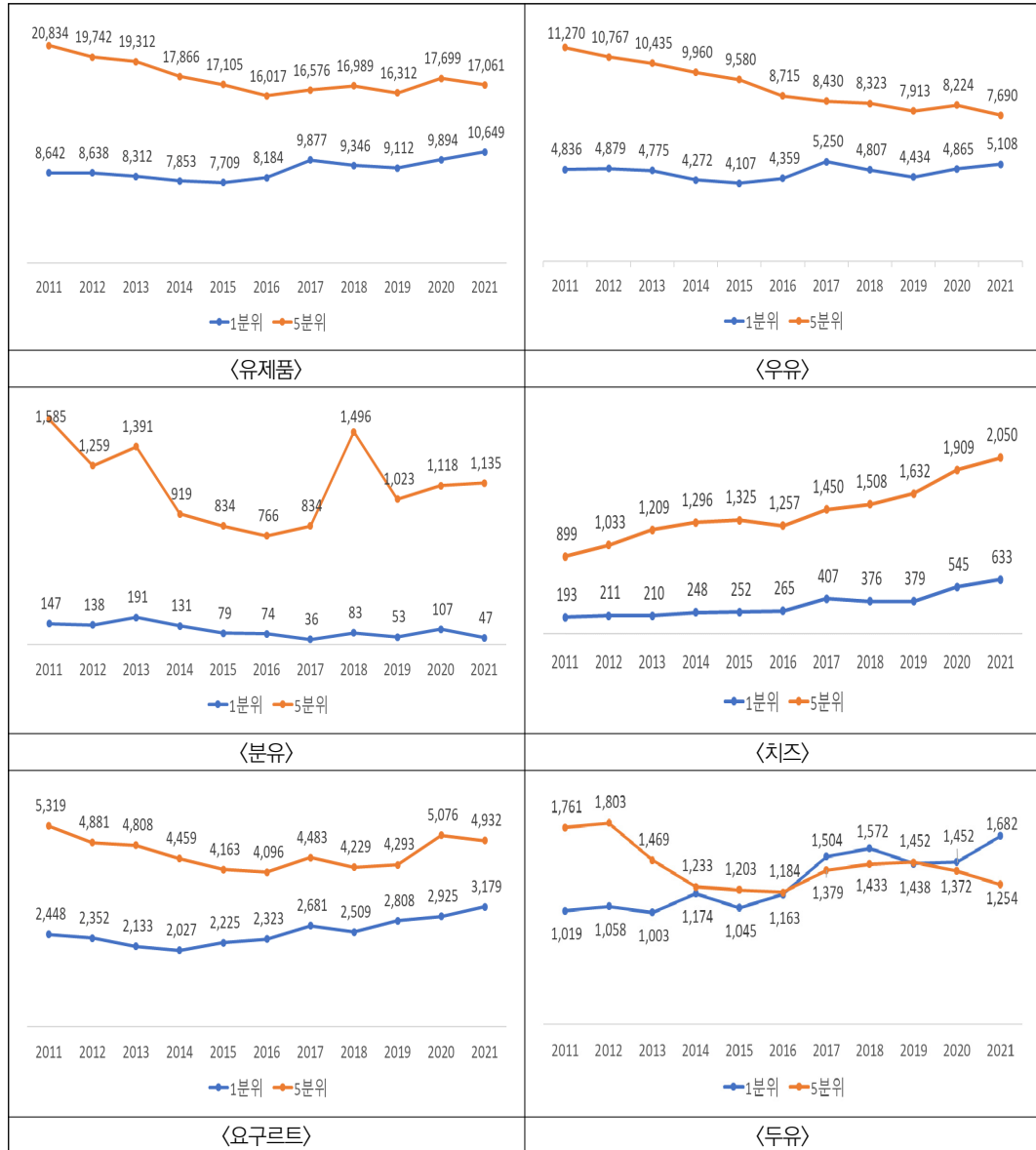
○ 가구의 유제품 지출액 감소세는 주로 고소득 가구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임. 2011~2021년 소득 1분위 가구의 유제품 지출은 연평균 2.1%씩 증가하였으나, 5분위 가구의 유제품 지출은 2.0%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우유의 경우, 저소득 가구의 지출액은 연평균 0.6%씩 증가한 반면 고소득 가구의 지출액은 매년 평균 3.7%씩 감소하였음.
- 두유와 요구르트의 경우 마찬가지로, 두유 지출액은 저소득 가구에서 매년 평균 5.1%씩 증가하였으나 고소득 가구에서는 3.3%씩 감소함. 요구르트도 저소득 가구는 연평균 증가율 2.7%를, 고소득 가구는 연평균 0.8% 감소율을 보임.

- 치즈의 경우, 2021년 소득 1분위 가구의 지출액이 2011년 대비 229% 증가하였으며, 소득 5분위 가구의 지출액은 2011년 대비 128% 증가함.

〈그림 2-18〉 가구 소득분위별 월평균 유제품 지출 추이

단위: 원



주: 유제품 지출은 가구의 우유, 분유, 치즈, 요구르트, 두유, 기타 유제품의 지출액을 합한 값임. 우유, 분유, 치즈, 두유 지출액은 해당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요구르트 지출액은 발효유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기타 유제품 지출액은 가공식품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명목 지출액을 디플레이트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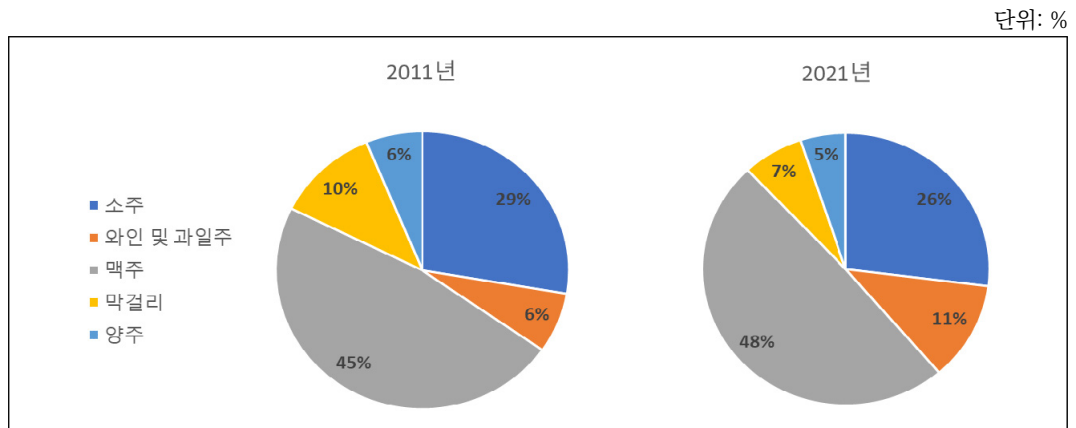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4. 주요 주류 지출 추이

4.1. 가구의 지출 변화

○ 2011년 가구의 월별 지출액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은 맥주, 소주, 막걸리 순이었던 반면, 2021년은 맥주, 소주, 와인 및 과일주 순임. 맥주와 와인은 2011년 대비 2021년 가구의 지출액이 증가한 데 비해 나머지 주류 품목은 지출이 감소함. 특히 와인의 경우 2011년 6%에서 2021년 11%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소주는 같은 기간 31%에서 27%로 가장 많이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2-19>.

<그림 2-19> 가구의 주류 품목별 지출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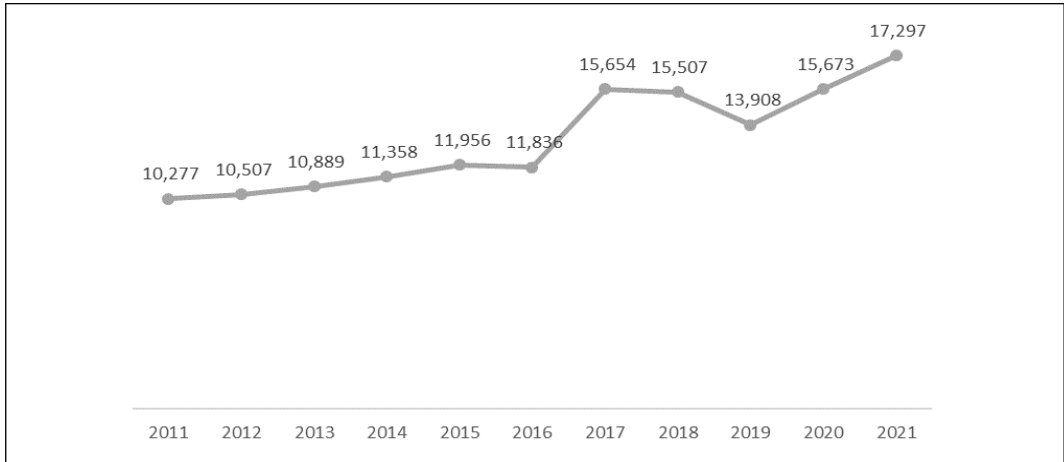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가구의 월평균 주류 지출액은 2011년 10,277원에서 2021년 17,297원으로 68% 증가하며, 품목별로도 모든 품목에서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가장 많이 지출액이 증가한 주류는 와인 및 과일주로 2011년 598원에서 2021년 1,980원으로 231% 증가함 <그림 2-20, 21>.

- 와인은 201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지출이 늘고 있음. 특히 저가 와인이 대중화되고 구입처가 고급 주류점에서 대형마트, 편의점 등으로 확대되면서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또한 MZ세대를 중심으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주류 소비문화가 형성되어 있음.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홈술'이 늘어나면서 2019년 이후 지출액이 급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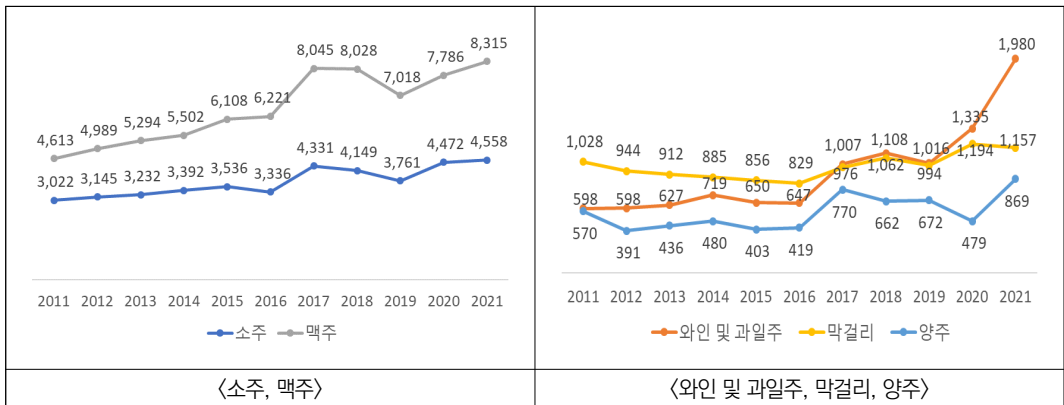
○ 맥주 또한 제품의 다양화와 취향 변화로 인해 2011년 대비 2021년 월평균 가구 지출액이 80% 증가함. 소주 또한 51% 증가하였으나 새로운 주류 문화에서 와인 및 과일주, 맥주보다는 완만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임.

〈그림 2-20〉 가구의 월평균 주류 지출 변화



주: 주류 지출은 가구의 소주, 와인 및 과일주, 맥주, 막걸리, 양주, 기타 주류의 지출액을 합한 값임. 소주, 맥주, 막걸리, 양주 지출액은 해당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와인 및 과일주 지출액은 과일주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기타 주류 지출액은 약주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명목 지출액을 디플레이트 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그림 2-21〉 가구의 월평균 주류 품목별 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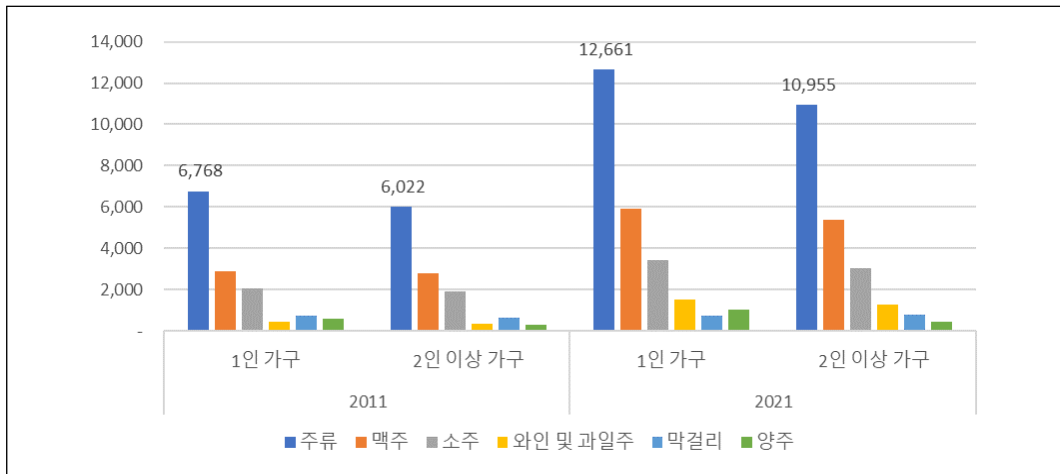
주: 소주와 맥주, 막걸리와 양주는 해당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2020=100), 와인 및 과일주는 과일주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명목 지출액을 디플레이트 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4.2. 가구 특성별 지출액 변화

○ 2021년 가구원 수별 월평균 주류 지출을 살펴보면, 2인 이상 가구(10,955원)보다는 1인 가구의 주류 지출(12,661원)이 높은 것이 특징임.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맥주(5,376원), 소주(3,037원), 와인 및 과일주(1,282원), 막걸리(799원), 양주(461원) 순서로 지출이 높았고, 1인 가구는 맥주(12,661원), 소주(5,899원), 와인 및 과일주(3,454원), 양주(1,044원), 막걸리(729원) 순서임.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 모두 2011년에 비해 와인 및 과일주 지출이 늘고 막걸리 지출이 감소한 것이 눈에 띈다.

〈그림 2-22〉 가구원 수별 월평균 주류 지출 비교: 2011년 vs 2021년

단위: 원



주 1) 가구원 수별 지출액은 가구 소비에 대한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기 위해 OECD 균등화 방식에 따라 지출액을 해당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재계산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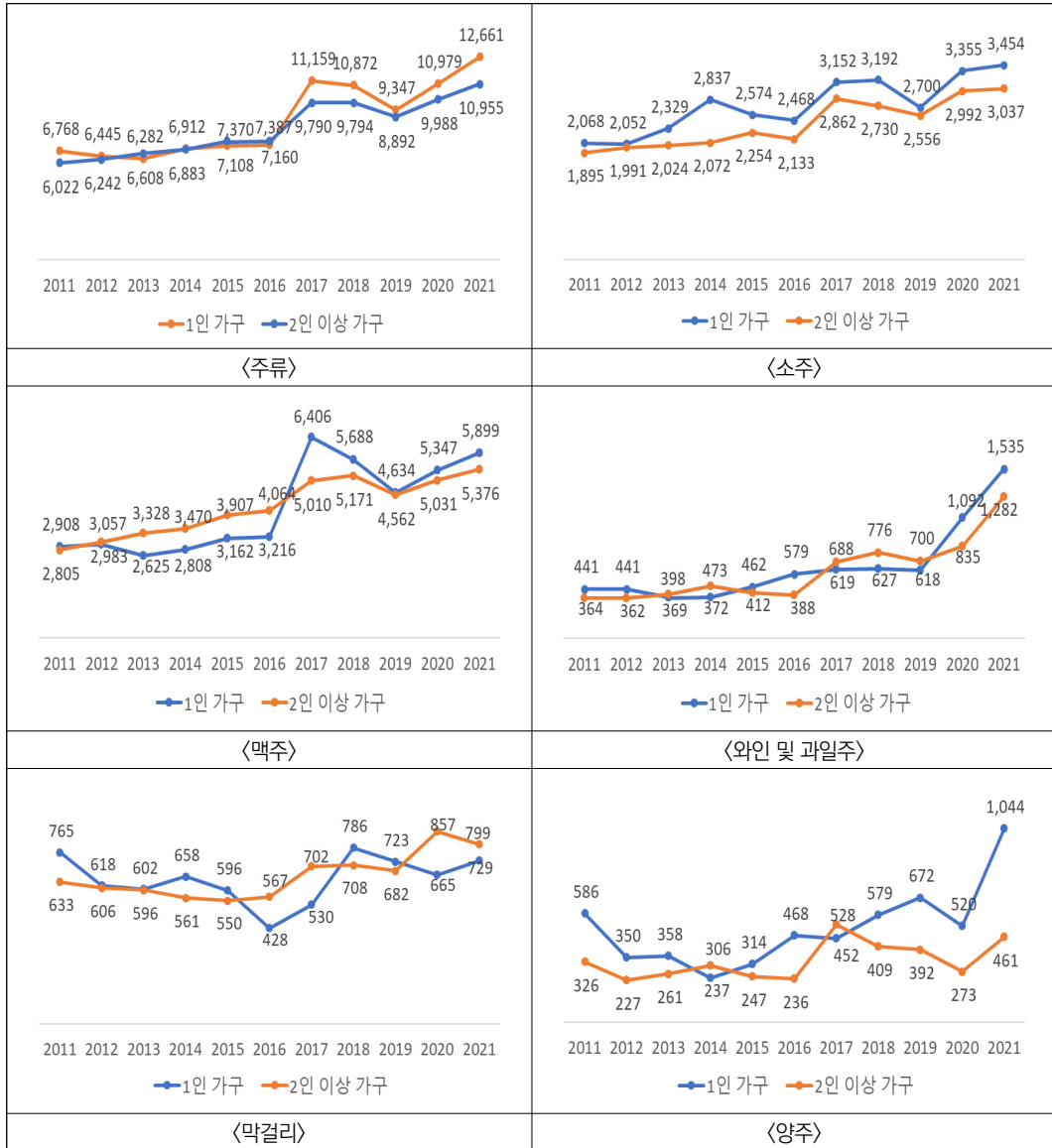
2) 주류 지출은 가구의 소주, 와인 및 과일주, 맥주, 막걸리, 양주, 기타 주류의 지출액을 합한 값임. 소주, 맥주, 막걸리, 양주 지출액은 해당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와인 및 과일주 지출액은 과일주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기타 주류 지출액은 약주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명목 지출액을 디플레이트 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2011~2021년 가구원 수별 주류 지출액은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가 각각 연평균 6.5%와 6.2%씩 증가하여 비슷한 추세를 보임. 막걸리의 경우, 1인 가구 지출액이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연평균 증가율 0.5%) 2인 가구의 지출액이 연평균 2.4%씩 증가함. 반면 양주의 경우 1인 가구의 연평균 증가율이 2인 이상 가구보다 2.4%p 높은 5.9%를 보여 이들의 양주 지출액 증가가 주목됨.

〈그림 2-23〉 가구원 수별 월평균 주류 지출 추이

단위: 원



주 1) 가구원 수별 지출액은 가구 소비에 대한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기 위해 OECD 균등화 방식에 따라 지출액을 해당 가구 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재계산한 것임.

2) 주류 지출은 가구의 소주, 와인 및 과일주, 맥주, 막걸리, 양주, 기타 주류의 지출액을 포함한 값임. 소주, 맥주, 막걸리, 양주 지출액은 해당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와인 및 과일주 지출액은 과일주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기타 주류 지출액은 약주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명목 지출액을 디플레이트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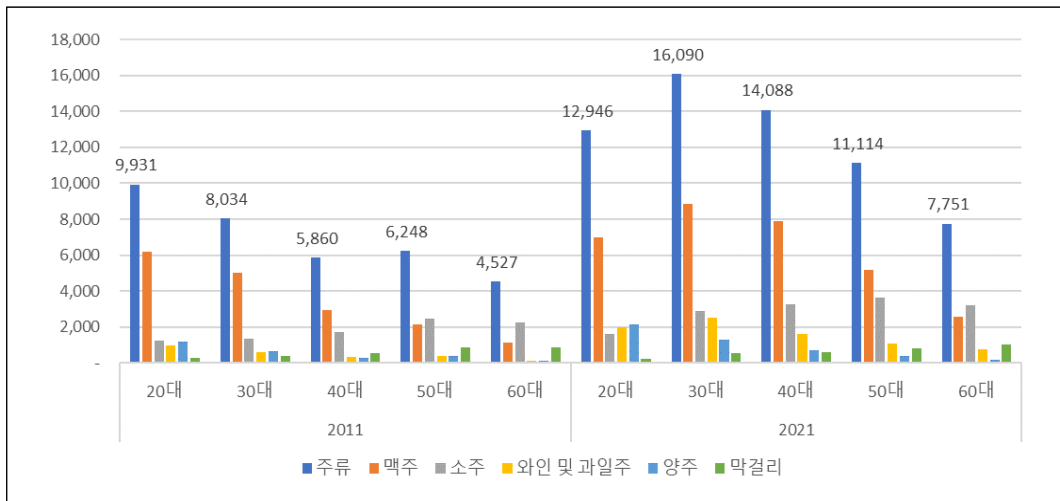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2021년 가구주 연령별 주류 지출을 살펴보면, 30대(16,090원), 40대(14,088원), 20대(12,946원), 50대(11,114원), 60대(7,751원) 순으로 지출액이 큼. 2011년 지출액 순위는 20대(9,931원), 30대(8,034원), 50대(6,248원), 40대(5,860원), 60대(4,527원)였음. 즉, 주류 주 소비층이 20대 젊은 층에서 30~40대 중년층으로 바뀐 것으로 보임.

○ 주종별 지출은 가구주 연령대에 따라 특징이 뚜렷이 나타남. 30~40대는 맥주, 소주, 와인 및 과일주, 양주, 막걸리 순으로 지출이 높았으며, 50대는 맥주, 소주, 와인 및 과일주, 막걸리, 양주 순, 60대는 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 및 과일주, 양주 순, 20대는 맥주, 양주, 와인 및 과일주, 소주, 막걸리 순서임.

〈그림 2-24〉 가구주 연령별 월평균 주류 지출 비교: 2011년 vs 2021년

단위: 원



주 1) 20대는 20대 이하, 60대는 60대 이상을 의미함.

2) 주류 지출은 가구의 소주, 와인 및 과일주, 맥주, 막걸리, 양주, 기타 주류의 지출액을 합한 값임. 소주, 맥주, 막걸리, 양주 지출액은 해당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와인 및 과일주 지출액은 과일주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기타 주류 지출액은 약주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명목 지출액을 디플레이트 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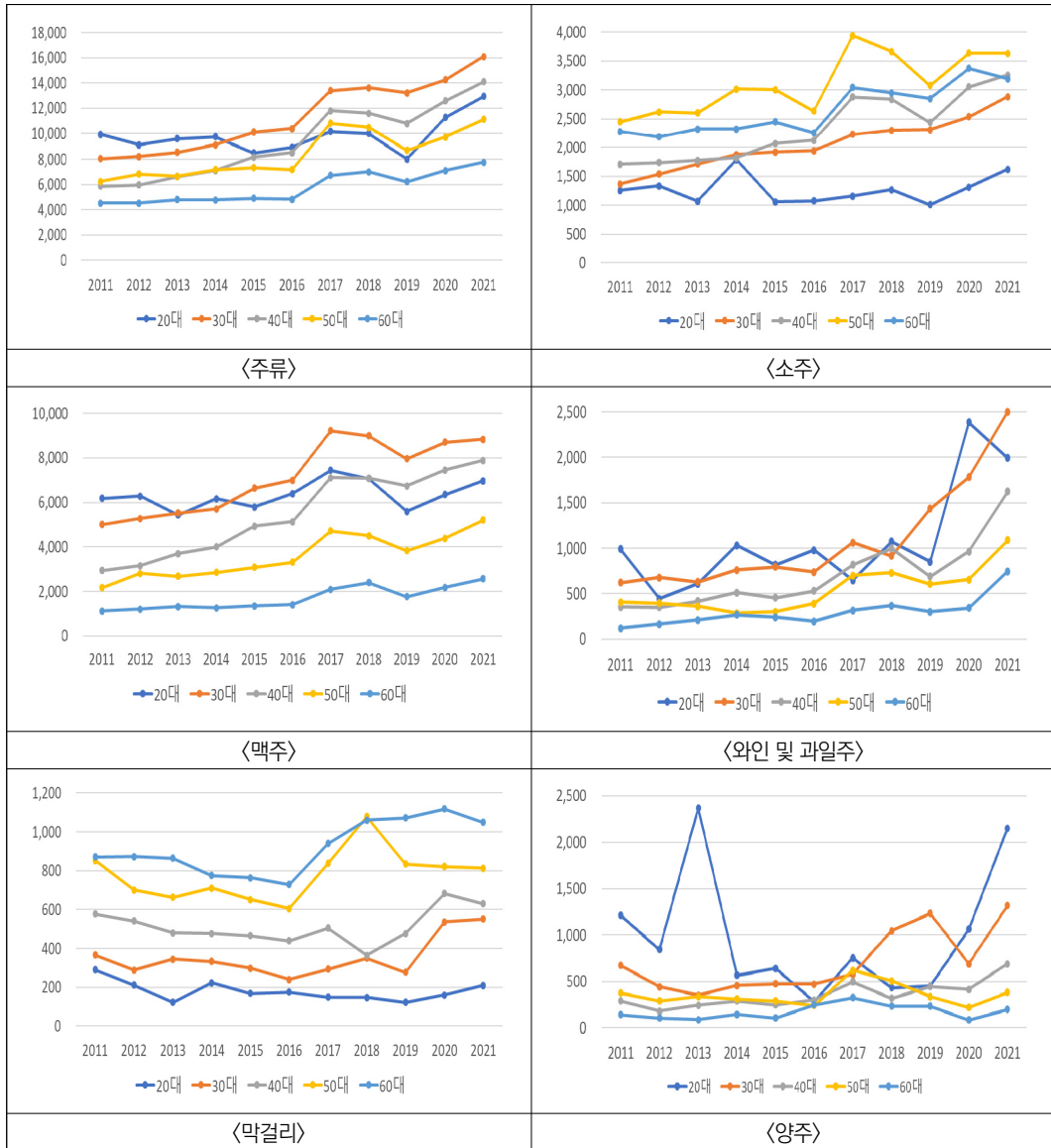
○ 가구의 주류 지출액 추이를 가구주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의 연평균 지출액 증가율이 9.2%로 가장 높음. 20대 가구주 가구의 주류 연평균 지출액 증가율은 2.7%에 그침(30대 +7.2%, 50대 +5.9%, 60대 이상 +5.5%)〈그림 2-25〉.

- 40대 가구주 가구의 지출액은 맥주(연평균 +10.4%)와 양주(연평균 +9.1%)에서 주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와인 및 과일주는 60대 가구주 가구의 지출액이 매년 20%씩 증가하였고, 막걸리의 경우 20대 가구주 가구에서 연평균 3.2%씩 감소함.

〈그림 2-25〉 가구주 연령별 월평균 주류 지출 추이

단위: 원



주 1) 20대는 20대 이하, 60대는 60대 이상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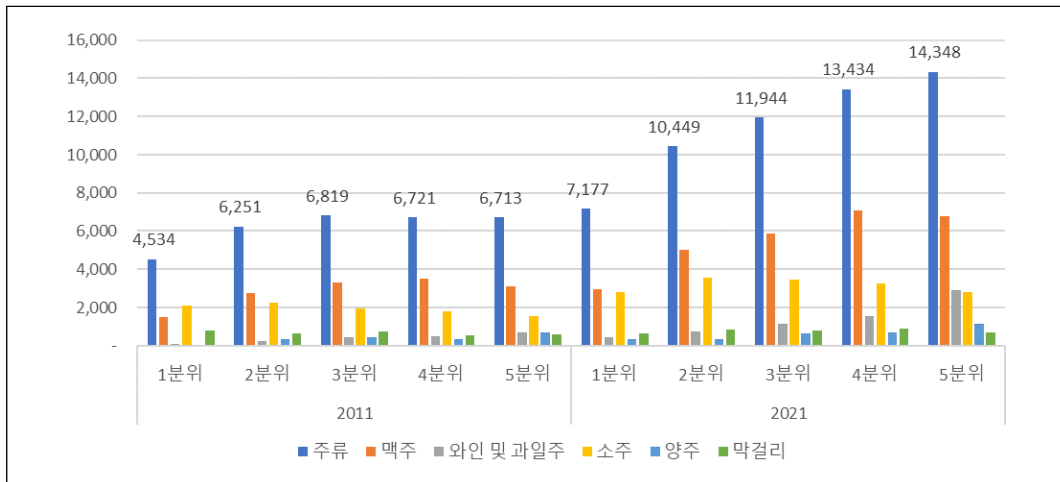
2) 주류 지출은 가구의 소주, 와인 및 과일주, 맥주, 막걸리, 양주, 기타 주류의 지출액을 합한 값임. 소주, 맥주, 막걸리, 양주 지출액은 해당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와인 및 과일주 지출액은 과일주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기타 주류 지출액은 양주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명목 지출액을 디플레이트 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가구 소득별 가구의 주류 지출을 살펴보면, 2011년 중산층(소득 3,4분위) 가구의 주류 지출이 높았던 반면, 2021년에는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주류 지출도 높았음. 또한 2011년에는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맥주, 소주, 막걸리의 가구 지출이 가장 컸으나 2021년에는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짐. 소득 5분위의 경우 와인 및 과일주의 지출이 비교적 큰 반면, 소득 1분위는 소주의 비중이 비교적 큼.

〈그림 2-26〉 가구 소득분위별 월평균 주류 지출 비교: 2011년 vs 2021년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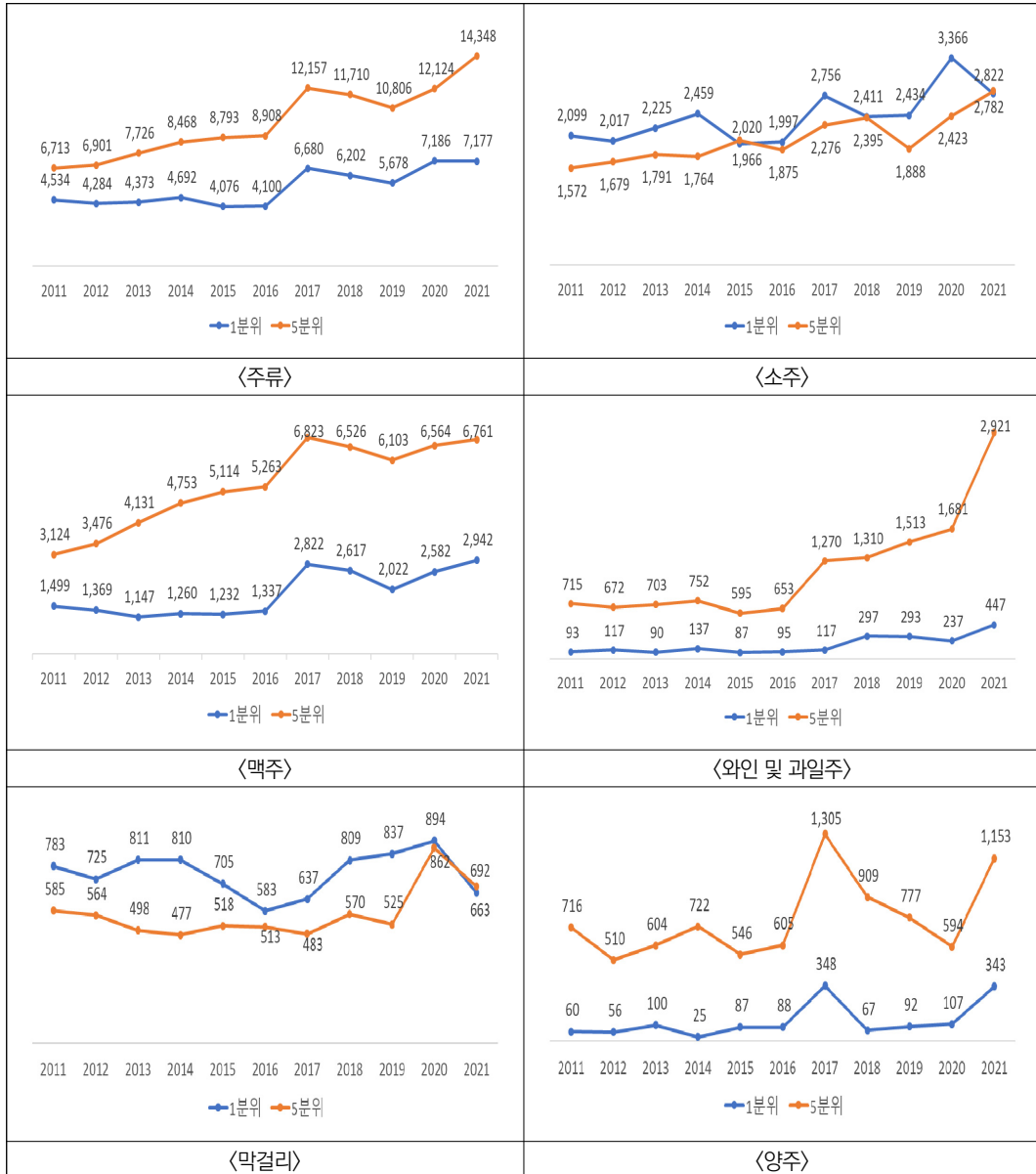
주: 주류 지출은 가구의 소주, 와인 및 과일주, 맥주, 막걸리, 양주, 기타 주류의 지출액을 합한 값임. 소주, 맥주, 막걸리, 양주 지출액은 해당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와인 및 과일주 지출액은 과일주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기타 주류 지출액은 약주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명목 지출액을 디플레이트 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가구의 소득수준별 연평균 주류 지출액 변화율을 살펴보면 소득 1분위 혹은 저소득 가구의 경우 4.7% 증가, 소득 5분위 혹은 고소득 가구의 경우 7.9% 증가를 보임. 그러나 주종별로 차이가 존재함〈그림 2-27〉.

- 소주의 경우 저소득 가구의 연평균 지출액 변화는 +2.9%로 고소득 가구 +6.0%보다 낮음. 막걸리의 경우 저소득 가구의 지출액은 매년 1.7%씩 감소한 반면 고소득 가구는 1.7%씩 증가함.
- 이와 대조적으로 양주의 경우 저소득 가구의 지출액이 매년 19.1%씩 증가한 반면, 고소득 가구는 연평균 증가율 4.9%에 그침. 와인 및 과일주 지출액 또한 저소득 가구의 연평균 증가율이 17.0%로 고소득 가구의 증가율(15.1%)보다 높음.
- 맥주의 경우 저소득 가구와 고소득 가구의 연평균 지출액 증가율은 각각 7.0%와 8.0%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27〉 가구 소득분위별 월평균 주류 지출 추이

단위: 원



주: 주류 지출은 가구의 소주, 와인 및 과일주, 맥주, 막걸리, 양주, 기타 주류의 지출액을 합한 값임. 소주, 맥주, 막걸리, 양주 지출액은 해당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와인 및 과일주 지출액은 과일주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기타 주류 지출액은 약주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명목 지출액을 디플레이트 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3

가구의 가공식품 지출 결정요인 분석

1. 개요

1.1. 분석 범위

○ 본 장에서는 2011~2021년 연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n=86,057 가구)를 이용하여 가구의 가공식품 지출 결정요인을 분석함. 분석 범위 혹은 종속변수는 식품 소비 유형과 식품 분류에 따라 총 5개로 나누어짐.

- 분석 1: 총식품비
- 분석 2: 식료품비(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비+주류비)/외식비
- 분석 3: 신선식품비(농축수산물비)/가공식품비(주류포함)
- 분석 4: 가공식품비(주류포함)- 곡물가공품, 빵 및 떡류, 육류가공품, 수산가공품, 유제품, 유지류, 과일가공품, 채소가공품, 당류 및 과자류, 조미식품, 기타식품, 커피 및 차, 주스 및 기타 음료, 주류
- 분석 5: 육류가공품 - 소시지, 햄 및 베이컨, 기타 육류가공품/ 유제품 - 우유, 요거트, 치즈, 분유, 두유/ 주류 - 소주, 와인 및 과일주, 맥주, 막걸리, 양주

1.2. 분석방법

- 가구의 월평균 총식품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분석1), 식품 소비 유형에 따라 식료품비와 외식비로 구분하여 분석함 (분석2). 다음으로 식료품을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결정요인을 분석함 (분석3). 또한 가공식품을 다시 분류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주요 가공식품 품목별로 가구의 지출 결정요인을 살펴봄.
- 모든 지출 변수들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인터넷 이용료, 온라인콘텐츠 이용료, 방송수신료, 음식 서비스의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이용하여 실질 지출액으로 재산출함.
 - 소주, 와인, 맥주, 막걸리, 양주 등의 주류는 주류 소비자물가지수를, 외식비는 음식 서비스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 지출액으로 변환함. 나머지 식품 분류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함.
 - 방송수신료·컨텐츠 구입비·인터넷 이용금액은 방송수신료, 온라인콘텐츠 이용료, 인터넷 이용료 소비자물가지수로 각각 디플레이트함.
- 모든 식품 분류를 실질지출액으로 변환 후, 총식품비를 식료품비+외식비로 산출함. 여기서 식료품비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비 + 주류구입비로 식료품비는 신석식품비와 가공식품비로 구분되며, 이때 신선식품비는 곡물구입비 + 신선육류구입비 + 신선과일구입비 + 신선채소구입비 + 신선수산물구입비, 가공식품비는 곡물가공품 + 빵 및 떡류 + 육류가공품 + 수산가공품 + 유제품 + 유지류 + 과일가공품 + 채소가공품 + 당류 및 과자류 + 조미 식품 + 커피 및 차 + 주스 및 기타음료 + 주류 + 기타 식품구입비의 합임.
 - 여기서 수산가공품 구입비는 해조가공품 구입비 + 염건수산물 구입비 + 기타수산물가공 구입비로 계산하였으며, 기타 식품에는 죽스프, 이유식, 김치, 반찬류, 즉석동결식품, 기타미분류식품 구입비가 포함됨.
 - 2011~2013년 외식비는 일반식당 비용 + 배달음식 비용 + 이동식음식점 비용 + 패스트푸드 비용을 합한 값으로 계산함. 2014년부터는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의 외식비 항목을 사용함.

○ 분석에 고려된 결정요인 변수들로는 가구원 수, 거주지역, 소득 수준, 65세 이상 고연령층 여부, 6세 미만 아동 여부 등 가구의 특성, 성별, 교육 수준, 연령 등 가구 주의 특성, 인터넷이용금액, 콘텐츠구입비, 방송수신료 등 마케팅 영향의 간접 변수, 그 밖에 코로나19 더미변수, 가계동향조사에서 표본문제로 전후 연도와 시계열 연계가 불가능한 2017, 2018년에 대한 더미, 연도별 지출액 증가 통제를 위한 트렌드 변수 등이 모형에 포함됨.

- 가구의 교육 수준은 4년제 대학 중퇴 이상에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로 재구성하였으며, 가구 소득 수준은 5분위 수를 1 혹은 0의 값을 갖는 4개의 2차 변수로 구성함. 마케팅 영향 변수는 인터넷이용금액, 콘텐츠구입비, 방송수신료를 합하여 사용하였고, 가구 내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 혹은 만 6세 미만 아동 유무는 더미변수로 모형에 포함됨.

○ 추정 방식에 있어 본 분석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함.

-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는 중도 절단 자료임. 즉, 각 분류 또는 품목별에 따라 지출액이 '0'인 가구들이 다수 존재함. 이러한 경우 최소자승법(OLS) 추정량은 불편성(unbiasedness)과 일치성(consistency)을 만족시킬 수 없음.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토빗모형(tobit model)을 이용함.

- 분석 2와 3의 식품 소비 유형 간에는 가구의 지출 의사 결정에 있어 상호연관성이 존재함. 따라서 해당 분석에서는 이들에 대해 단일방정식 모형이 아닌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함.

- 마지막으로 설문 데이터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분석에는 표본가중치가 적용되었음.

2. 총 식품비 및 식품 소비 유형별 지출액 결정요인 분석

2.1. 총 식품비 지출액 결정요인 분석

- 가구의 식료품비 및 외식비를 모두 합한 총 식품비 지출은 가구원 수, 가구소득 수준과 양(+)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농촌보다는 도시에 거주할수록 식품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가구 구성원 특성의 경우, 가구 내 만 6세 미만 아동 혹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 있으면, 그리고 맞벌이 가구이면 총식품비 지출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
- 가구주 특성의 경우, 가구주 교육 수준이 높은 가구와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가 식품비를 더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가구주 연령은 식품비 지출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음 <표 3-1>.
- 그밖에 마케팅 노출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인터넷·컨텐츠·방송수신료 지출이 많은 가구가 식품비 지출도 높음. 코로나19의 영향과 트렌드도 가구의 식품비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3-1>.

<표 3-1> Tobit 모형 추정 결과: 총식품비

변수명	총식품비
가구원 수 (명)	100318.0 *** (1464.7)
가구 내 만 6세 미만 피양육자 여부 (1=있음, 0=없음)	-79126.4 *** (4305.9)
가구 내 만 65세 이상 고령층 여부 (1=있음, 0=없음)	-34247.7 *** (3624.5)
맞벌이 가구 여부 (1=맞벌이 가구, 0=아님)	-12495.4 *** (3354.9)
모자 가구 여부 (1=모자 가구, 0=아님)	-6256.2 (7122.5)
가구 소득 수준 2분위 (1=예, 0=1분위)	120743.5 *** (2821.0)

(계속)

변수명	총식품비
3분위 (1=예, 0=1분위)	224306.5 *** (3545.1)
4분위 (1=예, 0=1분위)	342323.4 *** (4194.6)
5분위 (1=예, 0=1분위)	524100.4 *** (4989.4)
도시 가구 여부 (1=도시, 0=읍면)	36369.5 *** (4550.1)
가구주 교육 수준 (1=대학 중퇴 이상, 0=대학 교육 미만)	26182.9 *** (2952.9)
가구주 연령 (만 세)	-130.0 (91.8)
가구주 성별 (1=여성, 0=남성)	-51524.6 *** (2742.7)
마케팅 노출 (인터넷이용비+컨텐츠구입비+방송수신료, 원)	0.3 *** (0.0)
이상 데이터 더미 (1=2017, 2018년, 0=그 외 연도)	118989.2 *** (7070.6)
코로나19 (1=2020, 2021년, 0=그 외 연도)	20665.2 *** (4399.8)
트렌드 (연도)	4434.7 *** (575.6)
상수항	-8771140.0 *** (1160787.0)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 < 0.01$, ** $p < 0.05$. * $p < 0.1$.

2.2. 식료품비(주류포함)와 외식비 지출액 결정요인 분석

○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식료품비와 외식비 지출액이 높음.
도시 가구 여부는 식료품비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반면, 외식비와는 양(+)의 관계로 나타나 도시 가구일수록 외식비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남. 또한, 가구 내 만 6세 미만 아동 혹은 만 65세 이상 고령 가구원이 있는 경우와 모자로 구성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식료품비 지출이 많고 외식비 지출은 적은 것으로 분석됨. 이와 반대로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보다 식료품비는 적게 들고 외식비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주 교육 수준이 대학(중퇴) 이상인 경우 이보다 교육 수준이 낮은 가구보다 식료품비 지출이 높음. 또한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식료품비 지출이 높고 외식비 지출은 낮으며, 가구주가 여성이면 남성인 경우보다 식료품비와 외식비 지출 모두 낮았음.

○ 인터넷·컨텐츠·방송수신료 지출이 많은 가구일수록 식료품비와 외식비 지출이 모두 높으며, 특히 외식비 지출과 더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구의 식료품비 지출은 증가한 반면 외식비 지출은 감소함.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외식비는 증가하지만 식료품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 Multivariate Tobit 모형 추정 결과: 식료품비와 외식비

변수명	식료품비	외식비
가구원 수 (명)	71203.9 *** (903.3)	29221.7 *** (1065.4)
가구 내 만 6세 미만 피양육자 여부 (1=있음, 0=없음)	8473.7 *** (2667.2)	-88386.8 *** (2992.1)
가구 내 만 65세 이상 고령층 여부 (1=있음, 0=없음)	16416.8 *** (2510.1)	-50249.3 *** (2386.4)
맞벌이 가구 여부 (1=맞벌이 가구, 0=아님)	-22369.3 *** (2015.8)	9778.8 *** (2476.4)
모자 가구 여부 (1=모자 가구, 0=아님)	41595.6 *** (4401.5)	-47482.8 *** (4686.9)
가구 소득 수준		
2분위 (1=예, 0=1분위)	56146.8 *** (1949.5)	66854.9 *** (1914.6)
3분위 (1=예, 0=1분위)	95257.6 *** (2358.1)	131170.8 *** (2470.9)
4분위 (1=예, 0=1분위)	141699.2 *** (2690.8)	202729.4 *** (2949.3)
5분위 (1=예, 0=1분위)	200629.4 *** (3072.5)	325606.2 *** (3549.1)
도시 가구 여부 (1=도시, 0=읍면)	2184.0 (2939.4)	35005.8 *** (3179.1)
가구주 교육 수준 (1=대학 중퇴 이상, 0=대학 교육 미만)	24506.1 *** (1815.3)	1557.2 (2149.5)
가구주 연령 (만 세)	3057.2 *** (59.7)	-3246.7 *** (66.6)
가구주 성별 (1=여성, 0=남성)	-10656.4 *** (1786.5)	-41453.8 *** (1962.0)

(계속)

변수명	식료품비	외식비
마케팅 노출 (인터넷이용비+컨텐츠구입비+방송수신료, 원)	0.1 ** (0.0)	0.3 *** (0.0)
이상 데이터 더미 (1=2017, 2018년, 0=그 외 연도)	64950.7 *** (4432.9)	53523.2 *** (4953.2)
코로나19 (1=2020, 2021년, 0=그 외 연도)	43603.2 *** (2667.7)	-23450.2 *** (3223.6)
트렌드 (연도)	337.6 (345.9)	4171.4 *** (420.8)
상수항	-768926.7 (697719.2)	-8152096.0 *** (848442.2)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p<0.01, **p<0.05. *p<0.1.

2.3. 신선식품비와 가공식품비 지출액 결정요인 분석

- 가구의 식료품비 중 신선식품비와 가공식품비 지출은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의 소득 수준이 소득 1분위 가구보다 높을수록 큰 것으로 나타남. 도시 가구 여부는 신선식품비 혹은 가공식품비 지출과 통계적으로 무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만 6세 미만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신선식품비 지출이 낮고 가공식품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와 대조적으로 만 65세 고령 구성원과 거주하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신선식품비 지출이 높고 가공식품비 지출이 낮음<표 3-3>.
- 가구의 신선식품비와 가공식품비 지출은 교육 수준, 연령, 성별과 같은 가구주 특성에 따른 차이가 없었음. 즉, 신선식품비와 가공식품비 지출 모두 가구주 교육 수준과 연령이 높을수록 크고, 여성 가구주 가구가 남성 가구주 가구보다 적음.
- 인터넷·컨텐츠·방송수신료 지출이 높은 가구일수록 신선식품비와 가공식품비 지출이 모두 높으며, 이중 가공식품비 지출과 더 큰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임. 코로나19 발생 이후 두 식품 부류에 대한 가구의 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가구의 신선식품비 지출은 줄고 가공식품비 지출은 늘어남.

〈표 3-3〉 Multivariate Tobit 모형 추정 결과: 신선식품비와 가공식품비

변수명	신선식품비	가공식품비
가구원 수 (명)	29338.8 *** (521.9237)	43188.7 *** (530.4)
가구 내 만 6세 미만 피양육자 여부 (1=있음, 0=없음)	-16623.4 *** (1442.0)	24365.3 *** (1749.7)
가구 내 만 65세 이상 고령층 여부 (1=있음, 0=없음)	28513.7 *** (1539.2)	-11160.1 *** (1317.5)
맞벌이 가구 여부 (1=맞벌이 가구, 0=아님)	-11433.3 *** (1162.5)	-11210.4 *** (1200.4)
모자 가구 여부 (1=모자 가구, 0=아님)	10366.8 *** (2337.0)	31486.7 *** (2708.7)
가구 소득 수준		
2분위 (1=예, 0=1분위)	41047.7 *** (1237.3)	16711.6 *** (1027.1)
3분위 (1=예, 0=1분위)	64808.3 *** (1470.2)	33405.3 *** (1279.0)
4분위 (1=예, 0=1분위)	87570.4 *** (1619.9)	59185.8 *** (1505.0)
5분위 (1=예, 0=1분위)	119836.3 *** (1857.3)	87318.5 *** (1729.1)
도시 가구 여부 (1=도시, 0=읍면)	2746.8 (1769.6)	873.6 (1758.3)
가구주 교육 수준 (1=대학 중퇴 이상, 0=대학 교육 미만)	6860.1 *** (1052.6)	17726.6 *** (1072.9)
가구주 연령 (만 세)	3123.1 *** (37.5)	99.9 *** (32.9)
가구주 성별 (1=여성, 0=남성)	-3548.9 *** (1065.8)	-5556.1 *** (1007.8)
마케팅 노출 (인터넷이용비+컨텐츠구입비+방송수신료, 원)	0.0 ** (0.0)	0.1 *** (0.0)
이상 데이터 더미 (1=2017, 2018년, 0=그 외 연도)	32548.5 *** (1681.3)	102707.5 *** (8504.1)
코로나19 (1=2020, 2021년, 0=그 외 연도)	23428.7 *** (1615.4)	19943.0 *** (1601.4)
트렌드 (연도)	-2260.7 *** (210.5)	2747.3 *** (205.2)
상수항	4426745.0 *** (424489.7)	-5508042.0 *** (413704.2)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p<0.01, **p<0.05. *p<0.1.

3.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액 결정요인 분석

- 분석 4에서는 가구의 가공식품비 지출을 14가지 가공식품(곡물가공품, 빵 및 떡류, 육류가공품, 수산가공품, 유제품, 유지류, 과일가공품, 채소가공품, 당류 및 과자류, 조미식품, 기타식품, 커피 및 차, 주스 및 기타음료, 주류)으로 분류하여 살펴봄.

3.1. 곡물가공품

- 곡물가공품 지출액 결정요인 분석 결과, 가구 소득수준 2~5분위 가구는 1분위 가구보다 곡물가공품 지출액이 컸으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도시 가구보다 농촌가구에서 곡물가공품 지출액이 큼. 만 6세 미만 어린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곡물가공품 지출이 적으며, 만 65세 이상 고령 구성원이 있는 가구와 모자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지출이 많음<표 3-4>.
- 가구주 특성과 곡물가공품 지출액 연관성을 살펴보면, 가구주 교육 수준이 높은 가구와 여성 가구주 가구는 교육 수준이 낮거나 남성 가구주 가구보다 지출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곡물가공품 구입에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3-4>.
- 인터넷·컨텐츠·방송수신료는 가구의 곡물가공품 지출의 유의한 결정요인이 아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는 그 이전보다 가구의 곡물가공품 지출이 컸으나, 추세적으로는 지출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3-4>.

3.2. 빵 및 떡류

- 빵 및 떡류 지출액 결정요인 분석 결과, 곡물가공품과 마찬가지로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와 도시 가구의 지출이 컸으며, 가구소득 수준 2~5분위 가구가 1분위 가구보다 빵 및

떡류 지출액이 큼. 또한 만 6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와 모자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해당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남. 반면 만 65세 고령 구성원이 있는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빵 및 떡류 지출액이 적음<표 3-4>.

- 가구주 특성과 관련한 빵 및 떡류의 지출액을 살펴보면, 가구주가 대학(중퇴) 이상의 교육을 마친 가구와 여성 가구주인 가구의 해당 지출액이 이 보다 교육 수준이 낮거나 남성 가구주인 가구보다 높았음. 또한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의 빵 및 떡류의 지출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표 3-4>.
- 인터넷·컨텐츠·방송수신료는 가구의 빵 및 떡류 지출을 결정하는 데 유의한 결정요인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옴.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해당 품목에 대한 가구의 지출액은 이전 대비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임<표 3-4>.

3.3. 육류가공품

- 다른 가공식품 품목들과 마찬가지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 수준 1분위 가구보다 2~5분위 가구가 육류가공품 지출액이 큼. 도시 가구 여부는 그 가구의 육류가공품 지출액과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음. 만 6세 미만 어린 아동 혹은 만 65세 이상 고령 구성원이 거주하는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육류가공품 지출이 적으며, 모자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지출이 많음<표 3-4>.
- 가구주 특성과 육류가공품 지출액 연관성을 살펴보면, 가구주 교육 수준이 높은 가구가 낮은 가구보다 지출액이 많았고, 남성보다는 여성 가구주 가구일수록, 가구주 연령이 많을수록 지출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표 3-4>.
- 인터넷·컨텐츠·방송수신료는 가구의 육류가공품 지출액 증가와 관련이 있으나 그 정도는 매우 작음.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는 그 이전보다 가구의 육류가공품 지출이 많았고 트렌드 또한 증가하는 추세임<표 3-4>.

3.4. 수산가공품

○ 수산가공품 지출액은 가구원 수, 가구소득과 양(+)의 관계에 있으며, 도시가구가 농촌 가구보다 해당 지출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가구 구성원에 따른 지출액을 살펴보면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수산가공품 지출이 적으며, 만 65세 이상 구성원이 있는 가구와 모자가구가 아닌 가구보다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표 3-4>.

○ 가구주 특성 중 가구의 수산가공품 지출과 관련이 있는 변수는 가구주 연령밖에 없으며,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수산가공품에 더 많이 지출함. 수산가공품 지출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는 이전과 비교해 해당 지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3-4> Tobit 모형 추정 결과: 곡물가공품, 빵 및 떡류, 육류가공품, 수산가공품

변수명	곡물가공품	빵 및 떡류	육류가공품	수산가공품
가구원 수 (명)	4995.4 *** (128.5)	5130.4 *** (110.2)	5733.6 *** (111.6)	3850.6 *** (85.5)
가구 내 만 6세 미만 피양육자 여부 (1=있음, 0=없음)	-2190.1 *** (330.4)	4036.3 *** (356.2)	-2405.1 *** (262.5)	-886.4 *** (238.2)
가구 내 만 65세 이상 고령층 여부 (1=있음, 0=없음)	8776.8 *** (393.0)	-2610.5 *** (274.2)	-3680.8 *** (207.8)	1803.1 *** (242.2)
맞벌이 가구 여부 (1=맞벌이 가구, 0=아님)	-473.1 * (275.0)	-1092.4 *** (248.1)	-628.8 *** (183.7)	-1075.6 *** (189.9)
모자 가구 여부 (1=모자 가구, 0=아님)	3017.4 *** (513.3)	4163.3 *** (598.8)	5927.9 *** (494.2)	1998.5 *** (395.5)
가구 소득 수준				
2분위 (1=예, 0=1분위)	3282.3 *** (322.4)	2485.4 *** (200.8)	1086.5 *** (180.7)	3707.7 *** (193.8)
3분위 (1=예, 0=1분위)	4221.6 *** (371.4)	5592.4 *** (276.0)	2313.5 *** (212.1)	5709.5 *** (240.5)
4분위 (1=예, 0=1분위)	4368.0 *** (390.8)	9486.2 *** (304.7)	3786.9 *** (239.1)	7855.9 *** (257.6)
5분위 (1=예, 0=1분위)	4518.9 *** (436.9)	14982.5 *** (361.0)	5273.4 *** (280.9)	9594.0 *** (288.7)
도시 가구 여부 (1=도시, 0=읍면)	-1644.9 *** (501.6)	2513.1 *** (317.1)	428.4 (300.6)	-2316.2 *** (267.2)

(계속)

변수명	곡물가공품	빵 및 떡류	육류가공품	수산가공품
가구주 교육 수준 (1=대학 중퇴 이상, 0=대학 교육 미만)	-1818.6 *** (243.4)	6695.0 *** (223.9)	810.8 *** (175.5)	193.3 (172.9)
가구주 연령 (만 세)	625.6 *** (10.6)	-59.9 *** (6.9)	-128.4 *** (5.9)	271.2 *** (6.7)
가구주 성별 (1=여성, 0=남성)	-1375.3 *** (9262.9)	2161.3 *** (208.8)	-462.6 *** (162.6)	-279.3 (170.7)
마케팅 노출 (인터넷이용비+컨텐츠구입비+방송수신료, 원)	0.0 (0.0)	0.0 (0.0)	0.0 *** (0.0)	0.0 (0.0)
이상 데이터 더미 (1=2017, 2018년, 0=그 외 연도)	-7371.4 *** (750.2)	2817.2 *** (608.9)	-1882.1 *** (492.5)	2881.0 *** (566.1)
코로나19 (1=2020, 2021년, 0=그 외 연도)	653.1 * (372.8)	1847.7 *** (322.9)	1822.8 *** (248.3)	1044.7 *** (229.3)
트렌드 (연도)	-802.6 *** (47.7)	357.2 *** (42.5)	447.9 *** (32.1)	-298.1 *** (29.8)
상수항	1589392.0 *** (96173.3)	-719795.2 *** (85610.4)	-903305.3 *** (64821.9)	591887.3 *** (60073.7)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p<0.01, **p<0.05. *p<0.1.

3.5. 유제품

- 가구의 유제품 지출액 결정요인 분석 결과, 가구소득 수준 2~5분위 가구는 1분위 가구보다 지출액이 컸음. 그리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농촌 가구보다는 도시 가구의 지출액이 큼. 만 6세 미만 어린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와 모자가구는 아닌 가구보다 유제품 지출이 많으며, 맞벌이 가구와 만 65세 이상 고령 구성원이 있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지출이 적음(표 3-5).
- 가구주 특성과 유제품 지출액 연관성을 살펴보면, 가구주 교육 수준이 높은 가구(대학 중퇴 이상)와 여성 가구주 가구는 교육 수준이 낮거나 남성 가구주 가구보다 유제품 지출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가구주 연령이 많을수록 유제품 구입에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3-5).
- 인터넷·컨텐츠·방송수신료는 가구의 유제품 지출과 유의한 양(+)의 관계에 있으나 그 정도는 크지 않음.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에 전보다 유제품 지출이 증가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유제품 지출 추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표 3-5).

3.6. 유지류

- 가구 특성과 관련한 유지류 지출액 결정요인 분석 결과, 대부분의 가공식품처럼 가구소득 수준 2~5분위 수준인 가구가 1분위인 가구보다 해당 지출액이 컸으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도시 가구인 경우 지출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가구의 유지류 지출은 가구 내 만 6세 미만 아동 유무와 관련이 없었으나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 있거나 모자가구일 경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와 반대로 맞벌이 가구인 경우 아닌 경우보다 가구의 지출이 적음(표 3-5).
- 가구주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가구주가 여성일 때, 가구주 연령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지출액이 높음. 코로나19는 가구의 유지류 지출과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구의 유지류 지출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3-5).

3.7. 과일가공품

- 과일가공품 지출액 결정요인 분석 결과,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 농촌보다는 도시 가구, 그리고 소득수준 1분위 가구보다는 2~5분위 가구가 과일 가공품 지출액이 큰 것으로 나타남. 또한 만 6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와 모자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해당 지출이 컸으며 고령 구성원 존재 여부와 맞벌이 가구 여부는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음(표 3-5).
- 유제품과 유지류와 마찬가지로 가구주가 대학 중퇴 이상의 교육을 마친 가구와 여성 가구주인 가구의 해당 지출액이 이 보다 교육 수준이 낮거나 남성 가구주인 가구보다 높았음. 또한 가구주 나이가 많을수록 과일가공품의 지출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3-5).
- 인터넷·컨텐츠·방송수신료는 가구의 빵 및 떡류 지출을 결정하는 데 유의한 결정요인이 아닌 것으로 분석됨.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해당 품목에 대한 가구의 지출액은 이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지출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표 3-5).

3.8. 채소가공품

-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농촌보다는 도시 가구, 그리고 소득수준 1분위 가구보다는 2~5분위 가구가 채소가공품 지출액이 큰 것으로 나타남. 만 6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지출이 적었으며 가구 내 고령 구성원 존재하는 경우 지출이 큼. 맞벌이 가구 여부와 모자가구 여부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표 3-5>.
- 가구주의 교육 수준은 가구의 채소가공품 지출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주 성별이 여성일 경우 해당 품목의 지출은 큼<표 3-5>.
- 가구의 인터넷·컨텐츠·방송수신료는 그 가구의 채소가공품 지출 증가와 연관성이 있으나 역시 정도는 작음.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해당 품목에 대한 가구의 지출액은 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지출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표 3-5>.

<표 3-5> Tobit 모형 추정 결과: 유제품, 유지류, 과일가공품, 채소가공품

변수명	유제품	유지류	과일가공품	채소가공품
가구원 수 (명)	7218.4 *** (125.7)	1049.2 *** (35.0)	864.9 *** (63.3)	1349.4 *** (53.3)
가구 내 만 6세 미만 피양육자 여부 (1=있음, 0=없음)	22015.9 *** (554.1)	25.5 (103.1)	323.0 ** (140.7)	-506.6 *** (100.6)
가구 내 만 65세 이상 고령층 여부 (1=있음, 0=없음)	-1538.1 *** (319.3)	710.8 *** (90.4)	38.1 (134.5)	497.1 *** (120.9)
맞벌이 가구 여부 (1=맞벌이 가구, 0=아님)	-2608.4 *** (302.5)	-501.2 *** (77.2)	-157.3 (120.5)	15.7 (89.2)
모자 가구 여부 (1=모자 가구, 0=아님)	6081.1 *** (711.2)	466.8 *** (155.4)	677.2 *** (259.5)	148.9 (152.1)
가구 소득 수준				
2분위 (1=예, 0=1분위)	2206.6 *** (250.9)	615.7 *** (88.8)	2113.8 *** (160.1)	1028.0 *** (110.2)
3분위 (1=예, 0=1분위)	4180.4 *** (299.9)	916.9 *** (99.4)	3458.0 *** (205.2)	1884.4 *** (125.6)
4분위 (1=예, 0=1분위)	7117.0 *** (354.3)	1373.5 *** (118.2)	4832.5 *** (237.5)	2396.1 *** (136.5)
5분위 (1=예, 0=1분위)	12191.3 *** (403.9)	1697.6 *** (121.0)	5832.7 *** (293.8)	2639.2 *** (159.5)

(계속)

변수명	유제품	유지류	과일가공품	채소가공품
도시 가구 여부 (1=도시, 0=읍면)	797.4 ** (400.1)	1271.8 *** (116.3)	1657.2 *** (184.7)	595.8 *** (129.5)
가구주 교육 수준 (1=대학 중퇴 이상, 0=대학 교육 미만)	3713.6 *** (264.2)	653.1 *** (71.8)	1189.4 *** (109.4)	-49.6 (89.7)
가구주 연령 (만 세)	92.9 *** (7.8)	101.0 *** (3.1)	105.4 *** (6.2)	91.5 *** (3.6)
가구주 성별 (1=여성, 0=남성)	548.9 ** (228.2)	221.4 *** (73.5)	585.5 *** (123.0)	979.3 *** (92.5)
마케팅 노출 (인터넷이용비+컨텐츠구입비+방송수신료, 원)	0.0 *** (0.0)	0.0 (0.0)	0.0 (0.0)	0.0 ** (0.0)
이상 데이터 더미 (1=2017, 2018년, 0=그 외 연도)	1885.4 *** (594.6)	-2142.5 *** (232.9)	16668.1 *** (959.2)	8306.1 *** (626.9)
코로나19 (1=2020, 2021년, 0=그 외 연도)	2776.8 *** (366.2)	691.8 *** (101.8)	-1397.1 *** (214.7)	239.2 ** (121.5)
트렌드 (연도)	-247.9 *** (50.8)	-61.5 *** (12.9)	298.5 *** (27.6)	-79.5 *** (15.4)
상수항	495856.3 *** (102393.5)	115002.4 *** (26042.9)	-614410.0 *** (56064.5)	150457.7 *** (31046.4)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p<0.01, **p<0.05. *p<0.1.

3.9. 당류 및 과자류

○ 당류 및 과자류 지출 결정요인 분석 결과,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와 도시보다는 농촌 가구가 지출이 크며, 가구소득 수준 3~5분위 가구가 1분위 가구보다 당류 및 과자류 지출액이 큼. 또한 만 6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와 모자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해당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남. 반면 만 65세 고령 구성원이 있는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당류 및 과자류 지출액이 적음<표 3-6>.

○ 가구주 특성과 관련한 당류 및 과자류의 지출액을 살펴보면, 가구주가 대학 중퇴 이상의 교육을 마친 가구가 이보다 적은 교육을 마친 가구주 가구보다 지출이 컸고,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당류 및 과자류 지출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가구주의 성별은 당류 및 과자류 지출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음<표 3-6>.

- 인터넷·컨텐츠·방송수신료와 코로나19 영향은 가구의 당류 및 과자류 지출에 유의한 결정요인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옴. 다만 시간에 따라 가구의 당류 및 과자류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3-6>.

3.10. 조미식품

- 조미식품 지출액 결정요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소득 수준 2~5분위),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도시보다는 농촌일수록 지출액이 높음. 또한, 가구 내 만 6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경우 아닌 경우보다 조미식품 지출액이 낮았으며, 가구 내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 있는 경우와 모자가구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조미식품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남<표 3-6>.
- 가구주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조미식품을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구주 연령이 많을수록, 가구주가 여성일수록 조미식품 지출이 큼. 코로나19 이후 가구의 조미식품 지출액은 증가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출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표 3-6>.

3.11. 기타식품

- 죽, 스프, 이유식, 김치, 반찬류, 즉석동결식품 등의 기타식품은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 소득 수준이 1분위보다는 2~5분위이면, 그리고 농촌 가구보다 도시 가구일수록 가구의 지출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만 6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거나 모자가구인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지출이 더 많음. 만 65세 이상 고령층 구성원과 거주하거나 맞벌이 가구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지출이 적음.

○ 가구주 특성 요인을 살펴보면 가구주 교육 수준이 대학 중퇴 이상이면 교육 수준이 이보다 낮은 가구보다 기타식품 지출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가구주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 가구주일수록 해당 지출액은 낮음. 코로나19 이후 가구의 기타식품 지출액은 증가하였으며 증가추세를 보임<표 3-6>.

3.12. 커피 및 차

○ 커피 및 차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2~5분위일수록 가구 지출액이 큼. 또한 맞벌이 부부일 경우 커피 및 차 지출이 외벌이 부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 외 가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가구 내 만 6세 미만 피양육자 혹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 존재 여부와 모자가구 여부의 변수들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표 3-6>.

○ 가구주의 교육 수준이 대학 중퇴 이상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커피 및 차 지출이 컸고.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인 경우 지출액이 적음. 코로나19는 가구의 커피 및 차 지출액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출 추세는 감소세임<표 3-6>.

<표 3-6> Tobit 모형 추정 결과: 당류 및 과자류, 조미식품, 기타식품, 커피 및 차

변수명	당류 및 과자류	조미식품	기타식품	커피 및 차
가구원 수 (명)	8767.9 *** (114.0)	2577.2 *** (91.1)	3845.9 *** (128.7)	1238.5 *** (65.5)
가구 내 만 6세 미만 피양육자 여부 (1=있음, 0=없음)	3996.5 *** (384.6)	-1074.7 *** (202.7)	1289.1 *** (466.3)	285.5 (186.3)
가구 내 만 65세 이상 고령층 여부 (1=있음, 0=없음)	-4701.1 *** (257.3)	5243.7 *** (320.6)	-3933.6 *** (322.5)	-278.0 (172.2)
맞벌이 가구 여부 (1=맞벌이 가구, 0=아님)	-1236.6 *** (256.9)	197.7 (205.8)	-1294.6 *** (287.0)	-598.4 *** (145.9)
모자 가구 여부 (1=모자 가구, 0=아님)	8810.4 *** (611.5)	657.6 ** (294.3)	4273.3 *** (563.3)	350.4 (289.5)
가구 소득 수준				
2분위 (1=예, 0=1분위)	238.4 (203.9)	3349.9 *** (254.4)	908.2 *** (269.1)	1221.0 *** (155.5)
3분위 (1=예, 0=1분위)	1923.7 *** (261.4)	4814.7 *** (280.4)	1691.4 *** (320.9)	2189.1 *** (174.6)

(계속)

변수명	당류 및 과자류	조미식품	기타식품	커피 및 차
4분위 (1=예, 0=1분위)	5207.3 *** (303.8)	5786.6 *** (303.1)	4146.9 *** (356.9)	3668.7 *** (197.2)
5분위 (1=예, 0=1분위)	7539.7 *** (356.6)	6014.5 *** (322.8)	7518.1 *** (433.0)	4846.8 *** (239.5)
도시 가구 여부 (1=도시, 0=읍면)	-1195.6 *** (380.6)	-5258.4 *** (417.5)	4623.8 *** (430.1)	-110.6 (204.0)
가구주 교육 수준 (1=대학 중퇴 이상, 0=대학 교육 미만)	2116.1 *** (230.2)	-1483.5 *** (177.0)	3745.4 *** (260.6)	819.7 *** (139.8)
가구주 연령 (만 세)	-223.5 *** (6.8)	386.9 *** (7.9)	-110.0 *** (8.4)	-49.8 *** (4.5)
가구주 성별 (1=여성, 0=남성)	92.0 (201.5)	747.8 *** (201.8)	-1308.3 *** (262.5)	-775.9 *** (136.8)
마케팅 노출 (인터넷이용비+컨텐츠구입비+방송수신료, 원)	0.0 (0.0)	0.0 (0.0)	0.0 *** (0.0)	0.0 *** (0.0)
이상 데이터 더미 (1=2017, 2018년, 0=그 외 연도)	2847.7 *** (588.4)	-550.3 (598.6)	2715.3 *** (703.8)	-967.5 ** (437.3)
코로나19 (1=2020, 2021년, 0=그 외 연도)	-108.6 (326.5)	3967.8 *** (272.5)	2295.6 *** (433.7)	1026.1 *** (200.6)
트렌드 (연도)	497.7 *** (42.2)	-531.5 *** (34.9)	1612.6 *** (53.6)	-62.6 ** (25.2)
상수항	-990803.1 *** (85196.6)	1057281.0 *** (70387.5)	-3249007.0 *** (108037.4)	130332.5 ** (50753.3)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p<0.01, **p<0.05. *p<0.1.

3.13. 쥬스 및 기타음료

○ 가구의 쥬스 및 기타음료 지출액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농촌보다는 도시일수록 지출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가구 내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거나 모자가구이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쥬스 및 기타음료 지출이 큼. 가구 내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있거나 맞벌이 가구이면 해당 품목의 지출은 아닌 경우보다 적음<표 3-7>.

○ 가구주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쥬스 및 기타음료 지출도 많은 반면, 가구주 연령이 많거나 여성일 때 지출이 적음. 코로나19는 해당 품목 지출 결정에 유의한 연관성이 없으며, 전반적으로 지출은 증가추세에 있음<표 3-7>.

3.14. 주류

○ 가구의 주류 지출액은 가구원 수, 가구 내 만 6세 미만 아동 혹은 65세 이상 고령 구성원 존재 여부와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맞벌이 가구이거나 가구소득이 2~5분위 수준이면 외벌이 가구와 소득 1분위 가구보다 주류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반대로 모자가구이거나 비도시 가구보다는 도시 가구일수록 주류 지출은 적음<표 3-7>.

○ 가구주의 교육 수준이 대학 중퇴 이상, 남성보다는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해당 가구의 주류 지출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에 전보다 주류 지출액이 증가하였으며 트렌드도 증가추세임<표 3-7>.

<표 3-7> Tobit 모형 추정 결과: 주스 및 기타음료, 주류

변수명	주스 및 기타음료	주류
가구원 수 (명)	1838.8 *** (75.6)	-94.2 (130.1)
가구 내 만 6세 미만 피양육자 여부 (1=있음, 0=없음)	1703.4 *** (255.3)	602.0 (401.3)
가구 내 만 65세 이상 고령층 여부 (1=있음, 0=없음)	-1637.2 *** (191.2)	-188.6 (320.9)
맞벌이 가구 여부 (1=맞벌이 가구, 0=아님)	-318.4 * (178.4)	686.0 ** (295.7)
모자 가구 여부 (1=모자 가구, 0=아님)	1104.8 *** (410.1)	-997.8 * (523.7)
가구 소득 수준		
2분위 (1=예, 0=1분위)	1654.1 *** (162.6)	2828.5 *** (304.6)
3분위 (1=예, 0=1분위)	2734.2 *** (194.7)	5302.0 *** (353.5)
4분위 (1=예, 0=1분위)	4673.4 *** (236.2)	7322.6 *** (412.9)
5분위 (1=예, 0=1분위)	7163.6 *** (256.0)	9615.6 *** (460.9)
도시 가구 여부 (1=도시, 0=읍면)	880.5 *** (246.1)	-1082.4 ** (496.3)
가구주 교육 수준 (1=대학 중퇴 이상, 0=대학 교육 미만)	1138.5 *** (164.8)	-3488.4 *** (274.2)

(계속)

변수명	주스 및 기타음료	주류
가구주 연령 (만 세)	-137.5 *** (5.4)	-216.5 *** (9.4)
가구주 성별 (1=여성, 0=남성)	-545.1 *** (155.0)	-6465.5 *** (278.5)
마케팅 노출 (인터넷이용비+컨텐츠구입비+방송수신료, 원)	0.0 *** (0.0)	0.0 *** (0.0)
이상 데이터 더미 (1=2017, 2018년, 0=그 외 연도)	1366.6 *** (416.5)	-323.2 (678.8)
코로나19 (1=2020, 2021년, 0=그 외 연도)	-309.1 (244.7)	1782.5 *** (421.8)
트렌드 (연도)	342.8 *** (32.0)	457.0 *** (50.7)
상수항	-680716.3 *** (64538.5)	-902107.3 *** (102159.9)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p<0.01, **p<0.05. *p<0.1.

4. 주요 가공식품 품목별 지출액 결정요인 분석

○ 올해 주요 가공식품으로 육류가공품, 유제품, 주류를 선정하여 육류가공품 3품목 (소시지, 햄 및 베이컨, 기타 육류가공품)〈표 3-8〉, 유제품 5품목 (우유, 요거트, 치즈, 분유, 두유)〈표 3-10〉, 그리고 주류 5품목(소주, 와인 및 과일주, 맥주, 막걸리, 양주)〈표 3-12〉에 대한 가구의 지출액 결정요인을 분석함.

4.1. 육류가공품

○ 육류가공품 지출액 결정요인 분석 결과, 소시지, 햄 및 베이컨, 기타 육류가공품 모두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은(2~5분위) 가구가 낮은(1분위) 가구보다 지출액이 큼. 한편, 도시 가구는 농촌 가구보다 소시지 지출액이 낮은 반면 기타육류가공품 지출액이 높음〈표 3-8〉.

- 만 6세 미만 아동 혹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거주하면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소시지, 햄 및 베이컨, 기타육류가공품의 지출액이 적으며 모자가구이면 큰 것으로 나타남. 맞벌이 가구 여부는 가구의 소시지 지출액에만 유의한 영향을 끼침<표 3-8>.
- 가구주 특성별로 보면, 가구주가 대학 중퇴 이상의 교육을 마쳤는지는 그 가구의 기타육류가공품의 지출액 증가와 관련이 있음.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소시지, 햄 및 베이컨, 기타육류가공품 지출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가구주 성별은 소시지 지출액과 관련이 있으며 가구주가 여성인 가구가 남성인 가구보다 소시지 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표 3-8>.
- 육류가공품 3품목 모두 인터넷·컨텐츠·방송수신료와 양(+)의 관계에 있음. 코로나19는 기타육류가공품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소시지와 기타육류가공품이 지출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햄 및 베이컨은 감소 추세에 있음<표 3-8>.

<표 3-8> Tobit 모형 추정 결과: 육류가공품(소시지, 햄 및 베이컨, 기타육류가공품)

변수명	소시지	햄 및 베이컨	기타육류가공품
가구원 수 (명)	1181.5 *** (21.7)	2517.1 *** (293.5)	4083.6 *** (74.3)
가구 내 만 6세 미만 피양육자 여부 (1=있음, 0=없음)	-169.4 *** (53.9)	-1502.0 *** (233.9)	-1580.7 *** (207.4)
가구 내 만 65세 이상 고령층 여부 (1=있음, 0=없음)	-827.3 *** (58.5)	-1405.5 *** (195.9)	-2763.7 *** (197.1)
맞벌이 가구 여부 (1=맞벌이 가구, 0=아님)	-141.2 *** (42.0)	-191.6 (99.9)	-227.5 (159.0)
모자 가구 여부 (1=모자 가구, 0=아님)	1225.3 *** (97.0)	3007.0 *** (472.8)	4096.1 *** (345.4)
가구 소득 수준			
2분위 (1=예, 0=1분위)	227.4 *** (59.4)	746.9 *** (200.9)	1648.2 *** (184.5)
3분위 (1=예, 0=1분위)	326.0 *** (63.4)	1134.8 *** (225.7)	3000.0 *** (210.7)
4분위 (1=예, 0=1분위)	515.7 *** (67.1)	1431.7 *** (216.3)	4161.9 *** (229.1)
5분위 (1=예, 0=1분위)	410.7 *** (70.8)	1683.8 *** (283.4)	5481.0 *** (257.4)

(계속)

변수명	소시지	햄 및 베이컨	기타육류가공품
도시 가구 여부 (1=도시, 0=읍면)	-135.2 * (68.3)	-201.8 (138.4)	779.4 *** (271.7)
가구주 교육 수준 (1=대학 중퇴 이상, 0=대학 교육 미만)	19.7 (40.5)	-49.8 (122.8)	785.7 *** (144.6)
가구주 연령 (만 세)	-66.9 *** (1.6)	-85.7 *** (10.9)	-60.7 *** (5.0)
가구주 성별 (1=여성, 0=남성)	-181.0 *** (45.7)	-74.3 (92.1)	-201.3 (159.2)
마케팅 노출 (인터넷이용비+컨텐츠구입비+방송수수료, 원)	0.0 *** (0.0)	0.0 *** (0.0)	0.0 (0.0)
이상 데이터 더미 (1=2017, 2018년, 0=그 외 연도)	-1118.3 *** (117.6)	-2425.3 *** (494.6)	-4409.6 *** (426.7)
코로나19 (1=2020, 2021년, 0=그 외 연도)	-55.5 (60.5)	-249.1 (152.9)	1742.1 *** (231.2)
트렌드 (연도)	95.1 *** (7.8)	-139.5 *** (20.8)	483.2 *** (29.6)
상수항	-191308.1 *** (15767.3)	278829.4 *** (41338.8)	-980048.2 *** (59732.4)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p<0.01, **p<0.05. *p<0.1.

○ 위의 토빗 모형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가구 내 만 6세 미만 피양육자 여부, 가구 내 만 65세 이상 고령층 여부, 가구 소득 수준, 코로나19 전후에 대한 가구 지출액 한계효과를 산출함.

-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에서 조리·섭취하는 경우가 늘면서 코로나 이전에 비해 가구 당 지출액 변화가 가장 큰 육류가공품은 기타육류가공품이었음(+1,107원). 가구 내 만 6세 미만 피양육자가 있거나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 보다 기타육류가공품을 각각 1,004원, 1,756원 적게 지출하였음. 소시지의 경우 가구 소득 4분위인 가구가 1분위 가구보다 258원 많이 지출하였고, 5분위 가구는 이보다 적은 204원을 더 지출함. 햄 및 베이컨은 838원, 기타육류가공품은 3,475원 더 지출함.

〈표 3-9〉 육류가공품 지출 한계효과

변수명	소시지	햄 및 베이컨	기타육류가공품
가구 내 만 6세 미만 피양육자 여부 (1=있음, 0=없음)	-85.8 *** (27.3)	-759.1 *** (88.7)	-1004.2 *** (131.9)
가구 내 만 65세 이상 고령층 여부 (1=있음, 0=없음)	-418.9 *** (29.4)	-710.3 *** (71.2)	-1755.9 *** (124.7)
가구 소득 수준			
2분위 (1=예, 0=1분위)	110.8 *** (28.7)	357.0 *** (81.5)	964.1 *** (106.3)
3분위 (1=예, 0=1분위)	160.3 *** (30.9)	551.6 *** (87.1)	1807.7 *** (123.7)
4분위 (1=예, 0=1분위)	258.4 *** (33.2)	704.7 *** (80.4)	2569.7 *** (138.4)
5분위 (1=예, 0=1분위)	203.7 *** (34.8)	837.5 *** (104.2)	3474.8 *** (160.7)
코로나19 (1=2020, 2021년, 0=그 외 연도)	-28.1 (30.6)	-125.9 * 73.5	1106.8 *** (146.7)

4.2. 유제품

- 분유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가구의 지출액이 가구원 수 그리고 소득수준(2~5분위)과 양(+)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도시 가구이면 비도시 가구보다 요거트와 치즈 지출액이 높았고 두유 지출액이 낮음〈표 3-10〉.
- 가구 내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모든 유제품 품목의 지출이 큼. 만 65세 이상 고령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우유와 치즈 지출이 적고 요거트 지출이 높음.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보다 우유, 요거트, 치즈의 지출이 적고 두유 지출이 크며, 모자가구일수록 우유, 요거트, 치즈 지출이 큼〈표 3-10〉.
- 가구주 특성별로 보면, 가구주 교육 수준이 대학 중퇴 이상이면 아닌 가구주 가구보다 우유, 요거트, 치즈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남. 또한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요거트와 두유 지출이 많고 치즈 지출이 적음. 여성 가구주 가구는 남성 가구주 가구보다 우유, 요거트, 치즈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남〈표 3-10〉.

○ 코로나19는 가구의 유제품 개별 품목 지출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우유, 분유, 두유는 감소 추세에 요거트와 치즈는 지출 증가추세에 있음<표 3-10>.

<표 3-10> Tobit 모형 추정 결과: 유제품(우유, 요거트, 치즈, 분유, 두유)

변수명	우유	요거트	치즈	분유	두유
가구원 수 (명)	3948.3 *** (77.3)	1608.3 *** (61.0)	1202.1 *** (29.0)	-3118.1 *** (1038.7)	635.1 *** (45.7)
가구 내 만 6세 미만 피양육자 여부 (1=있음, 0=없음)	6567.3 *** (285.9)	2898.9 *** (169.6)	1791.2 *** (81.1)	121483.3 *** (3853.8)	1156.2 *** (144.3)
가구 내 만 65세 이상 고령층 여부 (1=있음, 0=없음)	-1401.9 *** (193.5)	281.7 * (162.3)	-831.3 *** (85.6)	2869.5 (3409.7)	196.6 (128.3)
맞벌이 가구 여부 (1=맞벌이 가구, 0=아님)	-560.9 *** (178.1)	-310.2 ** (133.4)	-320.7 *** (62.1)	-7325.8 *** (2191.6)	198.4 ** (100.7)
모자 가구 여부 (1=모자 가구, 0=아님)	3945.9 *** (436.0)	1525.5 *** (276.9)	1216.0 *** (140.3)	-13025.3 ** (5408.1)	434.9 (270.1)
가구 소득 수준					
2분위 (1=예, 0=1분위)	845.1 *** (164.5)	1499.8 *** (139.9)	1058.7 *** (91.7)	5138.7 (3794.7)	1036.5 *** (148.3)
3분위 (1=예, 0=1분위)	1370.9 *** (191.2)	2690.9 *** (160.2)	1689.4 *** (95.1)	7806.9 ** (3881.4)	1404.9 *** (146.3)
4분위 (1=예, 0=1분위)	2387.6 *** (213.1)	3736.6 *** (189.3)	2084.2 *** (101.4)	10164.9 ** (4050.1)	1777.2 *** (161.1)
5분위 (1=예, 0=1분위)	4186.0 *** (245.0)	5279.1 *** (218.7)	2543.5 *** (109.6)	13976.1 *** (4241.5)	2279.0 *** (174.2)
도시 가구 여부 (1=도시, 0=읍면)	266.3 (224.2)	488.4 *** (162.0)	892.9 *** (104.6)	760.5 (4551.2)	-732.5 *** (159.4)
가구주 교육수준 (1=대학 중퇴 이상, 0=대학 교육 미만)	1472.4 *** (154.6)	725.7 *** (122.1)	1391.1 *** (58.7)	-1328.2 (1985.6)	-89.8 (97.9)
가구주 연령 (만 세)	-6.5 (4.7)	64.6 *** (4.2)	-34.7 *** (2.3)	-318.6 *** (91.8)	53.6 *** (4.1)
가구주 성별 (1=여성, 0=남성)	376.8 *** (145.2)	1178.2 *** (125.1)	512.8 *** (66.9)	-7017.2 ** (2785.8)	98.0 (110.6)
마케팅 노출 (인터넷이용비+컨텐츠구입비+방송수신료, 원)	-0.0 *** (0.0)	-0.0 (0.0)	0.0 (0.0)	0.0 (0.0)	0.0 * (0.0)
이상 데이터 더미 (1=2017, 2018년, 0=그 외 연도)	-1713.9 *** (330.0)	-2417.0 *** (287.2)	-1930.1 *** (172.0)	-11198.7 *** (4350.7)	-3894.0 *** (290.4)
코로나19 (1=2020, 2021년, 0=그 외 연도)	-135.2 (212.9)	236.3 (171.1)	-12.4 (90.5)	102.2 (3636.3)	18.0 (148.9)
트렌드 (연도)	-339.2 *** (29.3)	-44.1 * (23.7)	156.2 *** (11.7)	-1431.2 *** (466.6)	-173.6 *** (20.1)
상수항	682198.6 *** (59046.3)	81969.8 * (47737.2)	-319710.5 *** (23676.7)	2734409.0 *** (939683.1)	342666.6 *** (40520.8)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p<0.01, **p<0.05. *p<0.1.

○ 유제품 지출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의 지출액 차이는 분유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5,270원). 우유 지출액 차이 또한 4,990원으로 높은 편임. 우유와 요거트는 소득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의 지출액 차이가 각각 3,223원, 3,446원으로 유제품 중 지출액 격차가 큰 편으로 나타남. 유제품의 코로나19 전후 지출액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표 3-11>.

〈표 3-11〉 유제품 지출 한계효과

변수명	우유	요거트	치즈	분유	두유
가구 내 만 6세 미만 피양육자 여부 (1=있음, 0=없음)	4990.1 ^{**} *	1893.5 ^{**} *	816.6 [*] *	5269.6 [*] *	456.2 [*] *
	(215.4)	(111.9)	(36.8)	(186.5)	(56.5)
가구 내 만 65세 이상 고령층 여부 (1=있음, 0=없음)	-1065.2 ^{**} *	184.0 [*]	-379.0 [*] *	124.5	77.6
	(146.9)	(106.1)	(39.0)	(147.9)	(50.7)
가구 소득 수준					
2분위 (1=예, 0=1분위)	622.3 ^{**} *	884.6 ^{**} *	404.3 [*] *	195.8	370.3 [*] *
	(121.0)	(81.6)	(34.0)	(140.9)	(52.1)
3분위 (1=예, 0=1분위)	1017.0 ^{**} *	1642.1 ^{**} *	683.1 [*] *	306.0 [*] *	513.6 [*] *
	(141.9)	(96.0)	(36.5)	(145.3)	(52.0)
4분위 (1=예, 0=1분위)	1796.2 ^{**} *	2345.7 ^{**} *	872.5 [*] *	408.7 [*] *	664.7 [*] *
	(160.6)	(116.2)	(40.3)	(154.5)	(58.8)
5분위 (1=예, 0=1분위)	3223.2 ^{**} *	3446.4 ^{**} *	1107.2 [*] *	585.5 [*] *	878.7 [*] *
	(189.9)	(142.1)	(45.8)	(168.7)	(65.8)
코로나19 (1=2020, 2021년, 0=그 외 연도)	-102.7 (161.8)	154.3 (111.7)	-5.7 (41.2)	4.4 (157.7)	7.1 (58.7)

4.3. 주류

- 가구의 주류 지출액 결정요인 분석 결과, 모든 품목에서 가구 소득 수준 2~5분위인 가구가 1분위 가구보다 지출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소주, 맥주, 막걸리 지출액이 높고 와인 및 과일주와 양주 지출액이 낮음. 도시 가구이면 비도시 가구보다 와인 및 과일주와 양주 지출이 많고 소주 지출이 적음<표 3-12>.
- 가구 내 아동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소주, 막걸리 지출이 적음.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 있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소주, 막걸리 지출이 많고 맥주 지출이 적음<표 3-12>.
- 가구주가 대학 중퇴 이상의 교육을 마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와인 및 과일주, 양주 지출이 많은 반면, 소주, 맥주, 막걸리 지출이 적음.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와인 및 과일주, 맥주, 양주의 지출이 감소하고 막걸리 지출이 증가함. 또한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와인 및 과일주를 제외한 모든 주종에서 남성인 경우보다 지출이 적음<표 3-12>.
- 코로나19 발생은 가구의 소주, 와인 및 과일주, 막걸리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막걸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 추세를 소주와 맥주는 증가추세를 보임<표 3-12>.

<표 3-12> Tobit 모형 추정 결과: 주류(소주, 와인 및 과일주, 맥주, 막걸리, 양주)

변수명	소주	와인 및 과일주	맥주	막걸리	양주
가구원 수 (명)	163.5 ** (59.1)	-466.6 *** (142.0)	677.3 *** (97.7)	375.5 *** (48.2)	-3546.6 *** (518.9)
가구 내 만 6세 미만 피양육자 여부 (1=있음, 0=없음)	-610.1 *** (169.3)	-229.2 (373.6)	818.9 ** (307.7)	-843.2 *** (128.5)	-566.7 (1344.9)
가구 내 만 65세 이상 고령층 여부 (1=있음, 0=없음)	261.7 ** (161.5)	-214.3 (430.3)	-2385.1 *** (265.7)	371.1 ** (147.9)	874.1 (1475.7)
맞벌이 가구 여부 (1=맞벌이 가구, 0=아님)	350.3 ** (132.1)	-68.5 (301.2)	592.4 ** (224.2)	474.2 *** (101.8)	-2606.1 ** (1068.9)
모자 가구 여부 (1=모자 가구, 0=아님)	300.2 (285.7)	-1329.0 ** (721.7)	-710.4 * (419.1)	576.2 ** (236.8)	-2732.3 (2966.5)

(계속)

변수명	소주	와인 및 과일주	맥주	막걸리	양주
가구 소득 수준					
2분위 (1=예, 0=1분위)	1526.0 *** (180.2)	4923.3 *** (552.2)	3321.3 *** (272.6)	527.9 *** (136.9)	8499.2 *** (1863.9)
3분위 (1=예, 0=1분위)	1974.9 *** (199.7)	6642.3 *** (612.1)	5322.3 *** (296.7)	1063.4 *** (163.3)	14119.8 *** (2018.1)
4분위 (1=예, 0=1분위)	1966.6 *** (205.3)	9430.8 *** (740.6)	7058.8 *** (335.0)	1254.8 *** (168.8)	18566.2 *** (2198.4)
5분위 (1=예, 0=1분위)	1639.4 *** (221.7)	12693.1 *** (895.3)	8163.9 *** (353.0)	1207.7 *** (174.1)	27854.9 *** (2533.5)
도시 가구 여부 (1=도시, 0=읍면)	-1977.3 *** (237.5)	3440.9 *** (584.6)	-426.9 (400.0)	-144.5 (162.8)	3663.3 * (2076.9)
가구주 교육 수준 (1=대학 중퇴 이상, 0=대학 교육 미만)	-4577.8 *** (129.9)	4039.5 *** (354.1)	-1801.3 *** (210.3)	-1164.6 *** (102.5)	3147.1 *** (995.3)
가구주 연령 (만 세)	6.5 (4.4)	-209.1 *** (14.4)	-351.6 *** (8.3)	60.5 *** (4.1)	-505.0 *** (46.8)
가구주 성별 (1=여성, 0=남성)	-4012.0 *** (148.6)	186.4 (357.9)	-3375.0 *** (223.3)	-1825.7 *** (119.7)	-8424.8 *** (1382.7)
마케팅 노출 (인터넷이용비+컨텐츠구입비+방송수신료, 원)	0.0 *** (0.0)	0.0 *** (0.0)	0.0 *** (0.0)	0.0 ** (0.0)	0.0 *** (0.0)
이상 데이터 더미 (1=2017, 2018년, 0=그 외 연도)	-2884.2 *** (313.5)	-9063.5 *** (1005.5)	-1327.3 *** (519.5)	-3136.6 *** (274.5)	-18170.6 *** (2464.8)
코로나19 (1=2020, 2021년, 0=그 외 연도)	541.3 *** (194.9)	1657.5 *** (490.3)	-120.4 (323.2)	704.2 *** (157.4)	-1266.7 (1637.7)
트렌드 (연도)	87.1 *** (24.2)	51.8 (62.3)	443.9 *** (40.0)	-168.3 *** (19.4)	-109.5 (215.8)
상수항	-173583.7 *** (48718.6)	-124002.4 (125653.8)	-880929.2 *** (80691.6)	331840.8 *** (39140.2)	167350.1 (434692.7)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p<0.01, **p<0.05. *p<0.1.

○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 있는 가구와 아닌 가구의 지출액 차이를 주류별로 살펴보면 맥주가 1,254원으로 가장 큼. 소주는 소득 3분위 가구가 소득 1분위 가구와 지출액 차이가(944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4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는 이보다 적은 940원, 774원이었음. 코로나19 이후 가구의 소주와 막걸리 지출액이 268원, 224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혼술 증가세에 따라 와인 및 과일주 지출액도 코로나19 이후 252원 증가하였음.

〈표 3-13〉 주류 지출 한계효과

변수명	소주	와인 및 과일주	맥주	막걸리	양주
가구 내 만 6세 미만 피양육자 여부 (1=있음, 0=없음)	-301.5 *** (83.6)	-34.8 (56.8)	430.6 *** (161.8)	-268.5 *** (40.6)	-23.9 (56.8)
가구 내 만 65세 이상 고령층 여부 (1=있음, 0=없음)	129.4 (79.8)	-32.6 (65.5)	1254.2 *** (139.3)	118.2 ** (46.9)	36.9 (62.3)
가구 소득 수준					
2분위 (1=예, 0=1분위)	717.4 *** (83.7)	472.8 *** (49.5)	1512.6 *** (121.8)	154.6 *** (39.6)	189.6 *** (39.2)
3분위 (1=예, 0=1분위)	944.1 *** (94.0)	695.2 *** (57.4)	2537.2 *** (137.4)	324.1 *** (48.8)	374.2 *** (48.7)
4분위 (1=예, 0=1분위)	939.8 *** (96.6)	1132.6 *** (80.4)	3495.3 *** (162.6)	387.9 *** (51.0)	564.1 *** (62.0)
5분위 (1=예, 0=1분위)	774.0 *** (103.9)	1782.2 *** (115.8)	4138.0 *** (175.9)	372.1 *** (52.7)	1123.8 *** (98.6)
코로나19 (1=2020, 2021년, 0=그 외 연도)	267.5 *** (96.3)	252.0 *** (74.0)	-63.3 (170.0)	224.3 *** (49.8)	-53.5 (69.4)

4

2022년 가구의 가공식품 지출 동향 및 2023년 지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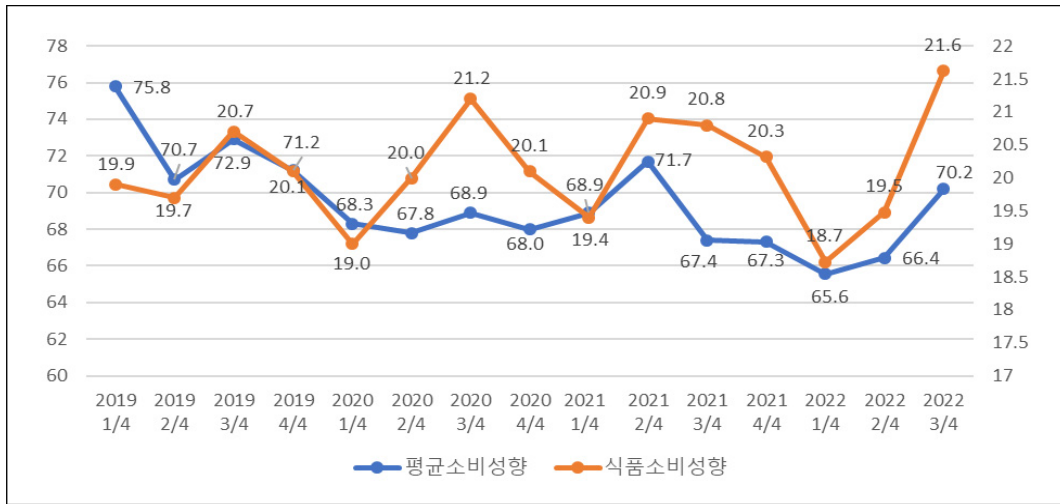
1. 2022년 가구의 가공식품 지출 동향

1.1. 2022년 분기별 소비성향 변화 추이

- 소비성향은 소득에 대한 소비지출의 비율을 나타내며, 소비성향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가계의 소비가 회복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음. 2022년 1분기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65.6%로 2021년 1분기와 비교할 때 3.3%p 하락하여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소비성향을 기록함. 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진행되면서 평균소비성향은 2분기 66.4%, 3분기 70.2%로 빠르게 상승함.
- 2022년 1분기 식품소비성향은 18.7%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인 2019년에 비해 1.2%p 하락하고 코로나19 1차 유행이 시작된 2020년 1분기의 19.0%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2분기 19.5%, 3분기 21.6%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임.

〈그림 4-1〉 평균소비성향과 식품소비성향 변화

단위: %



주: 평균소비성향과 식품소비성향은 각각 소비지출액과 식품비 지출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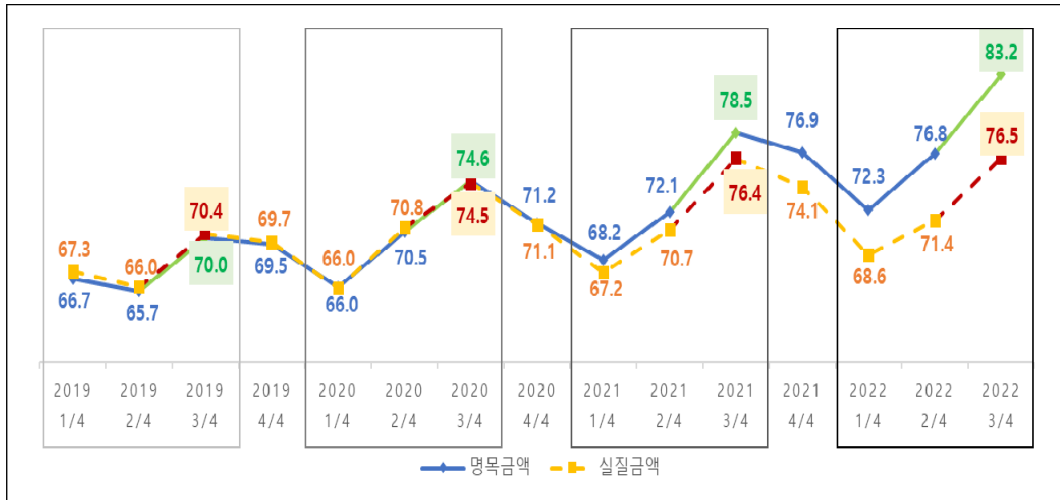
1.2. 2022년 분기별 식품비 지출 동향

- 2022년 가구당 월평균 식품비 지출액(명목)은 1분기 72만 3천 원, 2022년 2분기 76만 8천 원, 3분기 83만 2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0%, 6.5%, 6.0% 증가함. 2019년에 비해서는 1분기 8.4, 2분기 16.9%, 3분기 18.9% 증가하여 가구당 월평균 식품비 지출액의 증가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1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가구의 월평균 식품비 지출액은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2022년 연도별 1분기 대비 3분기 식품비 지출액 변화를 비교해보면 지출액이 점점 가파르게 증가함. 2022년 3분기 가구의 월평균 지출액은 83만 2천 원으로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지출 규모를 나타냄.
- 반면 명목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실질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022년 가구당 월평균 실질 식품비 지출액은 1분기 68만 6천 원, 2분기 71만 4천 원, 3분기 76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각각 2.1%, 1.1%, 0.1% 증가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산출됨. 가구의 명목 식품비 지출액과 실질 식품비 지출액은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 유사한 추이를 보이다가 이후 점점 격차가 커지는 모습을 보이는 데, 이는 식품 소비자물가지수가 2021년 1분기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그림 4-2〉 분기별 가구당 월평균 식품비 지출액 추이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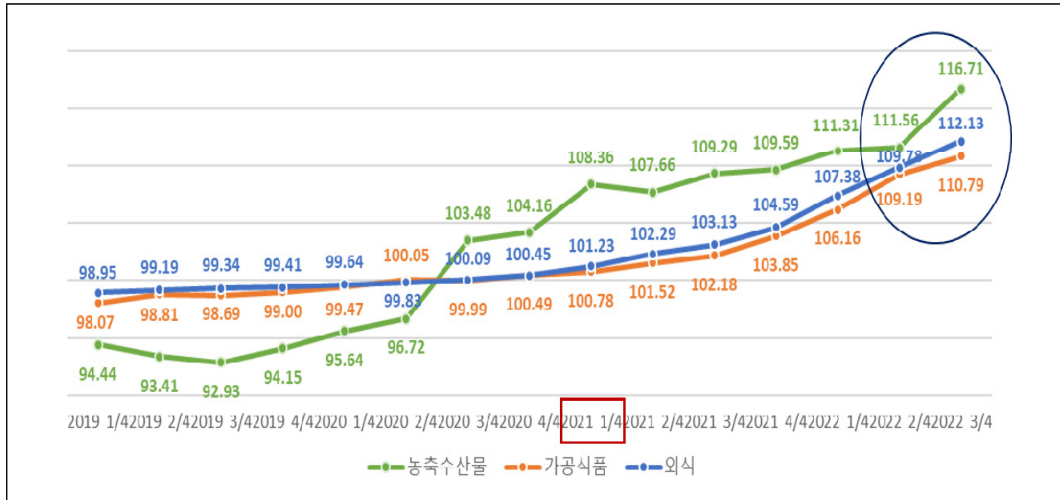
주: 실질금액은 명목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디플레이트한 것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소비자물가지수를 식료품 지출목적인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으로 구분하면, 농축수산물의 물가지수는 가공식품이나 외식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21년 들어 완화되었으나 2022년 3분기에 다시 빠르게 상승함. 가공식품과 외식 소비자물가지수는 2021년 상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꾸준한 상승 추세를 유지함.

○ 2022년 3분기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지수는 2분기 대비 각각 1.5%, 2.1% 상승하였고, 농축수산물 물가지수의 경우 4.6% 상승해 큰 상승폭을 보임. 전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농축수산물은 6.8%,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지수는 각각 8.4%, 8.7% 상승함.

〈그림 4-3〉 식품품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202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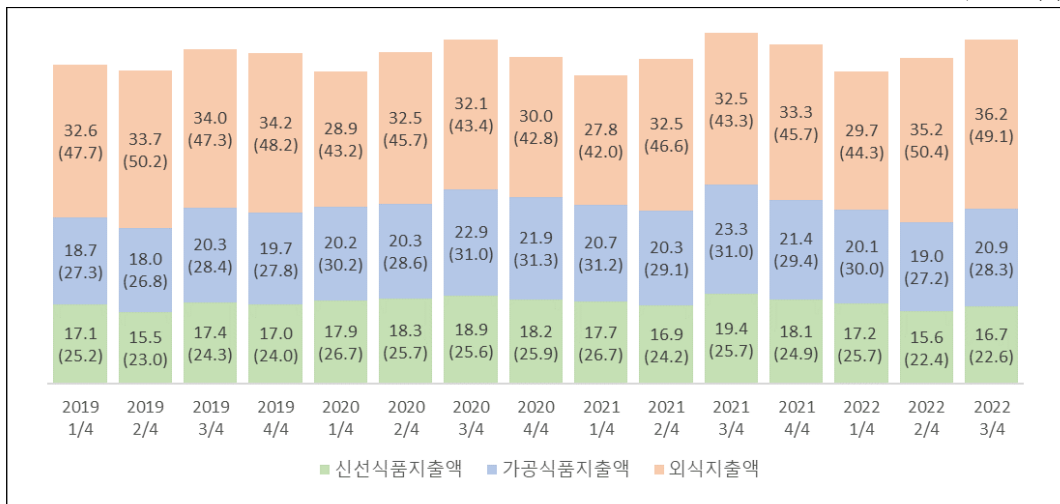
- 식품비를 식품 유형인 신선식품(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으로 구분하여 실질 지출액을 살펴보면, 2022년 가공식품 실질 지출액은 1분기 20만 796원, 2분기 19만 116원, 3분기 20만 9,272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각각 3.0%, 6.4%, 10.2% 감소하였으나 2019년 동기에 비해서는 각각 7.4%, 5.5%, 2.8%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남. 코로나19 이후 가공식품 소비 증가추세가 2020~2021년 특징적으로 나타났으나, 2022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가공식품 소비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다만, 2022년 가공식품 소비가 2019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보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증가한 간편식 확대 등의 트렌드가 일정부분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22년 외식 실질 지출액은 1분기 29만 6,516원, 2분기 35만 1,750원, 3분기 36만 2,187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각각 6.6%, 8.2%, 11.3% 증가함. 2019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1분기 외식 실질 지출액은 2019년 1분기에 비해 9.1% 감소한 수준이나, 2분기와 3분기는 각각 4.4%와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분기 이후 외식 소비가 코로나19 영향을 벗어나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2022년 신선식품 지출액은 1분기 17만 1,860원, 2분기 15만 6,243원, 3분기 16만 6,622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각각 2.9%, 7.6%, 13.9% 감소함. 2020~2021년간 외식

감소에 따른 가정식 증가로 신선식품 소비가 증가하였으나, 2022년 1~2분기에는 2019년 동분기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3분기에는 신선식품의 높은 물가수준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된 양상을 보임.

○ 실질금액을 기준으로 식품 유형별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2022년 외식비 비중은 1분기 44.3%, 2분기 50.4%, 3분기 49.1%로 2020~2021년간 동기 대비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 비해서도 2~3분기는 비중이 소폭 상승함. 가공식품 비중은 1분기 30.0%, 2분기 27.2%, 3분기 28.3%로 전년도 동기에 비해서는 각각 1.2%p, 1.9%p, 2.6%p 감소함. 2022년 1~3분기 가공식품 비중은 2019년 1~2분기에 비해 약간 높았으나 3분기와는 비슷한 비중을 나타냄. 신선식품의 비중은 1분기 25.7%, 22.4%, 3분기 22.6%로 전년도 동기에 비해서 각각 1.1%p, 1.9%p, 3.2%p 감소하였으며, 2019년에 비해서도 2분기 이후 비중이 감소함.

〈그림 4-4〉 지출목적별 실질 식품비 지출액 변화

단위: 만 원(%)



주 1) 실질금액은 명목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디플레이트 한 것임.

2) 괄호 안은 분기별 총식품비 지출액에서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 지출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1.3. 가구특성별 지출 동향

- 가구 소득분위별로 구분 시 전년 동기 대비 2022년 1~3분기 실질 식품비 지출액은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에서 7.0% 증가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소득 2분위(4.3%), 소득 3분위(4.0%), 소득 5분위(3.7%)의 순서로 분석됨.
- 2022년(1~3분기) 실질 식품비 지출액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3분기)과 비교하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에서 실질 식품비가 12.0%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소득 5분위에서 1.8% 증가한 수준임. 소득 2, 3, 4분위에서는 2019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감소한 수준으로 나타남.

〈표 4-1〉 소득분위별 월평균 식료품비 지출액 및 변화율

단위 : 원, %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9 1/4	318,015	503,173	656,062	863,570	1,078,484	
2019 1/2	303,887	504,595	678,583	822,096	1,066,217	
2019 3/4	351,396	529,806	726,224	888,122	1,101,453	
2019 4/4	361,007	533,543	704,201	869,825	1,076,646	
2020 1/4	316,255	486,612	618,993	848,563	1,078,729	
2020 1/2	347,939	508,539	680,358	902,317	1,115,275	
2020 3/4	383,248	546,849	714,695	905,771	1,143,380	
2020 4/4	381,356	536,960	664,463	847,736	1,077,424	
2021 1/4	333,920	491,920	636,734	811,386	1,036,765	
2021 1/2	331,398	486,931	652,653	865,765	1,071,051	
2021 3/4	353,624	504,802	662,055	853,947	1,078,776	
2021 4/4	385,620	542,923	712,512	895,341	1,103,288	
2022 1/4	338,074	494,685	644,224	810,074	1,058,278	
2022 2/4	364,442	514,198	677,065	849,887	1,084,627	
2022 3/4	387,490	538,251	708,002	893,099	1,163,126	
변화율	'22(1~3)/'19(1~3)	12.0	0.6	-1.5	-0.8	1.8
	'22(1~3)/'20(1~3)	4.1	0.3	0.8	-3.9	-0.9
	'22(1~3)/'21(1~3)	7.0	4.3	4.0	0.9	3.7

주 1) 실질금액 기준, 명목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디플레이트 한 것임.

2) 연도별 변화율은 분기별 평균값을 활용해 산출.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가구주 연령대별로 2022년 월평균 식품비 지출액(1~3분기)은 40대 가구가 90만 4,325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으로 50대 가구가 85만 578원, 30대 가구, 60대 이상 가구, 20대 가구 순임<표 4-2>.
- 가구주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30대와 60대 이상 가구의 경우 2022년(1~3분기)에 전년(1~3분기)보다 실질 식품비 지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가구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2020~2021년간 식품비 지출액 증가폭이 커 2019년(1~3분기)과 비교 시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가구주가 30대인 가구는 2020~2021년간 비슷하게 유지되었으나 2022년(1~3분기)에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비소비지출(특히 기타이자)이 증가하며 실질 식품비 지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해석됨<표 4-2>.
- 가구주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2022년(1~3분기)에 이전 연도(1~3분기)보다 실질 식품비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연령대의 가구는 50대(2.6%), 40대(1.8%) 순임<표 4-2>.
- 2022년 3분기 식료품비 지출액은 가구주가 20대인 가구를 제외한 연령대에서 2분기 대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3분기에 식료품비 지출 증가폭이 가장 큰 가구는 가구주가 60대 이상 가구로 9.7%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는데, 추석으로 인한 계절 효과가 이들 계층에서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표 4-2>.

〈표 4-2〉 가구주 연령대별 월평균 식료품비 지출액 및 변화율

단위 : 원,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19 1/4	482,518	774,719	855,431	771,798	497,364
2019 1/2	463,262	755,303	846,279	766,457	483,051
2019 3/4	478,570	778,808	872,798	815,674	556,487
2019 4/4	505,936	756,726	850,621	789,765	568,015
2020 1/4	474,846	762,701	827,078	756,329	500,313
2020 1/2	511,941	791,825	887,992	801,698	528,933
2020 3/4	540,323	779,279	880,400	839,963	593,650
2020 4/4	499,542	730,740	836,481	791,320	573,897
2021 1/4	484,041	709,088	808,783	752,167	517,790
2021 1/2	508,036	764,065	831,787	791,682	551,151
2021 3/4	496,819	791,872	900,576	849,872	624,264

(계속)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21 4/4	490,763	756,919	875,090	819,650	605,791	
2022 1/4	464,293	703,642	824,917	794,960	513,866	
2022 2/4	521,924	735,395	857,527	810,020	545,687	
2022 3/4	516,678	759,333	904,325	850,578	598,479	
변화율	'22(1~3)/'19(1~3)	5.5	- 4.8	0.5	4.3	7.9
	'22(1~3)/'20(1~3)	- 1.6	- 5.8	- 0.3	2.4	2.2
	'22(1~3)/'21(1~3)	0.9	- 2.9	1.8	2.6	- 2.1

주 1) 실질금액 기준, 명목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로 디플레이트 한 것임.

2) 연도별 변화율은 분기별 평균값을 활용해 산출.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1.4.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 동향

○ 2022년(1~3분기)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액은 2021년(1~3분기)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되거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코로나19의 영향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임. 지출액 증가추세가 유지된 가공식품 분류는 곡물가공(4.5%), 당류 및 과자류(2.0%), 주스 및 음료(1.6%)로 코로나19 이전부터 증가추세가 지속되어온 식품 분류임<표 4-3>.

○ 반면, 가공식품 분류별로 2022년(1~3분기) 지출액이 2021년(1~3분기)에 비해 크게 감소한 분류는 조미식품(-27.2%), 채소가공품(-11.5%), 수산가공품(-8.8%) 등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면서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인한 가정 내 식사 감소 경향을 반영함<표 4-3>.

○ 2022년 1~3분기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액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3분기와 비교하면 유지류(40.7%), 기타식품(25.6%), 주류(22.0%), 육가공(20.0%) 등이 증가한 특징을 나타냄. 지출 규모를 고려할 경우 가구에서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간편성 선호경향이 유지되어 육가공품이나 간편식 지출액 증가가 지속되며, 흡술 경향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표 4-3>.

○ 2022년 2분기에 비해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액은 대부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특히 시기적으로 3분기에는 명절이 존재해 과일가공품이나 수산가공품 등의 소비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큼<표 4-3>.

〈표 4-3〉 가공식품 분류별 수출액 변화

단위: 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변화율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22(1~3)/ '19(1~3)	'22(1~3)/ '21(1~3)	
곡물기공	39,103	36,623	38,014	39,071	43,922	41,948	42,955	44,409	44,774	43,127	45,576	46,513	47,185	45,518	46,761	47,611	22.6	8.3	4.5
	21.3	20.6	18.9	20.0	21.9	20.7	18.8	20.1	21.5	20.9	19.1	21.1	22.1	22.0	21.6	22.6			
육기공	11,808	11,811	13,629	11,484	14,112	14,302	16,087	13,382	15,096	14,185	16,759	13,512	15,668	13,832	15,185	16,759	20.0	0.4	-2.9
	6.4	6.6	6.8	5.9	7.0	7.0	7.0	6.1	7.2	6.9	7.0	6.1	7.4	6.7	7.0	7.4			
수산물기공	17,257	14,156	16,389	19,471	18,859	16,254	19,163	21,200	19,452	15,080	18,491	18,897	18,758	13,738	15,861	18,758	1.2	-10.9	-8.8
	9.4	8.0	8.2	10.0	9.4	8.0	8.4	9.6	9.3	7.3	7.8	7.8	8.6	6.6	7.3	8.6			
유기공	19,839	20,236	20,789	19,951	20,710	21,687	22,179	20,904	20,374	21,529	22,448	20,627	20,306	20,128	20,528	22,448	0.2	-5.6	-5.3
	10.8	11.4	10.4	10.2	10.3	10.7	9.7	9.5	9.8	10.4	9.4	9.3	9.5	9.7	9.5	9.4			
유제품	2,774	2,170	3,021	2,357	3,167	3,143	3,814	3,027	3,668	3,254	4,378	3,277	3,686	3,732	3,787	4,378	40.7	10.7	-0.8
	1.5	1.2	1.5	1.2	1.6	1.5	1.7	1.4	1.8	1.6	1.8	1.5	1.7	1.8	1.8	1.8			
과일기공품	4,301	2,826	2,810	3,386	4,272	2,734	3,476	3,367	4,436	3,286	3,486	3,244	4,348	2,819	3,368	3,486	6.0	0.5	-6.0
	2.3	1.6	1.4	1.7	2.1	1.3	1.5	1.5	2.1	1.6	1.5	1.5	2.0	1.4	1.6	1.5			
채소기공품	1,878	1,809	2,047	4,209	2,518	2,389	2,380	4,564	2,630	2,267	2,355	4,562	2,284	2,014	2,118	2,355	11.9	-12.0	-11.5
	1.0	1.0	1.0	2.2	1.3	1.2	1.0	2.1	1.3	1.1	1.0	2.1	1.1	1.0	1.0	1.1			
당류 및 과자류	23,822	25,986	26,974	23,850	26,451	28,694	29,005	25,392	25,722	27,707	29,012	25,434	26,463	29,128	28,517	29,012	9.5	0.0	2.0
	13.0	14.6	13.4	12.2	13.2	14.1	12.7	11.5	12.3	13.4	12.2	11.5	12.4	14.1	13.2	12.2			
조미식품	8,371	8,176	17,497	16,865	9,507	10,577	21,502	20,648	10,347	10,978	22,622	19,208	9,921	9,566	12,503	22,622	-6.0	-23.1	-27.2
	4.6	4.6	8.7	8.6	4.7	5.2	9.4	9.4	5.0	5.3	9.5	8.7	4.7	4.6	5.8	9.5			
기타식품	19,521	18,810	20,975	20,514	22,000	21,352	25,316	25,458	24,617	23,519	27,274	25,341	25,410	23,816	25,250	27,274	25.6	8.5	-1.2
	10.6	10.6	10.4	10.5	10.9	10.5	11.1	11.5	11.8	11.4	11.5	11.5	11.9	11.5	11.7	11.5			
커피 및 차	8,179	7,900	8,469	8,412	8,674	9,031	9,190	9,526	9,056	9,068	10,006	9,543	9,230	9,373	9,403	10,006	14.1	4.1	-0.4
	4.5	4.4	4.2	4.3	4.3	4.4	4.0	4.3	4.3	4.4	4.2	4.3	4.3	4.3	4.3	4.2			
쥬스 및 음료	12,620	13,962	15,328	12,891	13,056	15,131	16,119	13,107	12,363	15,245	16,034	13,486	13,428	15,661	15,221	16,034	5.7	0.0	1.6
	6.9	7.8	7.6	6.6	6.5	7.4	7.0	5.9	5.9	7.4	6.7	6.1	6.3	7.6	7.0	6.7			
주류	13,891	13,547	14,897	12,694	13,702	15,862	17,544	15,463	16,041	16,996	19,694	17,045	16,478	17,320	17,832	19,694	22.0	9.6	-2.1
	7.6	7.6	7.4	6.5	6.8	7.8	7.7	7.0	7.7	8.2	8.3	7.7	7.7	8.4	8.2	8.3			
전체	183,364	178,012	200,839	195,155	200,950	203,104	228,729	220,446	208,566	206,242	238,135	220,689	213,165	206,645	216,333	238,135	13.1	0.5	-2.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명목금액 기준임.

주 2) 연도별 변화율은 분기별 평균값을 활용해 산출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1.5. 가공식품 세부품목별 지출 동향

- 2022년 1~3분기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 상위 30개 품목들의 지출추이를 살펴보면, 상위 5개 품목으로 '식빵 및 기타빵', '한과 및 기타과자', '기타육류 가공품', '즉석·동결식품', '우유'의 순위가 유지됨<표 4-4>.
- 2021년(1~3분기) 대비 2022년(1~3분기) 품목별 지출액이 크게 증가한 품목은 식빵 및 기타빵(8.2%), 기타음료수(8.6%), 차(10.7%) 등임. 식빵 및 기타빵은 지출 규모도 가장 큰 품목이면서 증가율도 높는데 코로나19로 간편한 식사대용 및 간식용 빵 소비가 확대되고 프리미엄 및 기능성 등 다양한 빵이 출시되면서 빵 소비 확대 경향이 자리 잡았기 때문으로 보임<표 4-4>.
- 2022년(1~3분기)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 상위 30개 품목들의 지출을 2019년(1~3분기)과 비교하면 우유, 말린고추, 과일야채주스, 햄/베이컨, 김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증가하였으나 2020년, 2021년 동기에 비해서는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감소하는 특징을 보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공식품 전체적으로 지출액이 크게 증가했었으나, 방역 완화에 따른 외식 증가로 약간 감소하거나 지출액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보임<표 4-4>.
- 2022년(1~3분기)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 상위 품목 중 2019년(1~3분기)에 비해 지출이 20% 이상 크게 증가한 품목은 식빵 및 기타빵(24.7%), 기타육류(29.0%), 반찬류(38.2%), 아이스크림(20.0%), 기타곡물(31.9%), 소주(24.0%), 케이크(26.8%), 두부(32.2%), 김치(23.8%), 기타조미식품(34.7%), 국수류(31.2%), 차(21.1%), 기타수산물(44.7%) 등으로 빵류와 간편 반찬류를 중심으로 소비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반면 동기간 지출이 감소한 품목은 우유(-5.4%), 과일야채주스(-4.1%), 말린고추(-57.6%), 햄/베이컨(-10.7%), 김(-3.9%) 등으로 코로나19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소비가 감소하는 품목임 <표 4-4>.

〈표 4-4〉 지출액 상위 품목 지출액 변화

품목구분	2019				2020				2021				2022				변화율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22(1~3)/ '19(1~3)	'22(1~3)/ '20(1~3)	'22(1~3)/ '21(1~3)	
	단위: 원, %																		
1 식염빙기타빙	14,261	14,549	14,461	15,526	15,330	15,748	15,787	16,601	16,142	16,748	16,961	17,863	17,522	18,187	18,243	24.7	15.1	8.2	
2 한라기타과자	14,349	12,922	13,115	14,023	15,393	13,765	14,369	14,543	14,872	13,351	13,649	14,243	15,037	14,434	13,730	7.0	-0.7	3.2	
3 기타육류	7,990	8,471	9,242	8,277	9,864	10,166	11,045	9,759	10,840	10,351	10,156	10,166	11,634	11,157	10,358	29.0	6.7	0.4	
4 축산물결식품	9,751	8,759	9,163	9,202	10,696	9,757	11,286	11,358	11,567	10,303	11,391	10,580	11,080	10,503	9,971	14.0	-0.6	-4.4	
5 우유	9,643	9,859	10,281	9,682	9,745	10,253	10,477	9,654	9,135	9,612	10,265	9,764	9,271	9,520	9,381	-5.4	-7.6	-2.9	
6 맥주	6,586	7,361	7,924	6,114	6,451	8,216	9,319	7,106	7,319	8,436	10,111	7,482	7,252	8,191	8,081	7.6	-1.9	-9.1	
7 반찬류	5,831	5,507	5,868	5,475	6,213	5,873	6,835	6,471	7,829	7,480	8,369	7,904	8,467	7,902	7,405	38.2	25.6	0.4	
8 아이스크림	3,440	6,304	8,332	3,968	4,593	7,951	9,032	5,088	5,227	7,671	9,898	5,023	5,388	7,897	8,413	20.0	0.6	-4.8	
9 기타음료수	5,953	6,884	7,329	5,429	5,696	6,975	7,241	5,769	5,621	6,899	7,392	5,779	6,443	7,481	7,697	7.2	8.6	8.6	
10 커피	6,019	6,142	6,737	6,095	6,539	7,219	7,292	6,985	6,931	7,095	7,921	6,827	6,699	7,171	7,295	12.0	0.5	-3.6	
11 라면	6,180	5,864	6,215	6,175	7,747	7,062	6,701	6,760	6,335	6,073	6,477	6,679	6,672	6,567	6,381	7.5	-8.7	3.9	
12 기타국물	5,180	4,430	4,928	4,595	6,014	5,318	5,786	5,335	6,237	5,528	6,649	5,585	6,006	6,435	6,136	31.9	12.0	4.1	
13 요구르트	4,889	5,449	5,505	5,072	5,562	6,210	6,310	5,691	5,610	6,080	6,322	5,406	5,265	5,404	5,448	1.7	-10.9	-10.5	
14 떡	5,047	3,610	4,423	4,028	4,423	4,328	4,740	5,036	5,804	4,640	4,791	5,084	5,749	5,124	4,322	16.2	5.6	-0.3	
15 소주	3,697	3,681	3,670	3,622	4,205	4,606	4,529	4,525	4,523	4,535	4,747	4,537	4,698	4,569	4,430	24.0	2.7	-0.8	
16 과일야채주스	4,036	4,166	4,443	4,603	4,540	4,936	4,995	4,261	3,792	4,585	4,438	4,191	3,797	4,064	4,271	-4.1	-16.2	-5.3	
17 케이크	3,634	3,302	2,568	4,132	3,666	3,359	3,396	5,183	4,091	4,010	3,760	5,616	4,218	3,908	3,924	26.8	15.6	1.6	
18 샌드	2,632	2,913	3,356	2,858	2,821	3,220	3,882	3,078	2,941	3,761	4,203	3,516	3,189	3,676	3,694	18.6	6.4	-3.2	
19 두부	2,917	2,449	2,589	2,762	3,345	3,000	3,263	3,192	3,580	3,193	3,333	3,333	3,661	3,396	3,459	32.2	9.5	4.1	
20 과일기공	4,301	2,826	2,810	3,386	4,272	2,734	3,476	3,367	4,436	3,286	3,486	3,244	4,348	3,368	2,819	6.0	0.5	-6.0	
21 김치	1,569	2,110	3,137	3,296	1,973	2,972	4,146	4,286	2,043	3,105	4,286	3,960	2,203	3,141	3,095	23.8	-7.2	-10.6	
22 말린고추	667	599	8,822	6,389	597	628	11,255	8,771	763	892	11,152	6,668	645	3,024	613	-57.6	-65.7	-66.6	
23 기타조미식품	1,841	1,682	2,004	1,856	2,517	2,501	2,760	2,556	2,826	2,531	2,815	2,592	2,755	2,495	2,198	34.7	-4.3	-8.9	
24 국수류	1,153	1,975	2,149	1,284	1,592	2,469	2,431	1,611	1,642	2,334	2,819	1,699	1,884	2,381	2,659	31.2	6.7	1.9	
25 햄베이컨	2,617	1,957	2,807	1,762	2,704	2,377	3,120	2,068	2,698	2,061	3,051	1,768	2,399	2,350	1,841	-10.7	-19.6	-15.6	
26 김	2,976	1,966	2,322	2,592	3,112	2,106	2,462	3,012	2,979	1,846	2,160	2,618	2,962	2,284	1,735	-3.9	-9.1	-0.1	
27 기타미분류식품	1,039	1,243	1,543	1,209	1,557	1,448	1,826	1,352	1,546	1,586	2,014	1,665	2,121	2,249	2,036	67.5	32.6	24.5	
28 차	2,161	1,758	1,731	2,317	2,135	1,812	1,897	2,541	2,125	1,972	2,085	2,171	2,531	2,231	2,078	21.1	17.0	10.7	
29 두유	1,983	1,858	2,005	1,905	1,866	1,979	2,037	2,026	2,035	2,192	2,251	2,091	2,124	2,219	2,203	12.0	11.3	1.1	
30 기타수산	1,354	1,464	1,754	1,538	2,054	1,844	2,341	1,837	2,323	1,952	2,504	1,722	2,370	2,209	2,034	44.7	6.0	-2.4	

주 1) 명목금액 기준임.
 주 2) 연도별 변화율은 분기별 평균값을 활용하여 산출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2. 가구의 2022년 3/4분기~2023년 4/4분기 식품비 지출 전망¹²⁾

2.1. 분석자료

- 본 절의 분석에서 이용한 자료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를 대상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기별 평균값으로 환산한 자료임.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의 소득과 소비 수준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통계청에서 분기별로 조사하고 자료를 정리하여 발표하고 있음.
- 본 자료는 가계동향조사의 식품비 지출에 해당하는 품목별 원시자료를 소비자물가지수(2020=100) 내의 세부 품목들의 수치를 활용하여 디스플레이한 값임(식품비 지출액-소비자물가지수 : 곡물가공품-빵, 육류가공품-소시지, 수산가공품-수산물통조림, 유가공품-우유, 유지류-식용유지, 과일가공품-과일가공품, 채소가공품-김, 당류및과자류-과자, 빙과류 및 당류, 조미식품-혼합조미료, 기타식품-기타식료품, 커피 및 차-커피, 차 및 코코아, 주스 및 기타음료 - 생수, 청량음료, 과일주스 및 채소주스, 주류-주류).
- 분석기간은 2000년 1/4분기부터 2022년 2/4분기까지이며, 분석에 활용한 주요 변수는 신선식품비 지출액(비중), 가공식품비 지출액(비중), 외식비 지출액(비중) 등으로 식품소비 유형에 따른 항목별 변수와 가구의 평균 연령, 평균 가구원 수, 평균 가구소득 등의 가구특성 변수를 포함함.
 - 본 분석에서의 종속변수는 신선식품 지출액, 가공식품 지출액, 외식비 지출액임.
 - 설명변수는 가구의 평균 연령, 평균 가구원 수, 평균 가구소득 등으로 결정하였으며, 2020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을 반영키 위하여 더미변수를 설명하여 포함함.

12) 본 절의 분석과 전망은 경상대학교 문동현 교수가 2022년 수행한 내용을 기초로 데이터를 확장하고 모형을 재추정하여, 2022년 3/4분기부터 2023년 4/4분기까지의 식품비를 전망한 것임.

2.2. 분석 모형

○ 2022년 3/4분기부터 2023년 4/4분기까지의 가구의 총식품비와 식품소비 유형별 지출액(신선식품비, 가공식품비, 외식비와 그 비중)을 전망하기 위하여 시계열 계량분석 모형 중 계절 ARIMA(Seasonal ARIMA) 모형을 이용함(이용선 외, 2021).

○ 계절성과 추세를 갖는 시계열은 SARIMA(p,d,q)(P,D,Q, s) 모형이 적합하다는 평가가 있으며, 아래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음(이용선 외 2021).

$$\Phi_p(B)\Phi_p(B^s)(1-B)^d(1-B^s)^D y_t = \theta_q(B)\theta_q(B^s)\epsilon_t \quad \text{식 (1)}$$

○ 여기서 $\Phi_p(B)$ 는 p차 AR 후방연산자, $\theta_q(B)$ 는 q 차 MA 후방연산자, $\Phi_p(B^s)$ 는 p차 계절 AR 후방연산자, $\theta_q(B^s)$ 는 Q차 계절 MA 후방연산자임. s는 계절 주기로 월자료는 12, 분기자료는 4를 취하는데, 본 분석에서는 분기자료이므로 4를 갖게 됨.

- d와 D는 시계열 자료 y_t 의 정상화에 필요한 차분 및 계절차분의 횟수임.

- ϵ_t 는 $\epsilon_t \sim N(0, \sigma^2)$ 인 백색잡음(white noise)를 의미함.

- 자기회귀(Autoregressive, AR) 부분의 차수(p 혹은 P)와 이동평균(Moving Average, MA) 차수(q 혹은 Q)의 경우, 모형의 예측 정확도로 사용된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AIC)을 기준으로 설정함.

○ 향후 식품비 전망을 위해 SARIMAX 추정 결과를 활용하였음. SARIMAX 모형은 기존의 SARIMA 모형에 인구사회적 특성(가구원 수, 소득, 가구주 연령)과 코로나19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더미변수를 추가한 형태로 구축하였음.

- 코로나19 더미변수는 2020년 이후 기간에 대하여 설정함.

○ 2022년 3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의 가구원 수, 소득, 가구주 연령 추정 값은 각 변수에 Bai-Perron Multiple Break Point 테스트를 사용하여 파악한 구조변화를 고려하여 데이터 활용 구간을 설정함.

- 따라서 가구원 수 추정을 위하여 활용된 데이터 구간은 2000년 1분기부터 2022년 2분기, 소득은 2012년 1분기부터 2022년 2분기, 가구주 연령 활용 구간은 2016년 2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임.

2.3. 추정 결과

- 2000년 1/4분기부터 2022년 2/4분기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한 가구의 총식품비 지출액과 이를 식품 소비 유형인 신선식품비, 가공식품비, 외식비로 구분하여 가구 특성과 코로나19 외생변수로 고려한 SARIMA 모형을 추정함.¹³⁾
- 총식품비 지출액은 월평균 가구소득과는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총식품비 지출액과 코로나19의 관계는 양(+)의 부호를 갖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신선식품비 지출액 역시 월평균 가구소득과 양(+)의 관계를 보였음. 코로나19 더미에 대한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신선식품비 지출액과 양(+)의 관계를 보이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가공식품비 지출액은 월평균 가구소득 및 코로나19 더미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음. 코로나19로 인해 가공식품비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외식비의 경우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외식비 지출액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됨.
 -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구가 외식을 줄이고 가정 내 식사를 늘리는 식생활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며, 가정 내 식사 시 가공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됨.

13) STATA 14.2 MP을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하고, 예측치를 산출하였음.

〈표 4-5〉 가구의 총식품비 및 식품소비 유형별(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 지출액 추정결과

구분	총식품비 ARIMA(1,0,1) (0,1,2,4)	신선식품비 ARIMA(2,0,0) (0,1,1,4)	가공식품비 ARIMA(1,0,2) (0,1,2,4)	외식비 ARIMA(3,0,3) (0,1,1,4)
가구주 연령	-10695.895 (11011.494)	4678.004 (6301.044)	-2887.152 (2060.222)	-5745.62 (4914.804)
가구원 수	23509.485 (43909.342)	1025.938 (27032.618)	15285.586 (15911.382)	39772.011 (24612.85)
월평균 가구소득	0.147*** (0.023)	0.054*** (0.015)	0.032*** (0.006)	0.062*** (0.013)
COVID-19	1786.898 (28100.557)	20263.257 (14165.592)	17621.236** (8079.114)	-29997.154*** (10639.342)
constant		-13193.409*** (4916.827)		
AR1	0.985*** (0.02)	0.961*** (0.04)	0.645*** (0.218)	0.381*** (0.103)
AR2				0.537*** (0.111)
MA1	-0.541*** (0.112)	-0.508*** (0.123)	-0.284 (0.194)	
MA2			0.345** (0.161)	
SMA1	-0.711*** (0.104)	-0.596*** (0.095)	-0.609*** (0.16)	-0.628*** (0.117)
SMA2			-0.246 (0.155)	
sigma	16220.476*** (1128.031)	8271.259*** (621.227)	5524.793*** (495.302)	8315.963*** (528.962)
Obs.	86	86	86	86
Log-likelihood	-957.269	-898.773	-865.777	-899.386
AIC	1930.537	1815.546	1751.553	1814.773
BIC	1950.172	1837.635	1776.096	1834.408

주 1) 괄호()안에 표시한 숫자들은 표준 편차임.

2)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2.4. 2022년 3분기~2023년 식품소비 유형별 지출액 전망

○ 총식품비 지출액과 이를 식품소비 유형별(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로 구분한 지출액을 2023년 4분기까지 전망하기 위하여 2022년 3분기부터 두 가지의 가정을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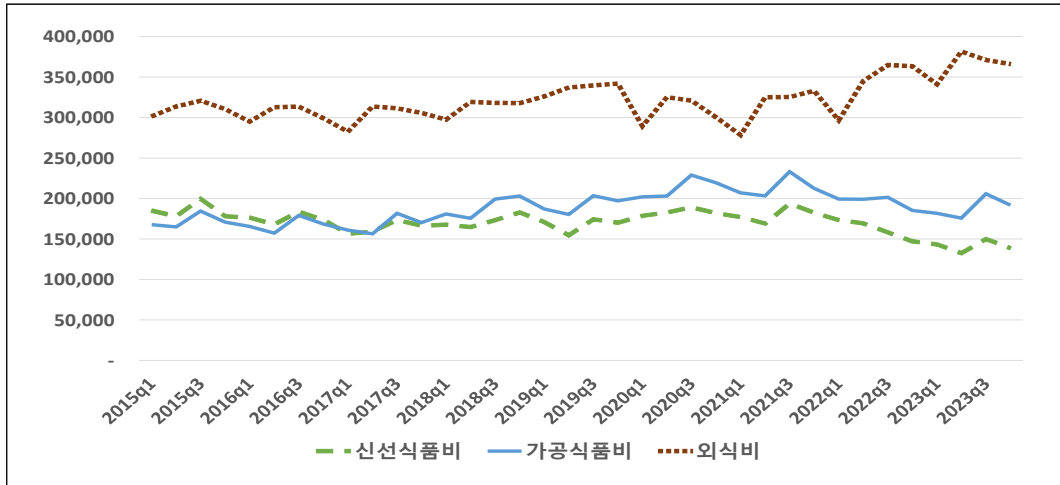
- (가정 1) 코로나19가 이전 수준만큼 영향을 미치는 않는 상황을 가정하였음.
- (가정 2) 코로나19 영향이 이전 수준으로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하였음.

2.4.1. 코로나19가 이전 수준만큼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정 1) 식품비 지출액 전망

○ 2022년 3분기부터 코로나19가 이전 수준만큼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가정하고 2022년 3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의 식품비 지출액을 전망한 결과, 총식품비 지출액은 2023년 2분기(692,990원)부터 회복되는 경향이 나타남.

- 2023년 1분기 신선식품 지출액(143,376원)과 가공식품 지출액(181,629원)이 꽤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가 극복될 경우 외식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시점은 2023년 2분기(381,547원)가 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4-5〉 가구의 총 식품비 및 식품소비 유형별 월평균 지출액 전망(가정 1)



자료: 통계청(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2022년 3분기부터 코로나19가 이전 수준만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가구의 2023년 총식품비 지출액은 1분기 669,980원, 2분기 692,990원, 3분기 729,130원, 4분기 698,121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 분기 대비 각각 -3.7%, 0.9%, -0.7%, -3.4% 증감한 수치임.

- 신선식품비의 경우, 2023년 1분기 143,376원, 2분기 132,463원, 3분기 149,860원, 4분기 138,666원으로 전망되어, 2021년 동 분기 대비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가공식품의 경우, 2023년 1분기 181,629원, 2분기 175,806원, 3분기 205,752원,

4분기 191,724원으로 전망되어, 2021년 동 분기 대비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선식품에 비해 감소폭이 적을 것으로 파악됨.

- 외식비는 2023년 1분기 340,942원 2분기 381,547원, 3분기 370,963원, 4분기 365,968원으로 예상되어,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할 것으로 판단됨.

〈표 4-6〉 가구의 총 식품비 및 식품소비 유형별 월평균 지출액 전망(가정 1)

단위: 원, %

구분	총식품비				신선식품비				가공식품비				외식비			
	지출액	증감률			지출액	증감률			지출액	증감률			지출액	증감률		
		2019 대비	2020 대비	2021 대비		2019 대비	2020 대비	2021 대비		2019 대비	2020 대비	2021 대비		2019 대비	2020 대비	2021 대비
2019년 1분기	695,904				170,905				186,985				326,109			
2019년 2분기	686,728				154,581				180,163				337,062			
2019년 3분기	734,516				174,428				203,498				339,680			
2019년 4분기	722,951				170,138				197,130				341,812			
2020년 1분기	678,454	-2.5			178,650	4.5			202,021	8.0			289,298	-11.3		
2020년 2분기	716,994	4.4			182,723	18.2			203,002	12.7			325,237	-3.5		
2020년 3분기	731,716	-0.4			189,161	8.4			228,752	12.4			320,930	-5.5		
2020년 4분기	694,103	-4.0			181,903	6.9			219,372	11.3			300,395	-12.1		
2021년 1분기	649,801	-6.6	-4.2		177,046	3.6	-0.9		206,953	10.7	2.4		278,259	-14.7	-3.8	
2021년 2분기	686,284	-0.1	-4.3		169,065	9.4	-7.5		203,154	12.8	0.1		325,036	-3.6	-0.1	
2021년 3분기	738,905	0.6	1.0		193,603	11.0	2.3		233,055	14.5	1.9		325,328	-4.2	1.4	
2021년 4분기	716,743	-0.9	3.3		182,387	7.2	0.3		212,507	7.8	-3.1		332,999	-2.6	10.9	
2022년 1분기	661,234	-5.0	-2.5	1.8	173,379	1.4	-3.0	-2.1	199,203	6.5	-1.4	-3.7	296,516	-9.1	2.5	6.6
2022년 2분기	704,222	2.5	-1.8	2.6	169,437	9.6	-7.3	0.2	199,009	10.5	-2.0	-2.0	344,930	2.3	6.1	6.1
2022년 3분기	730,755	-0.5	-0.1	-1.1	158,190	-9.3	-16.4	-18.3	201,452	-1.0	-11.9	-13.6	364,747	7.4	13.7	12.1
2022년 4분기	699,494	-3.2	0.8	-2.4	147,068	-13.6	-19.2	-19.4	185,242	-6.0	-15.6	-12.8	363,479	6.3	21.0	9.2
2023년 1분기	669,980	-3.7	-1.2	3.1	143,376	-16.1	-19.7	-19.0	181,629	-2.9	-10.1	-12.2	340,942	4.5	17.9	22.5
2023년 2분기	692,990	0.9	-3.3	1.0	132,463	-14.3	-27.5	-21.6	175,806	-2.4	-13.4	-13.5	381,547	13.2	17.3	17.4
2023년 3분기	729,130	-0.7	-0.4	-1.3	149,860	-14.1	-20.8	-22.6	205,752	1.1	-10.1	-11.7	370,963	9.2	15.6	14.0
2023년 4분기	698,121	-3.4	0.6	-2.6	138,666	-18.5	-23.8	-24.0	191,724	-2.7	-12.6	-9.8	365,968	7.1	21.8	9.9

주: 2022년 2분기까지는 가계동향조사 실적치, 2022년 3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는 가정(1)에 바탕을 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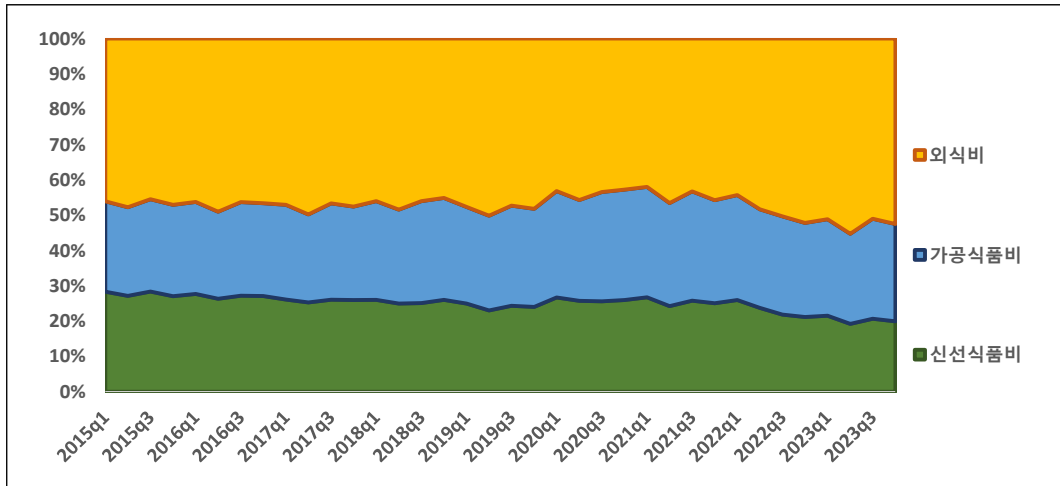
○ (가정 1) 2022년 3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 가구의 식품소비 유형별 지출액 구성 전망을 살펴보면, 2021년 전 분기 대비 신선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줄어들고, 코로나19 동안 위축되었던 외식 지출액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표 4-7).

- 2022년 1분기의 신선식품비, 가공식품비, 외식비의 비중은 각각 26.2%, 30.1%, 44.8%이며, 2023년 1분기는 신선 및 가공식품비 비중이 줄고(각각 21.4%, 27.1%),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중(50.9%)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동년 4분기의 경우 각각 19.9%, 27.5%, 52.4% 수준으로 신선식품비 비중이 감소하고, 가공식품비 및 외식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23년 동안 신선 및 가공식품비의 비중은 감소하고, 외식비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외식비 비중이 코로나19 직전의 50% 내외 수준으로 회복되는 시점은 2022년 4분기~2023년 1분기일 것으로 전망됨.

〈그림 4-6〉 가구의 식품소비 유형별 월평균 지출액 구성 전망(가정 1)



자료: 통계청(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표 4-7〉 가구의 식품소비 유형별 월평균 지출액 구성 전망(가정 1)

단위: %

구분	신선식품비				가공식품비				외식비			
	지출액 구성비	증감률(p)			지출액 구성비	증감률(p)			지출액 구성비	증감률(p)		
		2019 대비	2020 대비	2021 대비		2019 대비	2020 대비	2021 대비		2019 대비	2020 대비	2021 대비
2019년 1분기	24.6				26.9				46.9			
2019년 2분기	22.5				26.2				49.1			
2019년 3분기	23.7				27.7				46.2			
2019년 4분기	23.5				27.3				47.3			
2020년 1분기	26.3	1.8			29.8	2.9			42.6	-4.2		
2020년 2분기	25.5	3.0			28.3	2.1			45.4	-3.7		
2020년 3분기	25.9	2.1			31.3	3.6			43.9	-2.4		
2020년 4분기	26.2	2.7			31.6	4.3			43.3	-4.0		

(계속)

구분	신선식품비				가공식품비				외식비			
	지출액 구성비	증감률(p)			지출액 구성비	증감률(p)			지출액 구성비	증감률(p)		
		2019 대비	2020 대비	2021 대비		2019 대비	2020 대비	2021 대비		2019 대비	2020 대비	2021 대비
2021년 1분기	27.2	2.7	0.9		31.8	5.0	2.1		42.8	-4.0	0.2	
2021년 2분기	24.6	2.1	-0.8		29.6	3.4	1.3		47.4	-1.7	2.0	
2021년 3분기	26.2	2.5	0.3		31.5	3.8	0.3		44.0	-2.2	0.2	
2021년 4분기	25.4	1.9	-0.8		29.6	2.4	-2.0		46.5	-0.8	3.2	
2022년 1분기	26.2	1.7	-0.1	-1.0	30.1	3.3	0.3	-1.7	44.8	-2.0	2.2	2.0
2022년 2분기	24.1	1.6	-1.4	-0.6	28.3	2.0	-0.1	-1.3	49.0	-0.1	3.6	1.6
2022년 3분기	21.6	-2.1	-4.2	-4.6	27.6	-0.1	-3.7	-4.0	49.9	3.7	6.1	5.9
2022년 4분기	21.0	-2.5	-5.2	-4.4	26.5	-0.8	-5.1	-3.2	52.0	4.7	8.7	5.5
2023년 1분기	21.4	-3.2	-4.9	-5.8	27.1	0.2	-2.7	-4.7	50.9	4.0	8.2	8.1
2023년 2분기	19.1	-3.4	-6.4	-5.5	25.4	-0.9	-2.9	-4.2	55.1	6.0	9.7	7.7
2023년 3분기	20.6	-3.2	-5.3	-5.6	28.2	0.5	-3.0	-3.3	50.9	4.6	7.0	6.8
2023년 4분기	19.9	-3.7	-6.3	-5.6	27.5	0.2	-4.1	-2.2	52.4	5.1	9.7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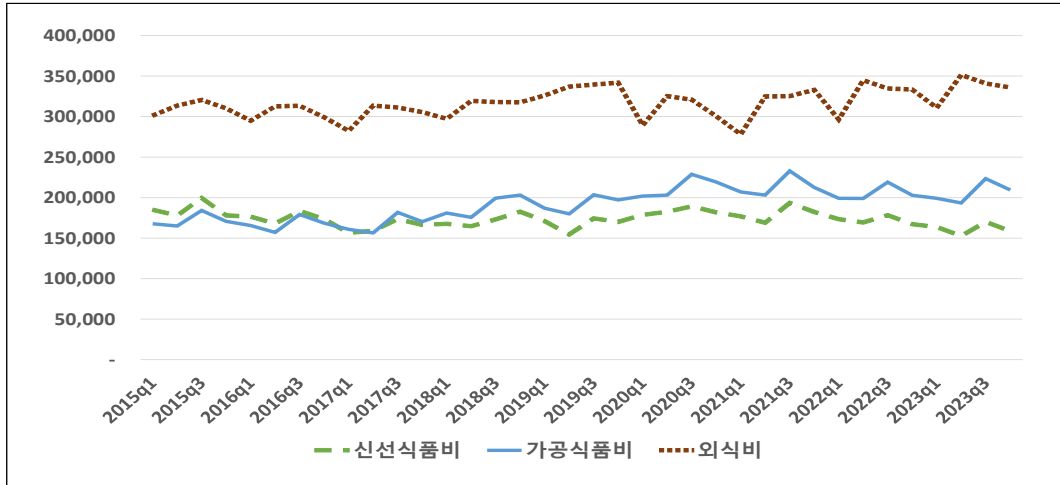
주: 2022년 2분기까지는 가계동향조사 실적치, 2022년 3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는 가정(1)에 바탕을 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2.4.2. 코로나19 영향이 이전 수준으로 지속되는 경우(가정 2) 식품비 지출액 전망

○ 코로나19 영향이 이전 수준으로 지속되는 것을 가정하고 식품소비 유형별로 지출액을 전망한 결과, 총식품비 지출액은 2022년 2분기(704,222원)부터 다소 회복하는 경향이 나타나나 2021년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전망이다(그림 4-7).

- 가구의 식품비 지출액을 식품소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전망한 결과, 2023년 분기별 신선식품 지출액과 가공식품 지출액은 2021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코로나19가 이어질 경우에도 2023년 외식비 지출은 2021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시점은 2023년 2분기(351,549원)로 예상된다.

〈그림 4-7〉 가구의 식품소비 유형별 월평균 지출액 전망(가정 2)



자료: 통계청(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코로나19 영향이 이전 수준으로 지속된다면, 가구의 2023년 총식품비 지출액은 1분기 671,767원, 2분기 694,777원, 3분기 730,917원, 4분기 699,908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 분기 대비 각각 -3.5%, 1.2%, -0.5%, -3.2% 증감한 수치임(표 4-8).

- 신선식품비의 경우, 2023년 1분기 163,639원, 2분기 152,727원, 3분기 170,123원, 4분기 158,929원으로 전망되어, 2021년 동 분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가공식품의 경우, 2023년 1분기 199,250원, 2분기 193,427원, 3분기 223,374원, 4분기 209,346원으로 전망되어, 2021년 동 분기 대비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선식품에 비해 증가폭이 적을 것으로 분석됨.
- 외식비는 2023년 1분기 310,945원 2분기 351,549원, 3분기 340,966원, 4분기 335,971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2023년 2, 3분기 제외).

〈표 4-8〉 가구의 총 식품비 및 식품소비 유형별 월평균 지출액 전망(가정 2)

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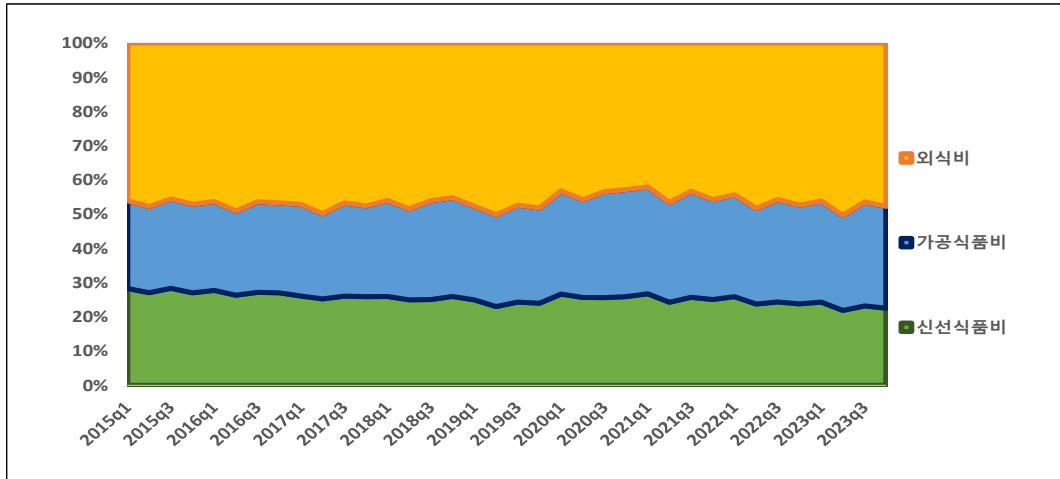
구분	총식품비				신선식품비				가공식품비				외식비			
	지출액	증감률			지출액	증감률			지출액	증감률			지출액	증감률		
		2019 대비	2020 대비	2021 대비		2019 대비	2020 대비	2021 대비		2019 대비	2020 대비	2021 대비		2019 대비	2020 대비	2021 대비
2019년 1분기	695,904				170,905				186,985				326,109			
2019년 2분기	686,728				154,581				180,163				337,062			
2019년 3분기	734,516				174,428				203,498				339,680			
2019년 4분기	722,951				170,138				197,130				341,812			
2020년 1분기	678,454	-2.5			178,650	4.5			202,021	8.0			289,298	-11.3		
2020년 2분기	716,994	4.4			182,723	18.2			203,002	12.7			325,237	-3.5		
2020년 3분기	731,716	-0.4			189,161	8.4			228,752	12.4			320,930	-5.5		
2020년 4분기	694,103	-4.0			181,903	6.9			219,372	11.3			300,395	-12.1		
2021년 1분기	649,801	-6.6	-4.2		177,046	3.6	-0.9		206,953	10.7	2.4		278,259	-14.7	-3.8	
2021년 2분기	686,284	-0.1	-4.3		169,065	9.4	-7.5		203,154	12.8	0.1		325,036	-3.6	-0.1	
2021년 3분기	738,905	0.6	1.0		193,603	11.0	2.3		233,055	14.5	1.9		325,328	-4.2	1.4	
2021년 4분기	716,743	-0.9	3.3		182,387	7.2	0.3		212,507	7.8	-3.1		332,999	-2.6	10.9	
2022년 1분기	661,234	-5.0	-2.5	1.8	173,379	1.4	-3.0	-2.1	199,203	6.5	-1.4	-3.7	296,516	-9.1	2.5	6.6
2022년 2분기	704,222	2.5	-1.8	2.6	169,437	9.6	-7.3	0.2	199,009	10.5	-2.0	-2.0	344,930	2.3	6.1	6.1
2022년 3분기	732,542	-0.3	0.1	-0.9	178,453	2.3	-5.7	-7.8	219,073	7.7	-4.2	-6.0	334,750	-1.5	4.3	2.9
2022년 4분기	701,281	-3.0	1.0	-2.2	167,331	-1.6	-8.0	-8.3	202,863	2.9	-7.5	-4.5	333,482	-2.4	11.0	0.1
2023년 1분기	671,767	-3.5	-1.0	3.4	163,639	-4.3	-8.4	-7.6	199,250	6.6	-1.4	-3.7	310,945	-4.7	7.5	11.7
2023년 2분기	694,777	1.2	-3.1	1.2	152,727	-1.2	-16.4	-9.7	193,427	7.4	-4.7	-4.8	351,549	4.3	8.1	8.2
2023년 3분기	730,917	-0.5	-0.1	-1.1	170,123	-2.5	-10.1	-12.1	223,374	9.8	-2.4	-4.2	340,966	0.4	6.2	4.8
2023년 4분기	699,908	-3.2	1.0	-2.3	158,929	-6.6	-8.0	-12.9	209,346	6.2	-7.5	-1.5	335,971	-1.7	11.0	0.9

주: 2022년 2분기까지는 가계동향조사 실적치, 2022년 3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는 가정(1)에 바탕을 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가정 2) 2022년 1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 신선식품비와 가공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각 분기 대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그림 4-8, 표 4-9).

- 2022년 2분기의 신선식품비, 가공식품비, 외식비의 비중은 각각 24.1%, 28.3%, 49.0% 수준이었음.
- 2023년 2분기 신선식품비, 가공식품비, 외식비의 비중 전망치는 각각 22.0%, 27.8%, 50.6%로, 2022년 2분기 대비 각각 2.1%p, 0.5%p 감소, 1.6%p 증가할 것으로 보임.
- 2023년 4분기 신선식품비, 가공식품비, 외식비의 비중은 각각 22.7%, 29.9%, 48.0% 수준으로 예상됨.

〈그림 4-8〉 가구의 식품소비 유형별 월평균 지출액 구성 전망(가정 2)



자료: 통계청(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표 4-9〉 가구의 식품소비 유형별 월평균 지출액 구성 전망(가정 2)

단위: %

구분	신선식품비				가공식품비				외식비			
	지출액 구성비	증감률(p)			지출액 구성비	증감률(p)			지출액 구성비	증감률(p)		
		2019 대비	2020 대비	2021 대비		2019 대비	2020 대비	2021 대비		2019 대비	2020 대비	2021 대비
2019년 1분기	24.6				26.9				46.9			
2019년 2분기	22.5				26.2				49.1			
2019년 3분기	23.7				27.7				46.2			
2019년 4분기	23.5				27.3				47.3			
2020년 1분기	26.3	1.8			29.8	2.9			42.6	-4.2		
2020년 2분기	25.5	3.0			28.3	2.1			45.4	-3.7		
2020년 3분기	25.9	2.1			31.3	3.6			43.9	-2.4		
2020년 4분기	26.2	2.7			31.6	4.3			43.3	-4.0		
2021년 1분기	27.2	2.7	0.9		31.8	5.0	2.1		42.8	-4.0	0.2	
2021년 2분기	24.6	2.1	-0.8		29.6	3.4	1.3		47.4	-1.7	2.0	
2021년 3분기	26.2	2.5	0.3		31.5	3.8	0.3		44.0	-2.2	0.2	
2021년 4분기	25.4	1.9	-0.8		29.6	2.4	-2.0		46.5	-0.8	3.2	
2022년 1분기	26.2	1.7	-0.1	-1.0	30.1	3.3	0.3	-1.7	44.8	-2.0	2.2	2.0
2022년 2분기	24.1	1.6	-1.4	-0.6	28.3	2.0	-0.1	-1.3	49.0	-0.1	3.6	1.6
2022년 3분기	24.4	0.6	-1.5	-1.8	29.9	2.2	-1.4	-1.6	45.7	-0.5	1.8	1.7
2022년 4분기	23.9	0.3	-2.3	-1.6	28.9	1.7	-2.7	-0.7	47.6	0.3	4.3	1.1
2023년 1분기	24.4	-0.2	-2.0	-2.9	29.7	2.8	-0.1	-2.2	46.3	-0.6	3.6	3.5
2023년 2분기	22.0	-0.5	-3.5	-2.7	27.8	1.6	-0.5	-1.8	50.6	1.5	5.2	3.2
2023년 3분기	23.3	-0.5	-2.6	-2.9	30.6	2.9	-0.7	-1.0	46.6	0.4	2.8	2.6
2023년 4분기	22.7	-0.8	-3.5	-2.7	29.9	2.6	-1.7	0.3	48.0	0.7	4.7	1.5

주: 2022년 2분기까지는 가계동향조사 실적치, 2022년 3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는 가정(1)에 바탕을 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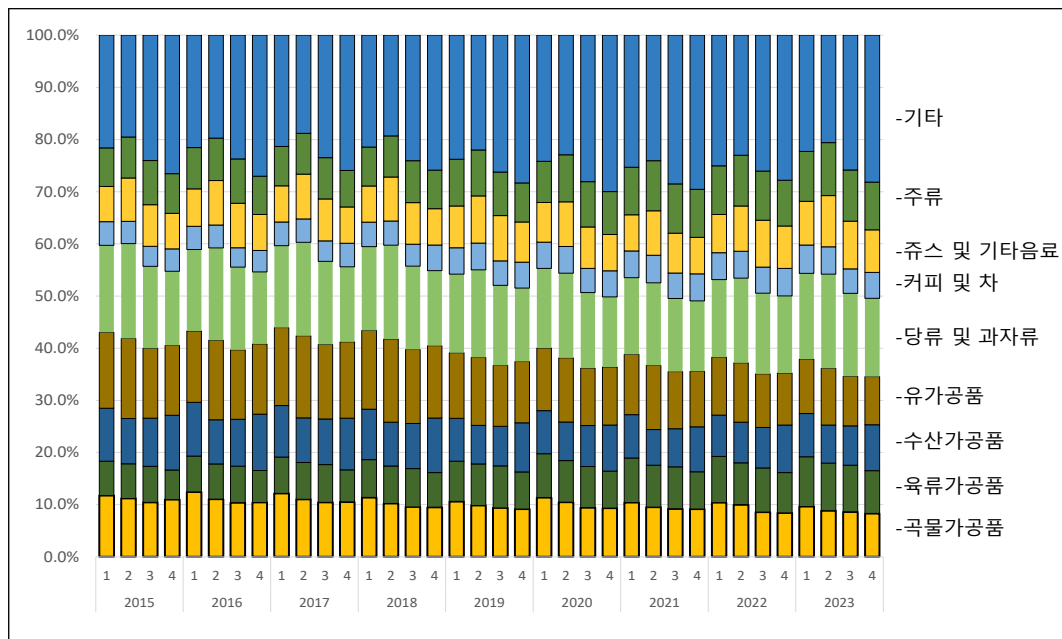
2.5. 2022년 3분기~2023년 가공식품 부류별 지출액 전망

- 가구의 식품비 지출액 중 가공식품을 부류별로 구분하여 분기별 지출액을 전망하였음.
 앞의 식품소비 유형별 지출액 전망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가정하에서 지출액을 전망하고 결과를 제시함.

2.5.1. 코로나19가 이전 수준만큼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경우(가정 1) 가공식품 부류별 지출액 전망

- 가공식품 부류별 지출액 구성 추이를 예측해보면, 2022년 3분기부터 2023년 4분기 기간 동안 육류가공품, 당류 및 과자류, 주스 및 기타음료, 주류의 구성비가 커지며 수산가공품, 유가공품, 커피 및 차 구성비 또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그림 4-9, 표 4-10>.

<그림 4-9> 가구의 가공식품 부류별 월평균 지출액 구성 전망(가정 1)



주 1) 2022년 2분기까지는 가계동향조사 실적치, 2022년 3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는 가정(1)에 바탕을 둔 전망치임.

2) 기타는 과일가공품, 채소가공품, 유지류, 조미식품, 기타식품으로 구성됨.

자료: 통계청(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표 4-10〉 가구의 가공식품 부류별 월평균 지출액 구성 전망(가정 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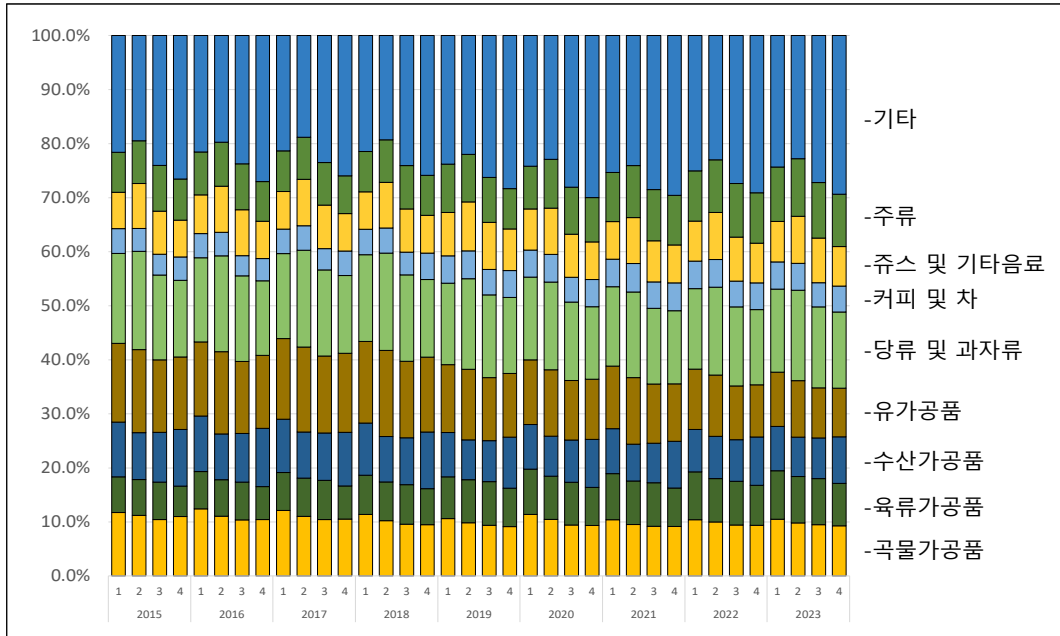
구분	곡물 가공품	육류 가공품	수산 가공품	유가공품	유지류	과일 가공품	채소 가공품	당류 및 과자류	조미 식품	기타 식품	커피 및 차	주스 및 기타음료	주류
2019년 1분기	10.6	7.7	8.2	12.6	1.8	2.8	1.2	15.0	5.7	12.4	5.1	8.0	8.9
2019년 2분기	9.9	7.9	7.4	13.0	1.4	1.9	1.2	16.8	5.4	12.1	5.1	9.1	8.8
2019년 3분기	9.4	8.1	7.6	11.7	1.8	1.6	1.2	15.3	10.0	11.7	4.7	8.7	8.3
2019년 4분기	9.2	7.1	9.4	11.8	1.4	2.0	2.5	14.1	10.0	12.3	5.0	7.7	7.5
2020년 1분기	11.4	8.4	8.3	12.0	1.9	2.4	1.5	15.3	5.5	13.0	5.0	7.6	7.9
2020년 2분기	10.5	8.0	7.4	12.3	1.8	1.6	1.4	16.2	5.9	12.3	5.1	8.6	9.0
2020년 3분기	9.4	7.9	7.8	11.0	1.9	1.7	1.2	14.5	10.8	12.5	4.6	7.9	8.7
2020년 4분기	9.3	7.1	8.9	11.1	1.6	1.8	2.4	13.4	11.0	13.1	5.0	6.9	8.2
2021년 1분기	10.4	8.5	8.3	11.6	2.0	2.5	1.5	14.7	5.9	13.5	5.1	6.9	9.1
2021년 2분기	9.5	8.1	6.8	12.3	1.7	1.9	1.3	15.8	6.3	12.8	5.3	8.5	9.6
2021년 3분기	9.2	8.0	7.3	11.0	2.0	1.6	1.2	14.0	11.0	12.7	4.9	7.6	9.4
2021년 4분기	9.2	7.1	8.6	10.7	1.6	1.7	2.5	13.5	10.5	13.3	5.2	7.0	9.2
2022년 1분기	10.4	8.8	7.9	11.1	1.8	2.2	1.4	14.9	5.7	14.0	5.1	7.4	9.3
2022년 2분기	10.0	8.0	7.8	11.4	1.7	1.4	1.2	16.2	5.4	13.3	5.2	8.7	9.7
2022년 3분기	8.6	8.5	7.7	10.3	1.9	1.8	1.1	15.4	10.4	10.8	5.0	9.0	9.4
2022년 4분기	8.4	7.7	9.1	10.0	1.5	2.0	2.7	14.8	10.0	11.6	5.3	8.2	8.8
2023년 1분기	9.6	9.5	8.3	10.4	1.8	2.9	1.3	16.5	3.7	12.5	5.4	8.3	9.6
2023년 2분기	8.9	9.1	7.3	10.9	1.6	2.0	1.1	18.0	3.6	12.3	5.3	9.8	10.2
2023년 3분기	8.6	9.0	7.5	9.5	2.0	1.9	1.1	15.9	10.1	10.8	4.7	9.1	9.8
2023년 4분기	8.3	8.2	8.8	9.2	1.5	2.0	2.7	15.0	10.4	11.5	5.0	8.2	9.1

주: 2022년 2분기까지는 가계동향조사 실적치, 2022년 3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는 가정(1)에 바탕을 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2.5.2. 코로나19 영향이 이전 수준으로 지속되는 경우(가정2)의 가공식품 부류별 지출액 전망

○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가공식품 부류별 지출액 구성 추이를 살펴 보면, 육류가공품, 과일가공품, 당류 및 과자류, 주류의 비중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임. 반면, 지출액 구성비가 줄어든 부류는 수산가공품, 유가공품, 커피 및 차이며, 지출액 구성비가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공식품 부류로는 곡물가공품, 유지류, 채소가공품, 기타식품, 주스 및 기타음료임(그림 4-10, 표 4-11).

〈그림 4-10〉 가구의 가공식품 부류별 월평균 지출액 구성 전망(가정 2)



주 1) 2022년 2분기까지는 가계동향조사 실적치, 2022년 3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는 가정(1)에 바탕을 둔 전망치임.

2) 기타는 과일가공품, 채소가공품, 유지류, 조미식품, 기타식품으로 구성됨.

자료: 통계청(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표 4-11〉 가구의 가공식품 부류별 월평균 지출액 구성 전망(가정 2)

단위: %

구분	곡물 가공품	육류 가공품	수산 가공품	유가공품	유지류	과일 가공품	채소 가공품	당류 및 과자류	조미 식품	기타 식품	커피 및 차	주스 및 기타음료	주류
2019년 1분기	10.6	7.7	8.2	12.6	1.8	2.8	1.2	15.0	5.7	12.4	5.1	8.0	8.9
2019년 2분기	9.9	7.9	7.4	13.0	1.4	1.9	1.2	16.8	5.4	12.1	5.1	9.1	8.8
2019년 3분기	9.4	8.1	7.6	11.7	1.8	1.6	1.2	15.3	10.0	11.7	4.7	8.7	8.3
2019년 4분기	9.2	7.1	9.4	11.8	1.4	2.0	2.5	14.1	10.0	12.3	5.0	7.7	7.5
2020년 1분기	11.4	8.4	8.3	12.0	1.9	2.4	1.5	15.3	5.5	13.0	5.0	7.6	7.9
2020년 2분기	10.5	8.0	7.4	12.3	1.8	1.6	1.4	16.2	5.9	12.3	5.1	8.6	9.0
2020년 3분기	9.4	7.9	7.8	11.0	1.9	1.7	1.2	14.5	10.8	12.5	4.6	7.9	8.7
2020년 4분기	9.3	7.1	8.9	11.1	1.6	1.8	2.4	13.4	11.0	13.1	5.0	6.9	8.2
2021년 1분기	10.4	8.5	8.3	11.6	2.0	2.5	1.5	14.7	5.9	13.5	5.1	6.9	9.1
2021년 2분기	9.5	8.1	6.8	12.3	1.7	1.9	1.3	15.8	6.3	12.8	5.3	8.5	9.6
2021년 3분기	9.2	8.0	7.3	11.0	2.0	1.6	1.2	14.0	11.0	12.7	4.9	7.6	9.4
2021년 4분기	9.2	7.1	8.6	10.7	1.6	1.7	2.5	13.5	10.5	13.3	5.2	7.0	9.2
2022년 1분기	10.4	8.8	7.9	11.1	1.8	2.2	1.4	14.9	5.7	14.0	5.1	7.4	9.3
2022년 2분기	10.0	8.0	7.8	11.4	1.7	1.4	1.2	16.2	5.4	13.3	5.2	8.7	9.7

(계속)

구분	곡물 가공품	육류 가공품	수산 가공품	유가공품	유지류	과일 가공품	채소 가공품	당류 및 과자류	조미 식품	기타 식품	커피 및 차	쥬스 및 가티음료	주류
2022년 3분기	9.4	8.1	7.7	10.0	2.1	1.4	1.2	14.6	11.0	11.7	4.8	8.2	9.9
2022년 4분기	9.4	7.4	8.9	9.7	1.7	1.5	2.6	13.9	10.7	12.5	4.9	7.3	9.4
2023년 1분기	10.5	9.0	8.2	10.0	2.0	2.3	1.4	15.4	5.2	13.4	5.0	7.4	10.1
2023년 2분기	9.8	8.6	7.3	10.5	1.8	1.5	1.2	16.7	5.1	13.1	5.0	8.7	10.6
2023년 3분기	9.5	8.5	7.5	9.3	2.1	1.5	1.2	15.0	10.7	11.7	4.5	8.3	10.3
2023년 4분기	9.3	7.8	8.6	9.0	1.7	1.6	2.6	14.1	11.0	12.4	4.8	7.3	9.7

주: 2022년 2분기까지는 가계동향조사 실적치, 2022년 3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는 가정(1)에 바탕을 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V

식품산업 구조 및 변화 분석

1

개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¹⁴⁾

- 국내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해지면서 문화, 첨단기술 등 타 산업과의 연계가 가속화되고, 부가가치가 상승하면서 식품산업의 신(新)성장 동력으로서의 가치가 재인식되어 옴.
 - 특히, 최근 식품산업은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 푸드테크(food tech) 등 신기술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세계 식량 안보 위협과 그에 따른 세계 식품시장 공급망 차질 등 급변하는 환경에 놓여있음.
- 경제성장률 감소, 무역수지 적자 및 원화 가치 하락 등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식품산업은 생산과 고용 및 수출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을 책임지는 산업으로써 비교적 안정적인 산업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통계청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식품제조업 매출액 및 종사자 수는 5년 전 대비 각 21.1%, 2.7% 증가(2015년, 103조 9,579, 34만 2,224명 → 2020년, 125조 8,856억 원으로 39만 901명)했으며, 일반제조업(각 4.2%, -0.3%) 대비 더 높은 증가세에 있음.

14) 본 장은 서울대학교 김관수 교수 연구팀에서 작성함.

- 또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수산물 수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113.5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5.0% 증가함.
- 최근 국내 제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은 증가하는 반면 고용량은 감소하는 ‘고용 없는 성장’이 뚜렷하게 관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길은선 외, 2019), 식품제조업은 산업 성장에 따라 생산과 고용이 모두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해 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 그동안 식품산업에 대한 다양한 통계 생산 및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식품산업의 꾸준한 성장과 생산 및 규모 증가 추세 대비 구조적인 변화를 세부 업종별로 파악하거나 적절한 모형을 활용하는 엄밀한 분석이 부족한 실정임.
 - 대내외적으로 경기 불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업의 구조변화 현황 파악과 변화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 또한, 외부 환경 변화가 국내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식품산업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피고, 그 변화의 주요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식품제조업 생산과 고용 측면의 구조변화 현황을 파악하고, 구조변화 여부와 변화요인을 분석하여 식품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식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따라서, 식품제조업의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산업 구조변화 관련 주요 이슈들을 파악하고, 식품산업 동향과 전반적인 산업구조 및 구조 변화요인을 파악하고자 함.

- 2장에서는 먼저 2000년 이후 식품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경제에서 식품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및 고용 규모, 생산비 구조, 업종 및 품목별 구조변화 등을 조사함.
- 3장에서는 시계열 분석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 여부와 시점을 추정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산업구조의 변화요인을 분석함.

2.1.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구조변화 분석

- 본 절에서는 통계청의 「경제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등을 기초로 식품제조업의 생산 및 고용현황을 살펴보고, 전반적인 식품산업 구조 실태를 분석함.
 - 먼저 식품산업의 범위와 규모를 살펴보고, 현황과 성장 추이를 나타냄. 특히, 국내총생산과 부가가치, 경제활동인구와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식품제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를 살펴본 뒤 원재료비 및 인건비 등의 생산비 구조변화를 조사함.
 - 또한, 세부업종 및 품목별 산업의 구조변화를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을 나타내고 최근 출하액 증감 주요 업종 및 품목을 살펴봄.
- 기존 2021년 연구에서는 식품제조업 산업 현황과 특징을 ‘인력’ 중심으로 세부 업종별 현황 및 인적 구조를 분석함.
 - 특히 인적 구조변화를 시기별, 고용 형태별, 종사자 특성별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인적 구조와 종사자의 질적 양상 파악을 통해 식품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사점 도출에 중점을 둬.
- 한편, 본 연구에서는 식품산업 구조를 고용 측면과 아울러 생산 측면에서도 살펴보며 식품산업의 통합적 구조 현황과 변화를 분석하였다는 데 차별점이 있음.
 - 특히 2000년대와 최근 10년간 식품제조업의 구조변화를 비교하며, 식품제조업의 세부 업종 및 품목별 구조변화를 기초로 시장 확대 및 국제 시장 경쟁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안 등을 제시함.

2.2. 식품산업 구조 변화요인 분석

- 본 절에서는 다중구조변환모형을 활용하여 식품제조업의 생산 및 고용 구조변화 여부 및 시점을 검정함. 세부 업종별로 특성과 구조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 소분류 수준에서 자료를 구성하였고, 이를 제조업 전체 구조변화 분석 결과와 비교하였음.
- 다음으로, 검정을 통해 도출된 구조변화 시점별로 식품제조업 구조변화의 요인을 생산과 고용 측면에서 분석함.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부가가치와 종사자 수이며, 설명변수는 인구요인, 생산요인, 기타 통제요인 등으로 구성됨.

〈표 1-1〉 식품산업 구조변화 실증분석 요약

	STEP ① 식품산업 구조변화 검정	STEP ② 식품산업 구조 변화요인 분석
연구목적	- 구조변화 발생 가능성 및 시점 검정	- 시점별 설명변수의 통계적 유의성 확인 및 주요결과 해석
연구가설	- 지난 20년간 식품제조업 생산 및 고용 부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구조변화가 발생하였다. - 구조변화 시점별로 설명변수의 영향이 상이하다.	
방법론	다중구조변환모형 (Bai & Perron, 1998, 2003)	고정효과(fixed effect) 패널 회귀분석
분석자료	(종속변수) ① 생산 측면: 식품제조업 세부업종별 부가가치 ② 고용 측면: 식품제조업 세부업종별 종사자수 (설명변수) ① 인구요인: 고령 경제활동인구 비중 ② 산업요인: 자본투입, 생산액 증가율, 노동투입(양적, 질적), 노동생산성, 임금, 노조가입률 ③ 기타통제변수: 실업률, 수출액 비중	
분석시점	2002~2020년, 연도별	
분석수준	전국, 식품제조업 세부업종별(소분류, 10개 업종)	

- 본 연구는 2021년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와 비교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차별점을 가지고 있음.
 - 지난해에는 식품제조업의 고용 부문에 한해 구조변화분석을 시도하였고, 올해에는 식품제조업을 생산과 고용 측면으로 구분하여 산업의 구조변화 여부와 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시도한다는 데 차별점이 있음.
 - 지난해에는 산업 중분류 수준에서 식품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표본 크기(number of observations)가 매우 작았음(N=23). 올해에는 산업 소분류 수준으로 분석자료

를 구성하여 표본을 추가로 확보(식품제조업 N=200, 전체제조업 N=1,640)하고, 분석 결과의 신뢰도와 강건성(robustness)을 높이고자 하였음.

- 식품제조업의 구조변화 분석 결과를 전체제조업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구조변화 양상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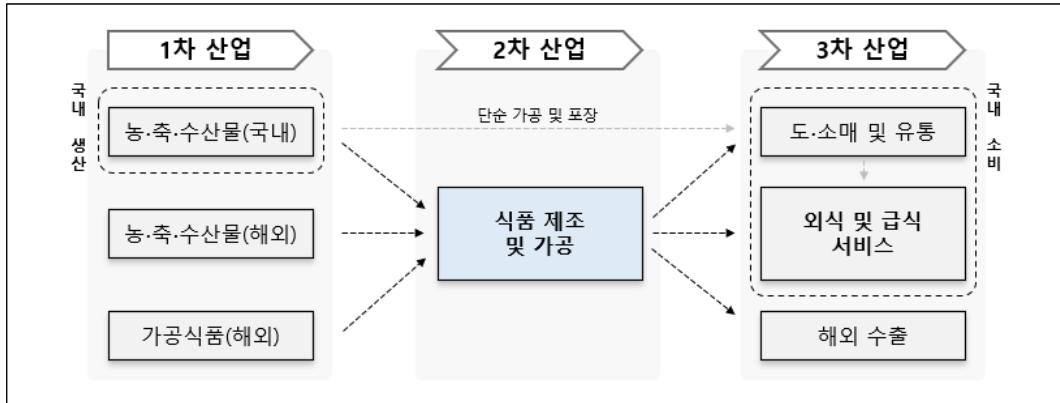
추진 실적

1. 식품산업 개요

1.1. 식품산업의 범위

- 광의의 의미에서 식품산업은 농림어업(1차 산업), 농림수산물을 원료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업(2차 산업), 식품 유통 산업(농식품 도소매업) 및 외식산업(3차 산업) 등으로 구성될 수 있음(김영수 외, 2013).
 - 이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모든 구성 주체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산업을 식품산업으로 정의하며, 식품제조업을 중심으로 원료 생산과 관련된 농림어업을 후방 산업, 그리고 식품 유통 및 외식산업 전반을 전방산업으로 포함하는 것임.
- 한편, 협의의 의미에서 식품산업은 농림어업과 구분하여 식품제조업과 외식산업 전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식품산업을 식품의 가공 및 제조업으로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함.

〈그림 2-1〉 식품산업의 범위



자료: 저자 작성.

○ 통계청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 C 제조업)에 따라 본 연구 대상은 식료품 제조업(10)과 음료 제조업(11)으로 선정함<표 2-1>.

- 식품산업은 표준산업분류(KSIC: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에 따라 ‘육가공업’, ‘수산가공업’, ‘과채가공업’, ‘동물성 유지 제조업’, ‘낙농업’, ‘곡물가공업’, ‘기타 식품제조업’,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음료제조업’, ‘주류제조업’ 등 10개의 세부 업종(소분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세부업종은 다시 19개의 세분류 업종, 그리고 더 세부적인 51개 세세분류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음.

〈표 2-1〉 표준산업분류상 식품산업의 구성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육가공업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도축업	도축업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가공업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제조업,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물 제조업,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식품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과채가공업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제조업,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유지 제조업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동물성 유지 제조업, 식물성 유지 제조업, 식용유 정제 및 가공유 제조업
낙농 및 빙과 제조업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계속)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곡물가공업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곡물가공품 제조업	곡물 도정업, 곡물 제분업,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전분 제품 및 당류 제조업
기타 식품제조업	떡 제조업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떡류 제조업, 빵류 제조업,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설탕 제조업	설탕 제조업
	국수·라면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제조업
	장류·조미료 제조업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장류 제조업,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도시락 제조업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제품 제조업)	도시락류 제조업,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커피 가공업, 차류 가공업,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인삼식품 제조업,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배합 사료 제조업, 단미 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주류제조업 (알콜 음료 제조업)	발효주 제조업	탁주 및 약주 제조업, 청주 제조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기타 발효주 제조업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주정 제조업, 소주 제조업,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음료제조업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비알콜음료 및 얼음제조업	얼음제조업, 생수제조업,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주: 대분류 - 일반제조업; 중분류 -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자료: 통계청, 표준산업분류(KSIC)

1.2. 식품산업 현황

○ 통계청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식품제조업 사업체 수는 71,965개(식료품 제조업 70,089개, 음료 제조업 1,876개)이며, 총 39만 629명(식료품 제조업 37만 629명, 음료 제조업 2만 272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¹⁵⁾

- 2020년 기준, 식품제조업은 일반제조업 사업체 수의 12.4%를 차지하며,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15) 본문의 '식품제조업'은 식료품 제조업(10)과 음료 제조업(11)을 포함.

- 2020년 식품제조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각 15.5%, 4.2% 증가함.
 - 동기 일반제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증가율은 각 31.5%, 3.3%로, 일반제조업 대비 식품제조업 사업체 수는 덜 증가했으나, 종사자 수는 더 많이 증가함.
 - 한편, 2006년 이후 식품제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 1.9%, 2.7%로, 2020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이전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2-2〉 식품제조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2006~2020년)

단위: 개, 명, %

연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일반 제조업	식품제조업			비중	일반 제조업	식품제조업			비중
		전체	식료품	음료			전체	식료품	음료	
2006	335,288	56,008	54,822	1,186	16.7	3,231,791	269,573	252,940	16,633	8.3
2007	335,402	55,867	54,692	1,175	16.7	3,259,932	269,479	253,669	15,810	8.3
2008	327,982	54,689	53,529	1,160	16.7	3,247,881	270,602	254,304	16,298	8.3
2009	328,565	54,739	53,580	1,159	16.7	3,262,933	277,481	261,109	16,372	8.5
2010	336,908	54,050	52,892	1,158	16.0	3,422,439	277,331	260,521	16,810	8.1
2011	351,346	54,465	53,289	1,176	15.5	3,625,989	290,638	273,952	16,686	8.0
2012	371,906	54,584	53,338	1,246	14.7	3,718,188	298,383	281,523	16,860	8.0
2013	382,575	55,432	54,148	1,284	14.5	3,825,678	303,950	287,248	16,702	7.9
2014	409,232	58,118	56,694	1,424	14.2	3,981,938	322,797	305,038	17,759	8.1
2015	428,643	57,954	56,490	1,464	13.5	4,102,259	331,564	313,422	18,142	8.1
2016	430,948	59,171	57,734	1,437	13.7	4,097,338	343,247	324,392	18,855	8.4
2017	433,684	60,089	58,653	1,436	13.9	4,103,986	346,021	327,381	18,640	8.4
2018	437,024	61,620	60,071	1,549	14.1	4,105,871	362,090	342,089	20,001	8.8
2019	440,766	62,329	60,715	1,614	14.1	4,123,817	374,807	353,949	20,858	9.1
2020	579,645	71,965	70,089	1,876	12.4	4,260,429	390,629	370,629	20,272	9.2
(전년대비) 증감율	31.5	15.5	15.4	16.2	-	3.3	4.2	4.7	-2.8	-
(연평균) 증감율	4.3	1.9	1.8	3.4	-	2.0	2.7	2.8	1.5	-

주 1) 식품제조업은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을 포함

2)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 기준 자료는 2006년부터 제공

3) 비중은 일반제조업에서 식품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4) '증감(전년 대비)'은 2019년 대비 2020년 증감(%)을, '증감(연평균)'은 2006~2020년 연평균 증가율(%)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

- 2020년 식품제조업 매출액은 125조 8,860억 원으로 5년 전(2015년, 103조 9,580억 원) 대비 21.1% 성장함(표 2-3).

- 동기(2015~2020년) 제조업 전체 매출액은 4.2% 증가하였으며, 이는 타 제조산업 대비 식품제조업의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함.
- 꾸준히 증가세이던 식품제조업 매출액은 2020년 소폭 감소(-0.5%)하였으나, 2019년 이후 전체제조업 매출액 감소율(2019년 -1.2%, 2020년 -4.2%)과 비교했을 때 감소 폭이 작은 수준임.

○ 또한, 2020년 식품제조업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전년 대비 각 15.5%, 4.2%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규모가 전년 대비 0.5% 감소한 것은 신생 식품 제조 사업체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 규모가 다소 위축되었음을 나타냄.

- 특히 영세한 사업체 비중이 높은 산업의 특성상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비대면 소비 일반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 영업 부진의 영향이 주요한 것으로 생각됨.
- 한편, 전체제조업 매출액에서 식품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6.0%에서 2020년 6.9%로 소폭 증가함.

〈표 2-3〉 식품제조업 매출액(2015~2020년)

단위: 십억 원, %

연도	제조업(10~34)						비중
			식품제조업				
	매출액	증감	전체	증감	식료품	음료	
2015	1,743,642	-	103,958	-	92,668	11,290	5.96
2016	1,697,562	-2.64	108,561	4.43	97,053	11,508	6.40
2017	1,846,038	8.75	114,111	5.11	102,233	11,878	6.18
2018	1,919,606	3.99	122,132	7.03	109,687	12,444	6.36
2019	1,896,310	-1.21	126,462	3.55	114,054	12,408	6.67
2020	1,816,489	-4.21	125,886	-0.46	113,455	12,431	6.93
연평균	-	0.94	-	3.93	-	-	6.42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

2.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구조변화

2.1. 국민경제 비중 변화

- 본 절에서는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국민소득통계」를 활용해 우리나라 국민경제에서 식품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함.
 - 국민경제에서 식품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명목 국내총생산(nominal Gross Domestic Product)과 비교하여 계산됨.
 - 국민경제에서 식품제조업이 차지하는 고용 비중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와 비교하여 계산됨.¹⁶⁾
 - 한편, 식품제조업 부가가치는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조사대상 기준에 따라 종사자 수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따라서 종사자 수 10인 미만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조사에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전체 식품제조업 부가가치가 과소 추계됨을 유의해야 함.

- 2020년 국내 식품제조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39조 4,076억 원으로 2000년(15조 523억 원) 대비 161.8%, 2010년(22조 6,651억 원) 대비 73.9% 증가함<표 2-4>.
 - 한편, 2020년 국내총생산은 1,940조 7,262억 원으로 2000년(651조 6,340억 원) 대비 197.8%, 2010년(1,322조 6,110억 원) 대비 46.7% 증가함.

- 2000년대 식품제조업 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은 4.3%로 국내총생산 연평균 증가율(7.4%) 대비 낮은 수준이었음. 반면, 2010년 이후 식품제조업 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은 5.7%로 국내총생산 연평균 증가율(3.9%)보다 높아짐<표 2-4>.
 - 국내총생산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이나, 식품제조업 부가가치는 2006년까지 등락을 반복하다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16) '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노동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 즉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함.

-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둔화에 따라 2020년 국내총생산은 전년 대비 0.8% 증가에 그쳤으나, 식품제조업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9.8% 증가함.

〈표 2-4〉 국내총생산 및 식품제조업 부가가치 비중(2000~2020년)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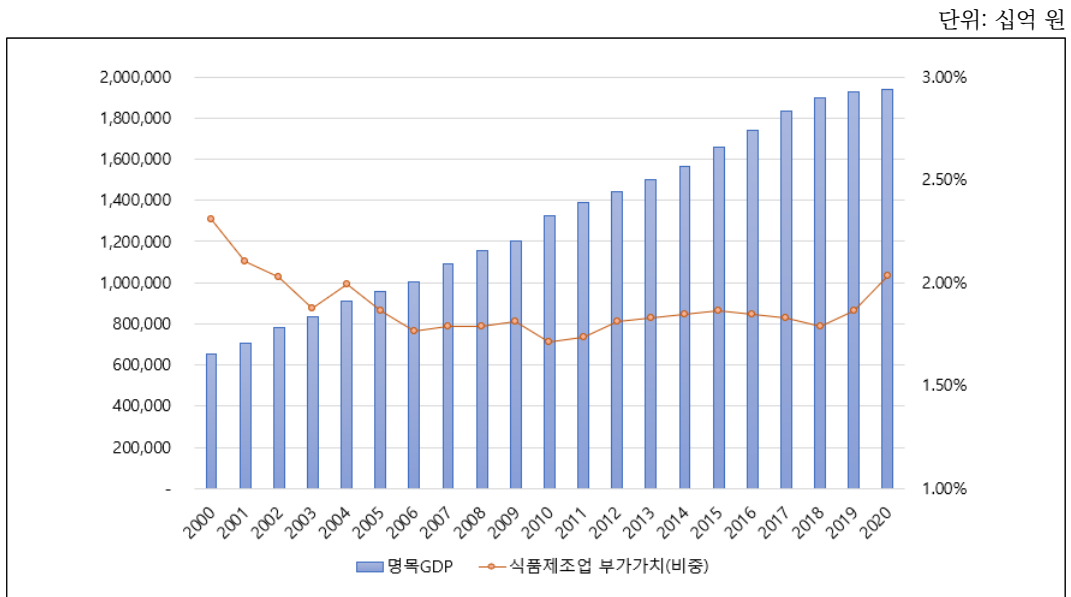
연도	국내총생산		식품제조업		비중	증감	
	전체	증감	부가가치	증감			
2000	651,634	-	15,052	-	2.31	-	
2001	707,021	8.50	14,854	-1.32	2.10	▽0.21	
2002	784,741	10.99	15,930	7.25	2.03	▽0.07	
2003	837,365	6.71	15,725	-1.29	1.88	▽0.15	
2004	908,439	8.49	18,119	15.23	1.99	0.12	
2005	957,448	5.39	17,841	-1.53	1.86	▽0.13	
2006	1,005,602	5.03	17,756	-0.48	1.77	▽0.10	
2007	1,089,660	8.36	19,473	9.67	1.79	0.02	
2008	1,154,217	5.92	20,651	6.05	1.79	0.00	
2009	1,205,348	4.43	21,804	5.58	1.81	0.02	
2010	1,322,611	9.73	22,665	3.95	1.71	▽0.10	
2011	1,388,937	5.01	24,078	6.23	1.73	0.02	
2012	1,440,111	3.68	26,090	8.36	1.81	0.08	
2013	1,500,819	4.22	27,449	5.21	1.83	0.02	
2014	1,562,929	4.14	28,852	5.11	1.85	0.02	
2015	1,658,020	6.08	30,863	6.97	1.86	0.02	
2016	1,740,780	4.99	32,125	4.09	1.85	▽0.02	
2017	1,835,698	5.45	33,583	4.54	1.83	▽0.02	
2018	1,898,193	3.40	33,963	1.13	1.79	▽0.04	
2019	1,924,498	1.39	35,904	5.72	1.87	0.08	
2020	1,940,726	0.84	39,408	9.76	2.03	0.16	
연평균 증가율	'01~'10	-	7.36	-	4.31	-	-
	'11~'20	-	3.92	-	5.71	-	-

주: 식품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종사자 수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광업·제조업조사; 한국은행(각 연도), 국민소득통계.

○ 2020년 기준, 식품제조업 부가가치(39조 4,076억 원)가 국내총생산(1,940조 7,262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임. 이는 2000년(2.3%) 대비 감소한 정도이나, 2006년(1.8%)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을 책임지는 산업으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산업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2-2).

- 또한, 식품제조업은 부가가치는 최근 3개년 간(2018~2020년) 연평균 5.5%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둔화한 국내총생산 증가세(동기간 연평균 1.9%)와 비교해 그 비중이 도드라지게 증가함.

〈그림 2-2〉 식품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추이(2000~2020)



주: 식품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종사자 수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광업·제조업조사; 한국은행(각 연도), 국민계정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 2020년 식품제조업 종사자 수는 39만 629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2,801만 2,000여 명의 1.4% 수준임. 한편, 2020년 식품제조업 종사자 수는 2000년(28만 5,659명) 대비 36.7% 증가했으며, 2010년 대비 40.9% 증가하며 경제활동인구 증가율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임<표 2-5>.

- 2020년 경제활동인구는 2000년(2,215만 1,000여 명) 대비 26.5% 증가했으며, 2010년 대비 12.2% 증가함.

○ 2000년 이후 경제활동인구는 지속해서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0.6%)을 기록함. 또한,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체 경제활동인구가 1.2%, 식품제조업 고용 규모가 3.5% 수준임<표 2-5>.

- 식품제조업 종사자 수는 2010년까지 10년간 연평균 -0.2% 성장률을 보이다가 이후 성장세에 접어들며 연평균 3.5%로 증가하는 추세임.
- 최근 10년간 식품제조업 고용 규모가 전체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의 약 2.9배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냄.

〈표 2-5〉 경제활동인구 및 식품제조업 종사자 비중(2000~2020년)

단위: 명, %

연도	경제활동인구		식품제조업		비중	증감	
	전체	증감	종사자 수	증감			
2000	22,151,000	-	285,659	-	1.29	-	
2001	22,511,000	1.63	304,939	6.75	1.35	0.065	
2002	22,982,000	2.09	305,365	0.14	1.33	▽0.026	
2003	23,043,000	0.27	302,994	-0.78	1.31	▽0.014	
2004	23,544,000	2.17	301,799	-0.39	1.28	▽0.033	
2005	23,718,000	0.74	297,441	-1.44	1.25	▽0.028	
2006	24,024,000	1.29	269,573	-9.37	1.12	▽0.132	
2007	24,351,000	1.36	269,479	-0.03	1.11	▽0.015	
2008	24,551,000	0.82	270,602	0.42	1.10	▽0.004	
2009	24,582,000	0.13	277,481	2.54	1.13	0.027	
2010	24,956,000	1.52	277,331	-0.05	1.11	▽0.018	
2011	25,389,000	1.74	290,638	4.80	1.14	0.033	
2012	25,781,000	1.54	298,383	2.66	1.16	0.013	
2013	26,108,000	1.27	303,950	1.87	1.16	0.007	
2014	26,836,000	2.79	322,797	6.20	1.20	0.039	
2015	27,153,000	1.18	331,564	2.72	1.22	0.018	
2016	27,418,000	0.98	343,247	3.52	1.25	0.031	
2017	27,748,000	1.20	346,021	0.81	1.25	▽0.005	
2018	27,895,000	0.53	362,090	4.64	1.30	0.051	
2019	28,186,000	1.04	374,807	3.51	1.33	0.032	
2020	28,012,000	-0.62	390,629	4.22	1.39	0.065	
연평균 증가율	'00-'10	-	1.20	-	-0.22	-	-
	'11-'20	-	1.17	-	3.50	-	-

자료: 통계청(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 경제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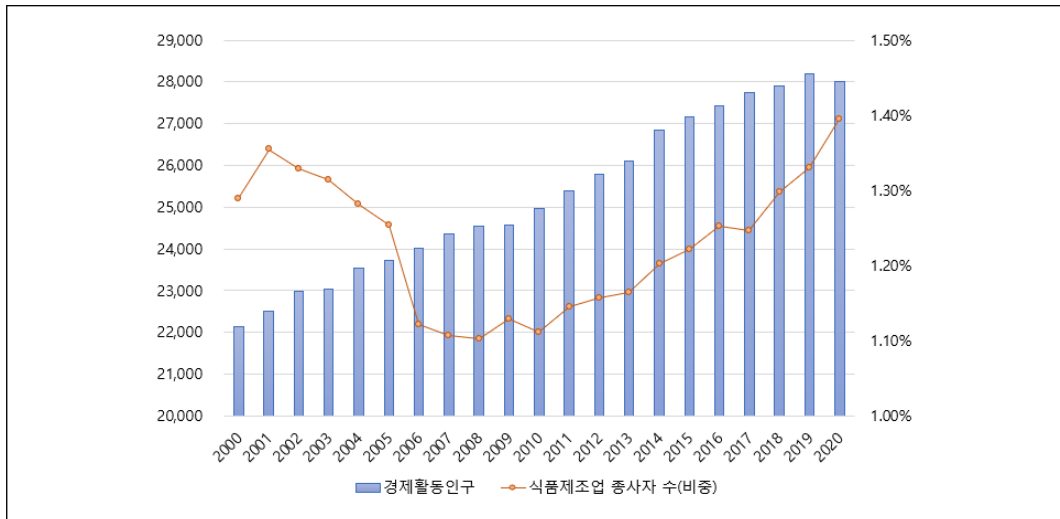
○ 국내 식품제조업 고용 분야는 2000년 이후 평균 1.2% 수준에서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부가가치 기준 식품제조업이 국민총생산의 평균 1.9%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식품제조업에 종사하는 1.2%의 경제활동인구가 국민경제의 1.9%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그림 2-3).

○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식품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2000대 감소세에서 2008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식품제조업 생산액이 2007년에 전년 대비 9.1%, 2008년에 14.9%, 2009년에 9.7% 증가(표 2-6 참고)하며 고용 규모 또한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2-3>.

- 특히,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제조업 전반의 생산 및 소비가 다소 줄었으나 식품제조업의 경우 큰 피해 없이 성장세를 이어 갔으며, 이후 경기 회복과 외국 자본 유출입 자유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장이 더욱 개방되며 노동집약도가 높은 식품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생각됨.

<그림 2-3> 식품제조업의 고용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초로 저자 작성.

2.2. 생산비(원재료비 및 인건비) 구조변화

○ 2020년 식품제조업 주요 생산비는 63조 6,930억 원이며, 원재료비가 59조 3,029억 원으로 주요 생산비의 93.1%를 차지함<표 2-6>.¹⁷⁾

17) '주요 생산비'는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수선비 등을 포함.

- 2020년 식품제조업의 생산액(103조 1,006억 원)과 비교했을 때 주요 생산비는 생산액의 61.8% 수준임.
- 2020년 주요 생산비는 2000년(19조 2,275억 원) 대비 231.3% 증가하였으며, 동기생산액(2000년 34조 2,798억 원 → 2020년 103조 1,006억 원)이 200.8% 증가한 것 대비 큰 증가율을 보임<표 2-6>.
- 주요 생산비의 높은 증가율은 원재료비 증가율이 주요한 원인이었으며, 2020년 원재료비(59조 3,029억 원)는 2000년(18조 560억 원) 대비 228.4% 증가한 수준임.
 - 이는 물가, 유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국내·외 원재료 가격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됨.
- 2000년 이후 원재료비는 연평균 6.2% 증가세에 있으며, 생산액의 연평균 증가율(5.7%) 대비 높은 수준임<표 2-6>.
- 특히, 원재료비는 2001년에 전년 대비 11.2%로 증가 후 10% 미만의 증가세에 있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아 전년 대비 21.9%로 많이 증가함. 이후 2009년에 12.3%, 2011년에 12.7%로 전년 대비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2012년 이후에는 연평균 3.0% 증가세에 있음.
 - 다만, 2020년 식품제조업 원재료비가 전년 대비 5.9% 증가하며 예년 대비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물류 및 인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며 원재료비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됨.
- 생산액 대비 원재료비 비중은 2000년 52.7%에서 2020년 57.5%로 증가세에 있으며, 2008년 59.4% 이후 2014년까지는 60% 이상을 웃도는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었음<표 2-6>.
- 이는 2008년 금융위기와 세계 식량 위기로 인해 환율 및 국제원료 가격이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원재료수입물가 급등에 의한 영향으로 생각되며 2015년 이후에는 58%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한편, 주요 생산비에서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이후 평균 93.8%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음(±1% 내외).

〈표 2-6〉 식품제조업 생산액, 주요 생산비 및 원재료비(2000~2020년)

단위: 백만 원, %

연도	생산액	증감	주요 생산비	증감	원재료비		비중	
					원재료비	증감		
2000	34,279,807	-	19,227,493	-	18,056,026	-	93.9	
2001	36,220,994	5.7	21,367,139	11.1	20,087,107	11.2	94.0	
2002	39,144,769	8.1	23,214,379	8.6	21,844,450	8.7	94.1	
2003	39,791,349	1.7	24,066,540	3.7	22,571,301	3.3	93.8	
2004	43,697,390	9.8	25,578,453	6.3	24,072,206	6.6	94.1	
2005	43,783,302	0.2	25,942,035	1.4	24,323,385	1.0	93.8	
2006	44,381,526	1.4	26,625,174	2.6	24,911,764	2.4	93.6	
2007	48,426,742	9.1	28,953,396	8.7	27,121,322	8.9	93.7	
2008	55,631,747	14.9	34,980,587	20.8	33,055,763	21.9	94.5	
2009	61,022,270	9.7	39,218,366	12.1	37,106,569	12.3	94.6	
2010	63,949,173	4.8	41,284,088	5.3	39,135,267	5.5	94.8	
2011	70,886,210	10.8	46,808,383	13.4	44,122,821	12.7	94.3	
2012	75,490,747	6.5	49,400,752	5.5	46,526,088	5.4	94.2	
2013	77,687,756	2.9	50,238,384	1.7	47,123,289	1.3	93.8	
2014	79,997,564	3.0	51,145,627	1.8	47,891,757	1.6	93.6	
2015	84,139,869	5.2	53,276,623	4.2	49,893,826	4.2	93.7	
2016	86,681,735	3.0	54,556,535	2.4	50,750,688	1.7	93.0	
2017	89,897,723	3.7	56,314,410	3.2	52,241,656	2.9	92.8	
2018	92,286,956	2.7	58,323,939	3.6	54,125,190	3.6	92.8	
2019	96,500,397	4.6	60,596,102	3.9	56,014,627	3.5	92.4	
2020	103,100,571	6.8	63,692,966	5.1	59,302,914	5.9	93.1	
연평균 증가율	'01-'10	-	6.5	-	8.1	-	8.2	-
	'11-'20	-	4.9	-	4.5	-	4.3	-
	전기	-	5.7	-	6.3	-	6.2	-

주 1) 종사자 수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2) 주요 생산비에는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수선비 등이 있음.

3) 전기 연평균 증가율은 '01-'20 기준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광업·제조업조사.

○ 2020년 10인 이상 식품제조업 종사자 23만 9천여 명 중 상용근로자와 임시 및 일용 근로자는 각 89.0%(21만 2,685명), 7.2%(1만 7,195명)임(표 2-7).¹⁸⁾

18) 전체 종사자 수 중 자영업자 및 무급 가족 종사자, 기타종사자는 급여 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별도 표기하지 않음.

- 10인 이상 식품제조업 종사자 수는 2010년(17만 1,119명) 대비 39.7% 증가하였으며, 상용근로자와 임시 및 일용 근로자 수는 2010년(각각 14만 1,894명, 2만 3,610명) 대비 49.9%, -27.2% 변함.
- 특히, 임시 및 일용 근로자 비중은 전체 종사자 수 대비 2007년 15.2%에서 2020년 7.2%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한편, 상용근로자 비중은 2007년 81.6%에서 2020년 89.0%로 증가추세에 있음.

○ 2020년 10인 이상 식품제조업 전체 급여액은 8조 7,523억 원으로 종사자 1인 평균 3,661만 원 수준임.¹⁹⁾ 한편, 상용근로자와 임시 및 일용 근로자의 1인 평균 급여액은 각 3,958만 원, 1,939만 원 수준임<표 2-7>.

- 2020년 10인 이상 식품제조업 전체 급여액은 2000년(2조 3,435억 원) 대비 273.5% 증가한 수준으로, 연평균 4.6% 증가세에 있음.
- 2020년 종사자 1인 평균 급여액은 2000년 1,480만 원 대비 147.3% 증가하였으며, 2010년 2,426만 원 대비 50.9% 증가함.
- 2020년 상용근로자와 임시 및 일용 근로자의 1인 평균 급여액은 10년 전(2010년 각 2,668만 원, 1,238만 원) 대비 각 48.3%, 56.7% 증가하며 상용근로자보다 임시 및 일용 근로자의 1인 평균 급여액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남.
- 또한, 종사자 1인 평균 급여액 증가율은 2000년대에 연평균 5.7%에서 2010년 이후 3.9% 수준으로 증가세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꾸준한 증가세에 있음. 특히, 2019년과 2020년에는 전년 대비 각각 6.9%, 6.6% 증가하며 예년(2005년 8.9% 이후) 대비 큰 증가 폭을 보임.

19) 종사자 1인 평균 급여액은 전체 급여액/전체 종사자 수로 추계함.

〈표 2-7〉 고용형태별 식품제조업 급여액(2000~2020년)

단위: 명, 백만 원

연도	종사자 수			급여액			
	전체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	전체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	
2000	158,325	-	-	2,343,514	-	-	
2001	158,676	-	-	2,488,372	-	-	
2002	161,885	-	-	2,727,978	-	-	
2003	161,974	-	-	2,913,151	-	-	
2004	159,901	-	-	3,016,460	-	-	
2005	157,686	151,611	-	3,240,829	3,177,850	-	
2006	156,967	151,765	-	3,347,440	3,290,728	-	
2007	163,236	133,129	24,763	3,597,585	3,254,820	283,469	
2008	160,584	130,400	24,173	3,621,854	3,350,957	270,897	
2009	166,538	136,365	23,624	3,893,057	3,547,194	268,036	
2010	171,119	141,894	23,610	4,152,129	3,786,235	292,239	
2011	176,729	149,599	21,701	4,434,772	4,171,908	262,864	
2012	178,839	152,767	20,287	4,626,664	4,366,834	259,830	
2013	183,800	158,268	19,070	4,884,474	4,639,639	244,835	
2014	194,954	169,180	18,491	5,433,135	5,182,631	250,504	
2015	205,018	176,181	18,919	5,898,761	5,610,365	288,396	
2016	211,568	183,904	17,539	6,326,846	6,064,054	262,792	
2017	216,998	188,140	16,394	6,749,607	6,481,984	267,623	
2018	226,915	199,670	15,565	7,292,246	7,033,765	258,481	
2019	230,039	201,956	15,074	7,900,195	7,636,523	263,672	
2020	23,9077	212,685	17,195	8,752,254	8,418,799	333,455	
연평균 증가율	'01-'10	0.8	-1.1	-1.6	5.9	3.6	-1.2
	'11-'20	3.4	4.1	-2.9	7.8	8.3	1.8
	전기	2.1	2.4	-2.6	6.8	6.8	1.7

주 1) 종사자 수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2) 2000년~2004년 세부 고용형태별(상용, 임시 및 일용) 종사자 수 및 급여액은 종사자 수 5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조사되었으므로 표기하지 않음.

3) 상용근로자와 임시 및 일용 근로자 연평균 증가율('01-'10)은 각 2005년과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광업·제조업조사.

○ 식품제조업의 생산액과 원재료비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상승세임. 생산액 대비 원재료비 비중은 2000년대 평균 56.4%에서 2010년 이후 평균 59.6% 수준으로 생산액 증가세보다 생산을 위한 원재료비 증가세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남<그림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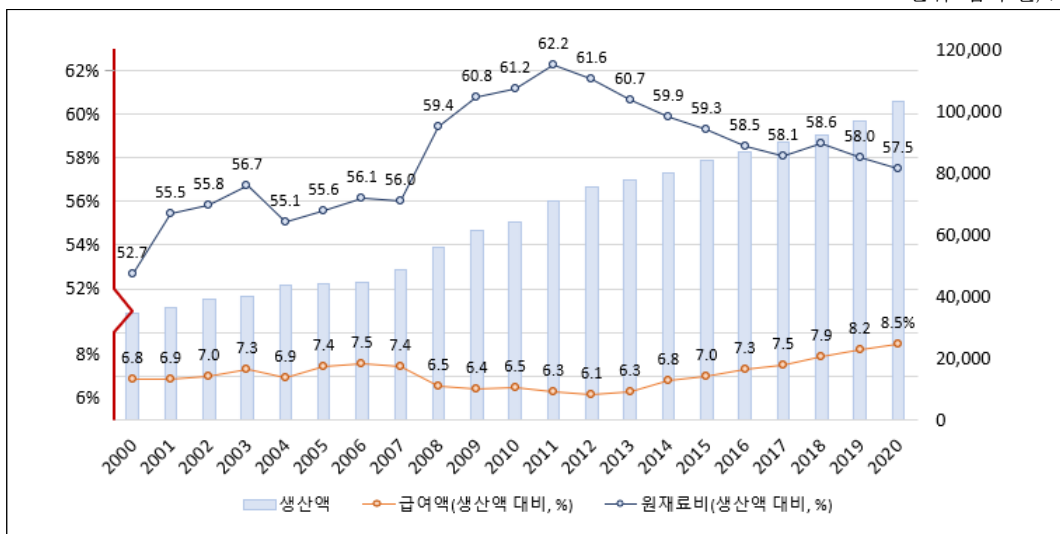
- 특히, 2007년까지 56.0%를 웃돌던 원재료비 비중은 2008년 59.4%로 급증해 2011년 62.2%를 차지했으며,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57.5%를 기록함.

○ 2000년대에는 등락을 오가던 생산비 대비 급여액 비중이 2012년 최저점(6.1%)을 기록한 뒤 2020년(8.5%)까지 꾸준히 상승 추이를 보임.

- 특히,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생산액 대비 급여액 비중이 2007년 7.4%에서 2008년 6.5%로 타년도 대비 많이 감소한 바 있음.
- 같은 해 식품제조업 생산액은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원료 및 원재료비의 증가에 따라 생산비 축소가 불가피하여 고용 규모 조정을 통해 위기로부터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됨.
- 또한, 이 시기에 10인 이상 식품제조업 전체 종사자 수가 2,652명 감소했으며, 상용 근로자와 임시 및 일용 근로자가 3,319명 감소(각 2,729명, 590명)한 것으로 나타남. 전체 종사자 수의 감소가 적은 것은 자영업자 및 무급 가족 종사자와 기타종사자가 이를 일부 대체하였기 때문임.
- 한편, 2012년 이후 생산액 대비 급여액 비중은 지속해서 증가 추세이며, 이는 앞서 파악된 상용근로자 수 증가로 인한 고용 규모 확대와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이 주요한 영향인 것으로 생각됨.

〈그림 2-4〉 식품제조업 생산액 대비 원재료비 및 급여액 비중 추이

단위: 십억 원, %



주: 주요 생산비(원재료비와 인건비) 추이를 생산액과 비교하기 위해 급여액과 원재료비는 생산액 대비 비율로 나타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광업·제조업조사를 기초로 저자 작성.

2.3. 세분류 업종 및 품목 구조변화

2.3.1. 소분류 및 종사자 규모별 현황

○ 2020년 식품제조업 세부 산업별 사업체 수는 기타 식품이 전체(71,965개소)의 59.0% (4만 23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과채 가공(7,323개소, 10.2%), 곡물 가공(5,959개소, 8.3%), 수산 가공(4,860개소, 6.8%), 육가공(3,883개소, 5.4%), 유지 제조(3,629개소, 5.0%), 사료 및 조제 식품(1,633개소, 2.3%), 알코올음료(1,158개소, 1.6%), 비알코올 음료(718개소, 1.0%), 낙농 및 빙과(341개소, 0.5%) 순임.

- 종사자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식품제조업 사업장이 전체 7만 1,965개 중 91.6%(7만 1,557개), 100인 이상 사업장이 전체의 0.6%(408개)로 대다수가 영세한 산업 특성을 보임.

〈표 2-8〉 식품제조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비중(2020년)

단위: %

구분	10인 미만	10-19인	20-49인	50-99인	100-199인	200-299인	300인 이상	계
육가공	3.79	0.70	0.63	0.18	0.07	0.02	0.01	5.40
수산 가공	5.37	0.77	0.44	0.12	0.04	0.01	0.00	6.75
과채 가공	9.33	0.42	0.33	0.07	0.02	0.00	0.00	10.18
유지 제조	4.94	0.05	0.04	0.01	0.00	-	-	5.04
낙농 및 빙과	0.31	0.02	0.07	0.03	0.03	0.01	0.01	0.47
곡물 가공	7.81	0.28	0.13	0.03	0.03	0.00	0.00	8.28
기타 식품	55.91	1.44	1.06	0.34	0.15	0.06	0.04	59.00
사료 및 조제식품	1.88	0.17	0.15	0.05	0.01	0.00	-	2.27
알코올 음료	1.48	0.04	0.04	0.03	0.01	0.01	0.01	1.61
비알코올 음료	0.75	0.09	0.08	0.04	0.02	0.01	0.00	1.00
계	91.56	3.99	2.98	0.91	0.37	0.12	0.08	100.0

주: 2020년 식품제조업 사업체 71,965개소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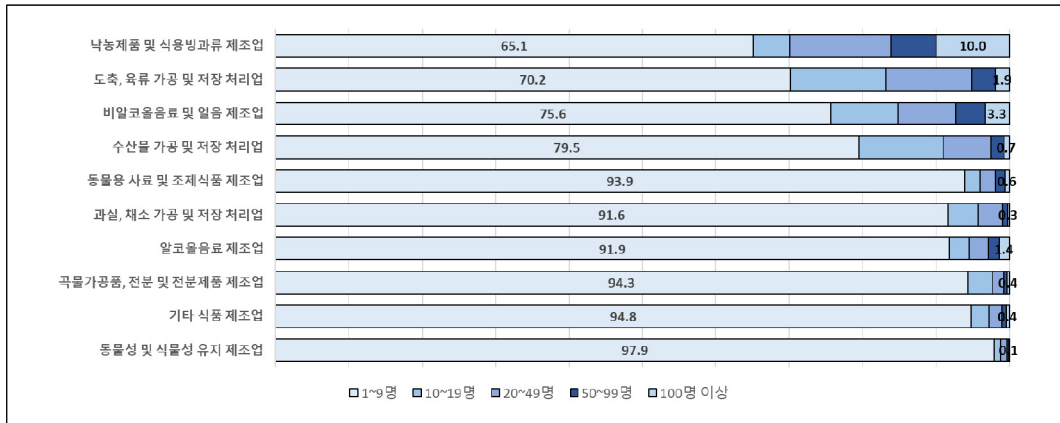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0). 경제총조사.

○ 세부 산업별로 나누어 보면, 유지제조업의 10인 미만 사업체가 해당 산업 사업체의 97.9%로 영세한 사업체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타 식품(94.8%), 곡물 가공(94.3%), 알코올 음료(91.7%), 과채 가공(91.6%)업의 영세 사업체 비중이 전체 평균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낙농 및 빙과 제조업은 해당 산업 사업체 중 종사자 수 10인 미만 사업체 비중이 65.1%로 영세한 사업체 비중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육가공(70.2%), 비알코올 음료(75.6%), 수산 가공(79.5%), 사료 및 조제 식품(82.9%)의 영세 사업체 비중이 전체 평균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반대로 세부 산업별 종사자 수 100인 이상 사업체 비중은 낙농 및 빙과 제조업이 1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비알코올 음료(3.3%), 육가공(1.9%), 알코올 음료(1.4%), 수산 가공(0.7%), 사료 및 조제 식품(0.5%), 기타 식품(0.4%), 곡물 가공(0.4%), 과채 가공(0.3%), 유지 제조(0.1%) 순임.

〈그림 2-5〉 식품제조업 세부 산업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비중(2020년)

단위: %



자료: 통계청(2020). 경제총조사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 2020년 식품제조업 세부 산업별 종사자 수는 사업체 수와 마찬가지로 기타 식품제조업이 전체(38만 5,803명²⁰)의 47.1%(18만 1,521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육가공(14.1%), 수산 가공(10.7%), 과채 가공(8.9%), 곡물 가공(5.8%), 사료 및 조제 식품(3.0%), 낙농 및 빙과(2.9%), 비알코올 음료(2.8%), 알코올 음료(2.4%), 유지 제조(2.3%) 순임.

○ 종사자 규모별로는 100인 이상 사업체 비중이 사업체 수 기준 전체 식품제조업의 0.6%에 불과하지만, 종사자 수는 전체의 21.7%를 차지함.

20) 일부 세부산업별 자료 누락으로 인해 산업별 종사자 수는 전체 식품제조업 종사자 39만 901명의 98.7% 수준인 38만 5,803명 기준임.

- 특히, 100인 이상 기타 식품제조업과 육가공업 247개소(각 174개, 73개)에만 전체 식품제조업 종사자의 14.9%(각 10.9%, 4.0%)가 종사하고 있음.

○ 산업별로는 낙농 및 빙과 제조업 종사자의 63.9%가 1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사업체 수 기준 10.0%)에 집중되어 있으며, 비알코올 음료(종사자의 43.4%가 100인 이상 사업장 3.3%에 종사), 알코올 음료(종사자의 40.4%가 100인 이상 사업장 1.4%에 종사), 육가공(종사자의 28.3%가 100인 이상 사업장 1.9%에 종사), 기타 식품 제조업(종사자의 23.1%가 100인 이상 사업장 0.4%에 종사) 또한 비슷한 특징을 지님.

- 한편 10인 미만의 낙농 및 빙과 사업체 65.1%(222개소)에 평균 3.1명, 비알코올 음료 75.6%(543개소)에 평균 2.9명, 알코올 음료 91.7%(1,062개소)에 평균 2.7명, 육가공 70.2%(2,723개소)에 평균 3.6명, 기타 식품제조업 94.8%(4만 238개소)에 평균 2.1명이 종사하고 있어 고용 규모의 양극화가 심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²¹⁾

〈표 2-9〉 식품제조업 종사자 규모별 고용(종사자 수) 비중(2020년)

단위: %

구분	10인 미만	10-19인	20-49인	50-99인	100-199인	200-299인	300인 이상	계
육가공	2.56	1.79	3.52	2.24	1.90	0.78	1.32	14.10
수산 가공	3.31	1.95	2.48	1.50	0.91	0.49	N/A	10.65
과채 가공	4.59	1.08	1.89	0.89	0.45	N/A	N/A	8.89
유지 제조	1.69	0.12	0.21	0.19	0.09	-	-	2.30
낙농 및 빙과	0.18	0.06	0.43	0.38	0.67	0.62	0.58	2.92
곡물 가공	3.40	0.69	0.69	0.43	0.63	N/A	N/A	5.84
기타 식품	22.09	3.77	5.89	4.45	3.96	2.55	4.34	47.05
사료 및 조제식품	0.80	0.42	0.90	0.69	0.19	N/A	-	3.00
알코올음료	0.75	0.11	0.25	0.34	0.24	0.27	0.46	2.41
비알코올 음료	0.40	0.23	0.45	0.52	0.61	0.33	0.30	2.84
계	39.76	10.23	16.71	11.62	9.63	5.05	7.00	100.0

주: 2020년 식품제조업 종사자 38만 5,803명 기준임.

자료: 통계청(2020). 경제총조사.

○ 2020년 세부 산업별 매출액은 기타 식품이 전체(123조 8,430억 원²²⁾의 33.1%(40조 9,970억 원)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육가공(18.5%), 사료 및 조제 식품(9.1%),

21) 10인 미만 사업체의 평균 고용 규모는 산업별 10인 미만 종사자 수를 10인 미만 사업체 수로 나누어 추계함.

22) 일부 산업별 자료 누락으로 인해 세부 산업별 매출액은 전체 식품제조업 매출액 125조 8,860억 원의 98.4% 수준인 123조 8,430억 원 기준임.

곡물 가공(8.0%), 수산 가공(7.5%), 낙농 및 빙과(7.0%), 비알코올 음료(5.6%), 알코올 음료와 과채 가공(각 4.4%), 유지 제조(2.2%) 순임.

○ 사업체 수 기준, 전체에서 0.6%를 차지하는 종사자 100인 이상 사업체가 전체 식품제조업 매출액의 40.8%를 차지하며, 반대로 99.4%의 100인 미만 사업체는 전체 식품제조업 매출액의 59.2%만 차지함<표 2-8 ~ 2-10>.

- 이는 10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21.7%의 종사자가 전체 식품제조업 매출액의 40.8%를 창출하고 있는 것임<표 2-9, 2-10>.

- 한편, 10인 미만 사업체는 사업체 수 기준 전체의 91.6%를 차지하나 매출액은 전체의 14.7% 수준으로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음<표 2-8 ~ 2-10>.

○ 종사자 10인 미만 사업체와 100인 이상 사업체가 산업별 매출액 중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보면, 낙농 및 빙과(각 0.8%, 75.8%), 비알코올 음료(각 2.4%, 67.2%), 알코올음료(각 4.2%, 70.1%) 제조업에서 세부 산업별 규모의 경제가 더 실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반대로, 과채 가공(각 28.6%, 4.7%)과 곡물 가공(각 41.3%, 20.7%) 제조업은 10인 이하 사업체 대비 100인 이상 사업체의 매출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특징이 있음.

<표 2-10> 식품제조업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비중(2020년)

단위: %

구분	10인 미만	10-19인	20-49인	50-99인	100-199인	200-299인	300인 이상	계
육가공	2.50	2.62	4.42	2.86	3.48	1.05	1.62	18.54
수산 가공	1.69	1.34	1.87	1.22	0.83	0.58	N/A	7.53
과채 가공	1.26	0.80	1.50	0.63	0.20	N/A	N/A	4.40
유지 제조	0.35	0.19	0.55	0.48	0.68	-	-	2.25
낙농 및 빙과	0.06	0.04	0.62	0.98	1.68	2.11	1.52	7.01
곡물 가공	3.32	1.44	0.92	0.71	1.66	N/A	N/A	8.05
기타 식품	4.59	2.34	4.28	4.32	6.36	4.95	6.27	33.10
사료 및 조제식품	0.64	0.87	3.58	3.08	0.91	N/A	-	9.08
알코올음료	0.19	0.06	0.34	0.73	0.56	0.84	1.67	4.40
비알코올 음료	0.14	0.16	0.51	1.04	2.28	1.06	0.45	5.64
계	14.74	9.85	18.59	16.05	18.64	10.60	11.53	100.0

주: 2020년 식품제조업 매출액 123조 8,430억 원 기준임.

자료: 통계청(2020). 경제총조사.

○ 식품제조업 세부 산업별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당 매출액을 살펴보면, 10인 미만 사업체가 평균 4억 3,500만 원, 10인 이상 20인 미만이 48억 3,800만 원, 20인 이상 50인 미만이 151억 7,100만 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 430억 7400만 원,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이 1,188억 1,700만 원,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이 1,883억 4,500만 원, 그리고 300명 이상이 2,901억 4백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표 2-11>.

○ 특히, 알코올음료 제조업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당 매출액 표준 편차가 가장 커 종사자 규모에 따른 매출액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낙농 및 빙과, 유지 제조, 비알코올 음료, 기타 식품 순임.

- 이는 앞서 나타난 산업별 규모의 경제와 비슷하게 알코올음료, 낙농 및 빙과, 유지 제조, 비알코올 음료 등을 제조하는 산업의 경우 고용 규모가 클수록 타 산업 대비 매출액 규모가 더 큰 것을 의미함.

- 반대로 과채 가공업은 종사자 규모에 따른 매출액 격차가 가장 작으며, 다음으로 수산 가공, 곡물 가공, 사료 및 조제식품, 육가공업이 타 산업과 비교했을 때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격차가 작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

<표 2-11> 식품제조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당 매출액(2020)

단위: 백만 원

구분	10인 미만	10-19인	20-49인	50-99인	100-199인	200-299인	300인 이상
육가공	1,138	6,435	11,996	28,063	81,227	108,738	250,229
수산 가공	542	2,973	7,317	17,429	39,415	89,278	-
과채 가공	233	3,312	7,720	15,002	18,118	-	-
유지 제조	122	7,061	23,525	60,008	279,300	-	-
낙농 및 빙과	324	2,923	16,281	57,831	115,551	261,749	314,158
곡물 가공	732	8,854	12,492	36,461	114,499	-	-
기타 식품	141	2,796	6,936	21,644	74,964	145,811	287,551
사료 및 조제식품	587	8,713	40,279	100,339	188,844	-	-
알코올음료	216	2,272	14,029	47,854	99,937	261,020	414,065
비알코올 음료	310	3,041	11,140	46,106	176,318	263,473	184,515
평균	435	4,838	15,171	43,074	118,817	188,345	290,104

주 1) 사업체당 매출액 = 식품제조업 세부 산업별 매출액 / 식품제조업 세부 산업별 사업체 수

2) 자료의 한계로 '-'는 결측치임.

자료: 통계청(2020). 경제총조사

2.3.2. 세분류 업종 및 품목별 구조변화

○ <표 2-12>와 <표 2-14>는 「광업·제조업 조사」를 기초로 2020년 기준 국내 식품제조업 상위 30위 주요 업종(세세분류 51개 분류) 및 품목(239개 부문)의 출하액 변화를 나타낸 표임.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출하액 증감률을 산출해 식품제조업 주요 업종과 품목의 시장 규모 변화를 나타내고자 했으며, <표 2-13>과 <표 2-15>에서는 2016년 대비 2020년 출하액 증감 주요 업종과 품목을 나타냄.
- 다만, 세분류 업종 및 품목별 출하액은 「광업·제조업 조사」 자료의 한계로 종사자 수 10인 이상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10인 이상 식품제조업 출하액 규모는 102조 2,468억 원으로 2016년(86조 6,112억 원) 대비 14.6%, 2019년(96조 2,296억 원) 대비 6.3% 증가함.

- 이 중 상위 10위 업종이 전체 출하액의 51.4%를 차지하며, 출하 규모 순으로 ‘배합 사료(9.6%)’,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6.9%)’,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가금류 제외(5.7%)’, ‘기타 비알코올 음료(5.4%)’,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5.2%)’,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4.6%)’,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3.8%)’, ‘가금류 도축업(3.7%)’,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가금류 제외(3.3%)’,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3.1%)’이 해당함.

○ 10인 이상 식품제조업 출하액은 최근 5년 동안(2016년 이후) 연평균 4.2% 증가율로 꾸준한 성장세에 있음.

- 특히, 출하액 규모 상위 30위 업종 중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식물성 유지 제조업’, 등이 각 26.8%, 19.5%, 17.9%로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반대로 ‘맥아 및 맥주 제조업’, ‘인삼 식품 제조업’,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²³⁾’은 시장 규모가 감소(각 -2.5%, -2.0%, -2.0%, -1.2%) 추세임.

23)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은 전분, 글루텐, 타피오카 등 전분류와 포도당, 과당, 맥아당 등 당류를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칭함.

- 이는 에어 프라이어 및 튀김류 제조 식품 수요 증가에 따라 제조용 식용유 및 가공유 수요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관리에 관한 관심 증대로 인해 개별인정형²⁴⁾,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및 무기질, EPA 및 DHA 함유 제품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바 있음.²⁵⁾
- 또한, 집밥 수요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즉석 조리식품 시장이 성장세에 있으나, 주류 수입량 증가에 따라 국내 맥주 시장이 감소세에 있음.²⁶⁾

〈표 2-12〉 식품제조업 상위 30개 업종 출하액(2016~2020년)

단위: 십억 원, %

분류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성장률
식품제조업	86,611	89,718	92,013	96,230	102,247	4.2
1 배합 사료 제조업	9,309	8,996	9,069	9,626	9,789	1.3
2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6,548	6,610	6,743	6,479	7,067	2.0
3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	4,237	4,604	4,710	5,140	5,814	8.3
4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5,146	5,312	5,600	5,913	5,486	1.8
5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2,650	2,901	3,097	4,027	5,305	19.5
6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3,855	3,928	4,821	4,280	4,752	6.1
7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3,839	3,406	3,444	3,214	3,923	1.3
8 가금류 도축업	3,017	3,173	3,307	3,210	3,818	6.4
9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743	3,203	2,923	2,945	3,424	6.3
1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3,115	3,171	2,957	3,290	3,200	0.9
11 육류 도축업	2,418	2,605	2,710	2,900	3,133	6.7
12 빵류 제조업	2,770	2,885	2,913	3,440	3,071	3.1
13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052	1,396	1,450	2,064	2,650	26.8
14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756	1,758	2,164	2,159	2,447	9.1
15 수산동물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2,040	2,188	2,296	2,422	2,415	4.3

24)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크게 '고시형'과 '개별인정형'으로 나뉘며, 고시형은 비타민, 오메가3 등과 같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오거나 상대적으로 구조가 간단하여 누구나 제품화할 수 있는 품목인 반면, 개별인정형은 주로 천연물로부터 독자적으로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그 효능을 인정받은 품목임.

25)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에 따르면 개별인정형,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및 무기질, 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 매출액이 2016년 각 2,357, 1,903, 1,843, 700억 원에서 2020년 각 6,543, 5,256, 2,988, 1,393억 원으로 증가한 바 있음.

26)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년 주류 수입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류 수입량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28.5%씩 증가세를 보인 뒤, 2019년부터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13.7%) 40만 4,229톤이 수입됨. 이 중 맥주 수입량은 2018년 기준 39만 5,021톤으로 주류 하위 부문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이후 감소세에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계속)

분류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성장률
16	맥아 및 맥주 제조업	2,352	2,480	2,391	2,029	2,093	-2.5
17	수산식품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61	1,787	1,840	1,912	1,995	6.4
18	소주 제조업	1,869	1,887	1,882	2,134	1,983	1.7
19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46	1,687	1,708	1,733	1,823	4.2
20	커피 가공업	1,344	1,478	980	1,593	1,686	11.2
21	곡물 제분업	1,643	1,526	1,447	1,628	1,681	0.9
22	곡물 도정업	1,739	1,722	2,072	2,217	1,643	0.1
23	김치류 제조업	1,168	1,276	1,326	1,333	1,477	6.1
24	설탕 제조업	1,036	786	1,353	1,261	1,438	13.8
25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343	1,354	1,347	1,368	1,277	-1.2
26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1,531	1,777	1,233	1,489	1,275	-2.0
27	도시락류 제조업	959	1,216	1,343	1,359	1,223	7.1
28	인삼식품 제조업	1,343	1,339	1,410	1,074	1,172	-2.4
29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969	1,063	1,045	1,125	1,084	3.0
30	식물성 유지 제조업	1,216	1,168	1,016	418	1,034	17.9

주 1) 「광업·제조업조사」기준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육류 도축업'은 가금류 제외.

자료: 통계청(각 연도), 광업·제조업조사

○ 2020년 출하액을 기준으로 5년 전(2015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업종으로는 '건강 보조용 액화 식품 제조업(231.3%)²⁷⁾',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151.9%)',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102.9%)²⁸⁾', '얼음 제조업(102.8%)',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100.2%)',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78.1%)',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74.6%)²⁹⁾', '떡류 제조업(55.3%)', '주정 제조업(45.9%)', '수프 및 균질화 식품 제조업(43.4%) 등이 있음<표 2-13>.

- 건강식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건강 보조용 식품 및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의 출하액이 높은 성장세에 있으며, 간편성에 대한 소비자 선호 증가에 따라 섭취가 편리한 곡물 가공품과 가공처리 조리식품, 그리고 떡류 제조업의 출하액이 5년 전 대비 주요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7)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은 육지 및 수산동물고기 등에 한약재를 혼합하여 엑스추출기에서 가열 및 농축하여 액화한 후 1회용으로 포장한 액화식품을 제조하는 산업임.

28)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은 낱알 또는 플레이트 상태의 곡물을 찌거나, 볶거나, 팽창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제하여 제조하는 산업으로 강정, 전투 식량, 시리얼, 누룽지, 곡물가열조리식품 등을 포함함.

29)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은 곡분 및 기타 분말을 혼합하여 파이, 비스킷, 빵, 과자 등의 베이커리 제품 제조용 반죽이나 혼합분말을 생산하는 산업임.

- 컵 얼음의 경우 최근 5년(2016~2020년) 동안 편의점 3사(CU, GS25, 세븐일레븐) 판매 상위 품목 1, 2위 내 꾸준히 자리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GS리테일이 봉지 얼음 20만 킬로그램을 대만에 수출한 바 있음.³⁰⁾
- 또한,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의 경우 가정 내 에어 프라이어 보급률 상승에 따라 '냉동 생지' 및 '간편 믹스' 제품 수요 성장세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³¹⁾

○ 2016년 대비 2020년 출하액 감소 주요 업종으로는 '기타 발효주 제조업(-88.6%)',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51.7%)', '장류 제조업(-19.8%)',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16.7%)', '식물성 유지 제조업(-14.9%)' 등이 있음<표 2-13>.

- 특히, 국내 와인 소비 및 수입량의 지속적인 증가세³²⁾에도 불구하고 국내 과실 및 기타 식물성 발효주(포도, 머루, 오디 등)를 비롯해 증류주 등은 감소세에 있음.
- 또한, 서구화된 식습관의 일반화, 1~2인 가구 증가, 전통 장류를 활용한 요리 수요 감소 및 각종 소스의 발달 등의 영향으로 장류 시장이 내림세에 있음.

30) 중앙일보, 「편의점 3사 판매 상위 품목 1위, 2위, 3위 변화 추이(2016년 - 2020년)」

31) aT FIS 식품산업통계정보, 「[국내동향] 트렌드픽 국내편-빵」

32) 한국소비자원의 「수입와인 가격 및 유통실태 조사」에 따르면 와인 수입량은 2016년 37,384톤에서 2020년 54,127톤으로 약 1.4배 증가함.

〈표 2-13〉 식품제조업 내 출하액 증가·감소 주요 업종(2016~2020년)

단위: 십억 원, %

순위	품목	증가					감소					2016년 대비 변화율	
		출하액					출하액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1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8	105	178	220	357	231.3	95	92	99	15	11	-88.6
2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1,052	1,396	1,450	2,064	2,650	151.9	244	201	232	-	118	-51.7
3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455	447	519	626	922	102.9	1,288	1,264	990	971	1,032	-19.8
4	얼음 제조업	48	67	107	101	969	102.8	1,531	1,777	1,233	1,489	1,275	-16.7
5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2,650	2,901	3,097	4,027	5,305	100.2	1,216	1,168	1,016	418	1,034	-14.9
6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371	565	614	562	661	78.1	208	199	159	187	180	-13.7
7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	331	527	542	576	579	74.6	1,343	1,339	1,410	1,074	1,172	-12.7
8	떡류 제조업	351	347	396	475	544	55.3	2,352	2,480	2,391	2,029	2,093	-11.0
9	주정 제조업	422	413	412	-	616	45.9	634	643	894	658	568	-10.4
10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533	503	427	498	765	43.4	1,739	1,722	2,072	2,217	1,643	-5.5

주 1) 「광업·제조업조사」기준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주 2)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은 편의상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으로 표기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광업·제조업조사.

○ 2020년 전체 식품제조업 출하액 대비 비중으로 본 상위 10위 생산 품목은 ‘육지 동물 포장육(5.8%)’, ‘배합사료-양우용(3.4%)’, ‘닭고기(3.1%)’, ‘시유(2.8%)’, ‘배합사료-양돈용(2.7%)’, ‘라면(2.4%)’, ‘배합사료-양계용(2.3%)’, ‘기타 건강기능식품(2.2%)’, ‘맥주(2.1%)’, ‘기타 냉동조리식품(2.0%)’이며, 이들 상위 10위 생산 품목이 전체 출하액의 28.7%를 차지함.

- 사료류 제외 시 상위 10위 생산 품목으로 ‘소주(1.9%)’, ‘기타 고기가공품(1.8%)’, ‘발효유(1.7%)’가 있으며, 다음으로 ‘레토르트 식품(1.7%)’, ‘가금류 포장육(1.7%)’, ‘김(1.6%)’ 등임.

○ 출하액 상위 30위 품목 중 최근 5년(2016~2020년)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기타 건강식품(27.0%)’, ‘레토르트 식품(22.6%)’, ‘기타 고기 가공품(18.4%)’,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18.0%)’, ‘케이크-제조도매(17.8%)’ 등이 있으며, 반대로 연평균 감소세에 있는 품목은 ‘맥주(-2.3%)’, ‘밀가루(-1.1%)’, ‘쌀-도정한 것(-0.5%)’이 있음.

- 한편, ‘시유’와 ‘발효유’는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0.2%, 0.3%로 상위 30위 주요 품목 중 최근 5년간 성장이 정체된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채소음료(642.4%)’가 5년 전(2016년) 대비 2020년에 642.4%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고, 다음으로 ‘육지동물 통조림 및 병조림(510.2%)’, ‘동물용 조제식품(428.7%)’, ‘기타 식물성 원유-압착한 것(394.1%)’, ‘기타 건강보조용 액화식품(316.2%)’, ‘선식류(244.6%)’ 등임.

- 반대로 출하액 감소 주요 품목은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88.7%)’, ‘보리쌀-도정한 것(-83.3%)’, ‘코코아 분말(-80.6%)’, ‘빙과(-72.6%)’, ‘기타 유사곡수(-70.5%)’ 등임.

〈표 2-14〉 식품제조업 상위 30위 생산 품목 출하액 변화(2016~2020년)

단위: 백만 원, %

분류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음식료품 제조업	85,186,829	88,035,636	89,894,380	94,027,399	100,240,983	4.2
1 육지동물 포장육	4,161,391	4,510,834	4,550,823	5,000,074	5,787,388	8.7
2 배합사료(양우용)	3,130,583	3,155,167	3,160,357	3,451,272	3,433,629	2.4
3 닭고기	2,526,507	2,589,867	2,580,640	2,616,477	3,101,018	5.5
4 시유	2,770,802	2,720,467	2,897,558	2,775,128	2,782,567	0.2
5 배합사료(양돈용)	2,189,491	2,301,926	2,368,704	2,439,227	2,713,650	5.6
6 라면	2,201,187	2,253,618	2,054,333	2,342,479	2,406,105	2.6
7 배합사료(양계용)	1,974,912	1,709,211	2,029,687	1,873,717	2,258,082	4.5
8 기타 건강기능식품	834,924	975,798	1,231,005	1,712,370	2,155,743	27.0
9 맥주	2,341,215	2,466,683	2,352,107	2,021,602	2,106,480	-2.3
10 기타 냉동조리식품	1,384,910	1,496,714	1,565,318	1,727,260	2,052,016	10.5
11 소주	1,824,071	1,835,334	1,833,855	2,095,017	1,922,633	1.6
12 기타 고기가공품	898,269	1,072,246	1,361,988	1,507,149	1,756,619	18.4
13 발효유	1,666,949	1,592,820	1,591,699	1,568,723	1,678,825	0.3
14 레토르트 식품	762,539	832,084	923,943	1,127,718	1,669,610	22.6
15 가금류 포장육	1,252,351	1,274,275	1,541,252	1,394,263	1,665,113	8.1
16 김	1,260,065	1,465,616	1,503,624	1,555,517	1,652,051	7.1
17 돼지고기(도축)	1,377,920	1,480,520	1,473,698	1,526,958	1,623,880	4.2
18 기타 혼합조제조미료	1,101,921	1,046,744	1,109,157	1,462,925	1,599,440	10.5
19 스낵류	1,199,318	1,171,104	1,168,839	1,103,758	1,506,623	7.1
20 김치	1,175,109	1,282,919	1,338,935	1,345,997	1,457,486	5.6
21 쌀(도정한 것)	1,554,723	1,534,725	1,876,923	1,996,979	1,410,897	-0.5
22 아이스크림	1,033,094	1,025,218	732,822	1,025,003	1,310,408	9.6
23 정제당	1,094,901	920,706	1,098,584	1,090,859	1,282,445	5.1
24 혼합 조미료	1,108,490	1,254,503	1,470,043	1,149,116	1,257,809	4.5
25 기타 빵류(제조도매)	1,230,031	1,273,805	1,021,977	1,507,427	1,184,397	2.5
26 밀가루	1,244,534	1,102,146	996,200	1,170,016	1,159,985	-1.1
27 케이크(제조도매)	587,322	675,479	822,174	800,707	1,096,618	17.8
28 기타 비알콜성 음료	1,058,521	969,034	963,709	1,163,191	1,071,562	1.0
29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642,748	813,984	857,359	881,493	1,023,734	12.7
30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	706,734	854,995	958,936	954,971	978,551	18.0

주 1) 「광업·제조업조사」기준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시유'란 유제품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백색 우유로 포장용기에 넣어 시판되는 우유, 강화우유, 환원유, 유산균첨가 우유 등을 모두 포함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광업·제조업조사.

〈표 2-15〉 식품제조업 내 출하액 증가·감소 주요 품목(2016~2020년)

단위: 백만 원, %

순위	품목	증가				감소				2016년 대비 변화율
		출하액		2016년 대비 변화율	출하액		2016년 대비 변화율			
		2016	2018		2016	2018				
1	채소음료	15,902	48,583	118,064	642.4	82,790	22,074	9,373	-88.7	
2	육지동물 통조림 및 병조림	10,208	38,892	62,292	510.2	54,789	36,204	9,123	-83.3	
3	동물용 조제식품	19,677	44,336	104,024	428.7	62,138	50,313	12,028	-80.6	
4	기타 식물성 원유	14,471	45,532	71,496	394.1	548,979	576,714	150,694	-72.6	
5	기타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49,577	86,211	206,361	316.2	99,194	56,762	29,264	-70.5	
6	선식류	56,505	139,468	194,732	244.6	12,593	33,987	3,940	-68.7	
7	연유	16,231	19,973	54,122	233.4	43,928	85,514	14,686	-66.6	
8	동태	24,737	75,333	66,871	170.3	154,666	174,754	54,221	-64.9	
9	기타 건강기능식품	834,924	1,231,005	2,155,743	158.2	24,329	21,637	9,382	-61.4	
10	원두커피	205,207	404,201	529,105	157.8	1,528,415	1,002,890	740,466	-51.6	
11	옥수수기름	82,880	59,973	212,761	156.7	86,170	73,575	42,974	-50.1	
12	식품용 색소	54,662	89,863	136,590	149.9	41,269	39,147	20,946	-49.2	
13	오징어류 견제품	17,609	27,249	42,382	140.7	18,023	15,095	9,988	-44.6	
14	어육 소시지 및 어묵함	159,316	340,997	364,548	128.8	144,652	78,646	84,144	-41.8	
15	효소식품	204,053	254,408	463,929	127.4	51,162	32,120	30,500	-40.4	
16	기타 도정 곡물	58,826	45,315	131,221	123.1	383,090	305,346	232,418	-39.3	
17	꿀차	13,410	13,787	29,605	120.8	89,135	89,944	54,779	-38.5	
18	레토르트 식품	762,539	923,943	1,669,610	119.0	295,108	260,063	185,501	-37.1	
19	도넛(제조도매)	51,858	128,613	111,401	114.8	3,324	7,100	2,155	-35.2	
20	김밥(제조도매)	252,742	351,005	538,201	112.9	29,680	37,554	19,266	-35.1	

주 1) 「광업·제조업조사」기준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주 2) 기타 식물성 원유는 압착한 것, '이유식'은 우유·기저귀 제외, '기타 조미조제식품'은 어류혼제품 포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광업·제조업조사.

2.4. 요약 및 결론

- 2020년 식품제조업은 일반제조업 사업체 수의 12.4%를 차지하며, 전체제조업 종사자의 9.2%가 식품제조업에 종사함.
 - 특히, 2006년 이후 일반제조업 사업체 수가 연평균 4.3%, 종사자 수가 연평균 2.0% 증가율을 보이는 것과 비교해 식품제조업은 연평균 각 1.9%, 2.7% 증가율을 나타내며 사업체 수 증가율은 다소 낮으나 국내 제조업의 '고용 없는 성장(길은선 외, 2019)' 중 고용 증가를 일부 견인해 옴.
 - 또한, 2015년 이후 식품제조업 매출액은 연평균 3.93% 증가세로 일반 제조업(0.94%) 대비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음.
-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2000년대 식품제조업은 국내총생산 연평균 증가율(7.4%) 대비 낮은 수준(4.3%)으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국내총생산(3.9%) 대비 더 빠르게 증가(5.7%)하는 추세임.
 -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제조업 전반의 생산 및 소비가 다소 줄어들었음에도 식품제조업은 큰 피해 없이 성장세를 이어가며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고용 비중이 더 빠르게 증가해 옴.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상승 등 최근 변화하는 고용 정책들에 따라 2010년 이후 식품제조업의 상용근로자 수는 꾸준히 증가(연평균 4.1%), 임시 및 일용 근로자 수는 꾸준한 감소세(연평균 -2.9%)이며, 증가하는 인건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산업 규모는 생산과 고용 측면에서 고르게 확대되어 옴.
 - 특히, 식품제조업 전체 급여액이 2010년 이후 연평균 7.8% 상승세에 있으며 생산액 대비 급여액 비중은 2010년 6.5%에서 2020년 8.5%로 증가세에 있지만, 생산액 대비 원재료비 비중을 2011년 62.2%(2000년 이후 최고 수준)에서 2020년 57.5%로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등 생산비를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음.
- 한편, 식품제조업은 2020년 기준 종사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이 약 91.6%, 100인 이상 사업장이 0.6%로 대다수가 영세한 산업 특성을 보임.

- 특히 100인 이상 사업장 0.6%(사업체 수 기준)에 식품제조업 전체 종사자의 21.7%가 종사하는 등 고용 규모의 양극화가 심화됨.
- 우리나라는 한정된 토지 자원으로 인해 경지면적이 큰 나라들 대비 농산물 가격 경쟁력이 취약하여 식품제조업 원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실정임.
- 「2021년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식품제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산 원료 비중은 사용량 기준 31.9%, 구매 금액 기준 46.7%에 불과함.
 -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1~2020년) 수입 식품은 연평균 5.5%(수입 건수), 2.2%(수입물량), 7.0%(수입금액)씩 증가하고 있음.³³⁾
- 국내 식품 소비는 소득증대에 따라 다양화, 고급화, 간편화되어왔으며, 증가하는 식품 소비에 따라 타 제조산업 대비 식품제조업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옴.
- 한편, 2019년 많은 제조업 경기를 둔화시킨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식품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으나, 이후 제기된 식량 위기 가능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고조되며 국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 가공식품 물가에 불가피한 상승압력이 지속하여 옴.
 - 김상호 외(2022)에 따르면, 국내 농산물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가공식품 물가는 작년에 이어 최근까지 상승세가 지속 심화하는 양상을 나타내며, 글로벌 공급망 위기, 기후변화 등으로 향후 국제 곡물 시장의 위기는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미래 식품산업을 견인할 대체식품, 맞춤형 식품 등 유망품목에 대한 핵심 기술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국내 농가 소득을 보장함과 동시에 세계 식량 위기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식품 제조산업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고 가공용 국산 품종 개발 및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농업과

33) '수입식품'은 우리나라에 판매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농·임산물, 축산물-가공품 포함, 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등을 포함함.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해 세계 식량 공급망 변동 위험으로부터 국내 식품산업을 보호할 방안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함.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2020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콘텐츠뿐만 아닌 K-food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인식과 저변이 확대되며 국내 식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임.

- 이를 활용하여 세계 식품시장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민관이 합동이 되어 식품 수출 확대의 기회를 만들고 또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식품의 질적 경쟁력 제고 및 마케팅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추가로 영세 사업체 비중이 상당히 높은 국내 식품산업의 특성상, 비대면 유통에 취약한 영세 업장의 시장 동향과 유통업체와의 거래 관계 실태 파악 등을 통해 식품의 판로 다양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해야 함.

- 특히, 나들가게 지원 사업과 농산물 및 로컬푸드 판로 확대 사업 등을 연계하여 효율적인 공동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영세한 식품 제조 사업체의 성장과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소비문화 및 인식 개선, 국내산 원료 식품 가공 및 유통경제사업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됨.

3. 식품산업 구조 변화요인 분석

3.1. 구조 변화 발생 가능성 및 시점 검정

3.1.1. 분석방법 및 자료

○ 본 절에서는 2002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식품제조업 구조변화(structural break)의 발생 여부와 횟수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여 우리나라 식품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구조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살펴보았음.

- 분석대상 기간에는 2008년, 2012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과 2015년 글로벌 유가 상승 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어 금융위기 직후와 이후 회복 과정에서의 식품제조업 산업구조 변화의 동학(dynamics)을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산업구조 변화 검정은 생산과 고용 측면으로 구분하였고, 생산 측면은 부가가치, 고용 측면은 종사자수를 지표로 활용하였음.³⁴⁾ 이를 통해 지난 19년간 식품제조업의 생산과 고용구조 변화를 양적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음.

〈표 2-16〉 식품산업 구조변화 검정 지표

구분	변수	변수 설명	활용자료
생산	부가가치	식품제조업 세부업종별 실질 부가가치(백만 원)	광업·제조업조사 (통계청)
고용	종사자수	식품제조업 세부업종별 종사자수(명)	

주: 2005, 2010, 2015년 자료는 경제총조사(통계청)를 활용함.

○ 또한, 본고에서는 식품산업과 전체제조업의 구조변화 발생 유무와 시점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자 하였음.

- 식품제조업은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 등 2개 업종(중분류)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육가공업’, ‘수산가공업’, ‘과채가공업’, ‘동식물성 유지 제조업’, ‘낙농업’, ‘곡물가공업’, ‘기타 식품제조업’, ‘동물용 사료제조업’, ‘음료제조업’, ‘주류제조업’ 등 10개의 세부 업종(소분류)으로 구분됨.
- 또한, 본고에서는 분석을 위한 적정 표본 크기(sample size) 확보를 위해 자료를 소분류 수준으로 구성하여 활용하였음³⁵⁾. 따라서 구조변화 분석에 사용된 관측치(number of observations)는 190개(N=190, T=19)임.

○ 구조변화 검정 방법은 다수의 구조변화(multiple structural breaks)를 허용하는 Bai & Perron(1998, 2003)의 다중 구조변화 모형을 이용하며, 이는 전체 표본 기간에 대한 잔차들의 제곱의 합이 최소화되는 시점을 구조변화의 시점으로 선택하는 방법임.

34) 분석에 활용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변수는 〈표 2-17〉에 제시하였음.

35) 산업 세분류 수준의 자료는 2016년부터 제공되어 분석을 위한 충분한 관측치 확보가 어려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 소분류 수준에서 분석을 수행함.

- 구조변화 시점을 선택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는 Chow 통계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음. 그러나 해당 방법은 오차항들이 등분산(homoscedasticity)일 경우에만 일치성(consistency)이 보장된다는 단점이 있음(Chow, 1960).
- Bai(1994, 1997)에 의하면, 이와 같은 최소제곱추정량은 실제 구조변화 시점의 초일치추정량(super consistent estimator)이 됨.

○ Bai & Perron(1998, 2003)의 구조변화모형은 Weideman et al.(2017), Parab and Reddy(2020) 등을 포함한 여러 해외 최신 연구에서 활용되었고, 김지욱(2009), 신동현 외(2014), 남종오·심성현(2015), 지성태 외(2016) 등 다양한 국내 연구에서도 활용된 바 있음.

○ Bai and Perron(1998, 2003)은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전환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구조변화 발생 여부와 함께 구조변화의 횟수를 결정함.

- 먼저, 구조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귀무가설과 함께 1번 이상, 최대 M번의 구조변화가 발생했다는 대립가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음. 여기서 m은 구조변화의 횟수를 의미함.

$$H_0 : m = 0 \text{ (no break(s))} \quad \text{식 (1)}$$

$$H_1 : m = M \text{ (} 1 \leq m \leq M \text{ break(s))} \quad \text{식 (2)}$$

○ 위와 같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에 대한 검정은 $UD_{\max} F_T(M, q)$ 과 $WD_{\max} F_T(M, q)$ 검정통계량을 사용하며, ‘구조적 변화가 없다’는 귀무가설과 ‘구조적 변화가 있다’는 대립가설로 검정함.

- 두 검정은 구조변화의 정확한 횟수를 모르는 상황에서 구조변화 발생유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임. UD_{\max} 검정은 $\sup F(m)$ 통계량에 동일한 가중치를, WD_{\max} 검정은 한계유의수준을 일치시키기 위해 서로 다른 가중치, α_m 을 부여한다는 데 차이점이 있음. 여기서, $\alpha_m = c(\alpha, 1)/c(\alpha, m)$ 으로 정의되며, $c(\alpha, m)$ 은 유의수준 α 에 해당하는 $\sup F(m)$ 검정의 임계치를 나타냄 (Bai and Perron, 1998, 2003).

- 만약 검정통계량이 유의하여 귀무가설이 기각되면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반대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 구조변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Ditzen and Westerlund, 2021).
- 구조변화 여부가 파악되면, ‘구조적 변화가 $m+1$ 번 발생했다’는 귀무가설과 ‘구조적 변화가 m 번’이라는 대립가설에 대해 $\sup F(m+1|m)$ 검정을 $m=0$ 부터 순차적으로 수행하여 검정통계량이 처음으로 유의하지 않게 되는 m 를 구조변화의 횟수로 선택하게 됨.

○ 구체적으로, Bai and Perron(1998, 2003)이 제시한 구조변화가 m 번 발생하여 체제가 $m+1$ 인 다중구조변환모형은 아래와 같이 표현됨.

$$\begin{aligned}
 y_t &= x'_t \beta + z'_t \delta_1 + u_t, t = 1, \dots, T_1, & \text{식 (3)} \\
 y_t &= x'_t \beta + z'_t \delta_1 + u_t, t = T_1, \dots, T_2, \\
 & \dots \\
 y_t &= x'_t \beta + z'_t \delta_1 + u_t, t = T_{m+1}, \dots, T.
 \end{aligned}$$

- 여기서 y 는 종속변수, x 는 $p \times 1$, z 는 $q \times 1$ 벡터로 각각 구조변화가 없는 설명변수와 구조변화가 있는 설명변수이며, β 와 $\delta_j (j=1, \dots, m+1)$ 는 회귀계수의 벡터, u 는 확률교란항이며, 구조변화 횟수인 m 은 알려져 있지 않다고 간주함.
- 최소자승법에 의한 추정 방법을 제시하고, 구조변화가 m 개 있는 잔차들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는 구조적 변화의 수와 시점을 도출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구조변화 시점 검정에 활용한 다중 구조변화 모형은 식(4)와 식(5)에 제시하였음.

$$VA_{it} = \delta_{i,t} + \zeta UNEMP_t + v_{1i,t} \quad \text{식 (4)}$$

$$EMP_{it} = \lambda_{i,t} + \mu UNEMP_t + v_{2i,t} \quad \text{식 (5)}$$

- 여기서 VA 는 식품제조업 세부업종별 실질 부가가치(원), EMP 는 식품제조업 세부업종별 종사자수(명) i 와 t 는 각각 업종, 시점(연도)이고, v_{1it} , v_{2it} 는 오차항임.

○ 다음으로, 식품제조업의 구조변화 시점별 구조변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Cobb-Douglas 생산함수를 가정하였음.

$$Y_t = bL_t^\alpha K_t^{1-\alpha} \quad \text{식 (6)}$$

- 여기서, Y 는 부가가치(생산), L 은 노동투입, K 는 자본투입, t 는 시점(연도)이며, b 는 상수항, α 는 생산함수의 지수로 양수의 값을 가짐(Cobb & Douglas, 1928).

○ 구조변화 요인 분석에 사용된 실증 모형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음.

$$\ln VA_{i,t} = \beta_0 + \beta_1 AGING_t + \beta_2 \ln K_{i,t} + \beta_3 \ln L_{1i,t} + \beta_4 L_{2t} + \beta_5 UNEMP_t + \beta_6 EXP R_{i,t} + \mu_{1it} \quad \text{식 (7)}$$

$$\ln EMP_{i,t} = \lambda_0 + \lambda_1 AGING_t + \lambda_2 \ln S_{i,t} + \lambda_3 Q_{i,t} + \lambda_4 \ln LPROD_{i,t} + \lambda_5 W_{i,t} + \lambda_6 UNION_t + \lambda_7 UNEMP_t + \lambda_8 EXP R_{i,t} + \mu_{2it} \quad \text{식 (8)}$$

- 여기서 VA 는 식품제조업 세부업종별 실질 부가가치(원), EMP 는 식품제조업 세부업종별 종사자수(명) i 와 t 는 각각 업종, 시점(년)이고, μ_{1it} , μ_{2it} 는 오차항임.
- $AGING$ 은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비중, K , S 는 각각 자본투입과 자본스톡, L_1 과 L_2 는 각각 양적 및 질적 노동투입, Q 는 생산액 증가율, $LPROD$ 는 세부업종별 노동생산성, W 는 세부업종별 종사자 1인당 급여액, $UNION$ 은 노조가입률, $UNEMP$ 는 실업률, $EXP R$ 은 식품제조업 매출(출하액) 대비 수출액 비중임.
- 부가가치, 생산액, 연간급여액(임금), 수출액 등은 한국은행의 중분류(2-digit)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화하였고, 자본투입의 대리변수인 유형자

산 연말잔액은 한국은행의 경제활동별 생산자본스톡의 디플레이터(=명목/실질) 값을 이용한 실질 값임.

○ 분석에 사용된 구체적인 설명변수는 <표 2-18>에 제시한 관련 선행연구들을 참고해 산업 생산 및 고용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구성함<표 2-17>.

<표 2-17> 구조변화 분석 활용 변수

변수	변수명	변수 설명	자료
부가가치	VA	- 식품제조업 세부업종별 부가가치(원) *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화	광업제조업조사
종사자수	EMP	- 식품제조업 세부업종별 종사자 수(명)	
고령 경제활동인구 비중 ³⁶⁾	AGING	- 고령 경제활동인구 비중(%) =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 100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본투입	K	- 자본투입(백만 원) = 세부업종별 유형자산 연말잔액(S_t) × 업종별 가동률지수 *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등을 포함 * 생산자본스톡의 명목 대 실질값 비율을 이용하여 실질화	광업제조업조사,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국민대차대조표
	S	- 자본스톡(백만 원) ³⁷⁾ = 세부업종별 최근 4년 자본투입(S) 가중평균 = $\{(K_t \times 1) + (K_{t-1} \times 0.7) + (K_{t-2} \times 0.7)^2 + (K_{t-3} \times 0.7)^3\}$	
노동투입 (양적)	L_1	- 양적 노동투입 = (세부업종별 종사자 수) × (산업별 평균 근로시간)	광업제조업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노동투입 (질적)	L_2	- 대졸 이상 학력자 비중(전체제조업)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노동생산성	LPROD	- 세부업종별 종사자 1인당 실질 부가가치 = (실질 부가가치/종사자수(명))	광업제조업조사
생산액 증가율	Q	- 세부업종별 생산액 증가율 = (기준년 생산액 - 전년 생산액)/전년 생산액 * 생산액은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화	광업제조업조사
임금수준	W	- 세부업종별 종사자수 1인당 연간급여액 = (연간급여액(백만 원)/종사자수(명)) * 연간급여액은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화	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
노조 가입률	UNION	- 전체 임금근로자 중 노동조합 가입자 비율(%) * 노동조합조직률 = 조합원수/조직대상근로자 × 100 * 조직대상근로자: (임금근로자) - (노조가입이 금지된 공무원)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실업률 (경기변동)	UNEMP	- 비농가인구 실업률(%) = (실업자(천 명)/경제활동인구(천 명)) × 100	경제활동인구조사
수출액 비중 ³⁸⁾	EXPR	- (식품제조업 실질 수출액/식품제조업 실질 출하액) × 100 * 수출액은 한국은행의 대미 원화의 연평균 환율을 사용하여 원화로 변환 *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화	한국무역통계, 광업제조업조사

36) 고령 경제활동인구 비중과 고령인구 비중이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며, 인구구조 변화와 더불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고령인구 비중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음.

37) 당해연도의 자본스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기 자본 값을 알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초기 값을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4개년 유형자산 연말잔액에 시기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구성하였음.

38) 수출액은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이므로, 실증 분석에 수출액 자체 보다는 식품제조업 실질 매출액(출하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설명변수로 활용하였음.

〈표 2-18〉 산업구조 변화 관련 선행연구

저자(연도)	연구 제목	분석모형(분석 기간)	중속변수	설명변수
김진웅(2008)	산업구조 변화의 결정요인 분석: ICT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결정모형 (1993 1/4 ~2006 4/4)	(생산) 산업별 비농림부문 부가가치 비중 (고용) 산업별 비농림부문 고용 비중	생산: 산업별 생산성 격차 인적자본: 대졸자 비중 기술개발: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 비중, 설비투자율, 무역수지 비중, 수입 비중, ICT 부문 소비 비중, 원달러 실질환율
남성일 외(2015)	이주노동이 산업구조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고정효과패널모형 (2006~2010)	(매출) 이주근로자 투입 부문 매출 비중 (고용) 이주근로자 투입 부문 고용 비중 (기술변화) 이주근로자 투입 부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이주근로자 비중 대기업의 매출, 고용, 연구개발비 비중
Dong(2021)	Analysis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industrial structure upgrading in Northeast China	고정효과패널모형 분위수(quantile) 회귀모형 (2003~2016)	2차 산업 대비 3차 산업 output 비중 (industrial structure upgrading)	지역재정능력 (GDP 대비 재정지출액) 지역경제성장 (1인당 GDP) 시장개방도 (GDP 대비 수출입 비중) 금융산업발전 (GDP 대비 금융기관 대출 비중) 인적자원 (인구 대비 대졸자 비중) 고정자본투자 (GDP 대비 고정자산투자액)
오준병(2005)	한국경제의 산업구조변화에 대한 요인분석	통상최소자승법(OLS) (1970~2001)	(생산) 실질 GDP 대비 제조업 생산 비중 (고용) 제조업 고용 비중	내적요인: 1인당 실질GDP, 부문간 노동생산성 격차(제조업/서비스업 노동생산성비율), 제조업 제품 상대가격, 실질GDP 대비 실질비투자 비중 외적요인: 제조업 무역수지, 대개도국 수입, 외환위기 대비 산업: 대기업 고용비율, 산업단지 수, 산업단지 고용자수, 중규모 및 대기업 종사자수 비율 인구: 인구밀도, 인구대비 고용, 노령화 비율 지역: 재정자립도, 지역내총생산, 대학 수, 도시화 면적 비율
김희재, 김근영(2019)	4차산업 관련 주력사업의 고용 결정 요인 분석	고정효과패널모형 (2010, 2018)	산업별 고용자수	산업: 노동소득 분배율, 인건비, 영업이익률, 매출액, 외주비율, 연구개발집중도, 외국자본 비율, 해외직접투자, 임시 및 일용직 비율
문영만, 김종호(2018)	산업유형별 상용직 고용 결정요인	패널회귀모형 (2006~2015)	상용직수	

자료: 저자 작성.

3.1.2. 분석 결과

- 본 절에서는 Bai & Perron(1998, 2003) 추정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제조업의 구조변화 여부와 시점을 검정한 결과를 제시함.
- <표 2-19>를 보면 분석대상 기간(2002~2020년) 동안 식품제조업 및 전체제조업 생산과 고용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구조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남.
 - 구조변화 여부를 검정하는 검정통계량이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구조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고, 식품제조업 및 전체제조업 모두 적어도 1번의 구조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음(Ditzen and Westerlund, 2021).
 - 본 연구에서 식품제조업과 전체제조업의 생산 및 고용 구조변화 횟수는 각각 2회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구조변화 시점 검정에는 수준 변수(부가가치, 종사자수)를 활용하였음.
- 분석 결과, 식품제조업의 생산 구조변화 시점은 2008년과 2012년, 고용 구조변화 시점은 2005년과 2011년으로 분석됨.

<표 2-19> Bai-Perron 검정 및 구조적 변화시점의 추정 결과

구분	구조변화 유무 검정결과	구조변화 시점	
생산	16.80(13.89)	2008년, 2012년(2회)	Phase I : 2002 - 2008
			Phase II : 2009 - 2012
			Phase III : 2013 - 2020
고용	22.08(13.89)	2005년, 2011년 (2회)	Phase I : 2002 - 2005
			Phase II : 2006 - 2011
			Phase III : 2012 - 2020

주: ()안은 각 검정통계량의 1% 유의수준 Bai and Perron 임계치임.

3.1.3. 생산 구조변화

- 먼저 <그림 2-6>은 2002년부터 2020년까지의 식품제조업 생산의 구조변화 여부와 시점을 추정된 결과이며, 이를 전체제조업의 시계열과 비교하였음.

- 식품제조업과 전체제조업 모두 부가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전체제조업은 최근 10년간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반면 식품제조업은 고성장(특히, 2010년 이후)한 것으로 나타남.

○ 식품제조업 생산의 구조변환 시점은 각각 국민소득증대, 식품수요 증가 등에 따른 산업 태동기(Phase I)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산업 성장 초기(Phase II), 식품산업 본격 육성 및 식품제조업의 고성장기(Phase III) 등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먼저, phase I은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 성장, 다양한 가공식품 발달 등에 따라 식품제조업이 완만히 성장하기 시작함. 또한, 2000년대 초반은 신용카드 대출 부실사태(2002~2003년) 영향으로 전반적인 경제적 충격이 있던 시점인데, 가계 소비에 영향을 크게 받는 식품제조업의 부가가치 변동성이 전체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³⁹⁾

- 사회·경제·인구학적 여건 변화에 따라 건강지향, 고급화, 다양화, 간편화, 세분화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식품 소비 트렌드가 형성되었고(이계임 외, 2007), 이에 따라 즉석·동결 식품 등 간편식 비중이 확대되는 등 본격적으로 식품산업이 성장하였음.

- 특히, 2000년대 들면서 편의점 등 유통채널의 고도화도 식품 생산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한국편의점협회에 따르면 2000년 초반 전국 편의점 개수는 2,826개였는데, 이후 2005년에는 9,085개로 단기간에 크게 증가함.

○ Phase II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를 겪었으나 식품제조업은 농업과 같은 먹거리 관련 필수 업종으로 일반제조업 대비 비교적 영향을 덜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김관수 외, 2021).

- 식품제조업은 일상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생필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경기 변동성이 상당히 낮다는 특징을 가지며, 오랜 기간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

39) 정부가 IMF 이후 내수 활성화를 위해 카드 활성화 정책을 펴면서 카드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카드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음. 이들의 카드빚 연체로 인해 신용카드 회사들도 부실화돼 2003년 카드 사태가 발생함.

- 또한, 2008년부터 식품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식품산업에 대한 정부의 식품산업 육성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내수 산업을 넘어 수출 산업으로서도 성장하기 시작하였음.⁴⁰⁾

○ Phase III에는 전체제조업 성장세가 둔화하고, 우리나라 총인구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제조업은 오히려 인구구조나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등 오히려 성장세가 가속화되는 역설적인 행태를 보였음.

- 예를 들어, 1인 가구 및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가정간편식이나 밀키트 시장 및 건강기능식품, 고령친화식품군 시장이 확대되었고,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성 트렌드에 따라 친환경 식품이나 비건(vegan)식품 시장도 형성되고 있음.
- 최근 성장세가 둔화한 시기도 있었으나(2017~2018년) 성장세가 상당히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음.
- 2018년 이후에는 정부의 3차 식품산업 진흥계획에 따라 메디 푸드, 고령 친화 식품, 펫푸드, 간편 식품, 기능성 식품 등 유망 식품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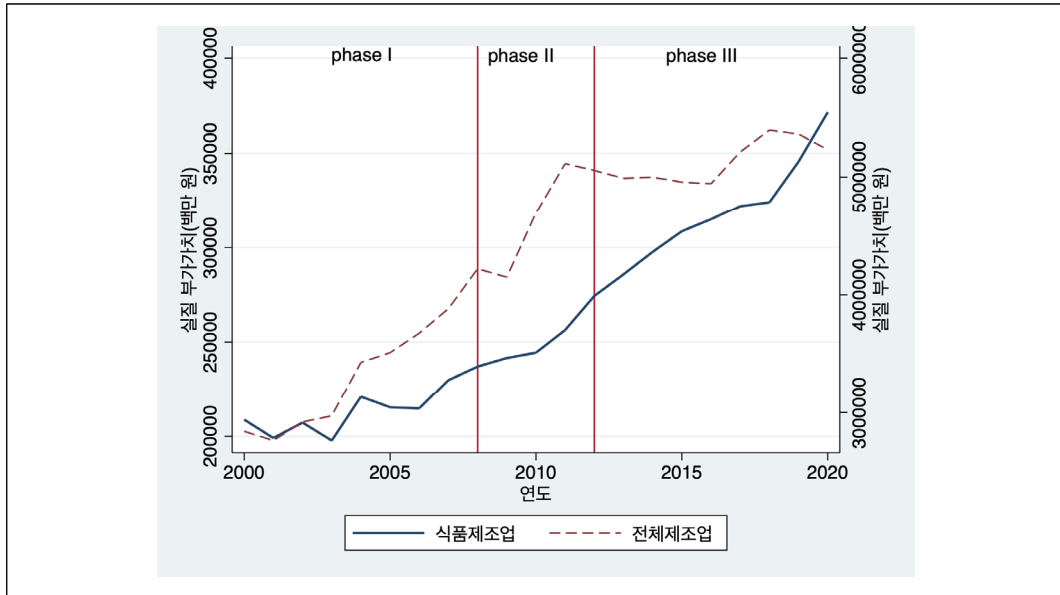
○ 반면, 전체제조업은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다소의 부침은 있었으나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왔음.

- 특히,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 자동차(및 운송장비), 금속(철강), 기계 전자 등 주요 산업이 제조업 성장을 주도하면서 여타 업종도 낙수(tickle-down) 효과를 누렸고, 이는 제조업 내 중·고도기술 제조업의 역량 강화와 고부가가치 치화에 따른 결과임.
- 다만, 2010년 이후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19년 국내 제조업의 전년 대비 부가가치 증가율은 -1.4%로 역성장하였으며, 제조업 내 고부가가치 산업전반의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고 있음(현대경제연구원, 2021).⁴¹⁾

40)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1차 진흥계획(2008~2011년), 2차 진흥계획(2012~2017년)에 이어 현재 3차 진흥계획(2018~2022년)에 의해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음.

41) 본고에서는 첨단기술산업(항공우주, 컴퓨터, 전자, 제약 등)과 고도기술 산업(화학, 전기 장비, 기계류 및 장비, 의료장비, 자동차, 철도 등 운송장비, 무기 등)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정의함.

〈그림 2-6〉 식품제조업 및 전체제조업 생산(부가가치) 추이(2002~2020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1.4. 고용 구조변화

○ 〈그림 2-7〉은 식품제조업 고용의 구조변화 여부와 시점을 추정한 결과이며, 이를 전체 제조업의 종사자 수 시계열과 비교하였음.

- 고용 추이는 크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해석해 볼 수 있음. 전체제조업 고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제조업 성장(부가가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식품제조업 고용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대체로 횡보하였음.
- 금융위기 이후에는 식품제조업과 전체제조업 모두 고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5년 이후에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임.
- 최근 제조업의 부가가치 성장세가 둔화하고, 수출, 부가가치, 기술 발달에 따라 고용 규모가 큰 업종(예, 의복·가죽, 전자, 반도체 등)에서 과거만큼 고용 순 창출이 동반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전체제조업의 고용은 전반적으로 둔화되었음. 반면 식품제조업은 인구(가구)와 소비 변화에 따른 산업 성장에 따라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생산과 고용이 동행하는 모습을 보임.

○ <그림 2-7>을 보면 전체제조업의 고용은 2000년대 초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까지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금융위기 이후 크게 감소하였고, 이후 2015년까지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음.

- 특히, 2010~2011년 차·화·정(자동차·화학·정유)과 선박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중화학공업의 성장과 수출 호조가 전체제조업의 고용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남.
- 최근에는 반도체와 바이오, 배터리 등의 업종이 제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자본집약적 산업인 고도기술 제조업이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는 제한적이며, 제조업의 자동화 및 기계화는 생산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감소하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그림 2-7>에 제시된 식품제조업 고용의 구조변화 시점은 각각 phase I은 가계 신용카드 대출 부실사태의 영향으로 인한 고용 감소기, 이후 phase II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이후 내수 및 수출 기회 확대에 따른 고용 회복기, phase III는 식품제조업이 급성장하면서 고용 또한 크게 증가한 시기로 구분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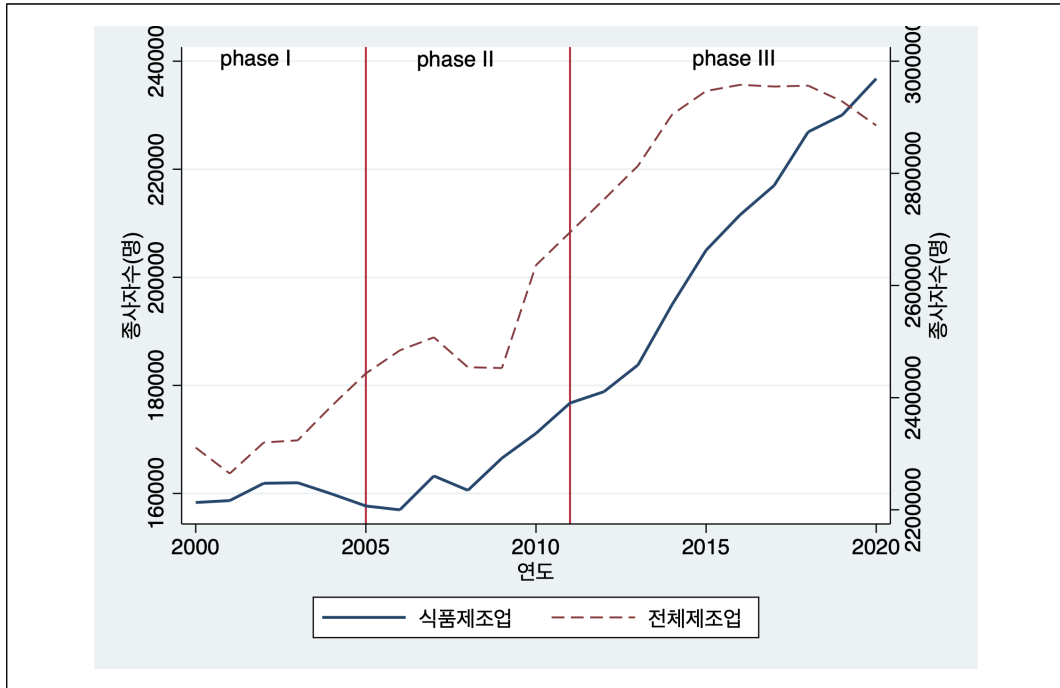
○ 식품제조업 고용은 특히 최근 10년 동안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인구·가구 구조변화와 금융위기 이후 가계 소비 트렌드 변화, 가공식품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고용과 성장이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임.

- 이는 2015년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전체제조업과 대조되는 모습임. 특히, 여성 및 고령층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식품제조업 산업 성장은 향후 고용 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다만, 식품제조업은 추세적으로 완만하게 규모화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높아 영세성이 높다는 점 등 여러 구조적인 한계점이 있음.

- 또한, 일반제조업 대비 평균 임금이 낮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고숙련 전문인력 수급에 한계가 있고, 특히 생산직의 경우 중장년 여성이나 외국인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소폭의 임금 변화에도 이탈률이 상당하다는 어려움도 존재함.

〈그림 2-7〉 식품제조업 고용의 구조변화(2002~2020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2. 구조 변화 요인 분석

3.2.1. 분석방법 및 자료

○ 본 절에서는 산업 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식품산업의 구조 변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구조변화 발생 요인은 앞선 절에서 검정한 구조변화 시점별로 각각 추정함.

- 생산의 대리변수는 ‘식품제조업 세부업종별 부가가치’를, 고용의 대리변수는 ‘식품제조업 세부업종별 고용자 수’를 사용하여 식품산업 생산 및 고용의 양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함.
- 식품산업 구조변화 요인 분석에 활용된 변수 및 실증 모형은 구조변화 시점 검정과 동일하며 각 설명변수와 생산 및 고용 간 예상 부호는 아래 <표 2-20>과 같음.

〈표 2-20〉 구조변화 요인 분석 예상 부호

구분	변수	변수명	생산	고용
인구요인	고령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i>AGING</i>	+/-	-
산업요인	자본투입(flow)	<i>K</i>	+	X
	자본투입(stock)	<i>S</i>	X	+
	생산액 증가율	<i>Q</i>	X	+
	노동투입(양적)	<i>L₁</i>	+	X
	노동투입(질적)	<i>L₂</i>	+	X
	노동생산성	<i>LPROD</i>	X	-
	임금수준	<i>W</i>	X	-
	노조가입률	<i>UNION</i>	X	+
기타요인	실업률(경기변동)	<i>UNEMP</i>	-	+/-
	수출액 비중	<i>EXPR</i>	+	+

주: 각 회귀식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는 'X' 표기함.

○ 또한, Levin, Lin and Chu(2002, 이하 LLC) 패널 단위근 검정 결과, 일부 자료의 수준 변수가 5% 유의수준에서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음.

- 따라서, 단위근 문제가 없는 자료는 로그 변환하여 사용하고, 단위근을 가지는 자료는 로그 변환 및 1차 차분하여 안정적인 시계열로 전환하여 추정하였음. 단, 증가율 또는 비중(%) 변수의 경우 로그 변환 하지 않고 분석에 활용하였음. 아래 〈표 2-21〉은 각 변수에 대한 패널 단위근 검정 결과를 나타냄.

〈표 2-21〉 변수별 패널 단위근 검정 결과 (Levin-Lin-Chu test)

구분		수준 변수	로그 변수	차분 변수	로그-차분 변수	분석 활용 수준	
종속 변수	부가가치	<i>VA</i>	0.009* (0.504)	-0.877* (0.190)	-2.846 (0.002)	-3.261 (0.001)	로그차분
	종사자수	<i>EMP</i>	-1.680 (0.047)	-	-	-	로그
	고령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	<i>AGING</i>	0.694* (0.756)	-	-7.554 (0.000)	-	차분
	자본투입	<i>K</i>	-1.916 (0.028)	-2.204 (0.014)	-3.863 (0.000)	-3.557 (0.000)	로그차분
	자본투입(스톡)	<i>S</i>	-0.002* (0.499)	-2.658 (0.004)	-2.613 (0.005)	-2.333 (0.010)	로그차분
	생산액 증가율	<i>Q</i>	-0.873* (0.191)	-	-2.167 (0.015)	-	차분
	노동투입(양적)	<i>L₁</i>	-1.349* (0.089)	-1.452* (0.073)	-	-4.487 (0.000)	로그차분

(계속)

구분		수준 변수	로그 변수	차분 변수	로그-차분 변수	분석 활용 수준	
설명 변수	노동투입(질적)	L_2	-2.175 (0.015)	-	-	-	수준
	노동생산성	$LPROD$	-0.910* (0.182)	-0.728* (0.233)	-	-4.481 (0.000)	로그차분
	임금수준	W	0.502* (0.692)	0.419* (0.662)	-1.756 (0.040)	-1.189* (0.117)	차분
	노조가입률	$UNION$	-3.894 (0.000)	-	-	-	수준
	실업률(경기변동)	$UNEMP$	-1.600 (0.055)	-	-	-	수준
	수출액 비중	$EXPR$	-0.769* (0.221)	-	-2.558 (0.005)	-	차분

주 1) LLC (Levin-Lin-Chu) 검정의 adjusted t-통계량을 나타내며, ()는 p-value.

2) *는 유의수준 5%에서 단위근을 갖는다는 가설이 기각되지 못함을 의미함.

3) 각 검정에 있어 상수항과 추세항을 모두 고려하였음.

3.2.2 분석 결과

- <표 2-22>에는 구조변화 시점별로 각 설명변수가 식품제조업 부가가치(생산)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음.
- 먼저, 고령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 식품제조업 산업구조 변화를 대리하는 변수임.
 - 분석결과, 고령 경제활동인구 비중 추정 계수는 각각 phase I과 phase II에 5% 유의 수준에서 식품제조업 부가가치에 유의한 양(+)¹⁾의 부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 고령화는 일반적으로 총생산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나 산업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간의 대체관계 차이 때문에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별로 상이할 수 있음(이진면 외, 2014).
 - 김동석(2006)은 고령화에 따라 식료품, 의복(섬유) 등의 소비가 감소한다고 분석하였고, 강종구(2017)는 고령인구 비율의 추정 계수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서비스업에서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졌음.

○ 본 연구에서의 고령 경제활동인구 비중과 식품제조업 부가가치 간 양의 관계는 인구 고령화가 상품의 수요 경로를 통해 실물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가정하여 해석을 시도할 수 있음.

- 2000년대 초반 인구 고령화와 소득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식료품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이후 내수확대로 이어지면서 식품제조업 부가가치 상승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친 것으로 생각됨.
- 신관호·한치록(2016)은 가구주의 고령화 진전과 소득 증가에 따른 한국 가계의 소비 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주거 및 수도·광열, 보건 부문의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 고령화가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 대상(국가별, 산업별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세밀한 연구가 필요함.

○ 한편, phase III에 고령 경제활동인구 비중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총부가가치에서 제조업 비중이 줄어드는 동시에 식품제조업의 최근 생산 증대가 고령층에서 수요가 적은 업종 또는 품목(예,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일 수 있음. 예컨대, 가공식품은 상대적으로 고령층보다는 젊은 층에서 선호하는 품목임.
- 다만, 장기적으로는 고령인구의 증가는 식품제조업의 생산 품목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이윤경 외(2018)에 따르면, 향후에는 고령자와 비고령자 간 수요 품목의 차이로 인해 고령층이 선호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업종의 비중은 증가하고, 반대로 비선호 상품을 생산하는 업종의 비중은 감소함으로써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임.
- 따라서 고령친화식품, 메디푸드 등을 포함하는 케어푸드(care-food)와 같은 고령층이 선호하는 생산 품목을 파악하고, 관련 업종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다음으로, 자본투입 추정 계수는 phase I에 식품제조업 부가가치에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의 증가는 생산능력을 증대시켜 부가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과로 판단됨.
 - 다만, phase II와 phase III에 자본투입의 식품제조업 부가가치 성장 기여도는 음의 값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이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최근 10년 동안 정보기술의 발달, 산업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종업원의 역량이나 기술, 조직 효율성, 브랜드 가치 등 무형자산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 연구개발(R&D)스톡이나 무형 자산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양적 노동투입 추정 계수는 phase I과 phase II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졌음. 종속변수인 부가가치와 노동투입 변수가 모두 로그 변환된 값이기 때문에, 양적 노동투입이 1% 늘면 식품제조업 부가가치는 0.089~0.237%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또한, 대졸 이상 학력자 비중으로 측정한 질적 노동투입 계수는 phase I과 phase II에 유의한 양의 값을 가졌음. 따라서 해당 시점에는 상대적으로 질적 노동투입의 증가가 식품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음. 즉, 고학력자 비중이 1% 증가하면 식품제조업 부가가치는 0.009%~0.010% 증가한다고 유추할 수 있음.
 - 이는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노동투입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향후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동력의 고령화가 예상되므로 질적인 차원에서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방하남, 2010), 산업 성장에 있어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고급인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글로벌 경쟁 심화와 더불어 식품제조업과 IT 기술 간 융합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식품제조업 내 고급기술 소지 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저숙련자 및 유휴 인력은 지속적인 교육훈련투자를 통해 고급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질적인 노동투입지표를 세부 산업별로 추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제조업(대분류)의 고학력자 비중을 사용하였음. 따라서 질적 노동투입이 식품제조업 생산

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실제 식품제조업의 고효율자 비중 증가의 생산 효과는 통계 자료가 마련되는 대로 추후 연구를 통해 재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한편, 경기변동의 대리변수인 실업률 추정 계수는 모든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일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생산이 감소하게 되므로 음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었음. 그러나, 식료품은 생활필수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 분석 시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양의 값을 가질 가능성도 있음.

○ 마지막으로, 수출액 비중 추정 계수 또한 모든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식품제조업 수출은 지난 19년간 외형적으로는 빠르게 증대되어 왔으나, 식품제조업의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다소 약하다고 볼 수 있음.

- 구조변화 시점별 식품제조업 출하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96%(phase I), 7.90%(phase II), 7.82%(phase III) 순으로 큰 변화가 없었음.

- 최낙균·한진희(2012) 또한 무역이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산업별로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제조업 수출 비중과 부가가치 간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분석결과는 식품제조업의 제조업 내 역할 제고와 기술개발전략과 정책이 무역의 부가가치 증대와 연계되도록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함.

〈표 2-22〉 식품제조업 '생산' 구조변화 요인분석 결과(고정효과(FE) 패널): ln(부가가치)

종속변수: 식품제조업 세부업종별 부가가치(ln(VA))				
구분		Phase I (2002 - 2008)	Phase II (2009 - 2012)	Phase III (2013 - 2020)
인구요인	고령 경제활동 인구 비중	0.422 ** (0.161)	1.630 ** (0.626)	-0.562 (0.636)
	자본투입	0.302 *** (0.089)	-0.022 (0.121)	-0.026 (0.048)
산업요인	노동투입(양적)	0.237 *** (0.092)	0.089 *** (0.232)	0.195 (0.154)
	노동투입(질적)	0.009 *** (0.003)	0.010 * (0.006)	0.006 (0.004)
경기요인	실업률(경기변동)	0.006 (0.038)	-0.029 (0.043)	0.009 (0.020)
	수출액 비중	-0.011 (0.017)	0.003 (0.022)	-0.001 (0.038)
Constant			-0.271(0.164)	
F-statistics			4.230(0.000)	
R ² (within)			0.307	

주 1) N = 190, T = 19.

2)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하며, ()는 표준오차임.

○ 〈표 2-23〉에는 구조변화 시점별로 각 설명변수가 식품제조업 고용 구조 변화에 미친 영향을 추정된 결과가 제시되어 있음.

○ 먼저, 고령 경제활동인구 비중 추정 계수는 식품제조업 고용은 phase I과 II에는 양의 값을 가졌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phase III에는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남.

- Phase III에 고령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1% 증가할 때 식품제조업 종사자 수가 평균적으로 각각 -1.7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인구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를 감소시켜 노동공급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과임.
- 이는 우리나라 인구고령화가 양적인 측면에서의 노동공급규모를 감소시키고, 특히 고용 측면에서 제조업 비중은 줄이는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 분석 결과와 일치함(한국은행, 2017).
-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용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은퇴시기 연장,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 한편, 식품제조업은 첨단산업 대비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의 대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특징을 가지며, 식품제조업은 전체제조업 대비 상대적으로 단순 가공·생산직 수요가 높아 고령 친화적인 업종으로 볼 수 있음.

- 김관수 외(2021)에 따르면, 식품제조업은 여타 산업 대비 특히 여성 임시 및 일용직과 40~60세 인력 비중이 높은 편임.⁴²⁾

- 따라서, 저숙련 고령인력(특히, 고령 여성인력)에게 적합한 훈련과정을 설계하여 양질의 일자리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한다면 향후 고령인구의 증가가 오히려 식품제조업 고용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 고용 식에서 자본 투입 변수는 연말 기준의 유형자산 스톡(stock) 개념을 사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투자를 통해 축적한 자본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음. 자본스톡 추정 계수는 phase III에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품제조업에서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1% 증가하면, 종사자 수는 0.034%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기업이 설비투자를 확대해서 유형자산(자본량)이 증가하면 자본과 상호보완성이 있는 고용도 함께 증대할 가능성이 있음(박재곤 외, 2011; 심명규 외, 2017; 이민혁·김영준, 2019). 이러한 경우, 자본스톡과 고용은 보완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

- 반대로 공정 자동화나 기계설비 투자 확대는 생산 효율을 높여 고용을 감소시키는 대체효과도 가지고 있음. 다만, 식품제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자동차나 반도체 제조업 등 자본집약적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설비 확대와 고용 간 대체효과가 적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의 값은 합리적인 결과라고 판단됨.

○ 생산액 증가율 추정 계수는 phase II에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생산증가는 고용 창출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상과는 부합하지 않았음.

- 다만, phase II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포함하고 있어 생산증가와 고용이 음의 관계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음.

42)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및 광업·제조업조사는 연령별 종사자 수를 제공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실태조사를 통해 2009년부터 산업 중분류 수준에서 연령대 구분에 따른 종사자 수를 제공하고 있으나 과거 시계열 단절 등의 한계가 있어 '고령 여성 종사자'를 분석 변수로 활용하지 못했음.

○ 다음으로, 노동생산성 추정 계수는 phase I에는 음의 값을 가지고, phase II와 phase III에는 양의 값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생산증가를 통해 경제 성장을 유도하지만, 고용은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단기적으로 기술진보를 포함한 생산성 향상이 특히 미숙련노동의 자본으로의 대체를 유발할 수 있음(정진호, 2013).
- 다만, 생산성 향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대체효과 및 산출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되며, 분석 국가나 기간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음.
- 장인성(2012)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에서는 생산성 향상이 단기적으로 고용을 감소시켰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성 향상이 장단기적으로 모두 고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남. 반면,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는 기술진보에 따른 생산성 증가가 고용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고용 비중이 높은 서비스 산업에서는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 본 연구에서 수행한 노동생산성과 고용 간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기초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노동생산성과 식품제조업 고용 간 관계가 없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향후 보다 정교하게 모형을 구성하여 재분석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 추계한 전체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평균 노동생산성(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은 각각 106.63, 127.19로 식품제조업 노동생산성이 전체제조업 평균 대비 높은 편임.
- 노동생산성을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식료품 제조업은 91.82, 음료 제조업은 268.65로 나타나 음료제조업이 식품산업의 노동생산성 증대를 견인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노동생산성이 식품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으로 구분하거나 세부 업종별(세분류)로 고용 효과를 추정한다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음.

○ 1인당 임금 추정 계수는 phase I과 phase II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이론적으로는 임금이 오르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고용은 감소하게

됨. 특히,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노동 일자리의 임금수준을 보장하고 임금 격차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높아진 임금으로 인하여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초과노동 공급이 발생하고, 사회적 고용수준이 감소할 수 있음(최경수, 2018).

- 다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임금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 경제 상황, 고용 형태 및 고용 규모별로 상이하게 나타남(김태훈, 2019; 남종석·이근기, 2018; 유진성, 2020).

○ 노조가입률 추정 계수는 phase I과 phase III에 유의한 양의 값을 가져 예상과 부합하지 않았음. phase II에 음의 값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노용진(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은 기업의 경쟁력과 투자욕, 매출액 등을 떨어뜨리는 형태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그러나 노동조합이 노사 간 고충처리절차의 활성화, 근로자 사기 제고, 이직률 감소 등을 통해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 노동조합이 양의 고용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연구도 존재함(김인경, 2013; 유경준·강창희, 2013).
- 따라서, 노동조합 가입률은 고용 수요 측면에서는 음의 효과, 공급 측면에서는 양의 값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실업률 추정 계수는 phase I과 phase III에 음의 값을 가지고, phase II에는 양의 값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시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으면 기업 생산이 감소하고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노동수요 감소로 이어지게 됨.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식품제조업 고용이 전체제조업 대비 경기변동에 대한 영향을 적고, 덜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식품제조업 수출액 비중 추정 계수는 phase I과 phase III에 각각 0.187, 0.139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졌으며, 해당 시기에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고용이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음. Phase II에는 수출액 비중 추정 계수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해당 시기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포함하고 있어 노동 수요가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임.

- 식품제조업은 2000년대부터 라면, 쌀가공식품(예, 즉석밥, 떡볶이), 소스류 등 K-FOOD를 대표하는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으로 성장해 왔음.
- 다만, 김관수 외(2021)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19년 식품제조업 종사자 수 증가 기여율 상위 5개 업종은 설탕제조업(+48.4%), 도시락제조업(+28.5%), 음료제조업(+26.3%), 과채가공업(+25.8%), 육가공업(+19.7%) 등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기계화율이 높은 업종에 해당함. 따라서, 그동안 식품제조업 수출의 고용 창출은 자본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음.
- 황운중 외(2017)에 따르면, 기업 규모가 클수록 노동절약적(자본집약적)이며,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수출로 인한 고용 창출 능력이 대기업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자본집약적 대기업에 편중된 수출 증가로는 지속적인 고용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수출 관련한 정책적 지원은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표 2-23〉 식품제조업 ‘고용’ 구조변화 요인분석 결과(고정효과(FE) 패널): ln(종사자수)

종속변수: 식품제조업 세부업종별 종사자수($\ln(EMP)$)				
구분		Phase I (2002-2005)	Phase II (2006-2011)	Phase III (2012-2020)
인구요인	고령 경제활동 인구 비중	0.034 (0.337)	0.383 (0.621)	-1.720 *** (0.563)
	자본스톡	-0.026 (0.069)	0.009 (0.037)	0.034 * (0.019)
산업요인	생산액 증가율	0.150 (0.127)	-0.201 ** (0.098)	-0.023 (0.025)
	노동생산성	-0.017 (0.199)	0.078 (0.145)	0.063 (0.163)
	임금수준	-0.485 (0.626)	0.104 (0.119)	0.025 (0.042)
	노조가입률	0.078 ** (0.036)	-0.006 (0.023)	0.042 ** (0.017)
경기요인	실업률(경기변동)	-0.137 (0.096)	0.080 (0.055)	-0.015 (0.024)
	수출액 비중	0.187 * (0.111)	0.033 (0.023)	0.139 *** (0.041)
Constant			9.080(0.197)***	
F-statistics			5.750(0.000)	
R ² (within)			0.486	

주 1) N = 190, T = 10.

2)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하며, ()는 표준오차임.

4. 요약 및 결론

- 그동안 식품제조업 생산과 고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높지만 축적된 연구의 양은 많지 않았음. 본 절에서는 Bai & Perron(1998, 2003) 방법을 활용하여 지난 19년간(2002~2020년)의 식품제조업 생산 및 고용의 구조변화 여부와 시점을 추정하였음.
 - 생산 지표로는 부가가치, 고용 지표로는 종사자 수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의 생산과 고용구조 변화를 양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였음.

- 검정 결과, 식품제조업의 생산 구조변화 시점은 2008년, 2012년, 고용 구조변화는 2004년, 2005년, 2011년으로 나타났음.
 - 식품제조업 생산의 구조변화 시점은 각각 국민소득증대, 식품수요 증가 등에 따른 산업 태동기(Phase I)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산업 성장 초기(Phase II), 식품산업 본격 육성 및 식품제조업의 고성장기(Phase III) 등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또한, 고용 구조변화 시점은 각각 가계 신용카드 대출 부실사태의 영향으로 인한 고용 감소기(Phase I),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이후 내수 및 수출 기회 확대에 따른 고용 회복기(Phase II), 식품제조업의 고성장에 따른 고용 상승기(Phase III) 등으로 식별될 수 있음.

-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식품제조업과 전체제조업의 생산 및 고용 구조변화 간 차이를 살펴 보았음.
 - 먼저, 생산 측면에서 살펴보면 식품제조업과 전체제조업 모두 2000년대 초반 이후 부가가치가 지속해서 증가했으나, 전체제조업은 최근 10년간 성장세가 다소 둔화한 반면 식품제조업은 고성장을 이루어온 것으로 나타남.
 - 고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전체제조업 고용은 부가가치 증가에 따라 고용도 동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면 동(同)시기 식품제조업 고용은 신용카드 대란 등 외부 충격의 영향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대체로 횡보하였음.
 - 금융위기 이후에는 식품제조업과 전체제조업 모두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최근에

는 제조업의 부가가치 성장세가 둔화하여 과거만큼 산업 성장과 고용 순 창출이 동반되지 않는 경향이 있음. 반면, 식품제조업은 인구(가구)와 소비 변화에 따른 산업 성장에 따라 고용이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생산과 고용이 동반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인구요인, 산업요인, 기타 거시요인 등이 식품제조업 생산 및 고용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음. 고령 경제활동인구 비중, 자본투입, 양적 및 질적 노동 투입이 식품제조업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자본스톡, 노조가입률, 수출액 비중 등이 식품제조업 고용과 양의 관계를 가졌고, 고령 경제활동인구 비중, 생산액 증가율 등은 음의 관계를 가지는 요인으로 나타남(표 2-24).

- 인구 고령화(고령 경제활동인구 비중)의 생산 효과는 각각 phase I과 phase II에 식품제조업 부가가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고령 경제활동인구 비중과 부가가치 간 양의 관계는 인구 고령화와 소득 증가에 따라 식료품에 대한 수요 확대를 통해 부가가치 상승에 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생각됨.
-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식품제조업 고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인구 고령화가 양적인 측면에서의 노동 공급을 줄이고, 특히 고용 측면에서 제조업 비중은 줄어들고, 서비스업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함.
- 자본투입의 증가가 식품제조업 생산과 고용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식품제조업에서 자본스톡과 고용이 보완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는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의 증가가 생산능력을 증대시켜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결과임.
- 그러나, 반대로 공정 자동화나 기계설비 투자 확대는 생산 효율을 높여 고용을 감소시키는 대체효과도 가지고 있어 식품제조업에서 자본투입의 고용 효과는 세부업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됨.
- 또한, 양적 노동투입과 질적 노동투입의 증가는 식품제조업 생산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식품제조업 수출 비중이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지 않았고, 고용과는 phase I과 phase III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음. 이는 해당 시기에 식품제조업 수출이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함.

〈표 2-24〉 생산 및 고용 구조변화 요인 분석 결과 요약

구분	변수	변수명	생산	고용
인구요인	고령 경제활동인구 비중	<i>AGING</i>	+	-
산업요인	자본투입(flow)	<i>K</i>	+	
	자본투입(stock)	<i>S</i>		+
	생산액 증가율	<i>Q</i>		-
	노동투입(양적)	<i>L₁</i>	+	
	노동투입(질적)	<i>L₂</i>	+	
	노동생산성	<i>LPROD</i>		X
	임금수준	<i>W</i>		X
	노조가입률	<i>UNION</i>		+
기타요인	실업률(경기변동)	<i>UNEMP</i>	X	X
	수출액 비중	<i>EXPR</i>	X	+

주: 각 회귀식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는 'X' 표기함.

○ 향후 고령인구의 증가는 식품제조업의 생산 품목에 대한 변화를 가져와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고령친화식품, 메디푸드 등을 포함하는 케어푸드(care-food) 고령층이 선호하는 생산 품목을 파악하고, 관련 업종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1인 가구 증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여성의 노동참여율 증가 등 다양한 인구구조 변화 요인을 설명변수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용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은퇴시기 연장,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또한, 식품제조업은 첨단산업 대비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의 대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음. 따라서, 저숙련 고령인력(특히, 고령 여성인력)에게 적합한 훈련과정을 설계

하여 양질의 일자리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향후 고령인구의 증가가 오히려 식품제조업 고용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노동투입이 중요하며, 이는 식품제조업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고급인력 확보가 중요함을 의미함. 이를 위하여 저숙련자 및 유희인력이 지속적인 교육훈련투자를 통해 고급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향후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동력의 고령화가 예상되므로 질적인 차원에서 노동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음. 고급인력의 확보와 아울러 고령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교육훈련도 중요함.

- 이는 고용에 있어 투 트랙 전략을 의미함. 식품제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고급인력 확보와 같은 노동투입의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숙련, 고령노동의 확보와 같은 노동투입의 양적인 측면을 동시에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식품제조업은 2000년대부터 라면, 쌀가공식품(예, 즉석밥, 떡볶이), 소스류 등 K-FOOD 를 대표하는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으로 성장해 왔으나, 수출의 외형적인 성장에 비해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다소 약하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식품제조업은 수출과 부가가치 간 연계가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육성될 필요가 있음.

○ 고용 측면에서는 향후 수출 관련한 정책적 지원이 고용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본집약적 대기업보다는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식품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은 그동안 외형상으로 큰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세부 업종별로 격차는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식품제조업의 세부 업종 간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정책도 마련되어야 함.

- 예컨대, 밀키트(meal kit), 기능성 식품 등 최근 수요가 높은 품목이 주로 포함되어

있는 업종이나 펫푸드(pet food)가 포함된 동물성 사료제조업 등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생산 및 고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감소한 업종(예,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제조업)도 존재할 것임.

- 식품제조업 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해 산업 내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세부 업종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러한 관점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식품제조업 세부 업종별 분석을 통해 생산과 고용의 증가세가 둔화하는 또는 하락하는 산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수 있음.

참고문헌

- 김지옥, 2009. 서울의 지역경제지표들에 대한 다중구조변화 연구. 서울도시연구, 10(4): 65-80.
- 남종오·심성현, 2015. 신선 물오징어 소매가격 변동성의 구조변화와 비대칭성 검증. Ocean and Polar Research, 37(4): 357-368.
- 신동현·김동하·조하현, 2014. 구조변화를 고려한 우리나라 전력소비의 변동성 증가에 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 13(2): 131-169.
- 지성태·이현근·이수환·유정호, 2016. 「FTA 이행에 따른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789.
-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2021. 3. 4.) 「저출산 고령화 추이 국제비교와 시사점」.
-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 2020. 「2020 낙농경영실태조사」 보고서, 43-47.
- 홍민기, 2009. 경기변동과 성별 고용변화. 월간노동리뷰 2009(5): 60-69.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수산물 수출동향보고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 식품 등의 생산실적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연도.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농업전망 2016 : 급변하는 농업·농촌, 내일을 기획한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서울대학교. 2019. 「2019년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사업보고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서울대학교. 2020. 「2020년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사업보고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서울대학교. 2021. 「2021년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사업보고서」.
- 한국은행. 2014. 「산업연관분석해설」.
- 한국은행. 2019. 「2016년 산업연관표」.
- 한국은행. 2019. 「2017년 산업연관표」.
- 한국은행. 2020. 「2018년 산업연관표」.
- 한국은행. 2021. 「2019년 산업연관표」.
- 한국은행. 2022. 외감기업 경영분석 2022년 1~3분기.
- Bai, J. and Perron, P. 1998. "Estimating and testing linear models with multiple structure changes." *Econometrica*, 66: 47-78.
- Bai, J. and Perron, P. 2003. "Computation and analysis of multiple structural change models."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18(1): 1-22.
- Chow, G. C. 1960. "Tests of equality between sets of coefficients in two linear regressions." *Econometrica*, 28(3): 591-605.
- OECD iLibrary. Education at a Glance 2021-OECD Indicators. https://www.oecd-ilibrary.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2021_b35a14e5-en. (2021.09.20.)
- Parab, N., and Reddy, Y. V. 2020. "The dynamics of macroeconomic variables in Indian

stock market: a Bai-Perron approach.” *Macroeconomics and Finance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13(1): 89-113.

Weideman, J., Inglesi-Lotz, R., Van Heerden, J. 2017. “Structural breaks in renewable energy in South Africa: A Bai & Perron break test application.”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78: 945-954.

한국기업평가 데이터.

〈참고 웹사이트〉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https://unipass.customs.go.kr/ets/>〉.

국가통계포털 가계동향조사. 〈www.kosis.kr〉.

국가통계포털 광업제조업조사. 〈www.kosis.kr〉.

국가통계포털 광업제조업동향조사. 〈www.kosis.kr〉.

국가통계포털 경제총조사. 〈www.kosis.kr〉.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www.kosis.kr〉.

국가통계포털 국민계정. 〈www.kosis.kr〉.

국가통계포털 서비스업동향조사. 〈www.kosis.kr〉.

국가통계포털 사업체노동력조사. 〈www.kosis.kr〉.

국가통계포털 식품산업원료소비실태조사. 〈www.kosis.kr〉.

국가통계포털 식품산업경기동향조사. 〈www.kosis.kr〉.

국가통계포털 소비자물가조사. 〈www.kosis.kr〉.

국가통계포털 전국사업체조사. 〈www.kosis.kr〉.

국가통계포털 온라인쇼핑동향조사. 〈www.kosis.kr〉.

국가통계포털 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 〈www.kosis.kr〉.

글로벌데이터. 〈<https://www.globaldata.com/>〉.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유통정보. 〈www.kamis.or.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https://aglook.krei.re.kr/main>〉.

법무부. 〈<https://www.moj.go.kr/moj/index.do>〉.

CEPII DB. 〈www.cepii.fr〉.

Google Community Mobility Reports. 〈<https://support.google.com/>〉.

IHS MARKIT. 〈<https://global.ihs.com/>〉.

KATI 농식품수출정보. 〈<https://www.kati.net/index.do>〉.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UN Comtrade DB. 〈comtrade.un.org〉.

World Bank Open Data. 〈data.worldbank.org〉.